ŒUVRES COMPLÈTES DE VICTOR HUGO

ROMAN

LES TRAVAILLEURS
DE LA MER

I

바다의 노동자

빅토르 위고

망슈군도

(1) 태고의 홍수
(2) 게른제
(3) 게른제(계속)
(4) 초목
(5) 바다의 위험
(6) 바위
(7) 풍경과 대양의 어우러진 모습
(8) 생 피에르 포르
(9) 제르세,오르세,세르크
(10) 역사,전설,종교
(11) 오래된 동굴과 성인들의 은신처
(12) 기념물
(13) 각 지방의특성
(14) 군도 내의 문명과 위업
(15) 또 다른 특성
(16) 옛날 사람과 옛날 물건/관습과 법과 풍습
(17) 특성(계속)
(18) 극단의 양립
(19) 피난처
(20)
(21)
(22) 호모 에닥스
(23) 돌을 부수는 사람들의 힘
(24) 군도민의 친절

제1부 시외르 클뤼뱅

I 나쁜 평판

(1) 하얀눈 위에 쓴 이름
(2) 뷔드라뤼
(3) 너와 결혼할 네 신부를 위하여
(4) 좋지 않은 평판
(5) 질리아의 또 다른 수상한 면
(6) 팡스
(7) 악마가 사는집
(8) 셰즈 질돌르뮈르

II 메스 르티에리

(1) 파란 많은 생애, 그러나 평온한 양심
(2) 취향에 관하여
(3) 뱃사람들의 고어
(4) 사랑하므로 상처받기 쉬운 사람

III 뒤랑드와 데뤼세트

(1) 재잘거림과 연기
(2) 유토피아의 영원한 이야기
(3) 랑탠느
(4) 유토피아의 이야기(계속)
(5) 악마의 배
(6) 르티에리의 승리
(7) 같은 후견인, 같은 수호신
(8) 가곡 보니던디
(9) 랑탠느를 알아본 사람
(10) 어느 선원의 이야기
(11) 남편감에 대한 생각
(12) 르티에리의 성격에서 예외적인 것
(13) 무관심–또 다른 매력

IV 백파이프

(1) 오로라 또는 격정의 첫 붉은 빛
(2) 미지의 세계로 한걸음 한걸음 들어가기
(3) 가곡 보니던디가 언덕에 메아리치다
(4) 삼촌과 후견인,이 과묵한 호인들에게
(5) 정당한 성공은 언제나 시기를 받는다
(6) 샬루프선을 만난 난파당한 사람들의 행운
(7) 낚시꾼의 눈에 띤 이방인의 행운

V 연발권총

(1) 여인숙에서의 대화
(2) 클뤼뱅 ,누군가를 알아보다
(3) 클뤼뱅은 가져가고 다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4) 플랭몽
(5) 새 둥지를 터는 아이들
(6) 라 자크레사르드
(7) 밤의 구매자와 알 수 없는 판매자
(8) 연쇄충돌
(9) 기다리는 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온 유용한 정보

VI 술 취한 키잡이와 절제하는 선장

(1) 암초 두브르
(2) 뜻밖의 코냑
(3) 두서없는 이야기
(4) 클뤼뱅 선장의 진가가 발휘되는 곳
(5) 클뤼뱅 최고의 찬사를 받다
(6) 심연속으로 던져진 빛
(7) 예기치 못한 운명에 부딪치다
VII 경솔한 질문
(1) 구렁 속의 진주
(1) 서쪽 해안의 놀라운 소식
(2) 성서를 시험하지 말라

제2부　질리아 르 말랭

I　암초

(1) 어렵게 도착한 벗어나기 힘든 곳
(2) 재난의 전형
(3) 무사하지만 구할 수 없는
(4) 사전답사
(5) 자연 요소들의 비밀스런 공모에 관한 한 마디
(6) 말을 위한 마구간
(7) 여행객을 위한 방
(8) 불행을 예고하는 새들
(9) 암초,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
(10) 대장간
(11) 발견
(12) 바다 속 대 건축물의 내부
(13) 주시와 염탐

II　노동

(1) 전무 상태에서의 방책
(2) 셰익스피어와 아이스킬로스의 만남
(3) 르티에리의 걸작품을 위한 질리아의 완벽한구조 작업
(4) 물질의 억압
(5) 어둠 속에서
(6) 질리아, 팡스를 장착하다
(7) 돌발적 위험
(8) 완수된 과제, 그러나 끝이 아니다
(9) 순식간에 사라질 성공
(10) 바다의 경고
(11) 폭풍 전야의 귀기울임

III　투쟁

(1) 극한의 만남, 그리고 상극의 대비
(2) 대양의 바람
(3) 질리아가 들은 소리의 정체
(4) 군중과 무리
(5) 질리아의 선택
(6) 싸움

IV　장애의 이중 벽

(1) 굶주린 상대
(2) 괴물
(3) 심연 속의 또 다른 형태의 투쟁
(4) 폭로와 발견
(5) 죽음을 넘나드는 6인치와 20인치 사이의 간격
(6) 심연의 구렁
(7) 귀 기울인 미지의 세계

제3부　　데뤼세트

I　　밤과 달빛

(1)　항구의 종소리
(2)　다시 울리는 항구의 종소리

II　　괴로움 중에서의 감사

(1)　고통 속에서의 기쁨
(2)　가죽 가방

III　캐시미어의 출항

(1)　항구 아블레 근처의 교회
(2)　절망과 대면하여
(3)　미래를 내다 본 배려
(4)　당신의 신부를 위하여
(5)　거대한 무덤

제3부　　데뤼세트

I　　밤과 달빛

(1)　항구의 종소리
(2)　다시 울리는 항구의 종소리

II　　괴로움 중에서의 감사

(1)　고통 속에서의 기쁨
(2)　가죽 가방

III　캐시미어의 출항

(1)　항구 아블레 근처의 교회
(2)　절망과 대면하여
(3)　미래를 내다 본 배려
(4)　당신의 신부를 위하여
(5)　거대한 무덤

망슈군도

〈1〉
태고의 대홍수

대서양은 프랑스의 해안을 갉아먹는다. 극지방에서 밀려오는 해류의 압력은 서쪽 해안의 절벽을 변형시킨다. 바닷가의 절벽은 생 발레리 쉬르 솜므에서 앵구빌까지 패여 있다. 거대한 바위덩어리들이 부서져 내리고 바닷물은 구름처럼 하얀 조약돌을 굴리고 항구는 모래와 돌로 메워지고 강의 하구가 막힌다. 날마다 노르망디 땅의 한 자락이 떨어져 나가 파도 밑으로 사라진다. 이 경이로운 작업은 오늘날 그 속도가 느려지긴 했으나 과거에는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부벽, 브르타뉴 서쪽 말단의 피니스테르가 필요했다. 극지방으로부터 맹렬한 기세로 공격해 들어온 바닷물이 세르부르와 브레스트 사이의 육지를 얼마나 게걸스레 먹어치우는지 상상해 보라! 망슈의 만은 이렇게 프랑스 땅의 희생으로 이미 역사 이전에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대양이 프랑스 해안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공격을 가한 것은 709년, 샤를마뉴 대제의 즉위식보다 60년 앞선 때였다. 바다의 그 마지막 일격이 프랑스에서 제르세를 떼 내어 갔다. 제르세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침수된 육지의 다른 여러 정상도 보인다. 물 밖으로 불거져 나온 이들 정점은 여러 개의 섬이 되었

---

1) 망슈 군도는 이 소설의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게른제의 역사문화에 관한 개관임

고 이 섬들이 바로 노르망디 군도이다.

그곳에는 근면한 인간들이 오밀조밀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

일종의 파괴를 만들어 내는 바다의 작업을 하나의 민족을 만들어 내는 인간의 작업이 계승한 것이다.

〈2〉
게른제

남쪽에는 화강암, 북쪽에는 모래, 한 쪽은 급경사 또 한 쪽은 모래언덕. 구릉의 물결 따라 생긴 초원의 사면과 그 중간 중간 불거져 나온 바위들, 주름진 초록 양탄자의 가장자리에는 대양의 해포석, 해안을 따라 지면에는 줄지어 선 포대(砲臺), 여기저기 총안이 나 있는 망루, 낮은 해변에는 유일하게 두려운 존재인 파도의 공격과 모래의 침입을 받은 총안과 계단으로 잘린 육중한 흉벽, 폭풍우로 날개 잘린 풍차, 그 중 어떤 것은 발르에서, 빌르 오 루에서, 생 피에르 포르에서, 토르트발에서 지금도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 해안의 절벽 안에는 정박지, 언덕에는 가축 떼, 짐승을 몰며 열심히 제 몫을 하고 있는 양치기의 개와 소몰이꾼의 개, 움푹 패인 길을 능숙하게 건너뛰는 시내 상인들의 작은 짐수레, 비를 막기 위해 서쪽을 포장한 간간이 눈에 띄는 검은 집들, 수탉, 암탉, 퇴비더미, 여기저기에 거대한 벽, 불행히도 이제는 파괴되었지만 한때는 투박했던 바위덩어리와 튼튼한 기둥, 무거운 사슬로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던 옛 항구의 성벽들, 큰 나무들로 둘러싸인 농가, 들판 위에 기괴한 장기판을 그려놓은 듯 가슴높이 돌담으로 둘러싸인 밭들, 여기저기 엉겅퀴가 무성한 성벽, 화강암의 초가지붕 집, 윗부분을 움처럼 엄폐하여 만든 궁교포대, 포탄 방어막,

간혹 가장 원시적인 곳의 새로 지은 작은 건물 위에 종이 달려 있는 학교, 작은 목장 뒤편에 두세 개의 개울물, 느릅나무와 참나무, 그곳에만 있어 게른제 릴리라고 부르는 백합 한 그루, '농번기' 에는 여덟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 집집마다 둥글게 둘러친 돌담 위에 높이 얹힌 건초더미, 삐죽삐죽 가시가 돋은 가시양골담초 무더기, 이따금씩 나타나는 삼각형으로 다듬은 주목(朱木)과 회양목, 과수원과 채소밭이 로카유 양식의 화분과 어우러진 옛 프랑스풍의 정원, 농부들의 화원에 있는 화초들, 감자와 섞여 있는 만병초, 풀밭 위에 널린 갈색 해조류, 십자가 없는 무덤에서 달빛을 받으며 유령처럼 서 있는 비석들, 지평선 위로 솟은 열 개의 고딕 양식 종탑, 오래된 교회, 새로운 교리, 카톨릭 건축물 속에 살고 있는 프로테스탄트의 의식(儀式), 고인돌, 선돌, 긴 돌, 요정의 돌, 흔들리는 돌, 공명석, 회랑, 크롬렉[2] , 돌멘, 푸클래[3]… 모래사장과 갑(岬) 위에 갖가지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켈트족의 음산한 수수께끼들, 온갖 종류의 흔적들, 드루이드교[4]의 흔적 위에 남아 있는 카톨릭의 흔적, 카톨릭의 흔적 위에 남아 있는 프로테스탄트의 흔적; 미셸 아르샹쥬 성에 있는 루시퍼 갑 끝과 디카르의 이카루스 갑 끝에 있는 천상에서 떨어진 전락의 자국들, 여름, 겨울 가리지 않고 피어 있는 수많은 꽃들. 이것이 바로 게른제이다.

---

2) 환상열석,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 걸쳐 나타난 유적으로 거대한 입석(立石)을 원형으로 둘러 쌓은 것

3) 요정의 집

4) 로마 시대 켈트족의 이교(異教)승려 드루이드가 창시한 교파

〈3〉

게른제(계속)

비옥하고 기름지고 강한 땅. 이보다 더 좋은 목장은 어디에도 없다. 이곳의 밀은 유명하며 암소는 명성이 드높다. 생 피에르 뒤 부와 천연 목장의 아직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들은 콩폴랑 고원의 상을 받은 양에 버금간다. 프랑스와 영국의 농업공진회는 게른제의 전답과 목초지가 만들어내는 걸작품에 상을 내린다. 농업이 도로의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이며 잘 짜여진 교통망은 섬 전체를 활기차게 한다. 길은 매우 편리하다. 두 길의 갈림길의 땅바닥에는 십자가가 새겨진 평평한 돌이 보인다. 1284년 게른제의 법관명부에 기록된 초대 대법관 골티에 드 라 살르는 사법상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교수형에 처해졌다. 대법관의 십자가라 불리는 이 십자가는 그가 마지막으로 꿇어앉아 기도를 올린 곳을 표시하고 있다. 내포와 작은 만의 바다는 형형색색의 커다란 원추형 계류부표(繫留浮標)로 장식되어 있다. 빨강과 흰색의 바둑판무늬, 검정과 노랑의 이등분, 초록과 파랑, 주황, 마름모무늬, 얼룩무늬, 대리석 무늬 등이 수면 위를 떠다닌다. 곳곳에서 배를, 혹은 예선 밧줄을 끌어당기는 선원들의 단조로운 노래 소리가 들린다. 어부들 못지않게 농부들도 만족스런 표정이다. 정원사도 그렇다. 바위가루가 포화된 흙은 강하다. 진흙모래와 해조가 섞인 비료는 화강암에 소금기를 더해 준다. 그 흙에서 강한 생명력이 나온다. 수액은 경탄할 만한 노력으로 목련, 도금양, 월계수, 협죽도, 청수국, 수링초 등을 아름답게 꽃 피운다. 세 잎 마편초의 회랑도 있고 제라늄의 벽도 있다. 오렌지와 레몬은 야외에서 열매를 맺으나 포도는 온실에서 익어 탐스런 포도열매를 맺는다. 동백꽃은 나무에서 핀다. 어떤 정원에서는 집보다 키가 더 큰 알로에꽃을 볼 수 있다. 크고 작은 별장의 교태스러운 외관을

장식하고 치장하는 데는 이러한 식물보다 더 호사스럽고 볼만한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게른제의 한 쪽 면은 우아하지만 또 다른 한 쪽은 끔찍하기도 하다. 황폐한 서쪽은 난바다의 입김 아래에 있다. 그곳에는 둑을 이루는 암초, 돌풍, 배를 양륙(揚陸)하는 포구, 조각조각 기운 작은 배, 휴경지, 황야, 누옥(陋屋), 어쩌다 보이는 낮고 부서진 집들이 있는 작은 마을, 말라빠진 짐승 떼와 짧고 소금기 많은 풀, 가혹한 빈곤의 거대한 광경이 있다. 리우는 게른제 바로 옆에 있으며 간조 때면 건너갈 수 있는 무인도이다. 이 섬은 온통 가시덤불과 토끼 동굴 천지이다. 리우의 토끼는 시간을 알아 만조 때에만 제 굴에서 나와 인간을 비웃는다. 친구인 바닷물이 녀석들을 보호한다. 그들의 우애는 실로 자연스러운 것이다.

바종 만의 충적토를 파헤치면 나무들이 나온다. 불가사의할 정도로 두텁게 쌓인 모래 밑에는 숲이 있었던 것이다.

질풍의 서해에서 단련된 어부들은 능숙한 조종사가 된다. 망슈 군도 주변의 바다는 특별하다. 근처의 캉칼르 만은 세상에서 조수가 가장 높게 이는 곳이다.

〈4〉 초목

게른제의 초목은 특별한 종류는 아니지만 다른 어느 곳 보다 풍성하다. 게른제의 초원은 클뤼쥬나 제메노의 잔디와 흡사하다. 거기에는 새싹 속에서처럼 김의털아재비류와 포아풀, 불규칙한 바둑판무늬의 시노동과 하늘하늘 흩날리는 육절보리풀, 물레가락처럼 생긴 소수상화와 부드러운 참새귀리 속(屬), 카나리의 뱀풀, 초록빛의 겨이삭 속 풀, 가라지, 노랑

층층이 부채 꽃, 줄기에 털이 있는 수수새, 향이 좋은 향기풀, 파르르 떠는 은방울 꽃, 비금잔화, 꽃은 예쁘지만 매운 냄새가 나는 야생마늘, 큰조아재비, 이삭은 버섯모양이고 줄기로는 바구니를 만드는 둑새풀, 모래가 흩날리지 않도록 해 주는 갯보리가 있다. 이것이 전부일까? 아니다. 몸을 움츠린 듯한 모양의 꽃이 피는 오리새와 기장도 있고, 이곳의 농학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개솔새 속의 풀까지 있다. 민들레 잎처럼 생긴, 시간을 알려 주는 개보리뱅이류, 날씨를 예고해 주는 시베리아 방가지똥. 특별한 풀은 없지만 이 모든 풀들이 이렇듯 한데 모여 있는 모습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도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화강암이 심토를 이루고 대양이 물을 주어야 살 수 있는 풀이기 때문이다.

이제 수 천 가지 곤충을 수풀 속에도 풀어놓고, 수풀 위로도 날려보자. 못난 녀석도 귀여운 녀석도 있을 것이다. 풀 밑에는 긴뿔하늘소와 긴코하늘소, 바구미, 암소의 젖을 짜듯 진딧물의 꽁무니를 정신없이 빨아먹는 개미, 진물 메뚜기, 하느님의 벌레인 무당벌레와 악마의 벌레인 방아벌레가 숨어 있으며 풀잎과 공중에는 잠자리, 맵시벌, 말벌, 잔꽃무지, 벨벳처럼 부드러운 뒝벌 속(屬) 곤충, 풀 잠자리, 배가 빨간 말벌,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대모꽃등에의 무리가 산다. 몽상가의 기질을 가진 곤충학자와 과학자의 기질을 가진 시인만이 느낄법한 환상으로 가득한 광경을 우리는 유월 한낮의 제르부르와 페르맹 만의 산등성이에서 마주치게 되리라.

불현듯 부드러운 초록빛 잔디 사이로 '전쟁국(War Department)'을 의미하는 두 글자 W. D.가 새겨진 작고 네모난 타일을 볼 수 있다. 그렇다. 문명이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다. 문명이 아니었다면 이곳은 원시상태 그대로일 것이다. 랭의 기슭으로 가 보자.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가장 구석진 곳을 찾아보자. 어떤 면에서 그 풍경은 교황과도 같은 위엄을 지니고 있다. 하느님은 다른 어떤 곳보다 이곳에 있는 듯

하다. 은신처에 틀어박혀 산이 주는 지고의 고독과 숲이 주는 절대 고요를 벗 삼아 보자. 앙데르나크와 그 주변을 택하자. 그 어둡고 냉정한 라크 호수에 가보자. 알려지지 않은 만큼 신비에 가깝다. 고요하다기보다 장엄하다. 거기에서는 모든 생명이 종교적인 평온 속에 깃들어 있다. 아무것도 동요하지 않는다. 어디를 봐도 자연의 위대한 무질서라는 심오한 질서가 있다. 자연에 심취하여 이 인적 없는 곳을 거닐어 보자. 이 산책은 봄처럼 향락적이고 가을처럼 애조 어린 것이다.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보자. 무너진 수도원을 뒤로하고, 새들의 노래 소리와 나뭇잎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협곡의 심금을 울리는 평화에 잠겨보자. 손으로 샘물을 떠 마셔보자. 걸어보자. 명상에 잠겨보자. 잊어보자.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난다. 나무로 뒤덮인 작은 마을의 시작이다. 그 집은 푸르고 향기롭고 매혹적이며 온통 송악과 꽃으로 치장을 하고 아이들과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다. 그곳에 다가가 보자. 양지와 음지가 선명하게 갈린 오두막집의 구석, 낡은 벽의 오래된 돌 위에 *리데르브리지그*라는 마을 이름 아래로 *22후비대(後備隊) 2중대*라고 쓰인 글씨가 보인다.

마치 우리 자신이 군인이 되어 어떤 마을에 있는 듯싶을 것이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5〉
바다의 위험

오버폴[5], 즉 *카스쿠*는 게른제 서쪽 해안의 도처에 있다. 파도가 그것을

---

5) 바다 밑의 갑자기 깊어지는 곳

교묘하게 파 놓는다. 밤이면 언제나 수상쩍은 바위 끝에서 언뜻, 그러나 바다의 부랑아에게는 확실히 보이는, 기이한 빛이 우리에게 경고한다. 아니 우리 눈을 속이기도 한다. 대담하면서도 순진한 바다의 부랑아들은 바다 속에서 손에 불이 나지 않고서는 만질 수 없다는 바다의 성가신 쐐기풀, 전설 속의 해삼을 구별해 낼 정도다. 예를 들면 *탱타죄*(웨일즈어로는 *틴 타젤*)라는 지명은 악마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12세기의 앵글로 노르망디 시인, 바스라는 이름의 외스타슈는 오래된 시속에서 악마를 노래하고 있다.

그 때 바다는 술렁이며
파도는 높이 일고 요동치기 시작했네
그가 하늘을 검게 만들고 구름을 검게 만들자
바다도 온통 검게 물들었다네

망슈는 튜드리그[6]와 움브라펠, 검은 아몽뒤와, 켕페를레 근처의 그루와 섬으로 망명한 기사 에미르 뤼도[7]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반항의 섬으로 남아 있다. 이곳에서는 바다의 극적인 돌발사태를 경계해야만 한다. 채널 아일랜드 풍향계의 가장 빈번한 변덕 중 하나를 예로 들면 이러하다. 폭풍우가 남동쪽으로 불어간다. 고요가 찾아든다. 절대적인 고요다. 안도의 숨을 내쉰다. 이 고요한 상태는 한 시간이나 지속되기도 한다. 갑자기 남동쪽으로 사라진 폭풍우가 북서쪽에서 돌아온다. 종전에는 뒤에서 들이닥치던 것이 이번에는 앞에서 들이닥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역으로 부는 폭풍우이다. 만일 고참 조종사나 노련한 선원이 아니라

---

6) 6, 7세기경 겐트의 왕
7) 움브라펠과 아몽뒤의 아버지이자 6세기 상송 성자의 아버지

면, 만일 평온할 때만을 생각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동안 주의깊게 밧줄을 잡아 젖히지 않는다면 끝장이다. 배는 산산조각나고 침몰하고 만다. 브라질에서 세상을 떠난 리베롤르[8]는 게른제에 머무는 동안의 일을 기록했다. 그 중 한 장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다.

1월 1일. 새해선물. 폭풍우. 포르리외에서 온 배 한 척이 에스플라나드에서 어제 실종됨.

1월 2일. 로캔느에서 세 돛배가 실종됨. 미국에서 온 배였다. 7명 사망. 21명 구출.

1월 3일. 우편선이 오지 않았다.

1월 4일. 폭풍우가 계속되고 있다…

1월 14일. 비. 낙반. 1명 사망.

1월 15일. 거친 날씨. 폰호가 출항 못함.

1월 22일. 돌풍. 서쪽 해안에서 다섯 척이 난파당함.

1월 24일. 폭풍우가 지속되고 있다. 사방에서 난파당함.

이 대양의 구석에는 휴식이란 거의 없다. 그런 까닭에 불안해하던 고대 시인 리우아르헨에 의하면 바다의 예레미야, 갈매기의 외침소리가 끝없는 질풍 속에서 수세기를 걸쳐 울려 퍼진다. 그러나 군도를 항해하는데 있어서 거친 날씨만이 가장 큰 위험은 아니다. 돌풍은 거세고 그 맹렬함은 경고가 된다. 배는 다시 항구로 돌아오거나 돛의 중심을 아래쪽으로 옮기면서 감속 운행한다. 바람의 힘이 강해지면 돛줄임줄을 완전히 졸라매고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곳의 큰 위험들은 언제나

---

8) 프랑스의 기자이자 정치가로서 1849년부터 영국으로 망명함. 유배중인 위고와 친분을 나누었음

존재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며 날씨가 맑으면 맑을수록 더욱더 치명적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특별한 조종기술이 필요하다. 게른제 서쪽의 선원들은 예방조치라 말할 수 있는 이런 종류의 조종기술에 남다른 재주가 있다. 그들은 잠잠한 바다의 세 가지 위험을 *생쥬, 아뉘블르, 데뤼블르* 라고 배우기 때문이다. *생쥬*(또는 *스윙즈*)는 해류를 말하며 *아뉘블르*(어두운 곳)는 여울을, *데뤼블르*(두려운 이라는 뜻의 *데리블르* 라고 발음한다)는 소용돌이, 갑자기 움푹 패인 곳, 바닷물 속에 숨은 깔때기 모양의 바위, 바다 속 우물 등을 일컫는다.

〈6〉
바위

망슈 군도의 해안은 거의 어디나 원시 상태 그대로이다. 겉모습은 험하고 거칠지만 그 속은 아름답다. 망슈는 일종의 지중해이므로 파도의 간격이 짧고 거세며 물결은 쉴 새 없이 철썩거린다. 이로 인해 절벽에서는 기이한 망치소리가 나며 해안에서는 깊은 침식이 일어난다. 이 해안을 따라가는 사람은 일련의 신기루를 거쳐 지나게 된다. 바위덩어리는 매순간 당신을 속이려 든다. 환상들은 어디로 숨으려 할까? 화강암 속이다. 이보다 기묘할 수는 없다. 숨쉬기 위해 물 속에서 나온 거대한 돌 두꺼비들이 거기에 있다. 수평선 쪽으로 몸을 굽힌 거인 수녀들이 발걸음을 재촉한다. 머리쓰개의 주름은 바람의 자취이다. 플루톤의 화관을 쓴 왕들은 예외 없이 해포석으로 된 육중한 왕좌에서 명상에 잠겨 있다. 바위 속에 숨은 존재는 모두 밖으로 팔을 뻗치고 있다. 벌린 손의 손가락이 보인다. 이 모든

것은 미완의 해안이다. 다가가 보라. 아무 것도 아니다. 돌이 자취를 감춘다. 요새가 된다. 마멸된 사원이 된다. 황폐한 도시의 애끊는 슬픔, 파괴된 오막살이와 벽들의 카오스가 된다. 그러나 도시도 사원도 요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절벽일 뿐이다. 사람들이 다가갈 때마다, 멀어질 때마다, 방향을 바꿀 때마다, 몸을 틀 때마다 해안은 모습을 바꾼다. 어떤 만화경도 이보다 더 빨리 붕괴되지는 않는다. 여러 가지 모습은 붕괴되고 다시 형성된다. 원근법이 늘 그렇듯 장난을 친다. 이 바위덩어리가 삼각 테이블이 되기도 하고, 사자가 되기도 하고, 다시 천사가 되어 날개를 펴는가 하면 이내 책상에 앉아 책을 읽는 형상으로 변한다. 구름보다 더 변화무쌍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위들이리라.

이러한 바위의 형상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름답다기보다 장엄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와는 거리가 멀다. 때때로 바위들은 병약해 보이기도 하고 흉물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바위에는 툭 불거진 마디, 종기, 낭종, 반상출혈, 혹, 무사마귀 같은 것이 돋아나 있다. 산은 땅의 혹이다. 마담 드 스탈[9]은 다소 거만했던 샤토브리앙[10]이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알프스가 싫다고 헐뜯는 소리를 듣고 꼽추를 질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자연의 거대한 윤곽과 위용, 해수면, 산맥의 실루엣, 어두컴컴한 숲, 푸른 하늘은 조화 속에서 뒤섞여 있는 거대하고 신비스러운 변위(變位)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아름다운 것에는 아름다움의 윤곽이 있고 추한 것에는 또한 그 나름의 윤곽이 있다. 미소가 있는가 하면 쓴 웃음이 있다. 큰 구름이 풍해(風解)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바위에도 일어난다. 큰 구름은 둥실둥실 떠다니다 분해 된다. 그것은 복원력은 있지만 통일성

---

9) (1766~1817) 프랑스계 스위스의 작가, 정치선전가, 사교계의 좌담가
10) (1768-1848) 낭만파의 선구적 작가, 정치가

은 없다. 창조에는 카오스의 불안한 찌꺼기가 있다. 찬란함은 흉터를 갖고 있다. 때로는 놀랄 만큼 추한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들 속에 섞여 들어가 질서에 항의하는 것 같기도 하다. 구름 속에는 찌푸린 주름이 있다. 하늘의 그로테스크가 있다. 모든 윤곽은 물결 속에서, 잎이 우거진 나뭇가지 속에서, 바위 속에서 부서지고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패러디가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낸다. 미완이 그곳을 지배한다. 어떤 윤곽도 거기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거대하지만 순수하지 않다. 구름을 살펴보라. 그 속에는 모든 종류의 얼굴이 그려진다. 온갖 비슷한 모습들이 거기에 나타난다. 모든 종류의 형상이 그 속에서 밑그림 그려진다. 구름 속에서 그리스인의 옆모습을 찾아보라. 그 속에서는 비너스가 아닌 반수인(半獸人) 노예 칼리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파르테논 신전은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땅거미가 질 무렵 큰 구름의 문설주에 놓인, 안개 벽돌로 둘러싸인 커다란 화판이 황혼녘의 납빛 하늘에 거대한 괴물 같은 크롬렉을 희미하게 그릴 때는 있을 것이다.

〈7〉
풍경과 대양의 어우러진 모습

게른제의 농가들은 역사를 담고 있다. 수레가 드나드는 문과 보행자용 입구가 나란히 뚫려 있는 무대와 같은 긴 벽을 끼고 농가들이 늘어서 있다. 긴 세월은 문설주와 아치형의 문틀에 구멍을 파 놓았고, 거기에서 토틀라는 포자를 발아시킨다. 잠자는 박쥐들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우거진 나무 아래의 작은 마을은 다 허물어져 가지만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초가집들은 성당처럼 노쇠했고, 위비스 거리에 있는 석조 오두막집

벽에는 1405라는 연대가 새겨져 있다. 발모랄 쪽의 또 다른 집은 스페인 북동쪽의 바스크 지방 에르나니와 아스티가라가에 있는 농가들처럼 가문(家紋)을 새긴 큰 돌을 집 앞에 놓아두고 있다. 한걸음 한걸음 옮길 때마다 마름모무늬가 그려진 십자형 창틀이며 망루(望樓) 계단, 르네상스 양식의 아치형 문틀이 있는 농가와 마주치게 된다. 집집마다 문 앞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발판이 놓여 있다. 어떤 오두막들은 배를 가져다 지었다. 뒤집혀진 말뚝과 빗장에 걸쳐 있는 선체, 그것이 지붕이다. 화물창을 위로 둔 큰 배는 교회이며, 둥근 천장을 아래로 향하게 한 것은 배이다. 교회는 뒤집혀서 바다를 잠잠하게 한다. 메마른 웨스트 소교구 황무지 한복판, 흰색 돌의 작은 돔과 함께 서 있는 공동 우물은 회교 사원과 비슷하다. 구멍 난 대들보와 주춧돌은 밭의 생울타리와 이어져 입구가 된다. 밤의 요정과 전설 속의 유령 오크리니에들이 말을 타는 모습이 새겨진 기둥의 흔적이 보인다.

협곡의 사면에는 고사리와 메꽃, 들장미, 호랑가시나무, 아가위나무, 스코틀랜드 딱총나무, 길고 주름진 끈이 앙리4세의 깃 장식으로 씌었다는 쥐똥나무가 뒤죽박죽 섞여 자라고 있다. 풀밭에는 식물학 도감에서 우아하고 점잖게 *바늘꽃과*라고 표현하는, 암탕나귀가 좋아하는 얇은 깍지의 분홍 바늘꽃이 급속도로 퍼져 자라난다. 어디에나 잡목이 우거진 총림, 소사나무의 묘목, 온갖 종류의 야생식물, 녹음이 있고 그 안에 기는 종(種)의 위협을 받는 나는 종이 지저귄다. 그들은 티티새, 홍방울새, 울새, 어치류의 새, 날개를 치며 급히 날아다니는 아르덴의 꾀꼬리, 나선형으로 무리지어 이동하는 찌르레기 떼, 장박새, 방울새, 붉은 발 까마귀 등이다. 여기저기에 독을 지니지 않은 뱀도 있다.

작은 폭포수는 물방울이 튀어도 못 본 체하는 벌레 먹은 나무 날개로 떨어져 풍차를 돌리고, 날개 밑에서는 물 듣는 소리가 들린다. 몇몇 농가

의 안뜰 가운데에는 아직도 능금주 짜는 기계와 능금을 갈기 위해 바퀴를 굴리던 원형 돌 통이 있다. 가축들은 석관의 여물통에 물을 먹는다. 분명 옛 켈트족의 이름 모를 왕이 잠들었을 이 화강암의 관에서 이제는 주노[11]의 눈을 한 암소가 평화롭게 물을 먹고 있는 것이다. 나무 발바리와 할미새는 사랑스럽고 친근하게 다가와 암탉의 모이를 약탈해 가 버린다. 바닷가의 모든 것은 갈색 빛을 띠고 있다. 태양이 말린 풀을 바람이 날려 보낸다. 어떤 교회들은 종탑까지 온통 담쟁이덩굴의 갑옷을 입고 있다. 항구가 없어서 육지로 양륙된 배들은 커다란 돌을 의지하고 있다. 수평선 멀리 보이는 배의 돛은 흰색이라기보다 황토색이나 연어빛에 가깝다. 비와 삭풍을 견뎌내야 하는 돌과 나무들은 촘촘한 이끼 옷을 입고 있다. 가끔씩 부리에 은빛 물고기를 물고 지나가는 바닷새와 나뭇가지들의 속삭임과 한숨, 살랑거리는 소리가 있다. 계절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수많은 나비가 있으며 바위에 부딪쳐 울려 퍼지는 온갖 종류의 술렁임이 있다. 말들은 휴경지를 쏘다닌다. 웅크렸다가 뛰어오르고 멈춰 서기도 하면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갈기를 휘날려 화려한 향연을 베풀며 끝없이 밀려와 허공으로 사라지는 파도를 바라본다.

5월의 바닷가 농촌 낡은 석조 건물은 비단향꽃무우의 꽃으로 뒤덮이고 6월의 성벽은 백합으로 뒤덮인다. 포열은 사구 속으로 무너져 내리고 어부들의 그물은 포안에서 마른다. 방비를 철거한 토치카 안에서는 방목중인 당나귀와 말뚝에 매인 암염소가 스페인 잔디와 파란 엉겅퀴의 새싹을 뜯어먹는다. 반라(半裸)의 아이들이 웃고 있다. 오솔길에는 아이들이 돌차기 놀이를 위해 그려놓은 선이 보인다. 태양이 찬란하게 수평선 너머로 저무는 저녁, 암송아지들은 이쪽저쪽으로 생울타리를 물어뜯으며 늑장

---

11) (로마신화)주피터의 아내, 그리스 신화의 헤라

을 부리고 양치기 개는 늦은 귀가 길을 재촉하며 짖어댄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웨스트의 갑(岬)들은 넘실대며 바닷물 속으로 침몰하고, 몇 안 되는 타마린드의 푸른 열매가 바다의 물결에 부들부들 떤다. 황혼녘의 해는 거대한 벽들을 비껴 지나가며 산마루에 검은 레이스 자락을 드리운다. 고요 속에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아득히 먼 곳으로부터 감동을 전해준다.

〈8〉
생 피에르 포르

게른제의 수도 생 피에르 포르의 집들은 생 말로에서 들여온 조각을 한 나무로 건축되었다. 그랑뤼에는 아직도 16세기 스타일의 석조 가옥 한 채가 남아 아름다운 자태를 과시하고 있다. 생 피에르 포르는 자유항이다. 이 마을은 '옛 항구' 주변에 마치 거인의 손으로 밀어붙여진 양 주렁주렁 붙어있는 언덕과 골짜기가 매력적인 굴곡을 이루는 구릉위에 세워져있다. 골짜기는 길이 되고 비탈에 난 계단은 지름길을 이룬다. 앵글로 노르망디의 튼튼한 수레들이 가파른 길을 빠르게 오르내린다. 큰 광장의 포석 위에는 노천시장의 여인네들이 난데없는 겨울 소나기를 만나 덜덜 떨고 있다. 그 바로 옆에는 청동상[12]이 의기양양하게 서 있다. 한 해 동안의 강수량은 제르세가 1피트[13]이며, 게른제가 10.5인치이다. 생선장수들은 야

---

12) 빅토리아 여왕 부군 알버트(Albert)의 동상, 1863년에 건립, 위고는 이와 관련하여 "이 섬에 필요한 것은 동상이 아니라 가여운 노점상 여인들을 위한 실내시장이다"라고 말했다

13) 12인치

채장수들보다 사정이 낫다. 어시장은 지붕이 있는 넓은 도매시장으로서 놀라울 만큼 풍부한 게른제의 생선들이 대리석 진열대 위에 펼쳐져 있다. 이곳에는 공공 도서관은 없고 문화단체와 문학 서클이 있으며 대학이 하나 있다.

마을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교회를 짓고, 완성되면 '고문(顧問)귀족' 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아무개가 만든 이러저러한 교회의 것이라고 써 붙인 고딕양식의 창문 재료를 실은 마차가 거리를 지나가는 것이 자주 눈에 띈다. 법원이 있고 자줏빛 법복을 입은 판사들이 큰 목소리로 형을 언도한다. 18세기의 푸주한들은 사법관의 허가 없이는 양고기나 소고기를 팔 수 없었다. 많은 작은 '예배당' 들이 공식적인 교회에 대항한다. 이런 교회에서는 네스토리우스교에서 주장하는 예수의 신성과 인간성의 차이를 설파한다. 아일랜드 카톨릭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때로는 신학상의 논쟁이 카톨릭 정통파의 주먹다짐으로 끝나기도 한다. 일요일의 안식은 법으로 정해져있다.

일요일에는 맥주를 한 잔이라도 마실 수 없다. 만일 누군가가 이 '성스러운 안식일' 에 술을 마시고 싶어한다면 그는 하이 거리에서 흰 맥주와 능금주를 파는 아모스 시크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몽디유*(my God)라는 말 대신에 *몽봉*(my Good)을 사용한다. Good이 God를 대신한 것이다. 기숙학교의 젊은 프랑스 어사감은 "아, 몽디유" 라고 말하면서 떨어진 가위를 주웠다고 '신성 모독 죄' 로 해고당하기도 했다. 이곳 사람들은 복음주의자라기보다 성서주의자다.

극장도 있다. 황량한 거리로 향하는 사생(私生)의 문, 그것이 극장의 입구이다. 내부는 건초저장소를 위해 채택된 건축 스타일과 비슷하다. 사탄은 화려하지 않으며 허름한 이 집에 살고 있다. 극장은 사탄의 또 다른 집인 감옥과 마주보고 있다. 북쪽 언덕 케슬 케리 (어법상의 오류, 케리 케슬

이라해야 맞음)[14]에는 대부분 스페인에서 들여온 값진 회화 작품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곳을 대중이 공유했더라면 박물관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몇몇 귀족의 저택들에는 사르담에 있는 러시아의 황제 피요트르의 벽난로를 장식하기도 한 네덜란드의 색타일 장식과, 포르투갈에서는 *아줄레요*스라고 부르는 찬란하고 신비스런 도기 벽지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 연금술의 산물들은 라잘 박사 같은 선도자와 프르미에르[15]같은 도기 공장, 데크와 드베르[16]같은 도기 제조공 덕분에 오늘날 부활하여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사랑을 받고 있다.

제르세의 앙텡은 루주 뷔용이며 게른제의 생제르멩[17]은 로에 이다. 이곳의 거리들은 정원과 이어져 있다. 생 피에르 포르에는 수 많은 나무들과 새둥지가 있어 마차의 소음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파묻힐 정도이다. 하얗고 깨끗한 로에 거리는 런던의 품위 있는 구역의 귀족적인 외관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협곡을 건너고 밀 거리를 뛰어넘어, 두 개의 높은 집들 사이로 뚫린 골목으로 파고 들어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좁고 꼬불꼬불하고 울퉁불퉁한 계단을 올라가면 베두인의 마을에 다다르게 된다. 오두막집, 웅덩이, 포장되지 않은 좁은 골목길, 타 버린 뾰족지붕, 무너진 집, 대들보가 내려앉고 창문도 문도 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방들, 발가벗은 사내아이들과 창백한 아낙네들이 사는 누추한 집, 여기가 바로 자아챠[18]가 아닌가! 생 피에르 포르에서는 시계 만드는 사람은 몽트리에, 경매인

---

14) Castle Carey 가 아니라 Carey Castle 라고 해야 어법에 맞다는 저자(위고)의 표기

15) 프랑스 디종 근처의 마을. 19세기에 도기예술이 부활한 곳

16) 1862년 위고는 드베르에게서 벽난로를 구입했다. 청색 도기 타일장식을 무척 좋아했던 위고는 이것으로 게른제에 있는 그의 별장 오트빌 하우스의 부엌과 전망대를 장식하기도 했다

17) 앙텡과 더불어 파리 상류사회의 중심구역

18) Zaatcha: 알제리의 도시 비스카라 근처의 오아시스, 1849년 프랑스 군대에 의한 학살이 자행된 곳

은 엉캉퇴르, 칠장이는 픽튀리에, 미장이는 플라트뢰르, 발 치료사는 쉬로포디스트, 요리사는 쿠크, 문을 두드린다는 타프아뤼라고 말한다. 아낙네들은 시장이나 상점에서 구입한 시시한 잡화류를 되팔기 위해 가가호호를 방문한다. 이렇게 방문해서 파는 것을 쉬네라고 한다. 매우 가난한 이 행상인들은 하루 종일 겨우 몇 두불[19]을 벌기 위해 고생을 한다.

6월이면 요트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정박지는 유람선으로 가득 찬다. 대부분은 둘 내지 네 개의 돛을 장식한 스쿠너 범선이지만 간혹 증기선도 눈에 띈다. 이 배들의 임대료는 한 달에 10만 프랑씩이다. 크리켓이 유행하고 권투는 인기를 잃어가고 있으며 금주회(禁酒會)가 번성하고 있다. 금주회는 단기를 든 프리메이슨단과 흡사한 모습으로 행진을 하는데, 술집주인 조차 고대하는 구경거리다.

이곳 사람들은 건전하고 잘 생겼으며 선량하다. 그래서 감옥은 늘 비어 있다. 크리스마스 때에 수감자가 있으면 간수는 간소하게나마 잔치를 베풀어준다. 이곳의 건축물은 매우 환상적이다. 생 피에르 포르는 여왕과 성서에 충성하고 내리닫이 창을 매우 좋아한다. 여름에 남자들은 알몸으로 수영한다. 수영 팬츠는 두드러지게 강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외설적이라 여겨진다.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옷을 정성스럽게 입힌다. 앙증맞게 고안된 이 다채로운 작은 천 조각보다 귀여운 것은 없다. 아이들만이 걸어다니며, 사람을 감동시키는 부드러운 속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다. 아이들은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다니기도 한다. 유행에 관한 한 게른제는 파리의 복사판이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가끔씩 빨강이나 파랑 같은 원색이 유행하는 것은 이곳이 영국 땅이란 것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곳의 여성복 상인은 우아한 현지 여성들에게 쪽빛이나 진홍색은 피하

---

19) 6분의 1수(sou)에 해당하는 옛날 동전, 1수=5상팀, 1상팀=100분의 1프랑

라고 조언을 해 주면서 섬세한 비평까지도 잊지 않는다. "무엇보다 여성스러운 색은 아름다운 암자색이랍니다."

게른제의 선박 건조술은 그 명성이 드높아 언제나 수리중인 큰 배들로 가득하다. 수리공들은 플루트 소리에 맞추어 선박을 육지로 끌어올린다. 선박 전문가들은 플루트 연주자의 일이 수선공들의 일보다 더 힘들다고 말한다. 생 피에르 포르의 폴레는 프랑스의 디에프와 같으며, 생 피에르 포르의 스트랑은 영국의 런던과 같다. 사교계의 인사들은 책을 들고 거리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토요일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나타난다. 왕실 가족이 이 도시에 올 때는 1846년 빅토리아 여왕의 방문을 기념해서 세운 빅토리아 탑을 구실로 삼는다. 사람들이 죽으면 도시의 묘지에 매장을 한다. 콜레쥬 거리를 따라 양쪽으로 나란히 공동묘지가 있다. 1610년 2월의 무덤도 이 공동묘지의 일부가 되었다. 리브뢰즈는 파리의 샹젤리제 일대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구역과 견줄 만하다. 잔디와 나무, 거기에 바닷물까지 어우러진 아름다운 광장이다. 아케이드라는 우아한 상점의 진열창에서는 여러 광고지를 볼 수 있다. '포병 제 6연대가 추천한 향수 팝니다.'

도시의 이곳저곳을 맥주 통이나 석탄 주머니를 가득 실은 짐마차가 지나간다. 여기저기 또 다른 안내문이 산책길을 장식하고 있다. '멋진 토로선[20] 대여해 드립니다.' '씹는담배, 탄환, 유리, 동물 뼈를 최고가로 매입합니다.' '최상품 햇감자 팝니다.' '완두콩 섬, 귀리, 영국 스타일 거실용 문 세트, 몽 플래지르의 농가를 돼지와 함께 팝니다. (생자크)' '최근 지은 튼튼한 집, 당근(100개 묶음), 분무기계 팝니다. 물랭드레셀로 문의하세요.(생탕드레)' '생선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젖 짤 수 있는 암염소 등을 팝니다.' 등.

---

20) 도버해협의 대형 범선

〈9〉
제르세, 오리니, 세르크

망슈의 섬들은 바다 속으로 떨어져나간 프랑스의 조각들을 영국이 주워 모은 것이다. 그래서 이 섬들은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제르세와 게른제 사람들은 애써 무시하려 들겠지만 이들은 사실 영국인이 아니라 프랑스인이다. 그것은 그들이 불어를 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군도는 오르타슈, 레 카스케, 에름, 제트우 등의 작은 섬들과 네 개의 주요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제르세와 게른제는 큰 섬이고 오리니와 세르크는 작은 섬이다. 옛 갈리아 지방에서는 작은 섬과 암초를 일컬어 우(Hou)라 하였는데 오리니에는 뷔르우(Bur-Hou), 세르크에는 브레크우(Brecq-Hou), 게른제에는 리우(Li-Hou), 제르세에는 레 제크레우(les Ecré-Hou), 그랑빌에는 피르우(Pir-Hou)가 있다. 또한 우그(Hougue), 우그비(Hougue-bye), 우그데포미에(Hougue des Pommiers), 우메(Houmets) 등의 갑(岬) 이름들과 더불어 고대 언어의 이 주목할 만한 어근 우(hou)가 들어 있는 단어는 많이 있다 (houle; 파동, huée; 함성, hure; 멧돼지의 머리, hourque; 네덜란드의 화물선, houre; 교수대의 고어, houx; 호랑가시나무, houperon; 상어, hurlement; 울부짖음, hulotte; 올빼미, chouette; 올빼미 등). 그것은 끝없음을 나타내는 라틴어 unda (*운다*)와 unde(*운데*)에서 그리고 의문을 표현하는 두 낱말 ou (또는)과 où(*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르크는 오리니의 2분의 1, 오리니는 게른제의 4분의 1, 게른제는 제르세의 3분의 2 크기이다. 제르세 섬 전체는 정확히 런던과 같은 크기이다. 제르세를 2,700개 합하면 프랑스가 된다. 명성있는 임상 농학자 사라생은 프랑스를 제르세처럼 경작했더라면 2억 7천만 유럽 전체를 먹여 살

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 섬 중에서 가장 작은 세르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제르세는 가장 귀여우며, 이 두 섬의 특징을 모두 갖는 게른제는 원시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세르크에는 생산성이 낮아 개발되지 않은 은광도 있다. 제르세의 인구는 5만 6천이고, 게른제는 3만, 오리니는 4천 5백, 세르크는 6백, 리우는 단 한 명이다. 오리니에서 게른제, 다시 게른제에서 제르세까지의 총 거리는 약 28킬로미터이다. 게른제와 에름 사이의 내포(內浦)는 작은 뤼오, 에름과 세르크 사이의 내포는 큰 뤼오라고 부른다. 이들 섬과 가장 가까운 프랑스의 갑(岬)은 플라망빌로, 게른제에서는 셰르부르[21]에서 쏘는 대포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셰르부르에서는 게른제에서 울리는 천둥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깝다. 앞서 말한 바 있듯이 망슈 군도의 뇌우는 끔찍할 정도이다. 이 군도는 바람의 지대이다. 각각의 섬 사이에는 송풍기 역할을 하는 회랑지대가 있어 바다에는 불리하게, 육지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바람은 독기(毒氣)를 실어 가고 난파선을 실어온다. 이러한 회랑지대는 아일랜드 해협에도 있다. 제르세와 게른제에 콜레라가 퍼진 일이 있었다. 중세 게른제에는 지독한 전염병이 돌아, 그 병균을 없애기 위해 사료관(史料官)까지 불태운 일도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이 섬들을 기꺼이 *영국 섬*들이라 부르고 영국에서는 *노르망디 섬*들이라 부른다. 망슈의 섬들은 화폐를 주조한다. 노르망디의 쿠탕스에서 제르세에 이르는 로마의 길은 아직도 눈에 보이는 듯하다. 이미 말했듯이 바다가 프랑스에서 제르세를 앗아간 것은 709년의 일이다. 바다는 열두 개의 소교구를 삼켜 버렸다. 그들의 신성한 권리가 물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을 애도하듯 노르망디에 살고 있는 가족들은 그곳의 영주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 우연의 힘은 이렇게 신성한 권리조차 침범

21) 플라망빌 갑이 있는 프랑스의 최북단 도시

할 수 있는 것이다.

〈10〉
역사, 전설, 종교

게른제의 여섯 소교구는 단 한 명의 영주 코탕탱의 자작 네엘에게 소속되어 있었고, 그는 1047년 듄 전투에서 패했다. 뒤마레스크에 따르면, 그 당시 망슈 군도의 섬 중에는 화산이 하나 있었다고 한다. 제르세의 열두 개 소교구에서 일어난 사건은 쿠탕스 성당의 리브르 느와르에 기록되어 있다. 브리크벡 경은 게른제의 제후라고 자처했으며 오리니는 앙리 라르티장의 영지였다. 제르세는 세자르와 롤로라는 두 도둑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다. *아로*[22]라는 말은 *작센*(saxon)의 *하란*(haran)이라는 말에서 유래했거나, 공작에게 외치는 말(아! 롤로! Ha! Rollo!)에서 유래했다. *아로!* 의 외침은 무릎을 꿇었을 때와 큰길에서, 또 정의가 실현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 번에 걸쳐 반복된다. 노르망디의 첫 번째 공작은 롤로이며, 그 이전에는 브르타뉴의 제후인 살로몽이 군도를 통치하였다. 그리하여 제르세에는 노르망디 사람이 많고 게른제에는 브르타뉴 사람이 많다. 자연도 역사를 반향하는 듯 제르세는 부드러운 초원으로 게른제는 거친 암석으로 가득하다. 두 섬은 귀족들의 작은 성으로 뒤덮여 있다. 오리니에는 에섹스 성의 폐허가 남아 있으며, 제르세에는 몽토르괴이 성이, 게른제에는 코르네 성이 있다. 코르네 성은 올름 (투구라는 뜻) 또는 옴므라 부르던

22) 고대법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 중세에는 이 외침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암벽 위에 축성되었다. 이와 같은 메타포는 레 카스케 (투구라는 뜻)에서도 찾을 수 있다. 코르네 성은 피카르디 지방의 해적 외스타슈에게 몽토르괴이는 뒤 게스클랭[23]에게 함락 당했다. 요새는 여자와 마찬가지여서 함락한 자의 명성이 높을 때는 그것을 더욱 드높이는 법이다. 15세기의 교황은 제르세와 게른제를 중립지대로 천명했다. 전쟁을 했으면 했지 교회의 분열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다. 칼비니즘은 피에르 모리스와 니콜라 보두앵에 의해 제르세와 게른제에 포교되면서 1563년 노르망디 군도에 입성한다. 루터와 마찬가지로 캘빈도 행운을 누렸지만 오늘날에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부산물이며, 영국의 미래를 통제하는 웨슬리 교파로 인해 대단한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 이 군도에는 교회들이 많다. 카톨릭보다 프로테스탄트의 교회가 더 많다. 초기 감리교회, 연합 감리교회, 독립감리교회, 침례교회, 장로교회, 지복 천년설교회, 퀘이커교회, 성서 기독교회, 플리머스 동포교회,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는 교회, 영국 성공회, 로마 카톨릭 교회, 몰몬 교회 등 제르세나 게른제 땅의 어느 한 구석에라도 같은 크기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더 많은 교회가 있다.

카텔에 있는 생 조르주 샘은 처녀들에게 미래의 남편감을 점쳐 주며, 생 탕드레의 샘은 아무리 지독한 거짓말쟁이라 할지라도 진실을 말하게 한다. 여자들이 돌멘이나 교회의 벽에서 긁어낸 가루 페렐르를 물에 타서 마시면 튼튼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전설도 있다. 자신에게 과자를 준 아이들에게 후일 지참금이나 돛대를 갖춘 멋진 배를 준다는 내포의 요정도 있다. 게요프와 볼리보락스, 팡타그뤼엘이라는 세 아들을 둔 거인 롱기스와 공주를 희롱한 벌로 검은 개가 된 보뒤라는 거인의 이야기도 있다. 이 검은 개는 여인네들이 즐겨 읽는 이야기 속에서 교수형 당한 대법

23) 14세기 프랑스의 고관

관 골티에 드 라 살르가 변한 흰 개와 경주를 한다. 이곳에는 드레, 알뢰르, 오크리니에 등 온갖 종류의 유령이 있으며 밤에 검은 암탉을 보는 것을 꺼려한다.

몇몇 소교구에서는 카톨릭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퓨지주의[24]의 징표로 종탑 끝에 십자가를 달기도 한다. 녹스[25]에게는 당치도 않은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교회에서 울려 퍼진다. 놀라우리 만치 '무종교자' 들을 두려워하는 성스러운 사람들도 많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선천적으로 타고 난 것 같다. 구교 못지않게 신교에서도 이러한 공포심을 발전시킨다. 런던의 매우 지체 높은 한 귀족 부인은 콜랑소박사[26]의 책이 있는 집을 찾아내는 신기(神技)로 유명하다. 그 부인은 책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여기 그 책이 있다!" 라고 소리치고는 기절해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책을 찾아낸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정통파의 성서에는 사탄의 이름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지 않는다. 지당한 일이다.

사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볼테르를 증오한다. 마치 *볼테르*라는 말에는 사탄의 이름과 같은 발음이 나는 듯하다. 볼테르에 관해서 말할 때면 모든 종류의 분열이 극복된다. 몰몬 교는 영국 성공회와 의견이 투합되고 그 일치는 분노로 자라나, 모든 종파가 하나의 증오로 똘똘 뭉친다. 파문당한 사람 볼테르는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파의 교차지점에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로마의 카톨릭은 볼테르를 미워하고 제네바의 프로테스탄티즘은 그를 증오한다는 것이다. 저주는 점점 더 커진다. 칼라스[27]

---

24) 영국의 신학자 퓨지 (1880~1982)의 주장, 영국 교회를 카톨릭으로 복귀시키자는 운동

25) (1510~1572)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지도자

26) 합리주의와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 1861년에 지옥의 개념에 반대하는 책을 발표함

와 시르방 사건, 신교도 박해에 대항하는 설득력 있는 책들도 아무 소용없다. 볼테르는 교리를 부정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볼테르는 신교도들을 옹호했지만 그들에게 공격을 당했다. 교리를 저버린 배은망덕자라고 기소 당했다. 생 텔리에에서 연설하기로 되어있던 어떤 사람[28]은 만일 연설 중에 볼테르를 언급한다면 그 캠페인은 실패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을 정도이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한 볼테르는 거부당할 것이다. 그는 천재도 아니고 재능도 없고 기지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라. 그는 늙어서도 모욕을 당했으며 죽어서까지 추방을 당했다. 그는 영원한 '논란의 대상' 이며 그것이 바로 그의 영광인 것이다. 조용히, 정당하게 볼테르를 말할 수 있을까? 한 인간이 한 세기의 발전을 구현하고 그 세기를 지배했을 때는 그에 대한 비평보다는 증오가 우세한 것이다.

〈11〉
오래된 동굴과 성인들의 은신처

지도상에서 볼 때 시클라드 제도는 원형을, 망슈의 군도는 삼각형을 이루고 있다. 이 삼각형의 북쪽은 오리니, 서쪽은 게른제, 남쪽은 제르세이다. 세 섬들은 각각 작은 아기 섬들로 둘러 싸여 있다. 오리니는 뷔르우, 오르타슈, 레 카스케로, 게른제는 에름, 제트우, 리우로 싸여 있다. 제르세의 생 토뱅 만은 프랑스 쪽으로 열려 있는데, 레 그를레와 레 맹키에 두 그룹의 섬들이 생토뱅 만을 향하고 있어 마치 푸른 창공아래에서 두 무리의

---

27) 뒤에 나오는 시르방 사건과 함께 볼테르가 종교적 편견에 의한 부정재판을 규탄한 사건
28) 위고 자신을 말함, 그는 1860년 6월 가리발디를 위한 서명운동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기로 했다

벌 떼들이 하나의 벌집을 향해 돌진해 들어가는 모양을 연상시킨다. 중앙에는 브레크우와 세브르 섬으로 둘러싸인 세르크가 제르세와 게른제를 연결하고 있다. 복고의 기치(旗幟)하에, 상징이라는 소재를 제공한 드 매스트르[29]와 멕스땡[30]의 신비주의나 신화 학파들은 시클라드 제도와 채널 아일랜드의 이 같은 비교에 깊은 감명을 받을 것이다. 둥근 헬라스[31] (오레로톤도, 좌호를 이룬 형태), 삐죽삐죽 모나고 공격적인 망슈 군도. 전자가 하모니라면 후자는 장애물이요, 전자는 그리스, 후자는 노르망디인 것이다.

역사 이전의 아주 오랜 옛날, 망슈 군도는 살기 힘든 곳이었다. 물랭 키농[32]의 원시인처럼 턱뼈가 움푹 들어간 모습의 인간들이 처음 이곳에 살았다. 일년 중 반은 조개와 생선을 먹고 나머지 반은 바다의 부유물을 먹었다. 해안을 약탈하는 것이 그들의 재원이었다. 그린랜드인들이 여름을 *순록사냥*, 겨울을 *바다표범사냥*이라 부르듯이 그들에게는 *낚시의 계절*과 *약탈의 계절*, 두 계절뿐이었다. 그 후 노르망디가 된 이 섬들은 엉겅퀴와 가시덤불, 짐승의 굴로 이루어진 해적의 은신처였다. 한 편년사가(編年史家)는 *쥐덫*과 *해적덫*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로마제국은 이곳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해적들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이것을 악당들의 축제, *퓨리날리아*로 기념했다. 이 축제는 아직도 여러 마을에서 7월 25일에 열리는데 어떤 도시에서는 일년 내내 열리기도 한다.

제르세와 세르크와 게른제의 옛 이름은 *앙주*, *사르주*, *비사르주*이고 오리니는 *레다나* 또는 *타네* 이다. 전설에 의하면, 이 쥐의 섬 *인술라 라토룸*

---

29) 1753~1821, 19세기 초의 기독교 반혁명의 이론가
30) 1790~1861, 카톨릭 사상가, 신비주의 작가
31) 그리스의 옛 이름
32) 프랑스 북부의 아브빌 근처, 1863~1864년에 선사시대 인간의 화석 유골이 발견됨

에서는 토끼의 수컷과 쥐의 암컷이 잡거(雜居)하여 인도 돼지 '티키 코니' 가 생겨났다고 한다.

라 퐁텐느가 껍질이 붙어 있는 목재와 풍치림(風致林)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비난한 샬리브와의 퀴르티에리[33] 신부에 따르면, 프랑스는 오랫동안 해안에서 오리니를 발견하지 못했다. 실제로 오리니는 노르망디의 역사에서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라블레는 노르망디 군도를 알아보고 에름과 세르크로 이름 지었다.

레 카스케는 수몰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백 년 전 영국인들은 거기에서 대포를 건져 내는 일을 했다. 조개와 굴로 뒤덮인 그 대포들 중 하나가 발로뉴[34]의 박물관에 있다. 에름은 *에레모스*[35]이다. 생 상송의 친구인 생 튀그뒤알은 에름에서, 생 마글루와르는 세르크에서 기도생활을 했다. 그 당시 이 암초의 갑(岬)은 온통 은둔자의 후광에 싸여 있었다. 엘리에는 제르세에서, 마르쿠프는 칼바도스의 암석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때 은둔자 에파르시우스는 앙굴렘의 동굴에서 생 시바르가 되었고, 수도자 크레상티우스는 트레브의 숲 속에서 5년 동안 뚫어지게 바라봄으로써 다이아나 여신의 사원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마크 글루와는 후에 상퇴이가 개작한 *만성절*(萬聖節)의 찬가를 세르크에 있는 자신의 성소 *이오나드 나옴*에서 만들었다. 또한 여기서 그는 두 번이나 기도중인 그의 정신을 흐트러트린 작센의 약탈함대와 싸우기도 했다. 이 시대에 군도는 켈트족 식민자의 지도층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마글루와르는 가끔 게른제의 봉신인 예언자 니부와 협의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곤 했다. 어느 날 마글루와르는 기적을

---

33) 1619~1688, 프랑스의 풍자시인이며 사전 편집자

34) 프랑스 세르부르 근처의 작은 마을

35) 고독, 은둔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위고가 생각해 낸 것일 뿐 근거는 없음

행하고 나서 다시는 생선을 먹지 않겠노라고 서원했다. 더욱이 개들의 생태를 보존하고 수도사들에게 불의한 생각을 주기 않기 위해 세르크 섬에서 암캐들을 추방했으며 이 법은 아직도 존속하고 있다. 생 마글루와르는 군도에서 그 외의 다른 여러 활동을 하였다. 제르세에서는 크리스마스 때에 하층민들이 페르시아의 태양신 미트라스를 축하하여 온갖 종류의 짐승으로 변장하는데 그가 이 폐습을 바로잡았다. 그의 성유 물은 대머리왕 샤를르의 가신, 노미노에의 통치시대에 레옹레즈디낭의 수도자들에 의해 도난당했다. 이 모든 사실은 예수회 볼랑의 후계자들 볼랑디스트의 〈성인들의 생애에 관한 집록(集錄)〉 등과 트리강 신부의 〈교회사〉에 의해서 증명된 바 있다. 11세기에 몽트부르의 수도원을 재건하였으며 투르의 마르탱의 친구이기도 한, 루앙의 빅트리스는 세르크에 자신의 동굴을 갖고 있었다. 오늘날 세르크는 사십 명의 소작인에게 고정된 영지이다.

〈12〉 기념물

중세에 하층민과 가난은 동반자였다. 서로가 서로를 야기했다. 가난한 사람은 푼돈조차 임시변통해야했다. 가끔씩은 넝마가 푼돈을 창출해 내는 것을 보면 둘을 형제라고도 할 수 있었다. 암암리에 인정된 묘한 권리였다. 게른제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이십오 년 전만 해도 두블이 필요하면 저고리에서 구리 단추를 뜯어내곤 했으며 군복의 단추가 동전으로 유통되기도 했고 철물상인은 구멍 뚫는 연장으로 낡은 냄비에서 드니에[36]를 찍어내기도 했다. 그렇게 만든 동전이 통용되었던 것이다.

처음으로 증기선이 게른제에 나타난 것은 다른 목적지를 향하는 도중

경유를 위해서였고, 이 때 그 배는 게른제 사람들에게 증기선의 전형이 되었다. 선박의 이름은 메디나였으며 적재력이 약 100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1823년 6월 10일 생 피에르 포르에서 기항했다. 증기선으로 영국과 교통하게 된 것은 그보다 이후이며, 시우스햄턴과 포츠머드에 처음 항로를 개설했다. 이 일은 *아리아드느*와 *브레스포르*라는 이름의 작은 증기선 두 척으로 시작되었다. 그 당시 군도의 통치자는 브레스포르 자작이었다.

고립은 긴 추억을 간직하고 섬은 하나의 고립이다. 그런 까닭에 섬사람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 추억은 끝이 없다. 까마득히 이어지는 이 실을 끊기란 불가능하다. 그들은 기항한 배 한 척, 떨어진 우박 한 톨, 잡은 물고기 한 마리까지 모든 것을 기억한다. 조상은 말 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섬은 그 자체로 족보가 되는 땅이다.

족보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만 하자. 방금 말했듯이 군도에서는 혈통이 숭배된다. 사람들은 암소의 혈통까지 따지려 든다 (사람의 혈통을 따지는 것보다 더 쓸모 있는 일일 게다). 어떤 농부는 '우리 조상님' 하며 이야기할 정도다.

무슈 파스키에[37]가 공의 작위를 받은 날 무슈 루와예 콜라르[38]는 "이 작위가 당신에게 해가되지는 않을 것이요"라고 말했다. 족보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도 해가되지 않는다.

문신(文身)은 가문(家紋)의 시작이다. 원시의 순수성은 귀족의 자부심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망슈 군도는 순수하다. 매우 순수하고 어떤 면에서는 원시적이다. 소금기와도 같은 것이 모든 것을 보존하고, 심지어 자만심까지도 보존하는 이 바다의 땅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순수한 먼 옛

---

36) 12분의 1 수

37) 프랑스의 정치가

38)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1792년까지 파리코뮌의 멤버였음

날에 대한 매우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존중할 만한 것이며 감동적인 것이기도 하다. 거기에서 당당한 확신이 생긴다. 회의주의적인 프랑스인 앞에서 이 확신이 표명된다면 프랑스인은 비웃음 테지만 만일 그가 회의주의적이지만 예의바른 사람이라면 인사를 하고 떠날 것이다. 어느 날(1865년 5월 26일) 나는 어떤 제르세인과 영국인의 방문을 받았다. 그들은 모두 신사였다. 제르세인이 나에게 말했다. "라르발레스티에입니다." 내가 그의 기대만큼 놀라는 기색이 아니었던지 그는 덧붙였다. "십자군 원정을 했던 가문 중 하나인 라르발레스티에 이지요." 이번에는 영국인이 말했다. "브룬스윌입니다. 정복 왕 기욤[39]의 후손이지요." 나 역시 그들에게 물었다. "롤로[40]의 후손인 무슈 오브랑 씨를 아십니까?"

생 상송에는 화강암 클럽이라는 것이 있다. 이 클럽은 채석을 하는 일꾼들로 이루어졌으며 5월 31일에는 가슴에 파란 꽃 장식을 단다. 5월은 크리켓 경기가 있는 때이기도 하다.

노르망디 군도는 이상하리 만치 태연하다. 어떤 일이 영국을 흥분시켜 뒤흔들어도 노르망디 군도는 무슨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듯하다. 어느 날 이 책을 쓴 작가가 부정확한 영어를 쓴 일이 있었다.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포슈 판 사전 속의 말이 오식(誤植)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는 *bagpipe*(백파이프)를 *bugpipe*(버그파이프)로 쓰고 말았다. *a*를 *u*로 쓰다니! *bug*는 *bag*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Schibbolet*[41]을 *Ssibbolet*으로 쓴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었다. 오래 전 영국은 이런 일 때문에 사람들을 화형에 처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알비옹[42]

---

39) 노르망디의 공작(1035~1087)이자 영국의 왕(1066~1087)

40) 노르망디의 첫 번째 공작(911~933)

41) 구약 사사기에서 에프라임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sch를 발음하게 하였음

이 두 손을 높이 쳐들어 항복을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은 틀리고 말고 할 것도 없는 것이다! 많은 신문이 일면에 이 스캔들을 실었다. Bugpipe! 이것은 영국 전체를 거의 격분상태까지 몰고 갔다. 그런데도 게른제는 냉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는가?

게른제에서는 옛 프랑스 농가의 두 가지 면이 눈에 띈다. 동쪽의 노르망디 농가와 서쪽의 브르타뉴 농가의 모습이다. 노르망디의 농가에는 건축물이 유난히 많고, 브르타뉴의 농가에는 나무가 많다. 노르망디의 농가는 곡물을 곡간에 넣어 두는 데 비해, 덜 발전된 형태인 브르타뉴의 농가는 거의 키클로페스족의 방식과 같이 포트랜드의 시멘트로 틈을 메운, 형태를 알 수 없는 울퉁불퉁한 돌기둥에 짚으로 지붕을 얹어 곡물을 보관하고 있다. 토요일이면, 때로는 옛 게른제 여인들처럼 머리쓰개를 쓰기도 하는 여자들이 두 종류의 농가에서 나와 당나귀에 수레를 맨 케리오에 야채와 과일 바구니를 싣고 도시로 향한다. 시장의 여인네가 마수걸이를 하고 그 날의 첫 돈을 받을라치면 침을 한 번 뱉고 나서야 주머니에 넣는다. 복을 가져온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섬에 거주하는 착한 시골사람들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르망디의 감수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을 파악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다.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한 노파를 만난다. 겨울에, 길에서, 비는 내리는데 넝마를 걸친 할머니는 거의 맨 발이다. 노인에게 달려가 손에 은화 한 닢을 슬그머니 건네주자 노인은 거만하게 몸을 획 돌리고 은화가 땅에 떨어져도 모른 체 한다. 그리고 말한다. "나를 뭘로 보는 거요?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하녀도 있다는 걸 아셔야지." 반대

42) 희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온 말, 해안의 절벽이 하얗다고 해서 붙여진 영국의 켈트 식 옛 이름

의 경우라 해도 냉대를 받기는 마찬가지다. 농부는 이러한 대접을 무례하다고 여긴다. 어느 날 같은 사람이 이번에는 한 시골 사람과 마주친다. 그리고 묻는다. "메스 르뷔레 아니세요?" 시골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고 대답한다. "나는 피에르 르뷔레요. 메스가 아니라고요."[43]

담쟁이덩굴이 바위와 집 담장을 장엄하게 뒤덮고 있다. 모든 말라죽은 가지에 담쟁이덩굴이 매달려 온통 뒤덮고 있으니 이곳에는 결국 죽은 나무가 없는 셈이다. 담쟁이덩굴은 기둥과 가지를 차지하고 잎사귀까지 틔운다. 집채만큼 높이 쌓인 건초 더미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사람들은 빵을 자르듯이 건초더미를 잘라서 외양간이나 마구간에 쓰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한 덩이씩 가져다준다. 해안에서 꽤 들어오는 육지 여기저기에서도, 과수원이나 사과 밭 한 가운데 있는 과실나무의 가지 사이로 건조 중인 배의 뼈대가 보인다. 어부가 농사를 짓고 야채장수도 되었다가 생선장수도 된다. 한 사람이 땅을 일구기도, 바다를 일구기도 하는 것이다.

때때로 어부는 바다 한 가운데 그물을 놓아두는데, 그물의 한쪽 끝을 바다 속에 박고 코르크로 만든 거룻배가 물에 떠서 그물을 지탱한다. 그물을 쳐 놓은 곳으로 밤중에 어떤 배가 지나가기라도 한다면 그물은 찢기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막대한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 때 사용하는 그물은 이, 삼천 프랑을 호가하는 것도 있다. 고등어는 머리에 비해 몸집이 뚱뚱하기 때문에 그물망이 머리보다는 크고 몸집보다는 좁아야한다. 그래야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물 속으로 뒷걸음질쳐 아가미가 걸리고 만다. 숭어는 삼단 그물로 잡아야 한다. 이것은 프랑스식 그물로서 세 개씩 연결된 코가 물고기를 꼼짝 못하게 한다. 앙미리는 반은 그물로 반은 천으로 된, 그물과 주머니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통발로 잡아야 한다.

---

43) 이 책 제1부 시외르 클뤼뱅의 III, 〈6〉 참조

저지(低地)에만 있는 여러 개의 작은 늪은 게른제 서쪽 농가의 전형적인 모습에 변화를 준다. 농가 가까이 펼쳐진 초원 위에 드문드문 있는 내포에는 쥴리아, 피티, 시걸 이라는 이름의 소작농의 어선이 네 개의 버팀목으로 떠받쳐져 있다. 늪에서 온 오리와 바다에서 날아온 갈매기가 배의 난간에 형제처럼 나란히 앉아 있다. 해안을 따라 여기저기에 있는 바위의 갑 끝에 우연히 밀물이 실어온 모래가 덮일 때도 있다. 그릇 같은 바위 끝에는 바닷물의 찌꺼기가 쌓인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커지면서 충적토가 쌓이면 작은 섬이 되고 거기에 잔디가 돋아나고 섬이 된다. 바닷가의 땅 주인들은 그 소유권 속에 잠재하는 모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땅이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슈 헨리 마르캉[44]은 나에게 그런 섬을 하나 팔려고 했다. 바위와 풀이 있는 예쁜 섬이었다. 나는 그것을 3 프랑에 샀다.

건초더미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선박용 사슬을 얹어 놓는다. 폭풍우가 휘젓고 다니는 서쪽 농가의 작은 뜰에는 나무들이 몸을 굽히고 육상 선수의 준비자세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다. 서쪽의 정원들에는 꽃이 한 송이도 없다. 감각 있는 주인들은 그곳에 꽃 대신 석고상을 놓아 장식한다. 작은 별장 앞 화단에 낮고 넓게 다듬어 놓은, 땅 가까이에 너부죽하게 벌어진 주목(朱木)은 개들이 등을 문질러대는 안락한 둥근 탁자가 된다. 굵고 둥근 조약돌이 묵주(默珠)처럼 담을 따라 길게 뻗어 있다. 황량한 모래사장에 홀로 선 망루에는 이름 모를 군인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런 종류의 연안 망루는 총안이 뚫린 이층 건물로 그것을 창안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르텔로라 부른다. 군인의 가정은 망루 안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린다. 궁교포대는 침실로 쓰이고, 아내는

44) '가제트 드 게른제' 라는 게른제의 신문사 사장이자 오트빌 하우스에서 위고가 가깝게 지내던 사람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한다. 요람과 대포가 나란히 있고, 포안(砲眼)은 조용한 내실이 된다. 저만치에 부엌으로 변한 토치카 위로 평화롭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보인다. 영원히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노르망디 군도 하인들의 주된 관심사는 바깥 현관의 계단을 하얗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은 네덜란드에도 존재한다. 침대 시트가 계단의 디딤돌처럼 하얗게 되는 날은 위대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군도에는 주민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약초와 식용 풀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 이곳 사람들은 담즙처럼 쓰다고 해서 *드 라 사르클르* 라고 부르는 민들레나 마슈를 가지고 셀러드를 만들어 먹는 프랑스인들을 보면 놀란다. 소금기 있는 초원에서 자라는 *타부레 드 크라포*[45]라는 이름의 크고 통통한 버섯은 조심해야 한다. 도처에, 심지어 초가집에까지도 지붕에는 꼿꼿이 선 깃대가 솟아 있다. 영국인들은 작은 깃발로 집을 장식하기를 좋아한다. 휴경지의 짧게 깎은 잔디 위에는 이탄(泥炭)층의 검게 잘린 흙덩어리가 바람과 햇볕에 바싹 마르고 있다. 앙크레스의 텅 빈 광활한 목장들은 반라(半裸)의 아이들이 일 페니를 받고 열어 주는 울타리로 막혀 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공식적으로 *누더기를 걸친 사람들의 학교*라는 명칭이 붙은 무상학교에 다닌다. 이러한 가혹한 표현이 영국인들을 놀라게 하지는 않는다. 증기선의 키잡이 옆에서 우리는 이런 경고를 읽을 수 있다. '이 남자(옴므)에게 말 걸지 마시오.' 프랑스에서라면 '키잡이에게는 말을 걸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썼을 것이다. 만일 '옴므' 와 '무슈' 를 구별하는 깊은 뜻을 알고 싶다면 영국으로 가면 된다. 그런 점에서는 노르망디 군도도 영국에 속한다.

손으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옴므' 이다. 망명 귀족 코몽 라 포

---

45) '두꺼비의 의자' 라는 뜻

르스 공은 제본업을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옴므'가 되었다. 제르세로 망명한 자작부인은 유배생활의 가난을 견뎌야 했고 자신의 방 청소까지 해야만 했다. 방을 세 준 늙은 여주인 미스트레스 랑은 자작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 여자는 자기 몫을 해요. 모두 자기 일이지요, 뭐. 달리 뭐가 필요하겠어요. 귀부인도 아니고 그저 여자인데 말이에요."

리베롤르는 작업복을 입고 자신의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웃 사람들이 그를 보고 "노동자였군" 하고 말했다. 헝가리에서 추방된 사람들 중에 카토나 대령은 메자로 장군에게, 부관으로서 장군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 그 일로 인해 그는 시종으로 인식되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하숙집으로 장군을 찾아왔는데 여관 주인은 대령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기 장군의 기름걸레가 있네요." 어떤 뉘앙스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 르페브르(Lefèvre)라는 농부가 인구조사를 위한 명부에 이름을 적게 된다. 누군가가 그에게 Lefèvre인지 아니면 Lefebvre인지 알아보기 위해 묻는다. "b를 붙이나요?" 르페브르는 소리친다. "오, 아니에요. 나는 무슈가 아니라고요."

게른제에서 판사들은 자주색 법복을 입는다. 주목할 일은 이 옛 노르망디 땅에서는 공식화된 절차에 따라 인지가 붙은 서류라는 것은 없다. 법적인 분쟁들은 일상적인 서류만으로 진행된다. 정중한 말다툼이 때때로 과격해 지기도 한다. 지역의 회합에서는 이러한 말을 들을 수 있다.

대변자가 상대방에게: 당신은 무례한에 악당이오.

의장: 지금 하는 말은 불필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네 파리 사람들의 허물없는 몇 가지 표현은 공식적인 근엄한 언어로 태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예를 들면, '도브레 대(對) 쥬앙'의 사건(1866년 4월 5일)은 마르그리트 쥬앙이라 불리는 어떤 사람의 증언 때

문에 다음과 같은 소송 보고서를 쓰게 되었다. '그 증인은 완전히 미쳐 버렸다.' 다른 예도 있다. 어떤 의사가 쓴 하제 처방전이다. '한 알은 오늘 저녁에 복용하십시오. 그리고 *만일 수지가 맞지 않으면* 내일 아침에 한 알을 더 복용하십시오.'

〈13〉
각 지방의 특성

각각의 섬에는 화폐가 따로 있고 방언이 따로 있으며 정부가 따로 있고 편견이 따로 있다. 제르세는 프랑스인 지주에게 신경을 쓴다. 그가 섬 전체를 다 사러 오지나 않을까! 제르세는 타지 인이 땅을 사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게른제는 허용한다. 그와는 달리 게른제는 종교적으로 매우 엄격하지만 제르세는 덜하므로 제르세의 일요일은 통행의 자유가 있지만 게른제의 일요일은 통행의 자유가 없다. 성서는 생 텔리에서보다 생 피에르 포르에서 더 효력을 발하는 것이다. 게른제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이곳을 모르는 타지 인에게는 특히 위험한 일이다. 매입자는 이십 년 이내에 구매한 물건에 대하여 거래내역과 재정상황을 날짜와 장소까지 정확히 신고해야 한다. 그 외에도 화폐와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 발생한다. 우리의 옛날 동전 아스칼랭이나 슐랭에 해당하는 셸링은 영국과 제르세에서는 이십오 수, 게른제에서는 이십사 수이다. '여왕의 몸무게' 도 다르게 표시된다. 게른제의 파운드는 제르세의 파운드와도, 영국의 파운드와도 다르다. 게른제에서는 밭을 베르제로 측정하고 베르제는 다시 페르슈로 나뉜다. 이 측정 단위도 제르세에서는 달라진다. 게른제에서는 프랑스 화폐만 사용하지만 영국 화폐의 이름으로만 부른다.

일 프랑이 십 펜스이다. 군도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의 수가 더 많은 것에까지 이른다. 여자 대 남자의 비율은 6 대 5이다. 게른제는 많은 별명을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은 고고학적인 별명이다. 학자들은 게른제를 그라노시아 라고 부르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작은 영국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게른제의 전체적인 형태는 영국의 것과 닮아 있다. 그렇게 보면 세르크는 아일랜드가 되겠지만, 동쪽에 있는 아일랜드가 될 것이다. 게른제의 바다에는 이백여 종의 조개류와 사십여 종의 해면이 있다. 로마인은 이 섬을 사튀른느에게 그러나 켈트족은 겡(Gwyn)에게 바친 바 있었다. 모두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 사튀른느나 겡은 이곳에서 대단한 것을 얻지는 못했다. 게른제는 1331년부터 전해 내려오는 프랑스의 옛날 법전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것을 아시즈의 계명이라고 부른다. 한편 제르세는 서너 개의 옛 노르망디 법전을 가지고 있으며 영지 관할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부동산 법정, 형사상의 문제를 다루는 카텔 법정, 상사(商事) 재판소인 비에 법정, 경범죄를 담당하는 토여 법정이 있다. 게른제는 식초와 가축, 과일을 수출하지만, 섬 자체를 수출하는 셈이기도 하다. 주요 수출 품목이 석고와 화강암이기 때문이다. 게른제에는 삼백다섯 채의 빈집이 있다. 왜일까? 대답은, 완전하지는 않을망정 이 책의 여러 곳에 있다. 금세기 초 제르세에 있던 건장한 러시아 인들은 그들의 기억을 말에게 새겨 두었다. 제르세의 말은 노르망디 종과 코자크 종의 잡종이다. 기마와 같이 잘 달리고 걸을 때도 힘이 넘친다. 힘센 탕크레드 왕자라도 거뜬히 실을 수 있고 마제파[46]라도 끌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에 게른제와 코르네 성 사이에 내란이 있었다. 코르네 성은 스튀아르의 진영이었으며 게른제는 크롬웰의 진영이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파리 센느 강

46) 17세기 코사크 종족의 두목; 바이런, 위고, 리스트, 차이코프스키 등 여러 예술가들의 모델이 됨

의 생 루이 섬이 오름의 강둑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르세에는 로즈와 로리 두 당파가 존재한다. 휘그당[47]과 토리당[48]의 속칭이다. '알 수 없는 노르망디'[49]라는 매우 적절한 이름이 붙은 이 군도의 섬 사람들은 분열, 계층, 특권계급, 분리를 낙으로 삼는다. 특히 게른제 인들은 자기가 속한 부류의 사람들로 섬을 이루고자 섬사람 특유의 기질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작은 사회적 등급의 맨 꼭대기인 식스티에는 따로 육십 가문이 살고 있으며 중간의 포티에는 또 다른 그룹을 이루며 역시 따로 뭉친 사십 가문이 있고 그 주변에 하층민이 있다. 지방행정당국과 영국행정당국은 모두 열 개의 소교구와, 열 명의 소교구 주임사제, 스무 명의 코네타블, 백 육십 두즈니에, 검사가 있는 왕궁, 감독관과 에타라고 불리는 의회, 쥐바라 불리는 열 두 판사, 바이프라고 불리는 대법관으로 나뉜다. 바이부스 에 코르나토르는 고래(古來)의 헌장을 전한다. 법으로는 노르망디의 관습법이 있다. 검사는 위원회에 의해서 임명되며 대법관은 국왕의 발령으로 임명된다. 이 둘의 차이는 영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대법관은 민사 당국자이고, 종교적인 일을 관장하는 주임사제와 군대를 통솔하는 사령관이 따로 있다. 다른 관직의 세부사항은 '섬의 주요 당국자 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47) 17세기~18세기 초 민권주의를 주창한 영국의 당
48) 보수당, 왕당파
49) 빅토르 위고의 아들 프랑스와 빅토르의 작품명

〈14〉
군도 내의 문명의 위업

제르세는 영국의 일곱 번째 항구이다. 1845년 군도는 적재력이 42,000톤에 달하는 440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곳의 여러 항구에서는 한 번에 1,265척의 세계 각국의 선박에 실린 60,000톤의 물건이 들어오고 54,000톤의 물건이 나가는 왕복운동이 이루어졌으며, 그 선박 중에는 142척의 증기선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숫자는 20년 만에 세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여러 섬 사이에 유통되는 화폐는 거대한 사다리 기능을 하며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다. 제르세에서는 누구라도 원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은행이 정한 마감일에 지불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발행된 은행권이 환불 쇄도를 물리치면 하나의 은행이 설립되는 것이다. 군도의 은행권은 항상 영국 파운드로 발행된다. 앵글로 노르망디 사람들이 환불 배당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 날 그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은행권을 널리 애용할 것이며, 이 희귀한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유럽에 유토피아가 생겼고 채널 아일랜드에 발전을 다 이룬 나라가 생겼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금융 혁명이 세상의 작은 한 구석에서도 미미하게나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굳건하고 활달하고 예민하고 민첩한 지성은 제르세 인들의 특성이다. 그들은 원하기만 한다면 훌륭한 프랑스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른제 사람들 역시 통찰력 있고 확실하기는 하지만 좀 느긋하다. 그들은 꿋꿋하고 강인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명하여 그들에 대하여는 놀라움 이상의 인상을 갖게 된다. 군도에는 제르세에 여섯, 게른제에 넷 등 영어와 불어로 발간되는 여러 종류의 신문이 있는데 모두가 품위 있고 정직하다. 이것이 강인하고 요지부동한 영국적 본성이다. 무인도를 생각해 보자. 로빈슨은 도착한 다음 날로 신문을 만든다.

그리고 신문광고를 보충하기 위해서 프라이데이가 합류한다. 무한하고 거대한 게시. 길가에 장식된 형형색색의 갖가지 크기의 벽보, 커다란 글자, 그림, 삽화가 그려진 텍스트. 게른제의 벽이라면 어디에나 손에 종을 든 육 피에의 큰 남자가 그려진 커다란 장식 그림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지금 게른제는 프랑스 전체보다 더 많은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 이 광고 속에서 생활이 시작된다. 예기치 않은 결과이긴 하지만, 생각하는 생활은 읽는 습관에 의해 주민들을 평준화하고 품위 있는 행동양식을 낳는다. 당신이 생 텔리에나 생 피에르 포르의 길에서 엄격하게 단추를 채운 검은 옷을 입고 하얀 손수건을 든 나무랄 데 없는 행인과 이야기를 나눈다. 그는 미국의 노예제도 폐지론자 존 브라운에 대해 말하고 가리발디 장군에 대해 묻는다. 신부일까? 아니다. 목축업자다. 제르세를 방문한 이 시대의 어느 작가가 어떤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니 상점과 인접한 커다란 살롱 안에서 호메로스의 흉상이 위에 놓인 높고 커다란 서가의 유리 너머로 자신의 제본된 작품집이 꽂혀 있다.

〈15〉
또 다른 특성

섬끼리는 서로 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부드럽게 농담도 주고받는다. 게른제에 종속된 오리니는 그 사실 때문에 종종 화를 낸다. 그리고 대법관의 재판소를 오리니로 가져와서 게른제를 종으로 부리고 싶어 안달한다. 게른제는 화내지 않고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리즐레' 로 이렇게 응수한다.

줄을 당겨라 피에르, 줄을 당겨라 장.
게른제가 간다.

이곳 섬사람들은 모두 바다의 가문이므로 간혹 신랄한 데가 있기는 하지만 노여움을 타지는 않는다. 그들이 상스럽다고 생각한다면 오해다. 우리는 소위 제르세와 게른제 사이에 오간 유명한 대화라는 것도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당나귀 같은 멍청이야." 게른제가 반격한다. "너희들은 두꺼비 같은 망나니야." 이것은 노르망디 군도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인사이다. 우리는 바다의 두 섬으로 변한 바디위스와 트리소탱[50]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리니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레 카스케에 있어서는 오리니가 런던이다. 우게르라는 등대지기의 딸은 레 카스케에서 태어나 스무 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오리니에 가게 되었다. 혼란스런 마음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그녀는 다시 바닷가 절벽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쳤다. 그녀는 그제까지 한 번도 소를 본 적이 없었다. 말을 보고 나서 그녀는 소리쳤다. "웬 개가 저렇게 크담!"

노르망디 군도의 사람들은 매우 일찍 늙는다. 두 사람의 행인이 이야기를 나눈다. "매일 이곳으로 오던 사람 있지? 그가 죽었대." "몇 살인데?" "서른여섯쯤 되었을 거야."

노르망디의 섬 여자들은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지만 하녀로서의 자질이 없다. 한 집에 겨우 두 명밖에 없는데도 뜻이 맞지 않는다. 서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첩하게 진행되는 일이 없고 항상 삐거덕거린다. 주인에게는 거의 관심도 없고 주인으로서도 그것을 원할 수

50) 몰리에르의 희극『Les femmes savantes』에 나오는 현학자와 시인

없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1852년에 어떤 프랑스인 가족이 우여곡절 끝에 제르세에 상륙하게 되었다. 그들은 생 브를라드 출신의 요리 담당 하녀와 불레 만 출신의 청소하는 하녀를 두었다. 어느 십이월의 아침, 해가 뜰 무렵에 잠에서 깬 주인은 큰길로 난 현관문이 활짝 열려 젖혀 있고 하녀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두 하녀는 서로 뜻이 맞지 않았고, 게다가 분명히 급료를 받았던 터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씩 차례로 옷가지를 챙겨 한밤중에 잠들어 있는 주인을 팽개쳐 두고 문까지 활짝 열어 놓은 채 가버린 것이었다. 한 하녀가 또 한 하녀에게 말했다. "너 같은 주정뱅이랑 못 살겠어." 또 한 하녀도 맞받아 쳤다. "나도 너 같은 바람둥이랑은 같이 살 수 없어."

이곳에는 '언제나 두 개를 열 개에' 라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속담이 된 표현이 있다. 무슨 뜻일까? 만일 집에 일꾼이나 하녀를 들이게 되거든 결단코 두 눈으로 열 개의 손가락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욕심 많은 주인의 충고이다. 이것은 관습처럼 되어버린 태만을 고발하는 뿌리 깊은 불신이기도 하다. 디드로는 네덜란드에 있는 그의 집 유리창의 부서진 작은 조각을 고치는데 다섯 명이나 되는 일꾼이 왔었다고 이야기한다. 한 명은 새 유리, 한 명은 접합제, 한 명은 물통, 한 명은 흙손, 한 명은 걸레를 들고 있었다. 그들 다섯 명은 이틀이나 걸려서 유리창을 고쳤다고 한다.

솔직히 말해 보자. 거기에는 예속 상태에서 기인하는 고딕식 골동품 같은 무기력이 있다. 어떤 민족에게나 공통되는 악덕인 노예제도에서 식민지 태생의 백인이 갖는 게으름이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다행히 이 제도는 진보된 세계와의 접촉으로 인해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다른 곳보다 더 빨리 이 채널 아일랜드의 곳곳에서 사라지고 있다. 섬사람들의 산업 공동체 안에서 성실의 일부분인 능동성은 점점 일하는 법칙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망슈 군도에서는 아직도 과거의 어떤 일들이 눈에 띈다. 이런 예가 있다. '봉토 관할 의식, 생 투앙 소교구에 있는 무슈 말자르의 집에서 1854년 5월 22일 월요일 정오에 열림. 의식은 세네샬[51]이 주재했으며 그의 오른쪽에는 행정관, 왼쪽에는 하급관리가 있다. 청중 입회하에 소교구의 일부를 영지로 소유한 모르빌의 지주이자 다른 여러 곳의 지주인, 신흥 귀족이 있다. 세네샬은 행정관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읽도록 했다. "당신은 행정관의 임무와 모르빌 영주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하느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영주의 권리를 보장받을 것입니다." 전술한 프레보는 손을 들어 영주에게 인사를 하고 말했다. "맹세합니다."'

노르망디 군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약간 변형된 불어를 사용한다. 소교구 '파루와스' 는 '파레스' 로 발음한다. '코망 부 포르테 부?' 는 안녕하세요? '프티트망' '무와옌느망,' '투타래지' 는 '나빠' , '그저 그래' , '좋아' 라는 뜻이다. '에트르 트리스트' (슬프다)는 '아봐르 레 제스프리 바' 로 '상티르 모배' (기분 나쁘다)는 '엥 모배 상' 으로 '코제 뒤 데가' (손해를 입다)는 '패르 뒤 메나쥬' 로 쓴다. '발래이예 사 샹브르' (방 청소하다)와 '라베 사 벳셀르' (설거지하다) 등은 '피셰 송 패' 로 '바케' (쓰레기통)는 '부케' 라고 쓴다. '이브르' (술취한)는 '브라기' , '무이예' (축축한)는 '뮈크르' 라 쓰고 '에트르 이포콩드리아크' (침울하다)는 '아봐르 데 픽스' 로 '피유' (딸)는 '아르델르' 로 '타블리에' (앞치마)는 '드방티에' , '나프' (상보)는 '두블리에' , '로브' (드레스)는 '드레스' , '포슈' (주머니)는 '푸크' , '티롸' (서랍)는 '알뢰르' , '슈' (양배추)는 '카보슈' , '아르

51) 중세의 지방행정관

봐르' (옷장)는 '프레스', '세르쾨이' (관)는 '코프르 아 모르', '에트렌느' (새해 선물)는 '이르비에르', '쇼세' (차도)는 '쇼시', '마스크' (가면)는 '비자지에', '필뤨르' (환약)은 '불레' 라고 쓰며, '비엥토' (곧)는 '비엥 뒤 파르탕' 으로 쓴다.

노르망디의 관습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 여자는 주민 중에서 아기의 아버지를 지목한다. 가끔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를 지목할 때가 있다. 그래서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군도의 노인들이 사용하는 불어가 전적으로 그들 개인의 발음상 잘못 때문에 이상한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십오 년 쯤 전에 프랑스인 몇 사람이 제르세에 왔다. (솔직히 사람들은 왜 그들이 조국을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 프랑스인을 일컬어 '그 잘생긴 반란군들' (세 비요 레 볼테)라고 불렀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집에 오래 전부터 이곳에 살아온 늙은 불어 선생 한 명이 찾아갔다. 불어 선생은 알사스 출신이었으며 부인과 함께였고 망슈의 방언인 노르망디 불어를 얕잡아 보는 사람이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재 피엥 트 라 벤느 아 뢰르 아브랑드르 르 브랑재. 옹 바를르 이씨 바두와."[52]

"뭐라고요? 바두와요?"
"예, 바두와요."
"아! 파투와(사투리)요?"
"맞아요. 바두와."

---

52) "사람들에게 불어를 가르치느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곳 사람들은 사투리를 쓰거든요." 라는 뜻. 이렇게 말하는 선생도 b와 p, d와 t, f와 v, c와 g 등을 바꾸어 발음하는 알사스 사투리를 쓰고 있다.

선생은 계속해서 노르망디 '바두와'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자 선생은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느 므 배트 바 이씨 트 젠느 공시칼"[53]

〈16〉
옛날 사람과 옛날 물건.
관습과 법과 풍습

오늘날 노르망디 군도는 각각 대학과 여러 개의 학부를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인, 게른제인, 제르세인의 훌륭한 교사들도 많이 있다.

알사스 출신의 교사가 고발한 사투리는 하나의 언어이지 결코 멸시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곳의 사투리는 매우 풍부하고 특이한 하나의 완전한 방언이며 희미하게나마 불어의 기원이 있다. 이 사투리를 연구하는 특별한 학자들도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게른제 어로 성서를 번역한 무슈 메티비에가 있다. 그는 엘리사가래 신부가 히스파노 바스크어로 번역했던 것처럼 켈트 노르망디어로 번역했다.

게른제에는 8세기의 석조 지붕을 얹은 교회가 있으며 묘지의 문틀로 이용되는 6세기 골족 상(像)이 있다. 아마도 하나씩밖에 남지 않은 진귀한 표본일 것이다. 또 하나 진귀한 표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말한 바 있는 매우 위엄 있는 젠틀맨 롤로의 자손일 것이다. 그는 빅토리아 여왕의 사촌이 될 만한 신분의 사람이다.

이곳에는 백합꽃이 많다. 영국은 프랑스에서 지나간 유행을 기꺼이 받

53) "이런 곳에서 부부간의 일로 난처하게 만들지 말아요." 역시 사투리를 쓰고 있다.

아들인다. 부르주아라면 누구나 집 안뜰과 정원 사이에 백합꽃으로 장식한 울타리를 만들려 한다.

사람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과의 결혼에 매우 예민하다. 어떤 섬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도 오리니였을 것이다. 포도주 판매업을 하는 매우 유서 깊은 가문의 아들이 이름 없는 모자 제조인의 딸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섬 전체가 그 아들을 비난했으며 어느 귀부인은 이렇게 외쳤다. "부모에게는 마셔야 할 쓴잔이 아니겠어요!" 팔라틴 공주가, 탱그리 왕자와 결혼하게 된 사촌에게 "몽모랑시[54] 가문 같이 천한 사람과 사귀었다"고 비난할 때보다 더 슬프게 격분한 일은 없었다.

게른제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팔을 내미는 것은 약혼한 사이를 의미한다. 신부는 결혼한 후 일주일 동안은 교회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외출 하지 않는다. 밀월을 달콤하게 즐기는 짧은 감옥살이이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부끄러움에의 적절한 대응이기도 하다. 결혼이 요구하는 형식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결혼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제르세에서 카애뉴[55]는 한 늙은 어머니와 14살의 딸 사이에 오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과 대답을 듣기도 했다. "왜 스티븐스와 결혼하지 않니?" "어머니, 두 번 결혼하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결혼한 지 벌써 넉 달이나 되었는걸요."

게른제에서는 1863년 10월에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쳤다고 해서 어떤 딸이 여섯 주 동안의 감옥 형을 받기도 했다.

---

54) 프랑스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

55) 작가이자 정치가, 제르세에 유배 중 리베롤르 신문 기고가

〈17〉
특성(계속)

망슈 군도에는 두 개의 조각상(像)이 남아 있는데 하나는 게른제에 있는 '여왕의 부군' 것이며 또 하나는 제르세에 있는 *황금 왕*이라 불리는 것이다. 어떤 인물을 표현한 것인지도 누구를 기리는 것인지도 모른 채 붙여진 이름이다. 이 상은 생 텔리에 광장 중앙에 있다. 무명의 조각상도 언제까지나 주민들의 자부심을 돈독하게 해 주는 하나의 조각상이며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일 게다. 조각상보다 더 느리게 땅에서 돋아나는 것도 없으며 더 빨리 자라나는 것도 없다. 있다면 그것은 참나무가 아니면 버섯이다. 셰익스피어는 영국에 그의 상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베카리아[56]는 이탈리아에 자신의 상이 세워지기를 기다리지만 무슈 뒤팽[57]은 프랑스에 자신의 상을 갖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나라의 명예를 드높인 위인에게 이렇게 기꺼이 경의를 표한다. 가령 런던에서는 홍분과 감탄과 회한 속에서 상복을 입은 군중이 웰링턴, 팔머스톤, 권투선수 탐 새이어즈의 장례식에 점점 격렬하게 밀려 왔었다.

제르세에는 게른제에는 없는 '교수형 당한 자들의 언덕' 이 있다. 육십 년 전 제르세에서 어떤 남자가 남의 서랍에서 십이 수를 훔쳤다고 교수형을 당했다. 같은 시대에 영국에서는 열 세 살 난 아이가 과자를 훔친 죄로 교수형을 당했으며 프랑스에서도 아무 죄 없는 남자 르쥐르크를 단두 형에 처했다. 이들은 사형에 희생된 청춘들이다.

오늘날의 제르세는 런던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교수대를 묵인하지 않

---

56) 19세기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이자 법학자
57) 19세기 초 프랑스의 정치가

을 것이다. 사형은 암암리에 폐지되고 있다.

감옥에서는 수감자들의 독서를 면밀하게 감독한다. 어떤 복역자는 성서만을 읽도록 되어 있다. 1830년에 프랑스 인 사형수 베이스에게는 교수형이 집행되기까지 볼테르의 여러 비극 작품을 읽게 해 주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악독함이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베아스는 게른제의 마지막 두 번째 사형수였으며, 타프네가 마지막 사형수이다. 마지막 사형수이기를 바란다.

1825년까지 게른제의 대법관은 두아르 3세 시절부터 변함없이 지금의 약 50프랑에 해당하는 30리브르 투르느와[58]를 봉급으로 받았다. 오늘날에는 300파운드를 받는다. 제르세에는 *코위*라는 왕의 궁정이 있고 소송을 하는 여자를 *악트리스*[59]라고 한다. 게른제에는 태형제도가 있으며 제르세에서는 죄수를 철창에 가둔다. 사람들은 성인의 성유 물은 조롱하지만 샤를르 2세의 낡은 군화는 숭상한다. 군화는 생 투앙에 있는 봉건 시대 영주의 저택에 경건하게 보존되어 있다. 십일조는 현행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여러 곳에서 십일조를 징수하는 세리의 상점이 눈에 뜨인다. 세금으로 돼지를 내는 것은 폐지된 듯하지만 닭은 엄격히 징수하고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도 영국의 여왕에게 일 년에 닭 두 마리를 바친다.

이상하게도 세금은 납세자의 실제 혹은 추정된 재산총액에 대하여 부과된다. 이것은 섬으로 손님을 끌어들이는 데 불리하게 작용한다. 무슈 드 로칠드[60]가 만일 게른제에 2만 프랑 정도 되는 예쁜 별장에서 산다면 일년에 150만 프랑의 세금을 내야 할 것이다. 또 만일 그가 1년 중 5개월

---

58) 프랑스의 투르에서 주조된 옛날 화폐, 20수짜리 주화

59) 이 때에는 소송 '당사자' 라는 뜻이었으나 현대에는 '여배우' 라는 뜻임

60) 독일의 유태인 출신의 은행가

만 산다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을 것이고 6개월째에는 1년 치 세금을 낼 것이다.

봄기운이 만연한 기후. 겨울도 있고 여름도 물론 있지만 극심하지는 않다. 세네갈처럼 덥거나 시베리아처럼 추운 날은 결코 없다. 망슈 군도는 영국의 이에르 군도와 같다. 그곳으로 병약한 가슴을 가진 알비옹[61]을 보낸다. 게른제에서 그런 곳을 예로 들라고 한다면 작은 니스라고 인정받는 생 마르탱이다. 탕페[62]의 어느 곳도, 제메노[63]의 어느 곳도, 발 쉬종[64]의 어느 곳도 제르세의 보 골짜기와 게른제의 탈보만큼 아름답지는 못할 것이다. 남쪽의 사면만 본다 해도 그렇게 푸르고 포근하며 상쾌한 곳은 세상에 둘도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고상한 삶이 가능하다. 이 섬들은 작지만 상류사회가 있고, 이 상류 사회에서는 불어를 사용한다. "엘 아 윈느 로즈 아 송 샤포." (그녀는 모자에 장미 한 송이를 꽂고 있어요)[65] 이런 말만 제외한다면 대화는 매력적이다.

제르세는 동 장군을 찬미하고 게른제는 두왈 장군을 찬미한다. 이들은 금세기 초의 통치자이다. 제르세에는 동 스트리트가, 게른제에는 두왈 로드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게른제는 바다가 보이고 레 카스케가 보이는 곳에 커다란 기둥을 만들어 그들의 장군에게 헌정했으며 제르세도 크롬렉을 만들어 그들의 장군에게 바쳤다. 이 크롬렉은 생 텔리에와 인접한 지금의 레장 요새가 있는 언덕 위에 있었다. 동 장군은 크롬렉을 받았고 그 돌을 하나씩 바닷가로 운반하여 삼각 돛대의 쾌속 범선에 싣고 갔다. 이

---

61) 영국의 켈트식 이름
62) 고대 그리스의 도시 텟살리에 있었던 아름다운 골짜기
63) 프랑스의 마르세이유와 툴롱 근처에 있는 골짜기
64) 프랑스 디종에 있는 골짜기 마을
65) 원칙은 "Elle a une… 엘 아 윈느…"로 해야 함

기념물은 망슈 군도에서 가장 훌륭한 것으로 망슈 군도의 유일한 원형 크롬렉이었다. 그것은 프로비세르[66]를 기념하는 에스키모인처럼 두발 카인[67]을 기리는 킴메르인[68]을 보았으며, 현대인의 두뇌크기와 비교하자면 비율이 18:13인 켈트족을 보았다. 그것은 해골이 봉분(封墳)에 들어 있고, 뒤캉주[69]와 바를레쿠스[70]가 각기 주장하는 어원 *돔기오*(domgio,언덕)와 도*미중크테*(domijunctae,집단마을) 사이에서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이상한 동종(donjons, 목탑)[71]을 보았다. 그것은 부싯돌로 만든 도끼와 드루이드교의 도끼를 보았으며 버들가지로 만든 커다란 퇴타테스[72]를 보았다. 그리고 로마의 성벽보다도 먼저 존재했으며 4천 년이라는 역사를 지녔다. 밤이면 선원들은 저 멀리 제르세의 높은 절벽 위 달빛 아래 곧추선 바위의 왕관을 알아보곤 했다. 그러나 지금은 요크셔라는 곳 어딘가에 쌓여 있는 돌무더기일 뿐이다.

〈18〉
극단의 양립

장자 상속법, 십일조, 소교구, 봉토 영주와 저택 영주를 이르는 봉건 군주, 아로 소동 사건 (법원이 개정되는 관습에 따라 평귀족인 니꼴(Nicolle)

---

66) 6세기 영국의 해양탐험가로 캐나다의 북동 해안을 탐험했음. 그곳에 그의 이름을 딴 만이 있음
67) 성서의 인물, 창세기 IV, 22.
68) 흑해의 북쪽에 사는 이도 유럽의 유목민
69) 1678년 고어사전을 편찬함
70) 에스티발의 사제인 샤를르-루이 위고의 필명, 빅토르 위고가 자신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71) 오늘날은 그 어원을 '주님의 집' 을 뜻하는 '도미니오' 로 본다
72) 켈트족의 전쟁 신

과 멜레슈(Mélèches)의 영주 갓프레이(Godfrey)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재판관들 앞으로 소환되었던 소송 (Jersey, 1864)) 이 존재한다. 20수 주화, 상속 재산에 대한 법정 점유와 부동산 점유 침탈, 군주에 의한 봉토 몰수권, 봉건적인 토지 보유권, 동일가계 영지의 상환법, 과거가 존재한다. 사람들은 메시르[73]의 호칭을 사용한다. 왕이나 영주의 이름으로 재판하던 대법관이 있다. 봉건 시대의 지방 재판관이 있고, 백인대장을 일컫는 상트니에를 비롯하여 벵트니에, 두즈니에와 같은 각기 다른 계급의 지방 관리들이 있다. 그리고 생 소뵈르의 벵탠느와 생 뚜앙의 쾌이에트와 같은 소교구의 일부들이 있다. 해마다 주요 도로를 조사하기 위한 '프랑스군 총사령관' 의 기마행렬이 있다. 자작의 지위를 가진 자가 '손에 왕실의 깃대를 들고' 선두에 나선다. 정오 이전에는 카톨릭교에 관한 행사를 거행하는 시간이 있다. 성탄절과 부활절, 세례 요한의 축일, 대천사 미카엘의 축일이 곧 법률상의 지불 기일이다. 토지는 파는 것이 아니라 임대가 된다.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재판관님, 봉토와 영지에 관한 법정 공판이 행해지는 일시와 장소가 공표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보유지가 남의 소유지로 둘러싸인 지역에 있음을 부인하는 촌민의 소송 사건이 제기되기도 한다. 영주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 중에는 카톨릭의 성식(聖式)사례, 발견된 귀중품들, 혼인식 등등이 있다. 자신의 영역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영주가 감독관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향락이 있다. 휴회 기간과, 영주에 대해 주종관계를 인정하는 서약, 기록과 이중 기록이 있다. 이는 곧 고등 재판과 봉토의 하사장, 법정 점유 행위, 봉건 시대의 자유지, 지방 관할권의 존재를 뜻한다. 너무 중세적이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적인 자유 체제다. 여기에 정착하

---

73) Messire, 귀족의 존칭, 후에는 사제, 변호사, 의사 등의 경칭

여 살아가며 존재하면 되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사람이 되라. 누구도 당신의 이름을 알 권리가 없다. 당신에게 신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복음을 전파하라. 당신에게 깃발이 있는가? 그렇다면 깃발을 우뚝 세워라. 어디에? 거리에. 그것이 흰색이어도 좋고 푸른색이어도 좋다. 붉은색이라 할지라도 이는 하나의 색깔일 뿐이다. 정부를 규탄하기를 원하는가? 경계석 위로 올라가 외쳐라. 공공연하게 제휴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협력하라. 얼마나 많이? 스스로 원하는 만큼.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어떤 제한도 없다. 민중을 소집하기를 원하는가? 행동에 옮겨라. 어떤 장소에서? 광장에서. 왕위를 공격하는 것? 그것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공공연히 알리고 싶다면? 자, 여기 벽들이 있다. 생각하고, 말하고, 쓰고, 인쇄하고 연설하라. 그것이 곧 당신의 임무다. 한편에서 모든 것을 듣고 읽음이 곧 다른 한편으로 모든 것을 말하고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바로 언론과 인쇄의 절대적 자유가 있다. 누구든 원한다면 인쇄공이 될 수도, 사도가 될 수도, 또 할 수만 있다면 대주교가 될 수도 있다. 절대 권위자가 되는 것은 오로지 당신에게 달려 있다. 이를 위해 당신은 종교를 창설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선지자가 될 새로운 신의 형태를 상상해 보라. 어느 누구도 거기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필요에 따라서는 경찰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거기엔 어떤 제한이나 구속도 없다. 절대적인 자유, 이는 숭고하기까지 하다. 법적 판결에 대해 당신은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사제가 설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은 재판을 한다. '어제 법원이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 라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한다. 일어날 수 있는 재판상의 오류는 놀랍게도 어떤 존중의 권리도 없다. 인간의 판결은 마치 천상의 폭로처럼 논쟁에 휘말린다. 개인적인 독립이 가까스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간다. 각자가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관습에 의해서 그 자신의 군주가 된다. 주권은 우리의 삶에 너무

나도 전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므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느끼지 조차 못하고 있다. 법은 숨을 쉬는 것과 같다. 그것은 공기처럼 색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필수적인 요소이다. 동시에 사람들은 '충직' 하다. 바로 시민들 자신이 충신이 되고자 하는 자만심을 지니고 있다.

결국 19세기가 군림하고 통치한다. 19세기의 기운은 불 켜진 중세의 모든 창을 통해 들어온다. 옛 노르망디의 합법성이 자유의 물결을 타고 여기저기로 퍼져나간다. 이 낡은 오막살이가 자유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된다. 결코 시대착오적인 반항이란 있을 수 없다.

역사는 이 군도를 시대에 뒤쳐지게 하지만 산업과 기술이 군도를 현대적으로 만든다. 군도는 민중의 부르짖는 활동에 힘입어 무력화되는 사태를 모면한다. 이로써 우리는 멜레슈의 영주가 되는 데 저해 받지 않는다. 주권을 행사하는 봉건 제도, 사건 공화국, 이러한 것이 바로 군도의 현상이다.

이와 같은 자유 체제에는 한 가지 예외가 따른다. 단 한 가지. 우리는 이미 그것을 지적한 바 있다. 영국에는 전제군주가 존재한다. 영국의 전제군주는 돈 주앙의 채권자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디망슈*(일요일)이라고 불린다. 영국은 바로 *시간은 돈이다* 라고 말한 민족의 나라다. *디망슈* 군주는 일하는 주를 6일로 축소시킨다. 말하자면 영국인들에게 있어서 그들 자본의 일곱 번째를 탈취당하는 셈이다. 여기엔 어떤 저항도 있을 수 없다. *디망슈*는 관습에 따라 법률과는 매우 다른 압제자로서 통치한다. 영국의 왕인 디망슈에게는 갈르 르 스플렌[74] 왕자가 있다. 그에게는 권태를 누릴 권한이 있다. 그로 인해 공장,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극장, 심지어 정원과 숲에 이르기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영국의 일

---

74) Galles le Spleen, spleen; '우울증' 이라는 뜻

요일은 게른제보다 제르세에서 덜 강압적임에는 틀림없다. 게른제에서 프랑스의 가난한 술집 여주인이 방문객에게 맥주 한 잔을 따르는 날이 바로 일요일이라면, 이는 2주의 감옥 형에 해당된다. 프랑스에서 추방당한 어느 제화공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의 양식을 조달하기 위하여 일요일에 일하기를 원한다. 그는 망치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덧문을 닫는다. 망치 소리가 새어나가면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어느 일요일, 파리에서 막 도착한 어느 화가가 나무를 그리기 위해 길가에 멈춰 선다. 그러자 백인대장이 그를 심문하여 이런 행위를 즉각 그만두도록 엄명을 내리는데 그를 서기 과에 넘기지 않은 것은 충분히 관대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사우스햄튼의 한 이발사가 일요일에 어떤 행인을 면도해 줄 경우는 영국 돈 3파운드의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신이 바로 그 날 휴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7일 중에 6일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다. 일요일이 구속과도 같은 의미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한 주에 7번의 일요일을 가지는 나라들도 생각해볼 수 있다.

조만간 이런 구시대적인 마지막 구속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통적 교리의 정신이 뿌리 깊은 것만은 확실하다. 예를 들어 꼴랑소 주교에 제기된 소송이 심각한 문제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엘리엇[75]이 태양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중죄 재판소에 소환되었던 때 이래로 영국이 자유 속에서 닦아놓은 진보를 생각해 보라.

어느 가을, 판례들이 몰락하는 시기를 맞게 된다. 이는 곧 군주제의 쇠퇴기를 말한다. 때가 왔다. 노르망디 군도의 문명이 발전하여 그 행군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토착의 문명이며 전 세계에 걸쳐 환대를 받

75) 17세기 영국 의사였던 John Elliott는 친구들 중 한 명에게 쓴 편지에서 실제로 태양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친구가 법정에서 이 편지를 읽는 도중 그를 미치광이로 간주하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정에 얽힌 살인의 시도 때문에 그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 위고 원주

는 데 조금도 거칠 것이 없다. 그것은 17세기에 영국 혁명의 영향을 받았으며 19세기에는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이 문명은 두 번이나 독립에 대한 전율을 심어주었다.

게다가 모든 군도는 자유 국가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바다와 바람의 신비로운 작용으로 태어난 것이다.

〈19〉
피난처

예전에 이 섬들은 무시무시했지만 이제는 온화해졌다. 암초였던 곳이 피난처가 되었다. 비탄의 장소들이 구원의 지대로 탈바꿈한 것이다. 재난을 빠져나온 사람은 이곳으로 얼굴을 내민다. 폭풍우 때문이든 혁명 때문이든, 모든 조난자는 이곳으로 온다. 선원이건 쫓겨난 사람이건 가지각색의 풍파를 겪은 이 사람들은 모두 이곳의 포근한 태양 아래 몸을 말린다. 젊고, 가난한, 무명의 조국에서 쫓겨난 샤토브리앙은 게른제의 오래된 부두의 어떤 돌 위에 앉아있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친구여, 무엇을 원하나요?" 추방당한 프랑스인에게 이것은 커다란 위안이며, 그가 채널 아일랜드에서 다시 찾은 것은 프랑스의 악센트, 프랑스의 항구에서 들을 수 있는 외침, 프랑스의 거리와 들판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 소리, 문명 그 자체인 언어, 레미니시투르 아르고스[76]요 거의 신비에 가까운 한 구원이다. 루이 14세는 순수한 불어를 구사하는 용감한 프랑스

---

76) 로마의 시인 비르길리우스의 서사시 『아에네이드』에서 안토레스가 죽으며 조국 그리스를 기리는 말 중에서 나옴, '아르고스의 기억' 이란 뜻

인들을 이 노르망디 토착민 가운데로 파견했다. 낭트칙령의 폐지로 군도에 붙어가 보급되었다.

프랑스 밖으로 쫓겨난 프랑스인들은 망슈 군도에서 기꺼이 그들의 유배기간을 보내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꿈을 꾸며 이들 바위 사이를 거닌다. 그들의 선택은 여기에서 모국어를 다시 만나려는 욕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샤를르 10세에게 "그런데, 내가 당신을 제후로 만들려 했다고 말한 것을 잊었소"라고 말한 바로 그 리비에르 후작은 제르세의 사과나무들 앞에서 울곤 했으며 런던의 옥스퍼드 스트리트보다 생 텔리에의 피에르 로드를 더 좋아했다. 로앙이나 라 로슈푸코라고 부르기도 했던 앙빌 공작이 살았던 곳도 바로 그 피에르 로드에 있다. 어느 날, 다리가 짧은 늙은 사냥개를 기르던 무슈 당빌은 그의 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생 텔리에의 의사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자문을 구한 일이 있었다. 그는 제르세인 의사에게 개를 위한 처방전을 부탁했다. 개는 전혀 아프지 않았고 그것은 귀족의 농담일 뿐이었다. 의사는 조언을 해 주었다. 다음날, 공작은 다음과 같이 쓰인 청구서를 받았다.

두 건의 진찰:

공작 : 일 루이

개 : 십 루이

이곳 섬들은 운명의 피난처였다. 크롬웰에게 쫓겨난 샤를르 2세로부터 루벨에게 간 베리 공작까지 온갖 불운의 형태가 이 섬들로 스며들었다. 이천 년 전 브루투스에게 죽을 운명이었던 세자르도 여기에 왔었다. 17세기 이후, 이 섬들은 전 세계와 우애를 나누게 되었다. 누구나 환대하는 것

이 이들 섬의 자랑이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피난처이다.

이 섬들은 왕당파이지만 패배한 공화주의자를 받아들인다. 위그노이지만 망명한 카톨릭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카톨릭과 마찬가지로 볼테르를 증오하는 예의까지 갖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특히 국가의 종교에 따라서 적을 증오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므로 카톨릭은 망슈 군도에서 대단한 사랑을 받아야 한다. 난파로부터 빠져나와 여기 알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일종의 연수과정을 거치는 신참자들에게 때때로 이러한 고독의 짓누름은 견디기 힘든 것이다. 공기 중에는 절망이 있고, 절망 후 갑자기 거기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쓰다듬어 주는 것을 느낀다. 그를 일으켜 세우는 숨결이 지나간다. 이 숨결은 무엇일까? 어떤 메모, 어떤 낱말, 노래 한 구절, 사소한 것. 그 사소한 것이면 충분하다. 이 세상에서 그것, 그 사소한 것의 위력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십 년이나 십이 년쯤 전, 게른제에 방금 도착한 한 프랑스인[77]이 홀로, 슬픔에 잠겨, 뼈저리게, 잃어버린 조국을 생각하며, 웨스트의 모래톱을 방황하고 있었다. 파리에서는 산책을 하며 거닐지만 게른제에서는 방황하며 헤맨다. 그에게 이 섬은 음울해 보였다. 안개가 모든 것을 뒤덮고 해안에서는 파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바다는 바위 위에 거대한 물거품의 짐을 부리고 하늘은 적대적이고 시커멨다. 그렇긴 해도 봄이었다. 그러나 바다의 봄은 흉포한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이름은 춘분이다. 그것은 서풍보다 폭풍우에 가까운데, 바람으로 인해 코르네 성의 가장 높은 고원에 있는 신호 깃대의 끝보다 이십 피트나 더 높이 물거품이 일던 오월의 어느 날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프랑스인은 자신이 영국에 있는 것

77) 게른제로 유배를 왔던 위고 자신의 경험임

이라 생각했다. 그는 영어라면 한 마디도 알지 못했다. 황량한 갑 끝의 무너진 망루에서 나부끼는 바람에 찢긴 낡은 유니언 잭을 보고 있었다. 초가집 두어 채가 거기에 있었다. 더 멀리에는 모래와 히스와 황야와 가시양골담초가 전부였다. 낮게 설치된 커다란 포안이 뚫린 몇몇 포열이 그 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인간이 깎아 놓은 돌도 바다가 다듬어 놓은 바위도 같은 슬픔을 지니고 있었다. 프랑스인은 그의 내면에서 향수(鄕愁)를 알리는 마음속의 슬픔이 두께를 더해 가며 자신을 아프게 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찾고 있었다. 귀 기울이고 있었다. 한 줄기 빛도 없었다. 사냥하는 가마우지들, 도망치는 구름, 수평선 어디에나 납빛의 무거운 분위기, 천정점에서 드리워진 커다랗고 핏기 없는 커튼, 폭풍우의 수의를 입은 우울의 유령, 어느 곳 어느 하나도 희망과는 거리가 멀고, 조국과 닮은 것이라곤 전혀 없었다. 그 프랑스인은 생각하고 있었다, 점점 더 우울해짐을 느끼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가 고개를 들었다. 반쯤 열린 한 초가집에서 어떤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맑고 생기 있고 섬세한 목소리, 아이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들의 열쇠, 숲의 열쇠,
사랑의 열쇠를 주세요![78]

〈20〉

군도에서 프랑스에 대한 모든 추억이 언제나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

78) 나라를 찾아, 자유를 찾아 떠난다는 노랫말

칼비니스트의 근엄한 악센트를 지닌 경건한 목소리의 합창으로 매우 장엄하게 연주된 옛 프랑스 위그노 성가의 한 절을 어느 일요일 훌륭한 세르크 섬의 농가의 뜰에서 들은 바 있는 행인 한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들이 풍기는 냄새, 냄새,
코를 찌르는 썩은 공기 덩어리의 그것,
향기를 아는 나의 예수만이
달콤한 그것을 품고 있네

곡조는 우수에 젖어 있고 노랫말은 세벤느에서 죽은 이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의 고통에 가까운 것이다. 이 시구는 고급 희극이기는 하지만 본의 아니게 비극적이다. 사람들은 웃지만, 사실은 울어야 마땅하다. 이 구절에 관하여 '아카데미 프랑스의 사십 명' 중 한명인 보쉬에는 외쳤다. 죽여라! 죽여라!

게다가 광신적인 행위에 있어서 박해할 때는 섬뜩하고, 박해를 당할 때는 엄숙하며 애처롭다. 겉으로 드러나는 가락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가(聖歌)는 모든 노랫말을 초월하여 영혼 속에서 신비하게 노래하는 위대하고도 음울한 내적인 곡조를 갖으며, 심지어 괴기함까지도 숭고한 것으로 만들어 사제들의 시와 산문이 어떤 것이건 간에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거대한 숨은 조화를 통해 그것을 변모시킨다. 곡조는 받아들이는 시련과 참아내는 고통의 위대함으로 형식의 왜곡을 바로 잡는다. 시가(詩歌)가 결여된 곳에서 의식을 대신한다. 순교의 노랫말은 지루할 수 있다. 그러나 순교가 고결하다면 무엇이 문제이겠는가!

〈21〉

물고기를 많이 먹는 어부들은 대가족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법칙은 집집마다 아이들의 수가 일곱 여덟에 이르는 노르망디 군도 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것은 양심의 문제와 관련되는 특별한 문제들을 파생시킨다. 배를 조종하는 사람, 파일럿의 첫 번째 의무는 무엇인가? 파일럿에게는 모름지기 조난당한 뱃사람들에게 헌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이고 아버지에게는 아이들에게 헌신할 의무도 있다. 그 역시 조난당할 수도 있다. 목숨을 무릅쓰는 것은 혼자일 때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대가족의 일원일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배 한 척이 난바다에서 조난당했을 때, 그가 도움을 주러 간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 파일럿은 두 가지 난파의 사이에 놓인다. 그가 없으면 침몰할 위험에 처한 선원들의 난파와 그가 없으면 생계가 곤란해 질 아이들의 난파이다. 끔찍한 딜레마다. 그의 가족을 생각해야 하기에 영웅주의는 몸을 판다. 그는 대가 없이 사람을 구해 주는 천사가 아니다. 그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다.

종종 이러한 기묘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바다에서, 먹구름 아래서, 번개 아래서, 암초 앞에서 가격이 흥정된다. 구조행위를 흥정하는 것이다. 한 사람은 목숨을 팔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산다. 사느냐 마느냐가 문제다. 선행은 거저 주기를 원치 않는다. 난파될 위기에 처한 사람은 제안된 금액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가공할만한 선행의 문턱에서 고작 몇 푼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다.

어느 날 밤 폭풍우의 와중에 비바람을 맞으며 바위 꼭대기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멀리 떨어진 격노한 깊은 바다에서 바람의 음흉한 방해로 끊어지곤 하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들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배의 두 희미

한 형체가 하얀 물거품 안으로 오르내리는 와중에 이야기를 주고받는 두 개의 검은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지요?"

"조심해요. 가까이 오지 말아요. 앞 돛대가 당신을 덮치겠어요."

"어디서 오는 길이지요?"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데요?"

"몰라요."

"도와줄까요?"

"조심해요. 내겐 돛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당신을 덮치겠단 말이오."

"도와줄까요?"

"당신 배에 몇 사람 있지요?"

"셋이오."

"내 돛대가 당신네 배를 덮치면 당신네는 침몰할 거요. 썩 비켜요."

"내가 가 버리면 당신이 침몰할 텐데."

"하느님, 맙소사!"

"게른제로 데려다 줄까요? 난 조종사요."

"게른제가 어디요?"

"바로 저기요."

"틀려요. 그건 제르세잖아요."

"틀리다니요. 게른제라니까요."

"하느님, 맙소사!"

"배 이름이 뭐지요?"

"갈랑트."
"어디 출신이시오?"
"포르트리외."
"목적지는?"
"뉴펀들랜드."
"배엔 뭐가 있지요?"
"열아홉 사람에 짐이 더 있어요."
"도와줄까요?"
"누구시오?"
"조종사요."
"이름은?"
"레티비에."
"어디 출신?"
"생 피에르 뒤 부와."
"오, 하느님!"
"얼마면 되겠소?"
"오십 파운드."
"이십오 파운드?"
"아니. 오십."
"아니. 이십오."
"그럼 난 가겠소."
"썩 가 버려요."
"당신들은 좌초했어요. 거기는 돌 뿐이요. 저기 경종 소리가 안 들려요? 십오 분 후면 당신들은 죽어요."
"사십 파운드?"

"아니. 사십오로 합시다."

"사십오에 갑시다!"

그리고 레티비에는 *갈랑트*를 구조했다. 이것이 그 끔찍한 홍정의 실상이다.

〈22〉
호모 에닥스[79]

세월이 흐름에 따라 섬의 지세는 변화한다. 섬은 대양의 구조물이다. 그 재료는 영원하지만 외양은 그렇지 않다. 지상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인해 영원히 진흙반죽이 된다. 초인간적인 기념물도, 화강암까지도. 모든 것은 형태가 변한다. 형태가 없다 해도 바다의 건물들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무너져 내린다. 그것들을 세워놓은 바다가 또한 그것들을 뒤집어엎는다.

천오백 년 전, 엘베 강의 하구에서 라인 강의 하구 사이에서만 스물세 개의 섬 중 일곱 개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바다 속에서 그 섬들을 찾아보자. 바다가 쥐데르제를 만든 것은 13세기였다. 바다가 스물두 개의 마을을 앗아가면서 비 보슈 만을 창조한 것은 15세기였다. 그리고 토룸을 빨아들이면서 돌라르 만을 부랴부랴 만들어 낸 것은 16세기였다. 백 년 전에 붕괴된, 지금은 노르망디 절벽 위에 수직으로 잘린 부르도 옛 마을의 교회 종탑은 여전히 물 속에 잠겨있다. 에크레 우에서는 간조 때면 가

79) 설치류(齧齒類) 인간, (Man the devourer) 로마의 시인 오비드의 시 구절에서 위고가 인용하였음

끔씩 8세기에 침수된 드루이드교 승려들이 있던 숲의 나무들이 드러나 보인다고 한다. 옛날에 게른제는 에름에, 에름은 세르크에, 세르크는 제르세에, 제르세는 프랑스에 붙어 있었다. 프랑스와 제르세 사이에는 어린아이도 건너 뛸 만한 협곡이 있었을 뿐이었다. 쿠탕스의 주교가 그곳을 지날 때 주교의 발이 조금이라도 젖지 않도록 하려면 나뭇가지 한 단을 걸쳐놓는 것으로 족했다.

바다는 건설하고 파괴한다. 그리고 인간은 건설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에 있어서 바다를 돕는다.

세월속의 톱니(齒) 중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인간의 곡괭이다. 인간은 설치류(齧齒類)다. 인간으로 인해 모든 것은 변화되고 변질되어 최상의 것이 되기도 하고 최악의 것이 되기도 한다. 어떤 것은 흉하게 되고 어떤 것은 아름답게 된다. 롤랑의 브레슈[80]는 보이는 것처럼 멋진 길이 아니다. 인간은 자연에 칼질을 한다. 신의 작품에 인간의 작품으로 상처를 남긴다.

인간은 성취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부여받은 듯하다. 그는 인간의 속성에 맞는 창조를 한다. 그것이 그의 기능이다. 그리하여 방약무인하게 되고 거의 불경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자연과의 공동작업은 때때로 공격적이 된다. 짧은 세월을 살뿐, 영원히 죽는 인간은 무한한 것을 시도한다. 자연의 밀물과 썰물에, 다른 사물과 서로 교통하길 원하는 사물에, 주위의 현상에, 심연 속으로 항해하려는 거대한 힘에, 인간은 봉쇄를 통고한다. 그 역시 너는 더 멀리 갈 수 없으리라[81]고 말한다. 그에게는 사정이 있고 우주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게다

80) 샤를마뉴 대제의 용사 롤랑의 칼로 베어 졌다고 전해 지는 피레네 산맥의 협곡
81) 욥기 38: 11

가 그의 소유인 우주가 따로 없지 않은가? 그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려 한다. 우주는 기본재료로 이루어진 덩어리이다. 신의 작품인 세상은 인간의 화포(畵布)이다.

모든 것이 인간을 막고 서 있지만 아무것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다. 인간은 뛰어 넘음으로써 한계에 응수한다. 불가능은 언제나 뒷걸음질치는 경계선이다.

기저에는 대홍수의 진창이 있고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는 지질학적 생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장벽이다. 그는 그것에 구멍을 뚫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는 지협(地峽)을 자르고, 화산을 정복하고, 절벽을 나무 베듯 자르고, 광맥을 파내고, 갑을 작은 조각으로 만든다. 옛날에는 이 모든 수고를 크세르세[82]를 위해 바쳤지만 그 때보다 덜 아둔한 지금은 자신을 위해 바친다. 이러한 아둔함의 감소를 일컬어 발전이라 한다. 인간은 그의 집에서 일하고 그의 집은 땅이다. 그는 어지르고, 옮겨놓고, 철거하고, 쓰러뜨리고, 깎고, 파들어 가고, 기반을 파서 무너뜨리고, 구덩이를 파고, 파서 헤치고, 깨뜨리고, 가루로 빻고, 저것을 삭제하고, 이것을 파괴하고 나서 그 파괴한 것으로 다시 건설한다. 어떤 양도, 어떤 덩어리도, 어떤 면적도, 어떤 찬란한 물질의 위력도, 어떤 자연의 장엄함도, 아무것도 그를 주저하게 하지 않는다. 창조의 거대함이 그의 능력에 닿는 것이면 그는 그것을 맹렬히 공격한다. 파괴될 수 있는 신의 옆구리는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인간은 거대함을 향하여 손에 연장을 들고 돌격한다. 미래에는 조각난 알프스산맥을 볼지도 모른다. 지구여, 너의 개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장난감을 부수는 아이는 장난감에서 영혼을 찾으려는 듯하다. 인간 역

---

82) 페르시아의 왕, 그리스인과의 전쟁에서 아토스 산의 지협을 운하로 만들었다

시 대지의 영혼을 찾으려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을 과장하지는 말자, 인간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창조의 거대한 윤곽은 그대로이다. 궁극적인 덩어리는 전혀 인간에게 속한 차원이 아니다. 미세한 것을 움직일 힘은 있지만,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 전체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자연의 법칙은 우리를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저 표면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땅에 옷을 입히거나 벗긴다. 산림의 벌채는 옷을 벗기는 것과 같다. 그러나 축에서 도는 지구의 속도를 늦추는 것, 궤도 내에서의 지구의 운행에 박차를 가하는 것, 하루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 718,000리외[83]의 거리에 단 1투와즈[84]를 덧붙이거나 떼어내는 것, 세차(歲差)를 수정하는 것, 빗방울 하나를 없애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다. 하늘의 이치는 하늘의 이치로 존속된다. 인간이 기후는 변화시킬 수 있을망정 계절은 변화시킬 수 없다. 변화시킬 수 있다면 달을 황도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게 해 보라!

저명인사들까지도 몇 명 포함되는 일군의 몽상가들이 지구에 영원한 봄을 만들기를 꿈꾸었다. 극과 극의 계절인 여름과 겨울은 우리가 방금 말한 그 황도의 위치에서 지구의 축이 지나치게 기울어짐으로 인해 생긴다. 여름과 겨울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그 축을 바로 세우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보다 간단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극점에 지구의 중심까지 이르는 말뚝을 박고, 거기에 사슬을 매어, 지구 밖에 그것을 당길 만한 터를 잡아, 각각 100억 마리의 말로 이루어진 100억 개의 그룹을 만들어 당기게 하면, 축은 바로 설 것이고, 봄은 끝없이 계속 될 것이다. 보다시피 쉬운 일이다.

---

83) 약 3,500,000km (1리외=4.8km=3마일)

84) 약 2m

다른 곳에서 에덴을 찾자. 봄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정의는 더욱 가치 있는 것이다. 에덴은 정신계에 속하는 것이지 결코 물질계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평온함은 내적인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봄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

〈23〉
돌을 부수는 사람들의 힘

게른제는 트리나크리아다.[85] 트리나크리아의 여왕은 시칠리아다. 시칠리아 섬은 넵튠에 속하며 섬의 세 각은 넵튠의 삼지창(三指槍)[86] 중 하나에 바쳐졌다. 세 개의 갑에는 세 개의 사원이 있었는데 덱스트라와 뒤비아와 시니스트라이다. 덱스트라는 레 플뢰브 갑에, 시니스트라는 레 메르스 갑에, 뒤비아는 레 플뤼 갑에 있었다. 파라오 프사무디스가 아크리장트의 왕 트라시데를 위협하여 시칠리아를 '원반처럼 둥글게' 만들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 트리나크리아들은 인간의 개조를 피하여, 자신을 창조한 대홍수가 다시 부수러 올 때까지 그들의 세 갑을 지킬 것이다. 시칠리아는 언제나 펠로르 갑을 이탈리아 쪽으로, 파치눔 갑을 그리스 쪽으로, 리리베 갑을 아프리카 쪽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며, 게른제는 언제나 앙크레스 갑을 북쪽으로, 플랭몽 갑을 남서쪽으로, 제르부르 갑을 남동쪽

85) 삼각형의 섬, 시칠리아 섬의 원래 이름

86) 넵튠: 해신(海神), 그리스 신화의 포세이돈에 해당함. 삼지창: 포세이돈의 표장

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어쨌든 게른제는 온통 파괴의 와중에 있다. 이곳의 화강암은 질이 좋다. 누가 그것을 필요로 할까? 모든 절벽은 경매에 붙어 있다. 주민들은 섬을 잘게 나누어 팔고 있다. 호기심을 자아내는 로크 오 디아블르 암벽은 최근에 골동품처럼 몇 파운드에 낙찰되었다. 빌르 보뒤의 너른 길이 다 팔려 나갔으므로 사람들은 다른 길로 다닐 것이다.

영국 전체가 이 돌을 주문한다. 템즈 강에 둑만 쌓는다 해도 20만 톤은 족히 들어갈 것이다. 왕실의 조상(彫像)이 견실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충성스러운 시민들은 치즈링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알베르 공의 청동상 받침이 게른제의 튼튼한 바위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어쨌든 게른제의 해안은 곡괭이질에 떨어져 나가고 있다. 4년 동안에 생 피에르 포르에서는 팔뤼에 사는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산 하나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금 칠레 제일의 항구이자 태평양의 제이 항구인 발파래조는 낙원의 골짜기라는 별명이 붙은 거대하고 유서 깊은 언덕들을 석재 상인들에게 경매를 통해 팔고 있다.

옛 게른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섬을 알아 볼 수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었을지 모른다. "사람들이 내 출생지를 바꿔 버렸다오." 웰링턴은 그의 출생지였던 워털루에 대하여 같은 말을 했었다. 옛날에는 불어를 사용하던 게른제가 지금은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파괴라는 사실을 여기에 덧붙이자.

1805년까지 게른제는 두 개의 섬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바다로부터 유입되는 물이 크르벨 산 동쪽에서부터 크르벨 산 서쪽까지 드문드문 섬을 횡단하고 있었다. 이 바다의 지류는 레 프뤼키에와 두 개의 소로키에를

마주한 서쪽 끝에서 만입되었으며 육지의 꽤 안쪽까지 들어오는 여러 개의 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살테른까지 닿아 있었다. 이 바다의 지류를 브래 뒤 발이라 했다. 지난 세기의 생 상송에는 대양의 좁고 구불구불한 물길 양쪽에 정박지들이 있었다. 네덜란드인들이 아를렘 호수를 고갈시켜 그것을 매우 추한 벌판으로 만들었듯이 게른제 사람들은 브래 뒤 발을 메워 지금의 풀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길은 막혀서 생 상송 항구가 되었다.

〈24〉
군도민의 친절

노르망디 군도를 본 사람은 군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곳에서 살던 사람은 그곳을 존경하게 된다. 거기에 위대한 영혼을 가진 고결한 서민이 산다. 그들은 바다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 망슈 군도의 사람들은 별개로 하나의 민족을 이룬다. 그들은 '본토' 에 대하여 말하자면 우위를 지닌다. 그들은 때때로 '연못 속의 꽃병 서너 개' 라고 멸시하는 영국인들을 거만하게 대한다. 제르세와 게른제는 이렇게 반격한다. "우리는 노르망디인이고 영국을 정복한 것도 바로 우리다." 여러분은 웃으면서도 감탄할 것이다. 언젠가는 파리사람들이 이 섬들을 유행의 섬으로 만들고 재산을 챙기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들 섬은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그들이 알려지는 날 끊임없는 번창이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들 섬은 여가를 위해 안성맞춤인 기후와 일을 위해 안성맞춤인 주민이 어우러진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 목가적인 풍경이 곧 일터가 되기도 한다. 노르망디 군도는 시클라드 제도보다 일조량이 적지만 초목은 더욱 푸르다. 그리고 오

크니 군도만큼 푸르고 일조량은 더 많다. 아스티팔레 사원은 없지만 크롬렉은 있다. 핀갈의 동굴[87]은 없지만 세르크가 있다. 물랭 위에(Le moulin Huet)는 트레포르[88]에 비길 만하다. 아제트의 모래사장은 트루빌에 비길 만하고, 플레몽은 에트르타[89]에 비길만하다. 경치는 아름답고 사람들은 착하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만한 역사를 갖고 있다. 원시상태로 남아 있는 곳곳의 경치는 장엄하기까지 하다. 군도에는 사도(使徒) 엘리에, 시인 로베르 바스[90], 영웅 피에르송[91]이 있었다. 영국의 훌륭한 장성들과 해군대장들 중에는 이곳 군도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몇몇이 있다. 이곳의 어부들은 가난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관대하기도 하다. 리용의 수재민과 맨체스터의 기아민을 돕기 위한 기부금에서 제르세와 게른제는 프랑스와 영국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 주었다 (특히 게른제의 경우임, 1856년 프랑스의 수재민을 위한 기부금액의 비율은: 프랑스, 주민 1인당 30상팀, 영국, 6상팀, 게른제, 38상팀이다). 이곳 사람들의 초기 생활은 재난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부심을 가진 밀수업자로서의 활약으로 꾸려나갔다. 그들은 어디든지 가고, 그들은 분봉하는 벌 떼처럼 여러 곳에 집을 만든다. 옛 그리스 군도처럼 노르망디 군도는 오늘날의 식민지를 건설한다. 거기에 그들의 명성이 있다. 호주에도 캘리포니아에도 실론 섬에도 제르세와 게른제 사람들이 있다. 북아메리카에는 뉴저지(제르세)와 오하이오 주의 뉴 거언지(게른제)가 있다. 이 앵글로—노르만 족은 비록 종파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았지만, 진보에 대한 변치 않는 의욕을 갖고 있었다. 모든 미신은

87) 서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현무암 동굴
88) 트루빌, 에트르타: 영불해협에 있는 항구, 해수욕장
89) 센느 마리팀에서 르 아브르에 이르는 패이 드 코의 해안
90) 12세기의 앵글로—노르만 시인
91) 1781년 제르세에서 프랑스의 공격에 대항하여 싸움

물론 이성까지 갖추고서 말이다. 프랑스는 강도의 땅이 아니었던가? 영국은 식인종의 땅이 아니었던가? 겸손한 마음으로 문신을 새긴 우리의 조상을 생각하자.

산적질이 번창하던 곳을 상업이 지배한다. 찬란한 변신이다. 수세기 세월이 만든 작품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인간이 만든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은 군도가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준다. 이런 작은 나라들이 바로 문명의 증거이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리자. 이러한 소우주는 인간의 위대한 형성과정의 모든 단계를 보여 주는 축소판이다. 제르세, 게른제, 오리니, 먼 옛날 해적의 소굴은 오늘날의 공장이 되었다. 과거의 암초가 이제는 항구이다.

역사라고 부르는 파란곡절의 연속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보는 사람에게, 문명의 태양 앞으로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나타나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바다의 밤과 같은 이 민족보다 더 감동적인 볼거리는 없을 것이다. 어둠 속의 인간이 몸을 돌려 여명을 마주한다. 이보다 위대한 것도 이보다 비장한 것도 없다. 과거의 악당, 오늘의 노동자. 과거의 원시인, 오늘의 시민. 과거의 늑대, 오늘의 인간. 그는 옛날보다 덜 오만해졌는가? 아니다. 단지 지금의 오만은 빛을 향해 가는 것이다. 연안이나 강기슭의, 성실하고 친근한 오늘날의 상선(商船)과 *호모 호미니 몬스트룸*[92]을 신조로 삼는 괴물 같은 옛 전함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는 그 얼마나 눈부신가! 자연의 장벽은 이제 다리가 되었으며, 장애물은 도움이 되었다. 이 민족이 해적이었던 바로 그곳에서 이제는 조종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고 대담하다. 이 땅은 성실의 땅이 되어 가는 한편 모험의 땅으로 남아있다. 출발점이 미미했던 만큼 사람들은 그 진보에 더욱 감동을

---

92) 플라우투스의 호모 호미니 루푸스를 변용한 말

받는다. 새둥지의 알껍데기에 묻은 새똥은 비상하는 새의 펼쳐진 날개폭을 경탄하게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르망디 군도라고 하면 해적질을 떠올린다. 사방을 비춰주는 전기 등대의 도움으로 파도와 암초의 미궁을 건너 위풍당당하게 항해하는 매력적이고 차분한 현대식 배 앞에서 인간이 이룩한 확실한 발전으로 인해 편안히 양심을 논하면서, 그 옛날 이따금씩 희미한 달빛이 보일 뿐인 시커먼 파도 위를 극심한 바람으로 불꽃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장작불에 의지하여 나침반도 없는 샬루프선을 타고 이 갑에서 저 갑으로 항해하고 있는 옛 선원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범죄자 같고 야수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I
나쁜 평판

〈1〉
하얀 눈 위에 쓴 이름

182×년 게른제의 크리스마스는 특별했다. 눈이 내린 것이다. 망슈 군도에서 겨울에 얼음이 언다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일이고 눈이 내리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 된다.

이 크리스마스 날의 아침, 생 피에르 포르의 바닷가 도로는 온통 하얬다. 자정부터 새벽까지 눈이 내렸던 것이다. 이제 막 해가 뜬 9시경, 아직 성공회 신자들이 생 상송의 교회로 가고 감리교 신자들이 엘다드의 교회로 갈 시간이 아니어서 길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갈림길 주변에 한 아이와 남자와 여자, 단 세 사람의 행인이 있을 뿐이었다. 따로 떨어져 걷고 있는 이들 세 사람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여덟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는 걸음을 멈추고 신기한 듯이 눈 구경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100보쯤 거리를 두고 여자의 뒤에서 걸어가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생 상송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젊었으며 노동자이거나 아니면 선원으로 보였다.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으나 두터운 갈색 천으로 만든 작업복 저고리와 역청을 먹인 바지 차림인 것으로 보아 교회로 가는 것은 아닌 듯했다. 굵은 못이 잔뜩 박힌 두꺼운 가죽 신발은 사람의 발자국이라기보

다는 감옥의 자물쇠를 연상시키는 자국을 눈 위에 남기고 있었다. 한편, 여자는 일찍이 교회로 가는 옷차림이 분명했으며 솜이 든 널따란 검은 페이유 망토 속에 몸에 예쁘게 꼭 맞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흰색과 분홍색의 밴드가 달린 아일랜드 포플린의 세련된 드레스였다. 빨간 스타킹만 신지 않았더라면 누가 봐도 파리 아가씨라 했을 것이다. 가볍고 자유롭고 발랄한 걸음걸이는 아직 인생의 무게가 실리지 않은 소녀의 것이었으나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우아함은 소녀의 끝에서 한 여인으로 변해 가는 섬세한 모습을 어렴풋이 드러내 주고 있었다. 남자는 그녀를 의식하지 않고 있었다.

바스 매종이라고 불리는 들판 한 쪽의 털가시나무 덤불 근처에서 갑자기 그녀가 뒤돌아서는 바람에 남자는 그녀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잠시 남자를 보는가 싶더니 이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눈 위에 무엇인가를 쓰고 일어서서 잰걸음으로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돌아섰다. 이번에는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리에르 성으로 통하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는 왼쪽 오솔길로 사라져 버렸다. 남자는 여자가 두 번째로 돌아섰을 때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매혹적인 처녀 데뤼셰트였다.

남자는 그리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털가시나무 덤불 쪽으로 걸어갔다. 사라진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순간 어쩌면 바다에서 튀어나온 돌고래나 덤불 속에서 날아온 울새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찾으며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다. 우연하게도 숙이고 있던 그의 시선이 무심결에 소녀가 서 있었던 자리에 멈췄다. 그곳에는 두 개의 작은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고 그 곁에 그녀가 눈 위에 써놓은 글씨가 있었다. *질리아*였다.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다. 그가 바로 질리아였다.

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자신의 이름과 작은 발자국, 하얗게 쌓인 눈을 바라보면서. 그리고는 가던 길을 계속 걸었다. 생각에 잠겨서.

〈2〉

뷔드라뤼[93)]

질리아는 생 상송 소교구에 살고 있었으며, 그곳의 사람들은 질리아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그는 '귀신들린' 집에 살고 있었다. 이따금씩, 제르세나 게른제에서는 시골에서나 도시에서, 인적이 뜸한 곳이나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거리에서 입구에 바리케이드가 쳐진 집을 볼 수 있다. 문 앞에는 호랑가시나무가 버티고 서 있으며 못을 박아 놓은 뭔지 알 수 없는 보기 흉한 판자조각이 1층의 창문을 막고 있다. 2층 창문에는 빗장을 질러놓기는 했지만 유리가 모두 깨져 있어서 열려 있는 것도 그렇다고 닫혀 있는 것도 아니다. 작은 뜰이 있다 해도 잡초가 무성할 뿐이며 울타리의 난간도 모두 무너져 있다. 정원이 있으나 쐐기풀이나 가시덤불, 독이 든 당근 따위가 자라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거기서는 희귀한 곤충들을 볼 수 있다. 굴뚝은 금이 가고 지붕은 내려앉았다. 방도 부서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목재는 썩고 주춧돌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으며, 벽에 바른 벽지는 떨어져서 너덜너덜하다. 누군가 옛날에 유행했던 벽지에 대해 연구를 하려 한다면 이곳이 제격일 게다. 거기에는 그리폰[94)]이 그려져 있는 제정시대의 벽지, 집정

---

93) 외딴 곳을 상징하는 이름으로서 '길의 끝' 이라는 뜻. 이곳 너머에는 바다밖에 없다

내각[95]의 초승달 문양의 벽지, 루이 16세 시대의 난간 살과 표석이 그려진 벽지 등이 있다. 파리가 잔뜩 걸려 죽은 촘촘한 거미줄은 거미들만이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선반 위에서는 깨진 단지가 나뒹군다. 이 '귀신들린 집' 에는 밤이면 악마가 출몰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집도 죽는다. 미신은 집을 죽이고 죽은 집은 끔찍한 몰골로 변한다. 망슈 군도에서는 이런 죽은 집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망슈의 농촌이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악마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많다. 영국의 군도이자 프랑스의 연안지방인 이곳의 주민들은 악마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 온 지상에는 악마의 사자(使者)들이 있다. 프랑스에는 지옥의 사자로서 벨페고르가 있고 이탈리아에는 위트겡이 있으며 터키에는 벨리알, 스페인에는 타뮈즈, 스위스에는 마르티네, 영국에는 맘몽이 있다. 사탄은 다른 황제들과 다름없는 황제이다. 사탄 세자르라고 한다. 그는 잘 갖춰진 궁전에 살고 있다. 그에게는 빵을 관리하는 다공과 환관의 우두머리 쉬코르 베노, 도박장의 물주 역할을 하는 아스모데가 있으며 연극연출가 코발과 훌륭한 의전장(儀典長) 베르들레, 익살광대 니바가 있다. 흡혈귀와 귀신 연구에 조예가 깊었던 비에뤼[96]는 니바를 '훌륭한 패러디 작가' 라 부르기도 했다.

망슈의 노르망디 어부들은 바다에 나가 있을 때면 악마가 만든 환상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생 마클루[97]가 오리니와 레 카스케 사이의 공해(公海) 상에 있는 네모난 거대한 암초 오르타슈에 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옛날의 늙은 선원들도 그가 암초 위에 앉

94) 몸은 사자이며 머리와 날개는 독수리인 그리스 신화 속의 괴물

95) 1795~1799년 사이 프랑스 혁명 정부의 내각

96) 벨기에의 의사

97 또는 생 말로, 웨일스의 수도자

아서 책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먼발치로 자주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는 뱃사람들은 이런 전설이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오르타슈 암초 앞에 이르게 되면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르타슈의 암초에 살고 있는 것은 마클루 성자가 아니라 악마라는 것이 밝혀졌고,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 조크무스라는 이름의 이 악마는 수세기 동안 마클루 성자로 여겨질 만큼 간교했다. 게다가 교회조차도 이런 착각에 빠져 있었다. 라귀엘, 오리벨, 토비엘 같은 악마들은 교황 자샤리가 그들의 정체를 알아내고 추방한 745년까지는 성인의 자리에 있었다. 참으로 유익한 이런 추방을 위해서는 악마에 대해서 정통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 고장의 노인들의 말에 따르면 옛날 노르망디 군도의 카톨릭 교도들은 그들이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간에 위그노교도들 보다 악마와 더 잘 교통했다고 한다. 물론 과거에 국한된 일이며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옛날에는 이 악마가 소수집단인 위그노교도들을 몹시 괴롭혔다는 것이다. 악마는 카톨릭 교도들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은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카톨릭 교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 그들을 자주 찾았다. 가장 뻔뻔스러운 악마의 행동은 저녁에 카톨릭 신자 부부의 침실에 찾아드는 것이었다. 그것도 남편은 완전히 잠들고 아내는 반쯤 잠든 시간에 찾아갔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발생했다. 파투이에는 이렇게 해서 볼테르가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전혀 있음직하지 않은 이야기가 아니다. *구마경(驅魔經)의 저녁의 착각과 악마의 자손에 대하여* 라는 부분에는 이러한 경우가 잘 설명되어 있다. 악마는 특히 18세기 말엽 생 텔리에에서 혁명을 일으킨 죄로 탄압을 받았다. 과도한 혁명적 행동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다. 어쨌든 간에 악마는 우리가 잠을 자거나 깨어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분명히 알아 볼 수 없는 밤에 나타나 정통 카톨릭 교도의 많

은 여신도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혹시라도 자신이 볼테르 같은 아이를 낳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불안에 떨던 여신도가 하루는 고해신부에게 이 애매한 순간에 의혹을 푸는 방법을 물었다. 고해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남편인지 악마인지 잘 모를 때는 머리를 만져 보십시오. 만일 뿔이 손에 잡히면 당신은 분명히…." "분명히 뭐죠?" 여자가 물었다.

질리아의 집은 예전에는 귀신들린 집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실이 또 다른 의심을 낳았다. 귀신들린 집에 마법사가 살기 시작하면 악마는 그 집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마법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불러내지 않는 한 나타나지 않겠다고 공손히 인사하고 떠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집의 이름은 '뷔드라뤼' 였으며 우메 파라디[98] 만 속에 더 작은 만을 이루는 땅 끝, 아니 바위 끝에 홀로 외로이 서 있었다. 그곳의 물은 깊었으며 뷔드라뤼의 정원은 만조 때면 바닷물에 잠기기도 했다. 생 상송 항에서 우메 파라디로 가는 길에는 높은 언덕에 여러 개의 탑과 담쟁이덩굴로 둘러싸인 아르샹쥬 성이 가로막고 있어 뷔드라뤼를 더욱 외로워 보이게 했다.

게른제에서는 마법사가 드물기는 하지만 특정 소교구에서 여전히 마법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19세기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그들의 어떤 행동들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다. 금을 끓이고 한밤중에 풀을 뜯으러 다니며 짐승들을 사람처럼 여기기도 한다. 사람들은 마법사들에게 조언을 청하기도 한다. 그러면 마법사들은 사람들에게 '환자의 소변' 을 병에 담아 가져오게 하고, *소변이 너무 슬퍼 보이는구나* 라고 중얼거린다. 1856년 3월 어떤 마법사는 '환자의 소변' 속에 일곱 악마가 들어 있다는 것을

98) 작은 외딴 섬

은 여신도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혹시라도 자신이 볼테르 같은 아이를 낳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불안에 떨던 여신도가 하루는 고해신부에게 이 애매한 순간에 의혹을 푸는 방법을 물었다. 고해신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남편인지 악마인지 잘 모를 때는 머리를 만져 보십시오. 만일 뿔이 손에 잡히면 당신은 분명히…." "분명히 뭐죠?" 여자가 물었다.

질리아의 집은 예전에는 귀신들린 집이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나 그 사실이 또 다른 의심을 낳았다. 귀신들린 집에 마법사가 살기 시작하면 악마는 그 집이 잘 지켜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마법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불러내지 않는 한 나타나지 않겠다고 공손히 인사하고 떠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집의 이름은 '뷔드라뤼' 였으며 우메 파라디[98] 만 속에 더 작은 만을 이루는 땅 끝, 아니 바위 끝에 홀로 외로이 서 있었다. 그곳의 물은 깊었으며 뷔드라뤼의 정원은 만조 때면 바닷물에 잠기기도 했다. 생 상송 항에서 우메 파라디로 가는 길에는 높은 언덕에 여러 개의 탑과 담쟁이덩굴로 둘러싸인 아르상쥬 성이 가로막고 있어 뷔드라뤼를 더욱 외로워 보이게 했다.

게른제에서는 마법사가 드물기는 하지만 특정 소교구에서 여전히 마법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19세기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그들의 어떤 행동들은 분명히 죄가 되는 것이다. 금을 끓이고 한밤중에 풀을 뜯으러 다니며 짐승들을 사람처럼 여기기도 한다. 사람들은 마법사들에게 조언을 청하기도 한다. 그러면 마법사들은 사람들에게 '환자의 소변' 을 병에 담아 가져오게 하고, *소변이 너무 슬퍼 보이는구나* 라고 중얼거린다. 1856년 3월 어떤 마법사는 '환자의 소변' 속에 일곱 악마가 들어 있다는 것을

98) 작은 외딴 섬

증명했다. 사람들은 무서웠고 두려웠다. 최근에도 어떤 마법사가 빵집 주인에게 그의 '오븐과 함께' 마술을 걸었다. 어떤 마법사는 '아무것도 없는' 봉투를 정성스럽게 봉인해 줄 만큼 비열했다. 자신의 집 선반에 B라는 꼬리표를 붙인 병 세 개를 놓기까지 한 마법사도 있었다. 어떤 마법사들은 친절하게도 기니[99]두세 닢으로 병을 고쳐준다. 그들은 침대에서 소리를 지르며 데굴데굴 구르고 몸을 뒤틀며 말한다. "자, 이제 다 나았어요." 어떤 마법사는 무슨 병을 치료하든지 손수건으로 환자를 묶는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18세기에 게른제는 마법사들을 나뭇단에 올려놓고 산채로 화형에 처했다. 오늘날에는 8주 동안 감옥에 가둘 뿐인데 4주 동안은 빵과 물만 먹게 하고 나머지 4주 동안은 독방에 가둔다.

1647년에 게른제의 마지막 마법사의 화형식이 보르다쥬 광장에서 있었다. 이 광장은 1565년부터 1700년에 걸쳐 마법사 11명의 화형식이 치러졌던 곳이기도 했다. 보통 그들은 죄를 시인했다. 고문을 해서 자백하게 했기 때문이다. 보르다쥬 광장은 사회와 종교를 위해 다른 일을 하기도 했다. 이교도들의 화형식을 거행했던 것이다. 마리 튀도르 통치시기에 위그노교도였던 어머니와 두 딸의 화형식이 있었다. 두 딸 중 한 명은 임신 중이었고 화형대의 이글이글 타오르는 불 속에서 해산을 했다. 사료에 의하면 '그녀의 배가 터졌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있는 아기가 튀어나왔다. 갓난아기는 그 커다란 불구덩이 속에서 밖으로 굴러 나왔고 한 구경꾼이 아기를 들어올렸다. 그러나 독실한 카톨릭 교도였던 대법관 엘리에 고슬랭은 아기를 다시 불 속으로 집어 던졌다고 한다.

---

99) 영국의 옛날 금화로 21실링에 상당함, 현재는 우리나라의 전(錢)처럼 계산상의 화폐단위임

〈3〉
너와 결혼할 네 신부를 위하여

질리아의 이야기로 되돌아 가 보자.

혁명 말기에 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게른제에 살러 들어왔다고 한다. 그녀가 프랑스인이었는지 영국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의 게른제식 발음에 따라 철자를 맞춘 것이 질리아였다. 그녀는 아이와 단 둘이서 살았지만 둘의 관계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돈을 조금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근근이 살아가면서 세르장테에 작은 목장과 로켄느 근처, 로크 크레스펠에 가시 금작화 밭을 샀다. 그때까지도 뷔드라뤼의 집은 악마가 출몰하는 집이었다. 30년이 넘게 아무도 살지 않아 다 쓰러져 가고 있었다. 정원은 걸핏하면 바닷물에 잠겨 아무런 수확도 없었다. 저녁에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섬광이 번득였으며 난로 위에 수프가 가득 든 접시와 함께 바늘과 털실 뭉치를 놓아두면 다음 날 아침에는 빈 접시와 벙어리장갑 한 쌍이 놓여 있는 놀라운 일도 일어났다. 단 돈 몇 파운드면 안에 있는 악마까지 덤으로 얹어서 이 오막살이를 살 수 있었다. 그녀는 분명 악마의 유혹에 넘어갔거나, 아니면 싼 맛에 이 집을 샀다.

그녀는 집을 샀을 뿐 아니라 아이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 살았다. 그때부터 집이 조용해졌다. "제대로 찾아 들어갔다."고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악마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낮에 들리던 기분 나쁜 외침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저녁에 여자가 불을 밝혀 놓는 비계 덩어리 말고는 섬광도 번득이지 않게 되었다. 사람들은 마녀의 촛불이 악마의 횃불을 사라지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사람들은 만족스러워 했다.

그녀는 자신이 소유한 자그마한 땅을 일구었다. 노란 버터를 만들 튼튼

한 암소도 길렀다. 하얀 콩과 양배추, 감자도 수확했다. 다른 사람들처럼, '양방풍 나물은 톤으로, 양파는 100개씩, 콩은 데느렐[100]로' 내다 팔았다. 그녀는 시장에 가지 않았지만, 생 상송에 있는 아브르뵈르의 길베르 파이요를 통해 수확물들을 팔았다. 파이요의 장부에는 *철 이른 고구마를 12부아소*[101]씩 그녀 대신 팔았다고 적혀 있다.

집은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만 손을 봤다. 비바람이 심한 날이면 방안으로 비가 들이쳤다. 집은 1층과 다락방으로 되어 있었다. 1층에는 침실 두 개와 부엌이 있었으며 다락방은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여자는 요리를 하며 아이에게 읽기를 가르쳤다. 교회에는 가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자를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요컨대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분명히 프랑스인이었을 것이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돌을 분출하듯이 혁명은 가족들을 서로 멀리 떼어놓는다. 운명은 엇갈리고 여러 무리의 사람들은 흩어지고 산산조각난다. 그들은 당황한다. 독일이나 영국, 미국으로까지 흩어져 그 땅의 토착민들을 놀라게 한다. 이 낯선 사람들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저 멀리에서 연기를 내뿜는 베수비우스 화산에서 온다. 운명으로부터 삭제되고 추방되어 길을 잃은 이들에게는 망명자, 피난민, 모험가 등의 꼬리표가 붙는다.

그들이 새로운 정착지에 머문다면 아무도 그들을 내쫓지는 않는다. 그러나 떠난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놓아준다. 때때로 이 피난민들은 (특히 여자들의 경우에는)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을 내몬 사건에 대해 화도 증오

---

100) 약 2리터

101) 약 156리터

도 아닌 운명에의 놀라움을 발산하곤 하는 전적으로 무해한 이방인들이다. 할 수만 있다면 언제라도 정착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광산을 폭파할 때 뿌리가 공중으로 완전히 드러나 버린 가엾은 수풀을 본 적이 있다. 프랑스 혁명은 역사상 유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더욱 멀리 흩뿌려 놓았다.

게른제에서 질리아라 부른 그 여자도 아마 그런 수풀 중 하나였을 것이다. 여자는 늙어갔고 아이는 장성했다. 그들은 이웃과 떨어져 외롭게 살았지만 자신들 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미늑대와 새끼처럼 서로를 핥아 주었다. 이웃의 온정을 보충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아이는 청년으로 그리고 한 남자로 변해 갔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세르장테의 목장과 로크크레펠의 가시금작화 밭, 뷔드라뤼의 집과, 양말 속에 넣은 금화 100기니를 아들에게 남겨 주었다. 집안에는 자질구레한 살림살이와 함께 커다란 참나무 장롱 두 짝과 침대 두 개, 탁자 한 개와 의자 여섯 개가 있었다. 선반 위에는 책 몇 권과 재산목록을 확인하기 위해 열어 볼 수밖에 없었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아라베스크 무늬가 그려진 구리와 주석 장식의 엷은 황갈색 가죽가방 속에는 뎅케르크 산 레이스 옷감과 슈미즈, 치마, 실크 드레스 등 여러 벌의 옷을 포함한 신부의 혼수 감이 *너와 결혼할 내 신부를 위하여*라고 쓴 종이와 함께 새것으로 완전히 구비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아들은 실의에 빠졌다. 오래전부터 비사교적이었던 그는 모든 인간적인 접촉을 피하고 있었다. 그렇게 고립되어 있었다. 이제 그의 삶은 허무하다. 둘이 있을 때에는 삶을 산다는 것이 가능하지만 혼자서는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고 마침내는 포기하고 만다. 그렇게 절망의 첫 번째 단계를 지나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죽음을 보고 삶을 보며 가슴속에는 처절한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허락하게 되는 것이다.

질리아는 젊었고 상처는 잘 아물었다. 그 나이 때에는 마음의 살도 잘 돋아나기 때문이다. 슬픔은 조금씩 지워져 그를 둘러싼 자연과 뒤섞였으며 그 속에서 매력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멀어지고 자연에 이끌렸다. 그리고 점차 고독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

〈4〉
좋지 않은 평판

이미 말했듯이 사람들은 질리아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다. 이유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그가 사는 집이 그랬고 그의 출생도 그랬다.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 또 이 아이는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도 비밀이 있는 낯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옷차림도 그랬다. 부유한 것은 아닐지라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살 만큼의 돈을 갖고 있으면서 왜 노동자의 옷차림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정원도 그랬다. 정원에 농사를 지어 춘분과 추분의 거센 바람에도 불구하고 감자를 수확하는 것도 이상했다. 선반에 꽂힌 두꺼운 책을 읽는 것도 그랬다.

이유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왜 혼자 고독하게 사는지도 알 수 없었다. 뷔드라뤼는 격리수용소이며 질리아는 수용소에 갇혀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사람들이 그가 홀로 떨어져 사는 것을 의아해하는 것도 당연했으며 고독하게 사는 책임이 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당연했다.

그는 교회에는 한번도 가지 않았으며 밤에 자주 나다녔다. 마법사들과도 이야기를 했다. 그가 신들린 듯한 멍한 표정으로 풀밭에 앉아 있는 것

을 본 사람도 있었다. 앙크레스의 돌멘과 들판 여기저기에 있는 마법의 돌에도 자주 갔다. 로크 키샹트[102] 바위에 대고 공손하게 인사하는 것을 본 사람도 있었다. 기껏 새를 사서는 다 날려 보내기도 했다. 생 상송에서 부르주아들을 만나면 예의바르게 행동했지만, 그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먼 길을 택하기도 했다. 낚시질을 하면 꼭 물고기를 잡아 돌아왔고, 일요일에는 정원에서 일을 했다. 게른제를 지나가던 스코틀랜드 군인에게서 산 백파이프를 가지고 밤이 이슥한 시간에 바닷가 바위에 앉아 연주하기도 했다. 그는 씨뿌리는 사람처럼 꾸부정하게 걸어 다녔다. 사람들이 이런 남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죽은 여자에게서 물려받은 책들도 기분 나빴다. 생 상송 교구 사제인 자크맹 에로드 신부는 죽은 여자의 장례를 치르러 갔을 때 *로지에 사전*, *볼테르의 캉디드*, *티소의 건강을 위한 조언*[103] 등이 선반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다. 생 상송으로 망명한 프랑스 귀족 출신이었던 신부는 "랑발르 공비[104]의 목을 벤 티소"라고 탐탁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부는 그 중 제목이 거칠고 위협적인 장군풀 론에 주목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은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라틴어로 쓰였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질리아가 읽었을 리 만무했다. 게다가 그것은 1679년 독일에서 출판된 틸린기우스 박사의 *장군풀에 관하여*라는 책과는 다른 것이었다.

사람들은 질리아가 마법을 외고 미약(媚藥)과 마법의 약을 만들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었다. 마술사들의 유리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저녁에, 그것도 때로는 자정 무렵까지 절벽 근처를 돌아다니곤 했을

102) '노래하는 수탉 바위' 라는 뜻
103) 계몽사상을 상징하는 책들
104) 마리 앙투아네트의 친구

까? 그리고 왜 안개가 자욱한 바닷가에 밤마다 얼씬거리는 몹쓸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한번은 토르트발의 마녀가 짐수레를 진창에서 끌어내는 것을 도와 준 일도 있었다. 늙은 마녀의 이름은 무톤느가이였다.

섬 안에서 이루어진 인구 조사에서 직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그는 "어부. 단, 잡을 물고기가 있을 때만" 이라고 대답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봐도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가 없다.

가난과 부유함은 대조되는 것이다. 밭도 있고 집도 있으니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과 대조가 되는 질리아는 가난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는지 (부유한 악마와 결혼을 하려는 여자들도 있는 법이므로) 그와 조금 가까워지기 위한 의도로, 한 처녀가 질리아에게 질문했다.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그는 대답했다. "로크 키샹트 바위가 남편을 맞을 때겠지요."

로크 키샹트 바위는 '무슈 르메쉬리에 뒤 프리' 근처 벌판에 박혀있는 커다란 돌이다. 이 돌은 경계의 대상이었다. 그것이 왜 거기에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거기에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매우 언짢은 일이었다. 이 돌은 악마라고 여겨지는 사르구제[105]들에 의해서 이 뜰에 심어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천둥이 치는 밤에 구름의 붉은 기운과 떨리는 공기를 뚫고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사르구제들이다. 그랑 미엘에 사는 어떤 여자는 그들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사르구제들이 네 거리에 있을 때 길을 몰라 헤매는 마차꾼에게 그 여자가 이렇게 소리쳤다. "사르구제에게 물어 봐요. 그들은 사람에게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이야기해요." 그 여자

105) 일종의 도깨비를 칭함

는 분명히 마녀가 되었을 것이다.

분별력 있고 박식한 왕이었던 자크 1세는 이런 유의 여자들을 산 채로 끓여 그 수프를 맛본 후 맛에 따라 "이것은 마녀다." 또는 "이것은 마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군주의 직감의 유용성을 보여주는 그런 재능을 가진 왕들이 없다는 것이 유감이다.

질리아가 마법사의 냄새를 풍겼다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천둥이 심하게 치던 날 한밤중에 소메이외즈[106] 쪽의 바다에서 질리아가 혼자 배를 타고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소리를 사람들이 들었다.

"내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겠지?"

바위 절벽의 위쪽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충분해! 지나가 봐!"

그는 누구에게 말했던 것일까? 아무도 아니었다면 대답한 것은 누구일까? 이것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얼마나 깜깜했던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폭풍우가 몰아치던 또 다른 날 저녁, 마법사들이 금요일마다 춤추러 가는, 바위가 이중으로 둘러쳐진 카티오로크[107]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무시무시한 대화 속에 섞인 질리아의 목소리를 확실히 들었다.

"베쟁 브로바르 (지붕에서 떨어졌던 석공) 은 어떻지?"

"많이 나았어."

"그런데 젠장! 이번엔 더 높은 데서 떨어졌어. 아무데도 부러지지 않은 게 놀라워."

---

106) 게른제의 서쪽 해안 절벽

107) 게른제의 동북쪽 해안

"지난주는 해초 따기에 좋은 날씨였는데."

"오늘보다 더 좋았지."

"옳아! 시장에 생선이 없을 거야."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그물을 칠 수 없을 거야."

"카트린은 어때?"

"마법에 걸렸어."

'카트린' 은 분명 사르구제트였다.

확실히 질리아는 밤에 볼일이 많았다. 적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가 가끔씩 들고 있던 물 항아리를 뒤집어 쏟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물이 땅에 쏟아지면서 악마를 그린다.

생 상송의 길, 1번 원형 포탑 맞은편에 돌 세 개가 계단처럼 놓인 곳이 있다. 맨 위에는 지금은 사라진 십자가나 교수대가 있었다. 이 돌들도 매우 간악한 것이다.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돌 근처에서 질리아가 두꺼비와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게른제에는 두꺼비가 살지 않는다. 게른제에는 뱀만 있고 두꺼비는 제르세에 산다. 이 두꺼비는 질리아를 만나기 위해 제르세에서부터 헤엄쳐 온 것이 틀림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매우 친근했다.

이 모든 사실들은 확인된 것이다. 그 증거로 돌 세 개가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가서 보면 된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산 가축과 죽은 가축, 낡은 밧줄, 고철, 동물 뼈, 씹는담배 상점, 지불도 즉시하고 물건도 즉시 구해드립니다' 라고 써 붙인 집도 한 채있다.

거짓말쟁이만이 이 돌과 집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질리

아를 음해하는 것이었다.

망슈의 바다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오크리니에의 왕이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세상에 없다. 바다에서 그를 만나면 양쪽 생 미셸 영국 남서부의 주 콘월에 있는 생 미셸[108] 사이에서 배가 난파된다. 그는 난쟁이라 작고, 왕이라 귀가 멀었다. 그는 바닷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까지도 안다. 대서양의 밑바닥에 있는 묘지도 안다. 머리의 아래쪽은 넓고 위는 좁다. 땅딸막한 몸뚱이에 배는 끈적끈적하고 기형적이다. 머리에는 혹이 불거져 있고 다리는 짧으며 팔은 길다. 발에는 지느러미 발톱이 있고 손에는 물갈퀴 손톱이 있다. 얼굴은 크고 초록빛이다. 사람의 형상을 한 물고기의 유령을 상상하면 된다. 요컨대 푸닥거리를 하거나 낚시로 잡아 없앨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는 우선 불길하다. 그를 본다는 것은 매우 불길한 징조이다. 짙은 안개 속, 넘실대는 파도 위에서 인간의 형체를 가진 그를 볼 수 있다. 찌그러진 이마, 납작한 코, 넓적한 귀, 터무니없이 크게 찢어진 입, 청록색의 삐뚤어진 입술, 이빨은 하나도 없으며, 눈썹은 머리처럼 길고, 눈은 밝고 커다랗다. 희미한 빛에서는 붉은 색을 띠지만 붉은 빛을 받으면 희끄무레하게 변한다. 숯이 많고 뻣뻣한 수염이, 외투 모양의 점막 위를 수직으로 흘러내린다. 14개의 조개껍질이 점막 끝을 빙 돌아가며 장식하고 있다. 흔히 볼 수 있는 조개껍질이 아니다. 오크리니에 대왕은 심한 풍랑이 몰아치는 날에만 모습을 나타낸다. 그는 폭풍우 속의 비통한 어릿광대다. 안개와 돌풍과 뇌우 속에서 그의 모습이 희미하게 엿보인다. 배꼽도 흉측하다. 비늘 갑옷이 허리춤을 감싸고 있다. 폭풍 속 끊임없이 몰아치는 파도 위에 서서 목수의 대팻밥처럼 몸을 뒤틀고 있다. 온몸을 물 위로 드러내고

108) 몽(St Michael' s Mount)과 프랑스 노르망디의 몽 생 미셸(Mont Saint-Michel)을 일컬음

있다가, 저 멀리 어두운 수평선으로 파랗게 질린 난파선이 나타나면, 희미한 웃음이 번득이는 바보 같고 끔찍한 얼굴로 춤을 춘다. 보기 흉한 만남이다. 질리아가 살던 시절 생 상송에서 오크리니에 대왕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들은 그의 외투에 붙은 조개껍질이 13개였다고 한다. 13, 이것이 그를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한 개는 어디에 있을까? 누군가에게 주었단 말인가? 과연 누구에게 주었을까?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단지 추측할 뿐이었다. 분명한 것은, 질리아가 손에 매우 희한한 조개껍질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재력가로서 80구역의 세금을 받는 지주, 고댄느의 무슈 뤼팽 마비에가 맹세한 것뿐이다.

농부들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고가는 것은 예사였다.

"내 소 참 좋지요?"

"포동포동하게 살이 쪘군요."

"어쨌든 좋은 셈이지요."

"고기보다 비계가 더 좋겠는데요."

"맙소사!"

"혹시 질리아가 눈독들인 것은 아니겠지요?"

질리아는 농부와 정원사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했다.

"악마의 재갈[109]이 꽃 필 때 겨울 호밀을 거두세요."

"물푸레나무 잎이 나기 시작하면 날이 풀려요."

"하지에 엉겅퀴 꽃이 피지요."

"유월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보리가 하얗게 변해요. 깜부기병을 조심해야 해요."

"야생 벚나무가 송이를 맺을 때는 보름달 뜨는 날을 조심하세요."

---

109) 배꽃 속(屬)의 식물— 원고 원주

"당신과 소송중인 이웃은 잘 지켜보세요. 앙심을 품고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니까요. 돼지에게 따뜻한 우유를 먹이면 죽어요. 암소의 이빨을 파로 닦으면 아무것도 먹지 않지요."

"산란기의 바다빙어를 먹으면 열이 나요."

"개구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멜론 씨를 뿌리세요."

"우산이끼 꽃이 피면 보리를 파종할 때랍니다."

"보리수 꽃이 피면 목장의 풀을 베세요."

"백양나무 꽃이 피면 비 막이 덮개를 열어 놓으세요."

"담배 꽃이 피면 온실 문을 닫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말대로 하면 만사형통이었다.

6월 어느 날 밤에는, 드미 드 퐁트넬 쪽에서 고등어 낚시를 하다 말고 모래언덕에서 백파이프를 연주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간조 때, 뷔드라뤼의 집 아래 해변가에서 미역을 가득 실은 수레가 뒤집어졌을 때 질리아는 치안판사 앞에 불려갈지도 모른다는 걱정부터 했다. 왜냐하면 수레를 일으키고, 미역을 다시 싣는 것을 도와주다가 너무 많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기 때문이다.

이웃의 소녀에게 이가 생기자 그는 생 피에르 포르에서 연고를 사 와서 아이에게 발라주었다. 그가 이를 잡아 주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를 옮긴 것이 질리아였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사람들은 이를 옮기기 위해서는 마법을 써야 한다고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질리아가 저주의 눈길로 우물을 보면 우물의 물이 상한다고 생각했다. 하루는 생 피에르 포르 근처의 아르뤼롱에 있는 어떤 우물이 이상하게 변했다. 그 우물의 주인 여자가 질리아에게 말했다. "저, 이 물 좀 보세요." 그리고는 컵에 물을 가득 담아 질리아에게 보여 주었다. 질리아가 말했다. "물이 탁하군요."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쳐 주시겠

어요?" 질리아가 물었다. "외양간이 있나요? 외양간에 하수도가 있나요? 하수도가 우물 옆을 지나가나요?" 여자는 그렇다고 했다. 질리아는 외양간으로 들어가서 하수도의 길을 다른 쪽으로 돌려놓았다. 그랬더니 우물물이 깨끗해졌다.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는다. 좋지 않던 우물물이 아무 이유 없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다. 우물물이 이상해졌던 것이 외양간의 하수도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지 않았다. 질리아가 우물에 저주의 눈길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제르세에 갔을 때 사람들은 그가 알뢰르 거리의 생 클레망에 머문다는 것에 주목했다. 알뢰르는 유령의 이름이었다.

제르세의 온 마을 사람들은 질리아에 대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고 이들을 비교, 종합한 결과는 하나 같이 나쁜 평판뿐이었다.

질리아가 코피를 흘려 놀란 일도 있었다. 심각해 보일 정도였다. 세계를 거의 다 여행해 본 어떤 선주(船主)는 퉁구스족의 모든 마법사들이 코피를 흘린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코피를 흘리는 사람을 보면 자연히 그 선주의 말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성적인 사람들은 퉁구스족의 마법사들의 특징이 게른제에서도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어느 생 미셸 축제[110]에 즈음하여서 그는 비드클랭 대로변, 무슈 위리오의 집 안뜰 풀밭에 서 있었다. 그가 휘파람을 불었더니 잠시 후 까마귀와 까치들이 우르르 풀밭으로 몰려들었다. 이 일은 후에 왕의 영지인 페르사쥬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두잰느[111]의 두즈니에가 된 믿을만한 시민이 증인이 되었다.

에핀느의 작은 소교구 아멜에 사는 어떤 노부인은 이른 아침 제비들이

110) 대천사 미카엘을 기리는 축제

111) 두즈니에라는 행정관들로 이루어진 게른제의 각 구역 관리 단체

질리아를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했다.

이제 그가 착하지 않다는 것까지 덧붙여 보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때리고 있었다. 당나귀가 움직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당나귀의 배를 몇 번 발로 걷어찼고 당나귀는 쓰러졌다. 질리아가 당나귀를 일으켜 세우려고 달려갔으나 당나귀는 이미 죽어 있었다. 질리아는 그 남자를 한 주먹에 날려 버렸다.

또 어떤 날은 갓 태어나 아직 털도 없는 나무발바리 새끼 여러 마리를 어떤 소년이 나무에서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본 질리아가 그것을 빼앗아 다시 둥지에 넣어 주면서 소년에게 야단을 쳐댔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질리아를 나무랐으나 질리아는 어미 새와 아비 새가 지저귀면서 새끼들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만족해했다. 그는 새들을 몹시 좋아했다. 이것 역시 대개 마법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다.

아이들은 그저 장난삼아 절벽에 있는 갈매기 둥지에서 새 알을 훔쳐 낸다. 그들은 파랑, 노랑, 초록빛의 예쁜 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벽난로의 앞면을 장미꽃 모양으로 장식한다. 때때로 아이들은 이 깎아지른 듯 높이 솟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고 만다. 바닷새 알로 장식한 병풍은 매우 예쁘다. 질리아는 나쁜 짓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목숨을 내걸고 암벽을 기어올랐다. 건초다발에 모자를 씌우기도 하고 온갖 종류의 허수아비를 걸어 놓았다. 새들이 절벽에 둥지를 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질리아를 거의 증오하다시피 했다. 이보다 작은 일이었더라도 그랬을 것이다.

〈5〉

질리아의 또 다른 수상한 면

질리아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분분했다.

사람들은 보통 그를 마르쿠라고 생각했으나 캉비옹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캉비옹은 여자와 악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말한다.

부인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연달아 일곱 명의 아들을 낳으면 그 일곱 번째 아들을 바로 마르쿠라 한다. 그러나 중간에 딸이 끼면 안 된다.

마르쿠는 몸의 어딘가에 프랑스 왕가의 가문(家紋)인 흰 백합 자국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자국은 프랑스의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력창이라는 경부 임파선 만성 종창을 낫게 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어느 곳에나 마르쿠가 있지만 특히 오를레앙 주에 많다. 가티내에는 마을마다 마르쿠가 있다. 환자들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마르쿠가 환자의 상처에 입김을 불거나 환자들로 하여금 백합 자국을 만지게 하기만 하면 된다. 병은 특히 성(聖) 금요일 밤에 잘 치유된다. 10년 전, 가티내 오름의 마르쿠는 훌륭한 마르크라고 불렸으며 보스 지방 전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치유했다. 그는 풀롱이라는 통 제조공이었는데 말과 마차를 소유했을 정도였다. 아무도 그의 기적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왼쪽 가슴 아랫부분에 백합 자국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마르쿠는 다른 곳에 백합 자국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제르세와 오리니와 게른제에도 마르쿠가 있었다. 틀림없이 이것도 프랑스가 노르망디 공국에 대해 가지는 권리에서 기인한다. 그렇지 않다면 백합 꽃 자국이 무슨 의미란 말인가?

망슈 군도에도 나력창에 걸린 환자들이 있다. 이곳에도 마르쿠가 필요

한 것이다.

어느 날 질리아가 바다에서 목욕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의 몸에 새겨진 백합 자국을 보았다고 한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답 대신 그는 웃었다. 그도 가끔은 다른 사람들처럼 웃기도 했던 것이다. 그 이후로 아무도 그가 목욕하는 것을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는 위험하고 외진 곳에서만 목욕을 했다. 아마 한밤중에 달빛 아래에서였을 것이고 사람들은 이것 역시 수상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를 끝끝내 악마의 아들 캉비옹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독일이 아니라면 캉비옹을 거의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50년 전, 발르와 생 상송의 많은 사람들이 무지했었다.

게른제에서 누군가를 악마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에는 분명히 과장된 면이 있다.

질리아가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가 자문을 구했다. 농부들은 두려워하며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 왔다. 그 두려움 속에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골에서는 의사가 악마와 내통한다는 의혹이 있을수록 약이 효력을 내기도 한다. 질리아에게는 죽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약제들이 있었다. 그는 그것을 환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나 돈은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약초를 써서 생인손을 치료하였으며 여러 개의 유리병에 들은 물약중 하나를 써서 열을 떨어뜨렸다. 프랑스에서라면 약사라고 불렸을 생 상송의 '연금술사'는 그것이 아마도 기나수(幾那樹)를 달여 만든 약일 것이라 생각했다. 질리아는 정상적인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환자들에게 착한 악마였다. 그러나 마르쿠로 여겨지는 것에는 수긍하지 않았다. 나력창 환자가 질리아에게 그의 백합 자국을 만지게 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환자를 문전박대하였다

그는 고집스럽게 기적을 행하는 일을 거부했다. 마법사의 태도로서는 어리석은 것이었다. 마법사가 되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마법사라면 그 위치에서의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이다.

모두들 질리아를 싫어했지만 한두 사람 정도 예외는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클로 랑데의 시외르 랑드와였다. 그는 생 피에르 포르의 서기로서 출생 · 결혼 · 사망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했다. 서기 랑드와는 1485년에 브르타뉴의 피에르 랑데[112] 재무장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시외르 랑드와가 바다 깊은 곳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질 뻔한 일이 있었다. 그 때 질리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뛰어들어 그를 구해 냈다. 그 날부터 랑드와는 질리아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았다. 그러한 그를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내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도와주기까지 한 사람을 왜 욕하라고 하십니까?"라고 대답했다. 서기는 결국 질리아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다. 마법사 따위는 믿지도 않았으며 유령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는 배를 한 척 가지고 있었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 자신의 배를 타고 낚시를 하는 사람이었으며, 귀신같은 것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달빛이 비치는 바닷물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본 듯하기도 했으나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았다. 토르트발의 마녀 무톤느가이는 유령을 막아 준다는 작은 주머니를 그에게 주었고 그는 넥타이 아래쪽에 그것을 매어 두었다. 그는 그 주머니를 우습게보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열어 보지도 않았지만 왠지 그것을 지니고 다니면 안심을 할 수가 있어서 늘 지니고 다녔다.

시외르 랑드와의 뒤를 이어 일부 대담한 사람들은 질리아가 술과 담배

---

112) 1440~1458, 성직자와 귀족의 특권에 대항하여 싸우다 교수형을 당했음

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장점으로 인정하기도 했으며, "질리아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지요"라고 찬사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절제한다는 것은 질리아의 여러 다른 특성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사람들의 혐오는 그에게 향했다. 어쨌든 질리아는 마르쿠로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었다. 어느 성금요일의 자정, 나력창의 치료에 특히 효험이 있다는 이 때에 병을 앓고 있는 섬의 모든 환자들이 우연이었는지 서로 약속을 한 것이었는지 두 손을 모으고, 가련한 상처를 안고, 뷔드라뤼에 떼를 지어 몰려와 질리아의 치료를 부탁했다. 질리아는 거절했고 사람들은 그를 나쁘다고 생각했다.

〈6〉
팡스

그것이 질리아였다.

처녀들은 그를 못 생겼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가 못 생긴 것은 아니었다. 잘 생겼다고 할 수도 있는 얼굴이었다. 그의 옆모습은 고대 바바리아인과 비슷했으며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는 트라야누스 원주[113]에 조각된 다키아인의 모습이었다. 그의 귀는 귀볼이 없고, 작고 섬세했으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모양이었다. 양미간에는 대담하고 끈질긴 남자에게서 볼 수 있는 거만한 수직의 주름이 패여 있었다. 입술의 양끝은 아래로 처져 있어서 신랄함이 엿보였으나 이마에

113) 로마에 있는 전승 기념비

는 고결하고 평온한 곡선이 그려져 있었다. 정직해 보이는 눈동자는 세찬 파도로 눈을 똑바로 뜰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조차 앞을 정확히 내다보았으며, 매력적인 소년의 웃음, 상아 보다 더 깨끗한 치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볕에 그을린 피부는 거의 흑인의 색깔이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그의 모습은 서른 살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흔도 훨씬 넘은 것으로 보였다. 그는 그렇게 바람과 바다의 어두운 얼굴을 닮고 있었다.

질리아에게는 말랭[114]이라는 별명이 있었다.

인도의 우화 중에 브라마[115]가 힘의 여신에게 "너보다 더 힘이 센 자가 누구냐?" 고 물었다. 힘의 여신은 "교활의 여신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또 중국의 속담 중에 "사자가 원숭이였더라면 무엇을 못 할까?" 라는 말도 있다. 질리아는 사자도 원숭이도 아니었지만 중국의 속담과 인도의 우화를 증명할 만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보통의 키에 힘도 별로 세지 않은 그였으나 능수능란하게 무엇이든 만들어 내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고 덕분에 거인이나 운동선수 정도의 체격을 가진 사람이 할 만한 일을 척척 해냈다. 그리고 체조선수 같이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다.

그는 사냥은 하지 않았지만 낚시를 했다. 새는 살려 주었지만 물고기는 살려 주지 않았다. 말 못하는 물고기에게는 안 된 일이었다! 그는 헤엄도 매우 잘 쳤다.

사람은 고독을 통해 재능을 얻을 수도 있고 바보가 될 수도 있다. 질리아는 양쪽 모두에 속했다. 어떤 때는 앞에서도 말 한 것처럼 '멍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야만인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어떤 때는 끝없이 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고대 칼데아[116]에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었다. 때때로

---

114) '악마같이 영악한 사람' 이라는 뜻
115) 힌두교의 신

목동의 영적 불투명성이 투명하게 변모하여 마술의 세계를 알아보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그는 읽고 쓸 줄 아는 불쌍한 남자였다. 그는 아마도 생각하는 사람과 꿈꾸는 사람의 경계선에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소망하지만 꿈꾸는 사람은 받아들인다. 고독은 단순한 사람들에게 덧붙어서 그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복잡하게 만든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성스러운 두려움에 잠기게 된다. 질리아의 정신이 빠져 있었던 어두움은 모호하지만 서로 매우 다른 두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나는 질리아 안에 존재하는 무지라고 하는 약점이었으며 또 하나는 질리아 밖에 존재하는 신비라고 하는 무한대였다.

암초를 뛰어넘고 절벽을 기어오르며, 궂은 날씨와 어두운 밤도 마다 않고 작은 배에 의지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좁은 수로를 지나 군도를 오가곤 했던 탓에 그는 다른 어떤 것도 생각지 않고 오로지 꿈과 욕망을 좇는 비상한 재주를 가진 바다 사나이가 되었다.

그는 타고 난 항해사였다. 진정한 항해사는 물 속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바다 사람이다. 파도는 배가 운항하는 바다 속의 지형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표면적인 어려움일 뿐이다. 노르망디 군도의 암초를 지나 여울 위를 항해하는 질리아를 보고 있노라면 그의 머리 속에 바다 속 지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는 이 모든 것에 익숙했으며 무엇에든 용감히 맞서 싸웠다.

그는 부표 위에 앉아 있는 가마우지보다도 다양한 부표들을 더 잘 알아보았다. 안개 속에서라도 크뢰와 알리강드, 트레미와 사르드레트의 부표

---

116) 남 바빌로니아, 기원전 10세기 경 아랍인이 이주하여 기원전 625년 칼데아 왕국을 건설하여 87년 만에 멸망하였는데 멸망 후에도 학술 · 신앙의 중심이 되어왔으며 점성술이 성하였음

를 구별 짓는 미세한 차이점까지도 분명히 알아 볼 수 있었다. 앙프레 방향을 가리키는 타원형 공 위에서도, 루스 방향을 나타내는 삼지창 위에서도, 코르베트 방향을 알려 주는 흰 공 위에서도, 롱그 피에르 방향을 안내하는 검은 공 위에서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을 뿐 더러, 플라트의 육지에 꽂힌 칼 모양의 표지와 구베의 십자가를 혼동할 염려도, 물리네의 비둘기 꼬리 모양 표지와 바르베의 망치 모양 표지를 혼동 할 염려도 없었다.

레가타라고 불리는 보트 경주가 게른제에서 열리던 날, 바다에 대한 질리아의 뛰어난 지식은 찬란히 빛을 발했다. 네 개의 돛을 단 배를 혼자 조종하여 생 상송에서 약 4킬로미터 떨어진 에름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경기였다. 낚시꾼이 네 개의 돛을 단 배를 혼자 조종한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두 가지 난관이 있었다. 첫 번째 난관은 배였다. 선복(船腹)이 불룩 나온 구식 대형 배로, 지난 18세기의 선원들이 *네덜란드의 팡스*[117]라고 불렀던 로테르담식 배였던 것이다. 요즈음까지도 이 네덜란드식 구닥다리 배를 가끔 볼 수 있다. 배가 통통하고 납작하며, 좌현과 우현의 두 개의 날개는 바람에 따라 번갈아 기울며 용골을 대신한다. 두 번째 난관은 에름에서 되돌아오는 것이었다. 돌아올 때는 배에 무거운 돌을 싣고 와야 했기에 더욱 어려웠다. 빈 배로 가서 무거운 짐을 싣고 오는 것이었다. 경기의 승자에게는 바로 그 샬루프선 팡스를 상으로 주었다. 이 배는 물길 안내선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20년 동안이나 망슈의 뱃사람 중에서도 가장 건장한 조종사가 조종했으나 그가 죽은 후 배를 몰 만한 사람을 찾지 못해 레가타의 상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 샬루프선은 갑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급품에 속했으며 선원으로서의 숙련도를 가려낼 만한 것이었다. 이 배는 앞쪽 돛을 세워 돛의 견인력을 증가시켰다. 또 다

---

117) '선복' 이라는 뜻, 배가 불룩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른 장점으로는 짐을 싣는 것에 돛이 방해가 되지 않았다.

견고한 선체는 무게가 많이 나갔으나 넓은 모양이어서 안정된 항해를 하는 데 유리한, 문자 그대로 쓸모 있는 배였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는 열정이 있었다. 경기는 거칠었지만 그 상은 멋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섬에서 가장 원기 왕성한 일곱, 여덟 명의 뱃사람이 출전하여 한 사람씩 경기를 펼쳤으나 아무도 에름에 도달 할 수 없었다. 마지막 출전자는 악천후 속에서 세르크와 베르크우 사이의 매우 위험한 좁은 길을 노를 저어 횡단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다. 비 오듯 땀을 흘리며 배를 몰고 되돌아와 그는 "불가능해"라고 말했다. 드디어 질리아가 배에 올라탔다. 먼저 노를 움켜잡고 이어서 큰 에쿠트[118]를 움켜쥐고 먼 바다까지 밀고 나갔다. 경솔했던 탓에 에쿠트를 잡아매는 것을 잊었지만, 큰 돛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을 놓을 수도 없었다. 그는 그것을 바람 부는 대로 도르래에서 돌아가도록 한 손으로 잡고 있었으며 왼손으로는 노를 잡고 있었다. 45분 만에 그는 에름에 도착했다. 3시간 후에는 거센 남풍이 일어나 정박지를 가로질러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질리아가 올라탄 팡스는 돌을 싣고 생 상송으로 돌아왔다. 게다가 그는, 섬사람들이 해마다 11월 5일이면 기 폭스[119]의 죽음을 축하하기 위해 발사하곤 했던 에름의 작은 청동 대포까지 싣고 왔다.

기 폭스는 이백육십 년 전에 죽었지만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진정한 축제이다.

초과 짐을 싣고 과로한 질리아는 배에 기 폭스의 대포까지 싣고 남풍을

---

118) 배의 후미 아래쪽 모퉁이에 돛을 고정시키는 밧줄

119) 카톨릭 교도들이 영국의회를 폭파하고 국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화약 음모사건'(1605)에 연루되어 1606년에 사형된 영국의 군인

생긴 다양한 모양의 커다란 동물들을 보았다. 이 동물들은 물 밖에서는 물렁물렁한 크리스탈과 같았으며 물 속으로 다시 집어넣으면 물에 뒤섞여 반투명성의 물과 같은 색으로 변해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을 본 질리아는 물 속에 투명해서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살고 있듯이 공기 중에도 투명한 생명체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새들은 공기 중에서 사는 것은 아니다. 땅과 공기를 오가며 산다. 질리아는 공기 중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바다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는데 왜 대기는 텅 비어 있겠어? 생명체들이 공기와 같은 색이라 우리 눈에 띄지 않을 뿐이겠지.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도 없잖아? 바다에 물고기가 있듯이 공기 중에도 생명체가 있다는 것을 유추를 통해서 알 수 있지. 공기 중에 사는 생명체도 투명할 거야. 선견지명이 있는 창조의 덕택이지. 햇볕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늘도 그림자도 생기지 않고,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살 수 있고 우리도 그것을 잡을 수 없으니 양쪽 모두에게 잘 된 일이지. 질리아는 만일 물을 말리듯이 공기를 말릴 수 있다면, 연못에서 낚시를 하듯이 공기에서 낚시를 할 수 있다면, 수많은 놀라운 생명체를 낚을 수 있을 것이라 상상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몽상은 모호한 상태에서의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그것의 미개척 영역으로 여겨지는 수면(睡眠)과 인접하고 있다. 투명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공기, 그것은 미지 세계의 시작일 것이다. 그러나 그 너머의 세계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존재와 또 다른 일이 있다. 초자연이라는 것은 없다. 무한한 자연의 불가사의한 연속일 뿐이다. 자신의 생활방식이었던 근면한 무위 속에서 지내는 질리아는 사물에 대한 기묘한 관찰자였다 그리고 그것은 잠을 관찰하기까지 이르렀다. 잠은 우리가 있을 법하지 않다고 이름 붙인 가능한 세계와의 접촉상태다. 밤의 세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다. 60킬로미터의 엄청나게 높은 대기의 기둥에 짓눌려 사는 유기체로서의 인간은 저녁이면 피로하다. 그는 피로로 쓰러진다. 눕는다. 휴식을 취한다. 육체의 두 눈이 스르르 감긴다. 그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기 있는 반수면 상태의 머리 속에 또 다른 눈이 열린다. 미지의 세계가 나타난다. 우리가 모르고 지내는 어두운 세계의 사물이 우리의 이웃이 된다. 때로는 그 속에서 진정한 교감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심연 속의 머나먼 세계가 가까이 다가오기도 한다. 마치 허공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체가 우리를 만나러 와서 지상의 생명체인 우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듯하다. 황혼 속에서 유령 같은 것이 오르내리며 우리에게 접근한다.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는 앞에서 우리의 삶과는 다른, 다른 사물과 우리가 빚어내는 또 다른 삶이 만들어졌다가 해체된다. 완전히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닌 잠자는 사람은 이 낯선 동물, 희한한 식물, 무시무시할 때도 있고 우스울 때도 있는 창백한 것들, 애벌레들, 가면들, 여러 가지 형태들, 히드라들, 혼동상태, 달이 없는데도 달처럼 밝은 빛, 불가사의한 것들의 어두운 분열, 알 수 없는 두께로의 커짐과 작아짐, 어둠 속을 표류하는 여러 형태,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는 이 모든 신비를, 보이지 않던 또 다른 현실을 어렴풋이 본다. 꿈은 밤의 수족관이다.

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다.

〈8〉
셰즈 질돌르뮈르[121)]

오늘날 우메 만에서 질리아의 집과 그의 정원, 배를 보호해 주던 작은

정박지를 찾으려는 것은 헛된 일이다. 뷔드라뤼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집이 있던 섬의 끝자락은 절벽 파괴자의 곡괭이질에 떨어져 나가 조금씩 조금씩 수레에 실려 바위 골동품 상인과 화강암 판매인의 배에 옮겨졌다. 그 바위는 이제 수도에서 부두와 교회와 궁전이 되어 있다. 암초의 능선도 런던의 일부가 된지 오래다.

예전에는 들쭉날쭉한 톱니 모양으로 바다까지 길게 늘어서 있던 바위도 이제는 작은 산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거인이 되어 산맥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라 느껴질 정도다. 이곳 방언으로는 이것들을 방크라 한다. 이 방크들은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척추에 가시가 돋은 듯한 모습도 있고 물고기 가시 모양도 있으며 물을 마시고 있는 악어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뷔드라뤼 방크 끝에는 우메의 어부들이 코른느 드 라 베트[122]라고 부르던 큰 바위가 있었다. 피라미드 모양의 이 바위는 그리 뾰족하지는 않았지만 제르세의 피나클[123]과 비슷했다. 만조 때에는 바닷물이 방크와 바위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코른느는 고립되었다. 간조 때에는 연결된 바위를 따라 코른느에까지 갈 수 있었다. 바위는 이상야릇한 모양으로 바다를 향해 있었다. 비바람과 파도에 패인 바위는 반들반들한 의자 모양이었다. 위험천만한 의자였다. 사람들은 그곳의 아름다운 경치에 이끌려 조금씩 다가가서, 게른제식으로 말하자면 '가망이 있는 사랑을 위해' 멈춰 서곤 했다. 광대한 수평선의 특별한 매혹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셰즈는 바위의 정면에 수직으로 니슈[124]를 이루고 있었다. 니슈로 기어 올라가는 것은 어

---

121) '잠자는 의자 바위' 라는 뜻
122) '짐승의 뿔' 이라는 뜻의 바위 이름
123) '첨탑' 이라는 뜻의 바위 이름
124) 방 속에, 침대를 놓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구석진 또 하나의 작은 방

렵지 않았다. 그것을 만들어 놓은 바닷물이 아래쪽으로 평평한 돌계단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심연에는 이렇게 친절한 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친절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올라와 앉으라고 세즈 질돌르 뷔르는 유혹하고 있었다. 거기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었다. 앉을 수 있는 부분은 파도에 닳고 닳아 모서리가 둥글둥글하게 되었으며, 일부러 만들어 놓은 듯이 두 개의 굴곡을 이루고 있는 팔걸이도 있고, 등받이쯤으로 보이는 바위는 기어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조차 감히 하지 못하고 그저 머리 위로 우러러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수직으로 높이 솟아 있었다. 이 안락의자에 앉으면 세상의 모든 풍진을 잊게 된다. 온 바다를 조망하며 저 멀리 배가 오가는 것을 보고, 이름 모를 배의 돛이 레 카스케 저편의 거대한 둥근 대양으로 잠길 때까지 따라갈 수도 있다. 감탄하고 바라보고 즐기며 미풍과 바닷물이 우리를 어루만지는 것을 느낀다. 케옌에는 아기 박쥐가 있어 부드럽고 어두운 날개 짓으로 어두움 속에서 우리를 잠재운다. 바람은 보이지 않는 박쥐다. 피해를 주지 않을 때는 잠들어 있을 때이다. 우리는 바다를 주시하고 바람을 들으며 황홀한 마비상태를 느낀다. 두 눈이 아름다움과 빛으로 흘러넘치도록 가득찰 때, 그것이 눈을 감는 쾌락이다. 갑자기 우리는 깨어난다. 너무 늦었다. 물이 조금 씩 차오른다. 어느새 바위를 둘러싼다. 낭패다.

완전히 포위당했다. 바다가 올라온다. 조수는 처음에는 느낄 수 없을 만큼 조금씩 불어나지만 점점 거세게 밀려든다. 바위에까지 이른 분노는 그것을 삼켜 버린다. 거품이 인다. 암초 속에서 헤엄쳐 나오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하다. 수영을 썩 잘하는 사람들도 뷔드라뤼의 코른느에서 빠져 죽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독약과 같다. 때때로 그것은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

게른제의 먼먼 옛 주민들은 이 무늬 있는 니슈를 셰즈 질돌르뮈르 또는 *키도르뮈르*라고 했다. 켈트족의 말을 아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불어를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켈트의 단어이다. *키 도르 뫼르.*[125] 이것이 지방어로 번역한 것이다.

*키 도르 뫼르*라는 번역 말고도 *아르모리크*[126]에는 1819년 무슈 아테나에 의한 번역이 있는 듯하다. 이 명망 높은 켈트학자에 따르면 질돌르뮈르는 아마도 *새 떼의 휴식처*를 의미한다.

오리니에도 수도사의 의자라는 이와 비슷한 의자바위가 있다. 그것 역시 파도에 의해 너무나 잘 만들어졌으며 바다가 발밑에 받침을 놓아 주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게 꼭 맞는 바위의 돌출부를 가지고 있다.

만조 때에는 바닷물이 질돌르뮈르의 의자 바위를 완전히 덮어버려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질돌르뮈르는 뷔드라뤼의 근처에 있었다. 질리아는 그곳을 잘 알았고 바위에 자주 앉아 있곤 했다. 명상을 했던 것일까? 아니다. 꿈속에 잠겨 있었다. 그가 조수 때문에 놀라는 일은 없었다.

---

125) '잠자는 죽은 사람' 이라는 뜻
126) 지금의 브르타뉴 지방, 7세기 이전의 이름

II
메스 르티에리

〈1〉
파란 많은 생애, 그러나 평온한 양심

생 상송의 유력자 메스 르티에리는 의심할 여지없는 선원이었다. 소년 선원으로 시작해서 돛 만드는 선원, 조종담당 선원, 키잡이와 수부부장, 갑판장을 거쳐 항해사, 선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할을 차례차례 해냈다. 그러고 나서 선주가 되었다. 바다를 아는 것에 있어서라면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조난선 구조 작업에 임할 때도 대담했다.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심한 날이면 해변에 나가 수평선을 감찰했다. 저쪽에 무슨 일이지? 누군가 사고를 당했군. 웨이머드에서 온 소범선이 되었건 오리니의 외돛배가 되었건, 쿠르 쇠이유에서 온 어선이건 영국이나 프랑스 귀족의 요트이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악마이건 간에 그에게는 상관없었다.

그는 배에 올라타 두세 명 정도의 건장한 남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위급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꾸려 나갔다. 혼자서 장비를 갖추고 닻줄도 풀고 노를 잡고서 먼 바다까지 밀고 나갔다. 폭풍우를 헤치고 사고가 난 곳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비에 젖고 번개에 뒤섞인 채 배 위에 서서 질풍 속을 뚫고 가는 파도의 갈기를 가진 사자 같은 그를 멀리서 바라보곤 했다. 때로는 그렇게 온종일을 위험 속에서, 파도 속에서, 우

박 속에서, 바람 속에서, 조난선에 배를 바싹 갖다 대고, 사람들과 짐을 구하고, 폭풍우와 싸우며 보낼 때도 있었다. 저녁이면 그는 집으로 돌아가 털실로 양말을 짜며 평화로운 저녁시간을 보냈다.

열 살 때부터 예순 살이 될 때까지 50년의 젊은 시절을 내내 이렇게 살았다. 예순이 되자 그는 바르클랭 대장간의 작업대를 더 이상 한 손으로 들어 올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 작업대는 무게가 300파운드나 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류머티즘의 포로가 되었다. 바다도 포기해야만 했다. 영웅적인 젊은 시절이 끝나고 노년기로 접어든 것이었다. 이제는 노인일 뿐이었다.

류머티즘과 함께 안락하고 여유 있는 삶이 그를 찾아 왔다. 젊은 날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얻는 이 두 가지 열매는 한꺼번에 우리를 찾아든다. 부자가 됨과 동시에 몸이 저려 오는 것이다. 그것들은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즐기자' 라고 되뇐다.

게른제와 같은 섬의 주민들은 자신의 전답만을 둘러보며 인생을 보낸 사람과 세계를 둘러보며 인생을 보낸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농부의 두 종류이다. 전자는 육지의 농부요 후자는 바다의 농부이다. 메스르티에리는 후자에 속했다. 그러나 그는 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노동자의 고된 삶도 살아 본 바 있었으며 대륙으로 여행을 하기도 했다. 로슈포르와 세트에서는 배 목수의 삶을 살았고 견습공으로서 프랑스 여행도 했으며 프랑슈 콩테의 염전에서도 일한 바 있다. 이 정직한 사람은 모험가의 삶을 살았다. 프랑스에서 그는 읽기와 생각하는 것을 배웠으며, 자신의 의지를 갖는 것을 배웠다. 무엇이든 조금씩은 다 해 보았고 그것이 성실한 인격을 만들었다. 선원의 삶은 그의 체질에 잘 맞았으며 바다는 그의 일부였다. 그는 종종 "우리 집에는 물고기들이 아주 많지요" 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거의 모든 인생을 바다에 바쳤다. 그의 말대로 '바다에 던져진 인생' 이었다. 대서양과 태평양 같은 망망대해를 항해하기도

했으나 망슈를 가장 사랑했다. 큰 소리로 "만만치 않은 상대지!" 하며 망슈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다. 그는 거기서 태어났으며 거기에 묻힐 것이었다. 한두 번 세상을 둘러보고 난 후 마음을 정한 그는 게른제로 되돌아왔다. 그리고는 한 번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가 여행 한 곳이라고는 그랑 빌르와 생 말로뿐이었다.

메스 르티에리는 게른제인이었다. 다시 말해 노르망디인 이자 영국인이요 프랑스인이었다. 그의 안에는 그의 가장 큰 조국인 바다와 거기에 잠긴 네 가지 이름의 조국이 있었다. 그는 일생 동안 어느 곳에 있던지 한 번도 노르망디 어부로서의 양식을 저버린 적이 없었다.

또한 이따금씩 책 읽는 것을 즐겼으며, 철학자와 시인들을 알았고, 더듬거리면서일지언정 많은 나라의 말을 할 줄 알았다.

〈2〉
취향에 관하여

질리아는 야성적이었다. 메스 르티에리 역시 야성적이었으나 질리아와는 달리 다소 세련된 취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여자의 손에 대해서만은 매우 까다로웠다. 어린 시절 소년 선원으로 일할 무렵, 쉬프랑[127] 장군이 "저기 어여쁜 처녀가 있구나. 그런데 저 뻘겋고 큼지막한 손 좀 보라지!" 하고 소리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해군 대장의 한 마디 한 마디는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명령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신탁보다도 더 절대적인 힘을 갖는 것이 바로 명령이었

127) 18세기 프랑스의 저명한 해군대장

다. 어린 르티에리는 쉬프랑 장군의 외침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여자에 관한 한 작고 하얀 손을 필수조건으로 내걸게 되었다. 메스 르티에리의 손은 적갈색의 커다란 삽 같아서 가볍게 움직여도 몽둥이로 내리치는 것과 같았고 어루만진다 해도 집게로 집는 것이었으며 주먹을 쥘라치면 포석 정도는 쉽게 깨뜨려 버리는 위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결혼 하지 않았다. 굳이 따진다면 원하지 않은 것이기도 했지만 적당한 상대를 찾을 수도 없었다. 공작부인의 손을 가진 여자와 결혼하기를 너무도 원했으나 포르 바이[128]의 해녀들 중에서는 그런 손을 가진 여자를 만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래 전 샤랑트[129]의 로슈포르에서 뜻밖에도 그의 이상 속 여인과 꼭 같은 처녀를 만난 적이 있었다. 예쁜 그 처녀는 손 역시 예뻤다. 입이 걸고 손버릇은 좋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다. 필요에 따라 갈퀴로 변하기도 하는 그 우아하고 청초한 손톱을 비난할 수도 두려워할 수도 없었던 것이다. 매력적인 손톱은 르티에리를 황홀하게 만들었지만 이내 불안하게도 만들었다. 결국 애인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게 되지나 않을까 두려워진 그는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또 한번은 오리니에서 마음에 드는 처녀를 만나 결혼을 꿈꾸기도 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에게 "축하합니다. 쇠똥을 잘 던지는 처녀와 결혼하게 되셨군요"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 설명했다. 오리니에는 독특한 풍습이 하나 있었다. 쇠똥을 벽에 던져 그것이 말라 떨어지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 마른 쇠똥을 쿠와피요라고 하는데 그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 던져야 했고 쇠똥을 잘 던지는 처녀는 신

---

128) 프랑스 노르망디 지방의 작은 항구
129) 프랑스의 도

부감으로 인기였던 것이다. 결국 그녀의 쇠똥 던지는 재능은 르티에리를 멀리 떠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연애에 관해서 그는 선원들의 지혜가 담겨 있기도 한 결코 묶어 두지 말라는 평범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날 한때 '코티용' 과 사랑에 빠졌었다는 것에 자부심이 대단했다. 코티용이란 오늘날의 페티코트를 말하지만 여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노르망디 군도의 선원들은 거칠긴 하지만 특유의 타고난 재치가 있다. 거의 모두가 글을 알았고 책도 읽었다. 일요일이면 여덟 살 남짓한 소년 선원이 책을 들고 밧줄 감는 룰러에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로부터 노르망디의 선원들은 냉소적인 데가 있었다. 요새 말로 말장난을 좋아했다. 앙리 2세를 죽이고 제르세에 망명중인 몽고메리[130]에게 배짱 두둑한 조종사 케리펠은 "미친놈이 골빈 놈의 대가리를 빠개 버렸군" 이라고 했을 정도이며, 생 브르라드의 선장 투조는 카뮈 주교[131]에게 "파프(교황)는 죽어서 파삐용(나비)이 되고 시르(제후)는 죽어서 시롱(진드기)이 된다네" 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교를 교황으로 잘못 알기는 했지만 철학적인 말장난이 아닐 수 없다.

〈3〉
뱃사람들의 고어(古語)

채널 아일랜드의 선원들은 진정한 옛 '골' 족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

---

130) 프랑스의 군인, 기마 시합 도중 그가 쏜 창이 공교롭게도 앙리 2세를 죽임
131) 프랑스의 개혁파 성직자

들이다. 오늘날 이 섬들은 빠르게 영국 화되고 있지만 오랫동안 골 족의 토착민들이 살아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세르크의 농부는 아직도 루이 14세 때의 말을 사용한다.

40년 전까지만 해도 제르세와 오리니에서는 고어를 사용하는 뱃사람들이 많아 마치 17세기의 바다 한가운데 와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어떤 고고학자는 이곳에서 뱃사람들의 고어와, 영국의 해군대장 이드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포효하던 쟝 바르[132]의 옛 전쟁언어를 연구할 수 있었다. 우리 아버지 세대의 선원들이 사용하던 말은 오늘날에는 거의 바뀌었지만 게른제에서는 1820년대까지도 흔히 사용되었다. 바람을 잘 견디고 안정된 항해를 하는 배는 *봉 블리니에*, 앞 돛과 키에 상관없이 거의 혼자 바람을 타는 배는 *배쏘 아르당*, 항해하기 시작 하다는 *프랑드르 애르*, 돛을 접고 배를 감속 운행하다는 *카페이에*, 밧줄을 감다는 *패르 도르망*, 돛이 맞바람을 받다는 *패르 샤펠*, 닻줄을 버티다 는 *패르 테스트*, 갑판에 화물이 어지럽게 있다는 *에트르 앙 팡텐느*, 순항하다는 *포르테 플랭*이다. 이 말들은 이제는 사용되지 않는다. *로부와이에*는 오늘날 *루부와이에*(지그재그로 항해하다)로 변했으며 *나비제*는 *나비게*(항해하다)로, *도네 방 드방*은 *비레 방 드방*(선회하다)으로, *타이에 드 라방*은 *알레 드 라방*(강행하다)으로, *알레 다코르*는 *티레 다코르*(줄을 당겨라)로, *데플랑테*는 *데라페*(닻을 올려라)로, *아브라케*는 *엉브라케*(밧줄을 팽팽하게 당겨라)로, 비통은 *타케*(밧줄걸이)로, *타프*는 *뷔랭*(빗장)으로, *발랑신느*(valancines)는 *발랑신느*(balancines, 활대 매다는 밧줄, 마루 줄)로, *스트리보르*는 *트리보르*(우현)로, *레 바부르디*는 *레좀므 드 캬르 아 바보르*(당직 근무반 좌현으로)로 바뀌었다. 투르빌[133]은 오캥쿠르에게 편지를 쓸 때

132) 프랑스의 장군, 사략선(私掠船)으로 네덜란드와 영국에 대해 많은 전공을 세웠음

cingler(배가 항로를 잡다) 대신 *singler*를, rafale(돌풍) 대신 *raffal*을, bossoir(닻을 감아 올리기 위해 배의 외부에 만들어 놓은 지주) 대신 *boussoir*를, drosse(도르레와 키를 연결하는 밧줄이나 쇠사슬) 대신 *drousse*를, loffer(바람부는 쪽으로 뱃머리를 돌리다) 대신 faire une olofée를, élonger(뱃전에 놓다) 대신 *alonger*를, forte brise(센바람) 대신 *survent*을, jouail(닻 장, 한쪽 닻 혀를 땅에 걸 수 있게 닻의 손잡이 위 부분에 걸어 놓는 일종의 빗장) 대신 *jas*를, soute(선창) 대신 *fosse*를 썼다. 17세기에 사용하던 말들은 금세기 초까지도 망슈 섬들의 해안에서 들을 수 있었다. 만일 제르세의 항해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앙고[134]도 깜짝 놀랐을 것이다. 급변하는 바람이라는 뜻의 소트 드 방은 '폴르 방트' 였으며 정박지는 발튀르와 포르튀개즈였다. *투르 에 쇼크!*와 *보스 에 비트!* 같은 명령은 이제는 들을 수 없다. 그랑빌르의 선원은 그 때 이미 *클랑*[135]이란 말을 썼으며 *생 토뱅*이나 생 상송에서는 *클랑 드 풀리오*를 사용했다. 생 말로의 *부 달롱쥬*는 생 텔리에에서는 *오레이유 단느*[136]였다. 메스 르티에리도 비본느 공[137]처럼 갑판의 오목한 만곡(彎曲)부는 *통튀르*, 배의 널빤지 틈을 메우는 직공이 사용하는 끌은 *파타라스*라고 불렀다. 뒤켄느[138]가 뤼테르[139]에게 승리를 거둘 때도, 뒤개 트루앵[140]이 웨이즈너에게 승리를 거둘 때도, 투르빌 대장이 1681년 알제리를 공격한 첫 번째 노예선을 정박시킬

---

133) 17세기의 프랑스 해군대장
134) 16세기 프랑스 디에프의 선주, 프랑스와 1세를 도와 영국과 싸우기도 했음
135) 도르레 구멍
136) 돛의 밧줄을 매는 큰 밧줄걸이
137) 17세기 프랑스 사령관
138) 17세기 프랑스 사략선장
139) 17세기 네덜란드 해군대장
140) 18세기 프랑스 사략선장

때도 지금은 사어(死語)가 되 버린 이 말들을 사용했다. 오늘날 뱃사람들의 말은 완전히 달라져 뒤페레[141]는 쉬프랑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신호도 많이 바뀌어서 라 부르도내[142]의 빨강, 하양, 파랑, 노랑 네 가지 깃발과 더불어 모두 18가지 깃발을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18가지 중 두 개 또는 세 개, 네 개의 깃발을 꽂아 6만 가지의 조합을 할 수 있으므로 돌발사태까지도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4〉
사랑하므로 상처받기 쉬운 사람

메스 르티에리는 매우 관대했다. 그의 장점이자 단점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것이었다. 그가 약속하는 방식은 조금 독특했다. 일단 "하느님께 맹세합니다" 하고 장중하게 말하면 그것을 끝까지 지켰다. 그는 하느님을 믿었다. 그뿐이었다. 교회에는 어쩌다 한 번씩 갔지만 교회에 갈 때만은 공손했고 바다에 나가서는 미신을 믿었다.

자기의 뜻에 거슬리는 것을 참지 못하는 그의 성격은 성난 파도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바다에게나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했다. 저항하는 바다에게는 참 안 된 일이었다. 바다는 그의 편을 들어야만 했다. 메스 르티에리는 절대로 굴하지 않았다. 발끈한 파도도 화가 난 이웃도 그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약속은 철저히 지켰으며 게

---

141) 19세기 프랑스의 해군대장이자 상원 의원
142) 18세기 프랑스의 선원이자 관리

획한 것은 꼭 실현시켰다. 이견(異見)에나 폭풍우에나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에게 *Non(No)*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도, 노호하는 검은 비구름에도 *Non*은 용납되지 않았다. 거부당하는 것도 절대 허락지 않았다. 삶에 있어서는 완고했으며 바다에서는 용감했다.

그는 후추와 소금과 허브를 필요한 만큼 넣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선 수프를 끓이고 음미하며 먹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어부의 작업복을 입으면 멋져 보이고, 프록코트[143]가 어색한 사람, 바람에 머리가 흩날릴 때는 장 바르와 닮았으나 둥근 모자를 쓰고 있으면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 도시에서는 어색하지만 바다에서는 가공할 만한 능력을 보여 주는 사람, 짐꾼 같은 커다란 체격에 욕설은 전혀 안 했지만 어쩌다 화가 나면 부드럽던 목소리가 청천병력으로 변하는 사람, 백과사전을 읽은 농부, 혁명을 겪은 게른제인,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맹목적인 믿음은 없지만 온갖 유령을 보았으며 성모마리아보다 흰 손의 여인에게 신앙심이 더 깊은 사람, 폴리페모스[144]의 힘과 변덕스러운 마음과 콜럼버스의 의지를 가진 사람, 황소 같은 우직함과 어린애 같은 순진함을 가진 사람, 들창코에 불룩 튀어나온 뺨, 아직도 건강한 치아가 숨어 있는 입, 파도에 맞아 생긴 듯 여기저기 주름이 패이고 40년 동안의 항해도가 그려진 얼굴, 뇌우를 맞은 듯한 표정, 바다 한가운데의 바위와 같이 건강해 보이는 혈색과 따스한 시선을 가진 사람, 이것이 메스 르티에리이다.

메스 르티에리에게는 사랑하는 두 연인이 있었으니 하나는 뒤랑드요 또 하나는 데뤼셰트였다.

---

143) 19세기의 신사복

144) 〈그리스 신화〉: 식인종 키클롭스(시실리에 살았던 애꾸눈 거인)의 우두머리

III
뒤랑드와 데뤼셰트

〈1〉
재잘거림과 연기(煙氣)

인간의 육체는 그저 외관에 불과한 것이며 그 실체를 숨기고 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빛과 그림자 위에서 두터워진다. 실체는 영혼이다. 우리의 얼굴은 가면일 뿐이다. 진정한 인간은 인간 속에 존재한다. 우리가 육체라고 부르는 허상 뒤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는 인간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세상에는 놀라움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외관을 실체로 여기는 것은 보편적인 오류이다. 처녀를 예로 들자. 만일 우리가 처녀의 실체를 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새일 것이다. 처녀의 모습을 한 새라니,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우리 집 안에 그 새가 있다고 상상해 보라. 데뤼셰트를 생각해보자. 얼마나 매력적인 신의 창조물인가! 누구라도 그녀에게 "안녕하세요! 귀여운 새 아가씨!" 하며 말을 걸고 싶을 것이다. 날개는 보이지 않지만 재잘거리는 소리는 들린다. 가끔씩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재잘거릴 때는 인간의 저 아래편에 있다면, 노래를 부를 때는 인간의 저 위편에 있다. 노래에는 신비로움이 있다. 처녀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다. 처녀가 여인이 되면 천사는 가 버린다. 그러나 어머니가 된 처녀에게 작은 영혼을 데리고 다시 찾아온다. 언젠가 어머니가 되기

전까지의 삶은 아주 오래도록 어린아이의 상태이다. 소녀는 처녀 속에 끈질기게 지속된다. 그것은 꾀꼬리다. 처녀를 보면서 우리는 '날아가 버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하고 생각한다. 이 귀엽고 친근한 존재는 집 주변의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깃털을 가다듬거나 머리를 빗고, 우리의 귓전에 대고 말로 형언할 수 없이 예쁜 소리를 재잘거린다. 그녀가 질문하면 우리가 대답하고 우리가 질문하면 그녀는 지저귀듯 속삭인다. 우리는 그녀와 수다를 떤다. 수다 떨기는 말을 함으로써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는 그 속에 하늘의 특성을 닮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검은 생각에 뒤섞이는 파란 생각이다. 우리는 그 존재가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파악하기 어렵고, 너무나 초월적인 것에 대해, 그리고 너무나 잡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며, 사라져 버릴 수도 있을 테지만 눈앞에 모습을 보여 주는 친절함을 갖은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 예쁘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매력적인 존재보다 더 중요한 기능은 지상에서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벌새가 없다면 숲은 절망 속에 잠겨 있을 것이다. 기쁨을 발산하고 행복을 내뿜으며 어두운 사물 틈에서 빛을 내비추고 운명을 찬란하게 하고 조화롭게 하고 우아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움으로써 우리에게 선을 행한다. 때때로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에게 환희를 주는 요정 같은 힘을 지닌 여성을 만난다. 때로 그녀는 자신의 힘을 알아채지 못하지만, 그것이 더 효력을 낼 수도 있다. 그녀가 있으면 주위가 환해지고, 그녀가 다가오면 따뜻해진다. 그녀가 걸어가는 것을 보면 흡족해지고, 멈추어 서면 행복하다.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인간의 모습을 한 오로라이다. 그녀가 그저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집은 에덴동산이 된다. 그녀의 피부 속 모공에서 천국이

나온다. 이 환희의 순간은 그녀가 우리들 옆에서 숨을 쉴 뿐 다른 수
하지 않고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살아 있는 존재라면 너
이 끌고 가는 거대한 사슬의 무게를 덜어 주는 미소를 갖고 있다면
을 성스러움이라는 말 이외의 어떤 것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그 미
데뤼셰트가 가지고 있었다. 아니 데뤼셰트는 그 미소 자체였다. 우
얼굴보다 더 우리의 실체를 닮은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표정이
그리고 우리의 표정보다 더 우리의 실체를 닮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의 미소이다. 그러므로 미소 짓는 데뤼셰트, 그것이 바로 데뤼셰트이

르세나 게른제의 혈통에는 특별히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다. 여자들
처녀들은 화사하고 순박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작센의 순결함
르망디의 생기가 어울린 아름다움이다. 발그레한 뺨과 파란 시선.
이 시선에는 별이 없다. 영국의 교육은 그것을 없앤다. 이 맑은 두
저항할 수 없이 매혹적인 것으로 변하는 날 내면의 파리 아가씨가
에 모습을 드러내리라. 다행히 파리는 아직 영국인들 속에 모습을
내지 않았다. 데뤼셰트는 파리 아가씨도 아니었고 게른제인도 아니
생 피에르 포르에서 태어났지만 메스 르티에리가 그녀를 키웠다.
데뤼셰트를 어여쁜 처녀로 키웠다.

뤼셰트는 냉정해 보이고 도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
랑을 모르고 있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기꺼이 그녀를 사랑하도록
다. 물론 악의는 없었다. 그녀는 결혼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이 없
생 상송으로 이민 와서 뿌리를 내린 늙은 귀족은 말했다. "이 아가
약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군요."

셰트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작은 손을 가지고 있었으며 발도 그 손
어울렸다. 그래서 메스 르티에리는 "귀여운 네 개의 발" 이라고 말

하곤 했다. 그녀는 착하고 친절했으며 가족과 재산이라고는 삼촌 메스 르티에리뿐이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었으며 재능은 노래 몇 곡 부르기, 아는 것이라고는 아름다움뿐이었다. 순진하고 철부지 같은 그녀는 천천히 움직일 때는 우아했고 덤벙거릴 때는 발랄했으며 어린아이처럼 짓궂게 장난칠 때는 명랑하면서도 우수에 젖은 듯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섬사람 특유의 우아하지만 예절에는 어긋나는 옷차림을 했으며 일년 내내 꽃으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다녔다. 순진한 이마와 단아하고 마음을 끄는 목, 밤색 머리카락과 여름의 갈색 흔적이 남은 흰 피부, 홀딱 반할 만큼 위험한 해맑은 미소를 띤 크고 건강한 입을 가지고 있었다.

때때로 해 진 뒤의 저녁 시간, 밤이 파도에 내려앉아 황혼이 물결을 불안에 떨게 하는 시간, 생 상송 항만의 좁은 입구로 음산하게 굽이치는 파도를 타고서, 뭔지 모를 거대한 덩어리가, 씨익씨익 소리를 내고 불을 뿜는 악마 같은 그림자가, 짐승처럼 헐떡거리고 화산처럼 연기를 뿜는 무서운 물체가, 일종의 히드라가, 파도 속에 거품을 내뿜는 것을, 안개를 끌고 오는 것을, 도시를 향해 소름끼치는 지느러미를 치며 거대한 입으로 불꽃을 내뿜으며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뒤랑드였다.

〈2〉
유토피아의 영원한 이야기

182×년 망슈의 바다에서 증기선은 경이롭고 신기한 것이었다. 여러 해 동안, 이 배는 노르망디의 어느 해안을 가든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다. 요즘은 수평선 쪽에서 증기선 8, 9척이 오가도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 기껏해야 배에서 나는 연기의 색깔로 웨일즈의 석탄을

쓰는 것인지 뉴캐슬의 석탄을 쓰는 것인지 구별할 줄 아는 전문가의 주목을 잠시 끌 뿐이다. 배가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하고, 들어오면 환영하고, 떠나면 작별인사를 할 뿐이다.

금세기 초에 사람들은 이 발명품에 대해서라면 입을 다물 수가 없었고 이 기계와 그것이 내뿜는 연기는 특히 망슈의 섬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지 못했다. 영국 여왕이 클로로포름을 이용하여 분만한 것을 두고 성서를 모독했다고[145] 비난한 청교도적인 군도에서 증기선은 처음에 *악마의 배*라는 이름을 얻었다. 옛날에는 카톨릭 교도였으나 지금은 캘빈주의자가 된 언제나 편협한 신앙을 가진 당시 이곳의 노련한 어부들에게 증기선은 물에 떠다니는 지옥과도 같았다. 이곳의 어떤 설교자는 "하느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물과 불을 함께 일하게 만들 권리가 우리에게 있을까요?"라고 이 문제를 거론했다. "불과 쇳덩어리로 된 이 짐승은 레비아탄[146]을 닮지 않았나요? 이것이 인간의 능력에 다시 카오스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진보는 결국 카오스로의 회귀일 뿐이라고 여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친 생각이자 터무니없는 실수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다. 금세기 초 나폴레옹이 증기선에 관하여 프랑스 과학원 아카데미 데 시앙스에 자문했을 때 내려진 평결이다. 과학의 분야에서라면 생 상송의 어부는 파리의 수학자는 아니므로, 종교의 분야에서라면 게른제같이 작은 섬은 아메리카와 같이 큰 대륙보다 문명의 빛을 받지 못하므로 용서하고 지나갈 수 있다. 1807년 미국의 풀턴의 첫 번째 증기선이 리빙스턴의 후원으로 영국에서 보내온 와트의 엔진을 달고, 기계장비를 싣고, 앙드레 미쇼와 또 한

145) 창세기 3; 16. 고통스럽게 해산을 할 것이다.
146) 구약성서 중의 거대한 바다 괴물

사람의 프랑스인에 의해 뉴욕에서 알바니아까지 처녀항해를 할 때가 우연히도 8월 17일이었다. 이에 관해 감리교파는 한 마디 하였으며 모든 작은 교회의 설교자도 이 배에 악담을 퍼부었다. 17이라는 숫자가 묵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촉각 10개와 머리 7개를 합한 숫자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증기선을 묵시록의 짐승이라 했으며 유럽에서는 창세기의 괴물이라 했다. 차이점이라고는 그 뿐이었다.

학식 있는 사람들은 증기선을 당치도 않다고 했고 신부들은 불경스럽다고 했다. 과학은 사형에 처하라 했고 종교는 지옥으로 보내 버리라 했다. 증기선을 발명한 풀턴은 루시퍼[147]의 변종이었다. 바닷가와 시골의 순박한 사람들은 이 새로운 물건이 준 거북스러움 때문에 비난에 찬동했다. 증기선에 대하여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물과 불은 하나의 모순이다. 이 모순은 하느님의 명령이다. 사람은 하느님께서 하나로 만든 것을 갈라놓을 수 없듯이 하느님께서 갈라놓은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이것이 농부들의 생각이었으며 나를 두렵게 하는 생각이다.

그 까마득한 시절에 증기선으로 게른제에서 생 말로까지 항해를 감행한 것은 오로지 메스 르티에리였다. 자유사상가로서의 그만이 그 일을 구상할 수 있었으며 무모하리만치 대담한 바다 사나이로서의 그만이 그 일을 실행할 수 있었다. 그의 반쪽 프랑스인이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반 쪽 영국인이 집행했다.

언제 왜 그랬을까? 지금부터 이야기해보자.

---

147) (Lucifer) 그리스도교 추락천사의 이름

〈3〉

랑탠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약 40년 전 쯤으로, 파리 교외의 순찰로 근처 '포스 오 루'와 '통브 이수와르' 사이에는 수상쩍은 숙소가 하나 있었다. 외딴 오두막집이었던 이곳은 필요에 따라서는 험악한 장소로 돌변하기도 했다. 그곳에는 샤틀레에 있는 대소인(代訴人)의 서기였으나 갑자기 도둑이 된 일종의 부르주아 산적이 처자식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곧 중죄 재판소에 모습을 나타낼 것이었다. 그 가족의 성은 랑탠느였다. 초라한 오두막집 안의 마호가니 서랍장 위에는 꽃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 찻잔 두 점이 놓여 있었다. 우정의 추억, 존경의 선물이라는 금빛 글씨가 찻잔에 나란히 새겨져 있었다. 죄로 뒤범벅이 된 누추한 집에는 아이가 한명 있었다. 아빠와 엄마는 반쪽 부르주아 계급이었으므로 아이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다. 아이를 가르쳤던 것이다. 병색이 짙은 창백한 얼굴의 엄마는 반사적으로 자식을 가르치고 철자를 말하게 하다가도 남편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돕기 위해서 또는 행인에게 매춘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우곤 했다. 그동안 *예수의 십자가*[148]가 그들이 떠난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고 그 옆에는 아이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빠와 엄마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형벌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도 사라졌다.

르티에리는 여행 중에 어마어마한 곤란에 처한 자신을 구해 주고 다른 도움까지 준 자신과 같은 모험가를 우연히 만나 알게 되면서 그에게 호의를 갖게 되고, 그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게른제로 데리고 와서 연안 항

---

148) 가난한 기독교도의 유아 교육용 책

해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동업자로 삼았다. 그 모험가는 바로 어른이 된 랑탠느였다.

르티에리처럼 랑탠느도 건장한 목덜미와 양어깨 사이로 짐을 올려놓기에 좋은 넓고 튼튼한 등과 헤라클레스와 같은 허리를 가지고 있었다. 르티에리와 랑탠느는 거동과 풍채가 비슷했다. 랑탠느의 키가 조금 더 클 뿐이었다. 나란히 항구를 걸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 "저기 형제가 가네"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러나 정면에서는 달랐다. 르티에리는 모든 면에 열려 있었고 랑탠느는 닫혀 있었다. 랑탠느는 용의주도했다. 랑탠느는 검술에 능했으며 하모니카를 연주했고 멀리에서 공을 던져 양초의 심지를 자르기도 했고 주먹도 강했으며 볼테르의 *앙리아드*[149]를 외웠고 꿈을 해몽할 줄도 알았다. 트르뇌이의 *생 드니의 영묘*(靈廟) 송가를 암송할 줄도 알았다. 그는 칼리퀴(포르투갈 사람들이 자모랭이라고 부르는)의 전제군주와 친분이 두텁다고 말하기도 했다. 만일 누군가가 그가 지니고 있던 작은 비망록을 대충 훑어보았다면 여러 가지 메모 중에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언급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리옹 생 조제프 지하 감옥 벽틈 어딘가에 줄이 숨겨져 있다." 그는 매우 신중하게 이야기했다. 자칭 생 루이의 어느 기사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의 내의는 짝이 맞지 않았으며 여러 종류의 머리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명예에 관하여 그보다 더 예민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자신과 싸웠으며 자신을 죽였다. 그의 시선에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간교한 영혼을 가두고 있는 강한 육체. 그것이 랑탠느이다.

장터의 *카베자* 드 모로[150]에서 그가 보여 준 주먹의 힘은 르티에리의

---

149) 앙리 4세의 영광을 노래한 볼테르의 서사시

150) '무어인의 머리' 또는 '터키인의 머리'를 말하며 게임의 표적이 됨

마음을 사로잡았다.

게른제의 사람들은 랑탠느의 모험에 대해 속속들이 알지 못했다. 그는 온갖 모험을 다 했다. 만일 운명이 옷을 입는다면 랑탠느의 운명은 분명히 어릿광대의 옷을 입을 것이었다. 그는 세상의 온갖 풍파를 겪었으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는 대륙을 두루 거쳐 항해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한 일은 다양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요리사였고 수마트라에서는 새를 사육했으며 호놀룰루에서는 장군이었고 갈라파고스 군도에서는 경건한 기자였으며 인도의 움라부티에서는 시인이었고 아이티에서는 프리메이슨 단원이었다. 그는 마지막 신분으로 그랑 고아브에서 추도사를 했으며, 추도사의 일부가 지방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안녕, 아름다운 영혼이여! 이제 당신이 날아가는 하늘에서 아마도 프티 고아브의 훌륭한 레앙드르 크라모 신부를 만나겠지요. 영광스러운 10년의 수고 덕분에 당신이 앙스 아 보의 교회를 완성했다고 그에게 말하세요! 안녕, 불세출의 천재, 프리메이슨의 모델이여!" 그가 프리메이슨 가면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보듯이 카톨릭의 가짜 코를 붙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는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진보적인 사람들을 얻게 되고 카톨릭을 통해서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을 얻었다. 그는 자기가 순수한 백인의 혈통이라고 생각했으며 흑인을 증오했다. 그러나 분명히 술루크[151]를 찬미했음에 틀림없다. 1815년 보르도에서는 베르데[152]이기도 했다. 그 당시 왕정주의의 망상은 풍부한 흰 깃털장식 같은 그의 눈썹에서부터 나왔다[153]. 그는 해와 달의 명멸(明滅)처럼 나타났다 사라졌다 또 다시 나타나는 조화를 부리며 인생을 보냈다. 그는 총을 든 불량배였다. 그는 터키어를 알았기에 *기요티네*(단두대)

151) 프티 고아브의 흑인 노예로 반란을 일으키고 아이티의 황제까지 되었음
152) 1795~1815년의 남부 프랑스에서 '백색공포시대'에 몰두한 왕당파
153) 랑탠느가 왕정주의자 같이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음

대신 *네보이쎄*라고 말했다. 트리폴리에서는 이슬람을 공부하는 학생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다. 그래서 어거지로 터키어를 배웠다. 그가 맡은 일은 저녁마다 회교사원의 문 앞에 가서 작은 나무판자나 낙타의 견갑골에 쓰인 코란을 신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읽는 것이었다. 그는 필경 배교를 했을 것이다.

그는 가장 나쁜 일까지 포함해서 무엇이든지 잘 했다.

큰 소리를 내어 웃으면서도 눈썹은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정치에 대해서라면 나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도덕의 편입니다." "피라미드는 다시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명랑하고 다정한 데가 있었다. 그의 입 모양은 말하고 있는 내용과 어긋났다. 그의 콧구멍은 말의 그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의 눈가에는 온갖 음침한 생각이 만나는 주름의 교차로가 있었다. 그의 겉모습의 비밀이 드러나는 곳은 거기 뿐이었다. 눈초리의 주름살은 독수리의 발톱 같았다. 두상은 정수리가 낮고 관자놀이 부분이 넓었다. 보기 싫게 눌리고 더부룩한 머리털로 뒤덮인 귀는 '이 동굴 속에 사는 짐승에게 말 시키지 마시오' 라고 경고하는 듯했다.

게른제의 화창한 어느 날, 갑자기 랑탠느가 사라졌다.

르티에리의 동업자는 금고를 털어 도망쳤다.

물론 그 금고 안에는 랑탠느의 돈도 있었지만, 르티에리의 5만 프랑도 들어 있었다.

르티에리는 40년 동안 연안 무역업과 배 목수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10만 프랑이라는 큰돈을 모았다. 그 중 반에 해당하는 돈을 랑탠느가 훔쳐 달아난 것이었다.

반쯤 무너진 르티에리는 굴하지 않고 즉시 재기할 궁리를 했다. 용기

있는 사람의 재산은 훔칠 수 있지만 그 용기는 훔칠 수 없는 법이다. 그 때 사람들이 증기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르티에리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풀턴의 기계를 몰아 보겠다는 생각과 함께 불을 내뿜는 배 한 척으로 노르망디 군도와 프랑스를 이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생각에 마지막 승부를 걸었다. 남은 것을 다 바쳤다. 랑탠느가 도망친 여섯 달 후에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한 생 상송의 항구에서 바다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연기를 뿜어대는 배가 출항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망슈에서 항해를 시작한 첫 번째 증기선이었다.

세인들의 증오와 멸시를 즉시 *르티에리의 갈리오트*[154]라는 별명으로 불릴 수 있도록 매료시킨 이 배는 앞서 말했듯이 게른제에서 생 말로까지 운항업무를 시작했다.

〈4〉

유토피아의 이야기(계속)

이해할 만도 하듯이, 증기선의 일은 처음에 오해를 받았다. 프랑스 해안으로 항해를 하는 게른제 섬의 선주라면 누구나 소리 높여 외쳤다. 성서와 그들의 상권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떠들어댔다. 몇몇 교회는 노발대발했다. 엘리위라는 신부는 증기선에 '종교적 방탕아'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한편, 범선은 정통 카톨릭이라고 표명되었다. 사람들은 증기선에 실려 온 황소의 머리에서 분명히 악마의 뿔을 보았다. 그러나 점차 증기선에 실려 온 소들은 별로 지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의 질이 더 좋

---

154) 네덜란드의 연안운송선

아 잘 팔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바다의 위험을 최소화해 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운항 시간도 짧아졌고, 운임도 더 저렴했으며, 더 안전했다. 제시간에 출발하고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으며 빨리 운반되므로 생선도 더 싱싱했고, 남아도는 어획물을 프랑스 시장에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게른제의 튼튼한 암소로부터 얻는 버터는 돛을 단 샬루프선보다 악마의 배에서 빨리 수송되어 그 품질이 전혀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디낭에서도 생 브리외크에서도 렌느에서도 대량으로 게른제의 버터를 주문하게 되었다. 결국 *르티에리의 갈리오트*라고 불린 이 배 덕분에 안전한 항해와 규칙적인 운항, 쉽고 빠른 왕래, 항해로의 연장과 다양한 판로, 거래영역의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요컨대 성서를 모독하고 섬을 부유하게 만든 이 악마의 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몇몇 대담한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감히 칭찬을 하기도 했다. 서기 시외르 랑드와는 이 배의 가치를 인정했다. 그는 르티에리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서는 공정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우선 르티에리는 메스였지만 랑드와는 시외르에 불과했다. 그리고 생 피에르 포르의 서기이긴 했으나 랑드와는 생 상송에 사는 사람이었고 생 상송에서 편견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는 르티에리와 그 자신, 두 사람밖에는 없었다. 그들이 서로 싫어한 것은 당연했다. 같은 장사끼리는 의견이 맞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시외르 랑드와는 증기선을 칭송할 만큼 정직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시외르 랑드와에게 동조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이 계속되고 일이 정확히 처리되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였으므로 몇몇 잘난 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르티에리의 갈리오트*를 찬미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배를 그다지 우러러 보지는 않을 것이다. 40년 전의

증기선은 요즘 기술자들을 코웃음 치게 만들 것이다. 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물건의 모습은 기형적이었다.

오늘날 대서양을 횡단하는 훌륭한 증기선과 드니 파팽[155]이 1707년 풀다 강에서 조종했던 화륜선 간의 차이는, *몽트벨로*[156]호(길이 200피트에 너비 50피트, 큰 돛의 활대가 115피트이며, 적재량이 3,000톤이고, 1,100명의 군인과 120대의 대포, 1만 개의 포탄과 탄환 160상자를 실을 수 있는, 전쟁 시에는 양쪽 현측포에서 3,300파운드의 강철을 퍼붓고, 항해할 때는 5,600미터의 네모진 돛을 바람에 휘날리는 삼층 갑판의 대형 전함)와 2세기의 덴마크 전함 (웨스터 새트럽의 바다 속 진창에서 돌도끼와 활과 몽둥이로 가득 찬 채 발견되어 플렌스부르그의 시청에 전시되어 있는)사이의 차이에 버금간다.

1707~1807년, 파팽의 첫 번째 증기선과 풀턴의 첫 번째 증기선 사이에는 꼭 100년이라는 세월의 간격이 있다. *르티에리의 갈리오트*는 그 두 개의 밑그림에 비하면 분명히 발전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의 밑그림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걸작품이기도 했다. 과학의 모든 배(胚)는 태아처럼 괴물 같으면서도 배아처럼 경이로운 두 가지 양상을 띠기 때문이다.

〈5〉
악마의 배

*르티에리의 갈리오트*는 돛의 풍압 중심에 따라 돛대를 세우지 않았는

155) 프랑스의 발명가, 수증기의 탄성(彈性)력을 처음으로 발견했음
156) 1812년 진수된 전쟁선

데 그것은 이 배의 결함이 아니라 선박건조 법칙에 따른 것이었다. 게다가 배가 추진 장치로서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돛은 장식물일 따름이었다. 덧붙여 말하자면 외륜선은 돛을 달기는 했어도 거의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갈리오트는 너무 짧고 너무 둥글며 너무 땅딸막했다. 선수(船首)의 측면이 너무 불룩했으며 선측 후반부 역시 그랬다. 배를 가볍게 만들 정도로 배짱이 두둑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배는 팡스와 비슷한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앞뒤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좌우로는 매우 불안정했다. 외륜 박스가 너무 높았고 길이에 비해 갑판의 대들보가 너무 넓었다. 육중한 엔진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여 배에 화물을 많이 적재하기 위해서는 벽을 터무니없이 높여야만 했다. 이는 바닷물과 싸우며 항해할 수 있도록 배의 돛대를 제거하여 평평하게 만든 74년의 절충형 배와 거의 유사한 결함이었다. 선회운동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대략 배의 길이와 비례하므로 이 배는 짧기 때문에 빨리 선회해야 했겠지만 길이가 짧은데서 오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육중한 무게 때문에 빨리 선회할 수 없었다. 중앙의 늑재도 너무 넓어서 배를 늦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의 저항은 물에 잠긴 가장 깊은 부분의 크기와 배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뱃머리는 수직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결함도 될 수 없겠지만 그 당시에는 45도 기울이는 것이 불변의 관행이었다. 선체의 굴곡부는 모두 잘 연결되어 있었지만 경사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측면으로만 기울게 되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면 때로는 선수가 때로는 선미가 물에 너무 깊이 잠겼는데 이것은 중심 부분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엔진의 무게 때문에 짐이 놓여야 할 자리에 제대로 있지 못했고, 큰 돛대 뒤쪽으로 중심이 자주 이동했기에 증기의 힘을 비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으며 큰 돛은 믿을 수 없었다. 이런 경우에 큰 돛의 효과는 바람에 버티는 것이 아니라 바람 부는 방

향으로 뱃머리를 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람에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의 대책은 뱃전에 있는 큰 시트[157]를 늦추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바람은 아딧줄[158]에 의해 뱃머리에 머물러 있었으며 큰 돛은 더 이상 후미돛의 효과를 내지 않았다. 이런 방식으로 조종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키는 요즘처럼 타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손잡이가 달린 구식으로 선미재[159]에 고정된 경첩 위에서 회전하며 선미늑골재[160] 위로 지나가는 수평의 들보에 의해서 움직였다. 유유[161]와 같은 종류인 두 개의 보트가 굽은 보트 걸이에 매달려 있었다. 이 배는 큰 닻, 계류(稽留)되는 두 번째 닻 (워킹 앵커), 두 개의 이물 닻, 이렇게 모두 네 개의 닻을 가지고 있었다. 체인에 연결되어 물 속에 투하되는 네 개의 닻은 경우에 따라서 선미에 있는 큰 캡스턴[162]이나 선수에 있는 작은 캡스턴에 의해 조작되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갱두와르[163]로 교체하지 않았으므로 쇠 지렛대를 이용하는 수고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물 닻은 우현과 좌현에 각각 하나씩 둘뿐이었으므로 분기점에서는 쌍 닻으로 정박할 수 없었고 어떤 바람에 따라서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두 번째 닻을 이용할 수 있었다. 부표는 표준형으로써, 물 위에 떠있으면서 닻의 부표줄의 무게를 감당하도록 만든 것이었다. 샬루프선은 실용적인 크기로서, 이 배의 진정한 예비품이었다. 그것은 큰 닻을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튼튼했다. 무엇보다도 이 배의 독특한 점은 선구를 갖출 때 부분적으로 체

157) 돛의 아랫귀를 펴서 묶는 밧줄
158) 돛의 밑 귀퉁이의 밧줄
159) 고물에 있는 키나 추진기를 붙이는 강철. 대부분은 용골에 대하여 수직이나 약간 경사진 것도 있음
160) 선미의 상부에 있는 도르래 축의 받침대
161) 정박하고 있는 배와 부두 사이를 왕래하는 작은 보트
162) 수직으로 된 원추형의 동체에 밧줄 또는 체인을 감아 그를 회전시켜 닻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기계
163) 닻 감아 올리는 기계

인을 사용하므로, 동삭(動索)일 때는 움직임을, 정삭(靜索)일 때는 긴장을 방해할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돛대는 비록 부차적인 것이기는 했지만 정확하지 않은 구석이 전혀 없었다. 조범장치[164]는 잘 묶여 있고 정리되어서 거의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다. 늑재는 견고했으나 거칠었다. 증기선은 범선만큼 섬세하게 다듬은 목재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배는 시속 8킬로미터 정도로 항해했다. 돛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곧잘 침로(針路)를 벗어났다. 그런 상태에서도 *르티에리의 갈리오트*는 안정된 항해를 하기는 했지만 물을 가르기 위한 첨단이 없기 때문에 멋지게 항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암초나 소용돌이 같은 위험한 곳에서는 배를 다루기 어려웠다. 배는 알 수 없는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냈다. 파도 위에서 좌우로 흔들릴 때면 새 구두창에서 나는 소리를 냈다.

이 배는 특히 하나의 그릇이었으며 전쟁선이라기보다 화물선으로 의장되었으므로 오로지 짐을 싣기 위해서만 이용되었다. 승객은 조금밖에 탈 수 없었다. 가축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까다롭고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선적해야 했다. 그 당시에는 화물창에 황소를 실었는데 그것이 상황을 복잡하게 했다. 요즈음은 앞쪽 갑판에 가축을 싣는다. 금세기의 다소 촌스러운 유행에 따라 악마의 배의 외륜 박스는 흰색이었으며, 선체는 흘수선까지 붉은 색, 배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검은 색으로 칠해졌다. 배는 짐이 없을 때 7피트, 짐을 실었을 때 14피트가 물에 잠겼다.

엔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매우 튼튼했다. 3톤당 1마력의 힘이었으며 그것은 예선할 수 있는 힘에 가까웠다. 외륜은 배의 무게중심보다 약간 앞쪽에 잘 배치되어 있었다. 엔진은 2기압의 최대 압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수축과 팽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석탄을 사용했다. 기반이 불안정했으

---

164) 구멍이나 매듭에 의해 연결되는 여러 가지 밧줄의 접합

므로 핸들은 없었으며 오늘날까지 그렇게 하듯이 이중의 기계장치로 그것을 대신했다. 이중의 기계장치는 회전축의 양끝에 고정되어 한쪽은 언제나 최고점이 되고 또 한쪽은 정지상태가 되는 두 개의 크랭크를 번갈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엔진 전체는 주조된 하나의 판 위에 세워져 있었다. 그러므로 배가 심하게 손상되는 경우에라도 바다의 공격이 균형을 깨뜨릴 수 없었으며 선체가 일그러진다 할지라도 엔진은 무사했다. 엔진을 보다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실린더 가까이에 크랭크암을 놓았으며 그것이 크랭크축의 진동 중심을 중앙에서 말단으로 옮기는 결과를 가져 왔다. 진동실린더가 발명되고 나서부터는 크랭크암을 없앨 수 있었지만 그 시절의 엔진설비에 있어서는 실린더 옆의 크랭크암이 필수적인 요소였던 듯하다. 보일러는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바닷물 추출 펌프를 지니고 있었다. 외륜들은 매우 거대했으므로 힘의 손실을 줄여 주었고 연통은 매우 높이 솟아 있었으므로 화구의 통풍을 유리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커다란 외륜은 물의 힘에 노출되고, 높이 솟은 연통은 바람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무 물갈퀴판, 작은 쇠갈고리, 바퀴축, 이러한 것들이 외륜을 이루고 있었는데 매우 견고하게 만들어 졌으며 놀랍게도 분해가 가능했다. 물갈퀴판 세 개는 언제나 물에 잠겨 있었다. 물갈퀴판의 중심 속력은 항해 속력 6을 넘지 못했는데 그것이 이들 외륜의 단점이었다. 게다가 크랭크의 길이가 너무 길었으며 증기기관의 활판은 과도하게 마찰하면서 실린더 속으로 증기를 분배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이러한 엔진은 경탄할 만하게 여겨졌으며 실제로도 경탄할 만했다.

이 엔진은 프랑스 베르시 제철 공장에서 제작되었다. 메스 르티에리도 어느 정도 그것을 설계하기는 했지만 초기 설계도에 따라 엔진을 만든 기계공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러므로 이 엔진은 유일무이한 것이며 대체 불능의 것이었다. 설계자는 남아 있었지만 제작자가 없었다.

엔진은 4만 프랑이었다.

르티에리는 직접 갈리오트를 만들었다. 생 피에르 포르와 생 상송 사이의 첫 번째 원형포탑 쪽에 있는 지붕이 있는 조선대에서였다. 필요한 목재는 브레멘에서 구입했다. 배 목수로서의 그의 모든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며 사람들은 이음새가 촘촘하고 균일하며 타르보다 질이 좋은 인도의 접합제 사란구스티를 사용한 외피 판을 보고 그의 재능을 알아볼 수 있었다. 배의 안쪽 피복 판에는 견고함을 더하기 위해 대못을 쳐서 박았다. 르티에리는 배 밑바닥을 갈갈[165]로 도장했다. 선체의 둥근 형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1사장(斜檣)에 돛의 하활을 맞춰 넣었는데 이것은 제1기움 돛대의 돛에 다른 것을 덧붙이게 했다. 배를 진수(進水)하던 날 그는 소리쳤다. "고생 끝!" 우리가 보았듯이 갈리오트는 정말로 성공했다.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 배는 7월 14일에 진수되었다. 그 날 르티에리는 두 개의 외륜 박스 사이의 갑판에 서서 바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외쳤다. "이제 네 차례다! 파리 사람들은 바스티유를 습격했지. 이젠 우리가 너를 습격한다!"

갈리오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게른제에서 생 말로까지 항해했다. 화요일 아침에 떠나 금요일 저녁에 돌아왔다. 장이 서는 토요일의 전날이었다. 그것은 군도 전체의 연안 항해용 대형 샬루프선 중에서 가장 튼튼한 목재 선박의 표본이 되었다. 또한 적재량은 그 크기에 비례했으므로 한 번의 항해로 실어가고 실어오는 물건의 양은 보통의 배로 네 번에 걸쳐 실어 날아야 할 분량과 맞먹었다. 거기서 막대한 이윤이 생겨났다. 배의 명성은 그 적재량에 달려 있다. 그 자신이 하역인부 이기도 했던 르티에리는 자신이 바다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를 대신 할 선원 한

---

165) 라임, 오일, 타르의 혼합물

명을 훈련시켰다. 2년 후 증기선은 1년에 750파운드, 즉 1만 8천 프랑의 순이익을 남겼다. 게른제의 1파운드는 24프랑이며 영국의 파운드는 25프랑, 제르세의 파운드는 26프랑이다. 이러한 번거로움은 생각만큼 그리 복잡한 것이 아니며 은행은 그것으로 이익을 보기도 한다.

〈6〉
르티에리의 승리

갈리오트는 번창했다. 메스 르티에리는 자신이 무슈 르티에리가 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게른제에서는 쉽게 무슈가 될 수 없다. 평민 남자와 무슈 사이에는 오르기 어려운 등급이 많다. 피에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첫 번째 등급은 아무런 칭호 없이 이름만으로 피에르라고 부른다. 두 번째 등급은 베쟁(또는 브와쟁) 피에르, 세 번째 등급은 페르 피에르, 네 번째 등급은 시외르 피에르, 다섯 번째 등급은 메스 피에르, 그리고 최상의 등급이 바로 무슈 피에르이다.

이러한 계급은 땅에서 솟아 나와 창공으로 이어진다. 그 속에 계급주의적인 영국 전체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끼어든다. 이는 실로 다양한 계층을 이루며 위쪽으로 올라 갈수록 영예로운 것이다. 무슈(젠틀맨) 위에는 에스퀴르(에퀴예)가 있고 에스퀴르 위에는 슈발리에(평생토록 사용하는 시르 라는 호칭을 곁들여)가 있으며 그 위로는 바로네(세습되는 호칭인 시르와 함께) 그 다음은 스코틀랜드에서 리어드(영주)라고 부르는 로르, 바롱(남작), 비콩트(자작), 콩트(영국에서는 어얼, 노르웨이에서는 자알이라 부름), 마르키(후작), 뒤크(공작)로 이어지며 그 위에는 영국 특유의 패어가 있고 그 위에 왕실의 혈통인 왕자와 왕이 있다. 계급은 평민에

서 부르주아, 부르주아에서 바론느티쥬[166], 바론느티쥬에서 패리, 패리에서 왕족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뜻밖의 성공, 증기선과 그 엔진, 악마의 배. 그것들 덕분에 메스 르티에리는 유력 인물이 되었다. 갈리오트를 건조하기 위하여 그는 돈을 빌어야만 했기에 브레멘에서도 생 말로에서도 빚을 냈었다. 그러나 해마다 부채를 갚아 나갔다.

게다가 외상으로 생 상송 항의 바로 입구에 돌로 지은 새 집도 샀다. 앞으로는 바다가, 뒤로는 정원이 있는 예쁜 집이었다. 집의 한 모퉁이에는 *레 브라베* 라고 이 집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르티에리의 집 레 브라베 정면은 항구의 벽 일부분을 이루고 있었으며, 두 개의 창이 눈길을 끌었는데 북쪽은 꽃으로 가득한 울타리 쪽에, 남쪽은 대양 쪽에 면해 있었다. 그리하여 이 집은 두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는 폭풍우를 마주하고 또 하나는 장미꽃을 마주하고 있었다.

두 가지 얼굴은 이 집에 살고 있는 두 사람, 메스 르티에리와 데뤼셰트를 위해 만들어진 듯했다.

레 브라베는 생 상송에서 인기가 있었다. 결국 메스 르티에리가 인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 인기는 적게는 그의 무던함과 충실과 용기에서부터, 또 그가 구해낸 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기인한 것이고, 크게는 그의 성공과 그가 생 상송 항에 출항과 입항의 특혜를 주었던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확실히 악마의 배가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수도 생 피에르에서는 수도의 항구를 위해서 배를 요구했지만 르티에리는 생 상송을 위해 완강히 저항했다. 생 상송은 그가 태어난 곳이었다. 그는 "내가 바로 거기에서 바다로 던져졌지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리하여

---

166) 여기부터 귀족에 속함

지역에서 르티에리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다. 세금을 내는 소유자의 신분은 게른제에서 *아비탕*이라 부르는 지위를 그에게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즈니에라고 불렀다. 이 가난한 선원은 게른제 사회의 여섯 등급 중 다섯을 단번에 뛰어넘었다. 그는 메스가 되었다. 이는 무슈에 가까웠으며 급기야는 무슈를 뛰어넘기에까지 이르렀다. 어느 날 게른제의 연감 *젠트리*[167]와 노빌리티 장(章)에서 *르티에리 에스퀴르*라고 새겨진 놀랍고도 당당한 글자를 읽게 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정작 메스 르티에리 자신은 관심도 없을뿐더러, 그러한 구분이 쓸모없는 것이라고 무시하기까지 했다. 그가 쓸모 있는 것이라고 여긴 것은 자신의 기쁨이었다. 그의 마음이 내키는 것은, 인기가 많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이미 말했거니와 그가 사랑하는 것이라고는 두 가지 뿐이었으니 결과적으로 뒤랑드와 데뤼셰트라는 두 가지 대망을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어쨌든 그는 바다라는 복권을 샀고, 일등에 당첨되었다.

당첨 상품은 항해하는 뒤랑드였다.

〈7〉
같은 후견인, 같은 수호신

르티에리는 증기선을 만들고 나서 이름을 지었다. 뒤랑드였다. 뒤랑드, 우리는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그것을 부를 수는 없을 것이다. 표기상의 관례가 어떻건 간에 뒤랑드를 사람과 같이 여기는 르티에리의 마음을 존

---

167) 영국의 귀족 바로 아래 계급의 사람들

중하기 위해 이 이름을 굳이 고딕체로 강조하지 않을 것이다.

뒤랑드와 데뤼셰트는 사실은 같은 이름이다. 데뤼셰트는 약어사(略語辭)의 애칭이며, 프랑스 서부에서는 애칭을 극히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지방에서는 성인들의 이름을 약칭으로 부르거나 또는 확대사(擴大辭)로 부르는 예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단 한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정체를 가지고 다른 이름들로 불리는 경우는 성인, 성녀들도 예외가 아니다. 리즈, 리제트, 리자, 엘리자, 이자벨, 리스벳, 베시 등은 모두 엘리자벳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마우, 마클루, 말로 등은 모두 마글루와르 성인을 칭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

뒤랑드 성녀는 앙구무와와 샤랑트의 성녀이다. 그녀는 순수한 성녀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볼랑디스트[168]의 견해를 참고하자. 순수함에 관한 정확성과는 별개로, 뒤랑드 성녀를 기리는 교회는 여럿이 있다.

젊은 선원시절에 샤랑트의 로슈포르에 있었던 르티에리는 뒤랑드 성녀를 알게 되었다. 분명히 예쁜 손톱을 가진 처녀였을 어떤 어여쁜 샤랑트 여인으로부터였을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두 가지에 그 성녀의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의 가슴속에는 많은 추억이 남아있었다. 그리하여 갈리오트는 뒤랑드가, 딸은 데뤼셰트가 된 것이다.

그는 뒤랑드에게는 아버지요 데뤼셰트에게는 삼촌이었다.

데뤼셰트는 르티에리의 형제의 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다. 그가 그녀를 양녀로 삼아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신했다.

그에게 있어서 데뤼셰트는 단지 조카딸 뿐만은 아니었다. 그의 대녀이

168) 예수회 '볼랑'의 후계자들로 17세기부터 성인들의 생애에 관한 집록(集錄)인 『악타 상토룸 Acta sanctorum』을 만들려 했음

기도 했다. 세례식 날에 그녀를 안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였으며, 뒤랑드 성녀를 수호 성녀로 정하고 데뤼셰트라는 이름을 정한 것도 바로 그였다.

이미 말했듯이 데뤼셰트는 생 피에르 포르에서 태어났다. 그곳 소교구의 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었다.

조카딸이 어렸을 적에는, 그리고 삼촌이 가난했던 시절에는 아무도 *데뤼셰트*라는 이름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소녀가 처녀가 되고 가난한 선원이 신사가 되자 *데뤼셰트*라는 이름이 문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놀랐다. 그리고 메스 르티에리에게 "왜 데뤼셰트죠?"라고 물었다. 그것은 그저 하나의 이름이랍니다. 르티에리가 대답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다시 지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데뤼셰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루는 은퇴한 부유한 대장장이의 아내이자 생 상송 상류 사회의 아름다운 어떤 부인이 메스 르티에리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의 따님을 *낸시*라고 부르겠어요." "왜, 길 이름을 따서 롱 르 소니에로 하면 어떻고요?" 그가 말했다. 아름다운 부인은 체념하지 않았고 다음날 그에게 말했다. "정말로 데뤼셰트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당신의 딸을 위해 *마리안느*라는 예쁜 이름을 생각해냈어요." "예쁘기는 하군요." 르티에리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두 마리의 멍청한 짐승이 들어간 이름이군요. 마리(남편)와 안느(당나귀) 말이에요." 그렇게 그는 데뤼셰트를 고집했다.

이 말 때문에 그가 조카딸이 결혼하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잘못 짚은 것일 게다. 그는 그녀가 결혼하기를 원했지만 물론 자신의 방식대로였다. 그는 데뤼셰트가 일을 많이 하는 자신과 같은 유에 속하는 남편을 갖기 원했으며, 그녀 자신은 큰일을 하지 않기를 원했다. 그는 남자의 시커먼 손을 그리고 여자의 새하얀 손을 좋아했다. 데뤼셰트가 그 예쁜 손을 조금이라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그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그는 음악선생을 대주고 피아노와 작은 서가, 그리고 반지고리 안에 실과 바늘도 조금씩 넣어 그녀에게 주었다. 그녀는 바느질보다는 독서를 좋아했으며 독서보다는 음악을 더 좋아했다. 그것은 메스 르티에리도 원하는 바였다. 매력, 그것이 그녀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이었다. 그녀를 여자가 아니라 꽃이 되도록 키웠다. 선원들을 유심히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르티에리가 왜 그랬는지 이해할 것이다. 거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섬세한 것을 좋아한다. 삼촌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카딸이 부자가 되어야했다. 그것이 메스 르티에리가 원하던 것이었다. 그의 커다란 바다의 기계는 그런 목표 안에서 작동했다. 그가 뒤랑드에게 내린 임무는 데뤼셰트의 지참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8〉
가곡 *보니 던디*

데뤼셰트는 레 브라베의 가장 예쁜 방에서 지냈다. 두 개의 창문이 나 있고, 소용돌이 나뭇결무늬가 있는 마호가니 가구가 있으며, 흰색과 녹색 바둑판무늬 커튼과 침대가 놓인, 정원과 발르 성의 높은 언덕이 보이는 방이었다. 그 언덕의 다른 한 쪽에는 뷔드라뤼가 있었다.

데뤼셰트의 방에는 피아노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가곡, 스코틀랜드의 애조 띈 멜로디 *보니 던디*를 부르면서 이 피아노로 반주를 했다. 이 노래에는 저녁이 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벽이 있었다. 그것은 부드럽게 놀라운 대비를 자아냈다. 사람들은 "데뤼셰트양이 피아노에 앉았네"라고 말했다. 그리고 언덕 아래를 지나가던 행인들은 때때로 레 브라베 정원의 담벼락에 멈춰 서서 매우 신선한 노래 소리와 매우 슬픈 노

래 가락을 듣곤 했다.

데뤼셰트는 이 집에서 살아 움직이는 환희였다. 그녀가 그 집에 영원한 봄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아름답다기보다 귀여웠고 귀엽다기보다 상냥했다. 메스 르티에리의 좋은 오랜 친구들인 항해사들에게 데뤼셰트는 군인과 선원들의 노래[169]속의 그 공주를 상기시켰다. 메스 르티에리는 "데뤼셰트의 머리카락은 덫줄처럼 풍성해"라고 말하곤 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매혹적인 데가 있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녀의 코를 걱정했지만 소녀시절부터는 분명히 예뻐지기 시작했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했다. 성장하면서도 계속 그랬다. 코는 너무 길어지지도 짧아지지도 않았다. 커 가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그녀는 결코 '아버지' 이외의 말로 삼촌을 부르지 않았다.

메스 르티에리는 데뤼셰트가 정원사로서 그리고 심지어 주부로서의 몇 가지 기술을 익히는 것에 대해 너그러이 허락하였다. 그녀는 접시꽃, 자주 빛 미역취, 다년생 협죽초, 진홍색 뱀무의 화단에 직접 물을 주었고, 장밋빛 개보리뱅이류와 괭이밥을 가꾸었다. 그녀는 꽃에 매우 호의적인 게른제 섬의 기후를 이용할 줄 알았다. 누구나 그렇듯이 야외에 알로에를 심었으며 키우기 어렵다는 네폴의 양지꽃 속(屬) 식물을 재배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작은 채소밭은 잘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거기에 무 다음에는 시금치 그리고 시금치 다음에는 완두콩을 연달아 심었다. 네덜란드 꽃양배추와 브뤼셀 배추의 씨를 뿌릴 줄 알았으며 6월에는 그것의 모종을 내고 8월에는 순무, 9월에는 가장자리가 곱슬곱슬한 풀상치, 가을에는 둥근 아메리카 방풍, 겨울에는 초롱꽃과의 식물을 심었다. 메스 르티

---

169) '보니 던디'를 말함, 영국에서 매우 유행했던 스코틀랜드의 옛 노래, 스코틀랜드의 항구도시 던디에서 어느 군인의 애인인 한 처녀가 그와 멀리 헤어져 그들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영원히 그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가사의 노래

에리는 그녀가 삽과 쇠스랑을 너무 많이 만지지만 않는다면, 특히 직접 비료를 만지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일을 하도록 허락했다. 그녀를 위해 그라스와 두스라는 이름을 가진 두 명의 하녀를 두었는데 두 이름 모두 게른제에서 흔한 이름이었다. 하인들은 집안 살림을 돌보고 정원을 가꾸는 일을 했으므로 메스 르티에리가 혐오하는 벌건 손을 가질 권리를 갖고 있었다.

한편 메스 르티에리는 항구에 면한 단출한 작은 방을 침실로 사용했으며 이 방은 1층의 넓은 거실에 접해 있었다. 거실에는 출입문이 나있고, 여러 개의 계단이 있었다. 그의 방에는 해먹과 크로노미터,[170] 담배 파이프가 있었다. 그리고 탁자와 의자도 한 개씩 있었다. 들보가 있는 천장은 회반죽을 칠해서 하얗게 되어 있었으며 사방의 벽도 그랬다. 문 오른쪽에는 망슈 군도의 지도가 걸려 있었는데 이 아름다운 항해 지도에는 이러한 글씨가 쓰여 있었다. *W. 파덴, 채링 크로스*[171] *5번지, 지리학자가 폐하께* 그리고 왼쪽에는 커다란 면 손수건 하나가 벽에 고정되어 있었다. 손수건에는 지구상의 모든 바다에서 사용되는 신호가 여러 가지 색깔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네 구석에는 프랑스, 러시아, 스페인, 미국의 군기가 있었으며 가운데는 영국의 유니언 잭이 있었다.

두스와 그라스는 좋은 의미에서 평범한 여자들이었다. 두스는 못된 성품이 아니었고, 그라스는 못나지 않았다. 그들이 지닌 이 위태로운 이름들[172]은 두 사람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 두스는 결혼하지는 않았으나 애인이 있었다. 망슈 군도에서는 그 단어가 통용되고 그것이 가리키

170) 정밀한 경도 측정용 시계
171) 런던 중앙부의 트라팔가 광장 동쪽에 있는 번화한 지역
172) '두스'는 '친절한 사람', '그라스'는 '우아함'이라는 뜻

는 바도 통용된다. 이 두 처녀들은 크레올 스타일의 봉사라고 부를 수 있을 군도의 노르망디 하인신분 특유의 일종의 느림을 지니고 있었다. 애교 있고 예쁜 그라스는 고양이처럼 불안하게 끊임없이 수평선을 주시했다. 두스처럼 애인이 있는데다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선원인 남편까지 있는 그녀로서는 남편이 돌아 올까봐 늘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그라스와 두스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 집에서 두스는 잡일을 하는 하녀로 남아 있었으며 그라스는 시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라스의 숨은 재능은 데뤼셰트와 같이 순진한 처녀 옆에서는 자취를 감추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두스와 그라스의 연애 사건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메스 르티에리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아무것도 데뤼셰트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일층의 거실은 여러 개의 걸상과 탁자로 둘러싸인 벽난로가 있는 널찍한 공간으로서 지난 18세기에는 프랑스의 신교도 피난자들의 비밀집회가 열리던 모임 장소로 쓰였다. 맨 돌벽에 장식이라고는 검정색 나무틀뿐이었는데 거기에는 모의 주교인 베니뉴 보쉬에의 만용을 기록한 양피지 게시판이 펼쳐져 있었다. 낭트칙령 폐지 때에 이 천재에 의해 박해당하고 게른제로 피신한 불쌍한 신도들 중 몇몇이 증거로 삼기 위해 이 틀을 벽에 걸어 놓았던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세련되지 못한 글씨체와 노랗게 바랜 잉크의 암호를 풀 수만 있다면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읽을 수 있었을 것이다. '1685년 10월 29일, 모의 주교가 로이에게 한 요구에 따라 모르세프와 낭퇴이의 사원들 파괴.' '1686년 4월 2일, 모의 주교의 요청에 따라 신교도 코샤르 부자의 체포. 석방: 코샤르 부자의 개종 때문.' '1699년 10월 28일, 모의 주교가 무슈 드 퐁샤르트랭에게 샬랑드와 뇌빌의 신교로 개종한 여자들을 파리의 누벨 카톨릭의 집으로 보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훈계 투의 진정서를 보냄.' '1703년 7월 7일, 모의 주교가 로이에게 한 명령 즉 퀴블랜의 *못된 카톨릭* 교도인 보두앵과

그의 처를 병원에 감금시키라는 명령이 실행됨.'

거실 구석의 침실 문 옆에 있는 판자로 된 작은 참호는 위그노의 설교단이었는데 환기통이 있는 격자 덕분에 중기선의 '사무실'이 되었다. 메스 르티에리가 몸소 정돈한 뒤랑드의 사무실이었다. 오래 된 작은 참나무 책상 위에는 성서 대신에 차변과 대변으로 정리된 장부가 있었다.

〈9〉
랑탠느를 알아본 사람

메스 르티에리가 항해할 수 있는 동안에는 그가 뒤랑드를 조종했으므로 그 이외에는 다른 조종사를 둘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메스 르티에리가 자신의 후임자를 뽑아야만 할 시기가 왔다. 그것을 위해 그는 토르트발 출신의 말수가 적은 사람, 시외르 클뤼뱅을 선택했다. 시외르 클뤼뱅은 그의 성실성으로 모든 해안에서 명성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하여 시외르 클뤼뱅은 메스 르티에리의 심복이자 대리인이 되었다.

시외르 클뤼뱅은 비록 선원의 모습이라기보다 공증인의 모습에 가깝기는 했으나 유능하고 탁월한 바닷사람이었다. 그는 뱃사람이 겪는 위험한 상황들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는 솜씨 좋은 하역인부와 꼼꼼한 장루 담당자로 시작하여 세심하고 박식한 갑판장, 건장한 타수, 노련한 조종사를 거쳐 과감한 선장이 되었다. 그는 신중했으며 때때로 그 신중함을 바다에서는 최고의 장점인 과감함으로까지 밀고 나갔다. 그는 본능적으로 사소한 위험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둘 줄 알았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몫의 위험에 과감하게 맞서 싸우며 어떠한 모험으로부터도 성공을 끌어 낼 줄 아는 선원들 중 하나였다. 바다가 어

떤 인간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명확성, 그는 그것을 가진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시외르 클뤼뱅은 명성 높은 수영선수였다. 그는 자유자재로 파도를 타고,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물 속에 있을 수 있으며, 제르세에서 아브르 데 파를 떠나 콜레트를 돌고 에르미타쥬와 엘리자베트 성을 돌아 두 시간 후에 출발한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사람의 부류에 속했다. 그는 토르트발 사람이었으며 레 아누와에서 플랭몽 갑까지의 위험한 바다를 여러 번 헤엄을 쳐서 건넜다는 것으로 유명했다.

시외르 클뤼뱅이 메스 르티에리에게 가장 호감을 주었던 일 중 하나는 랑탠느를 알아 본 혹은 그의 속마음을 간파한 그가 메스 르티에리에게 그의 불성실한 행동을 경고하여 "랑탠느가 당신의 돈을 훔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의 예상은 입증되었다. 그 후 메스 르티에리는 여러 번에 걸쳐, 가책을 느껴가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건으로 시외르 클뤼뱅의 정직성을 시험했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자신의 노후를 클뤼뱅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메스 르티에리는 "양심은 신뢰를 얻는 법이다"라고 말하곤 했다.

〈10〉
어느 선원의 이야기

메스 르티에리는 언제나 항해복을 입었다. 그 외의 다른 옷을 입으면 편치 않았다. 그것도 조종사의 옷이 아닌 선원의 작업복을 즐겨 입었다. 데뤼셰트는 그것이 못마땅해 눈살을 찌푸렸다. 매력적인 여자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얼굴을 찡그리는 것 보다 귀여운 것은 없다. 그녀는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웃어넘기기도 하였다. "아버지! 푸! 역청 냄새가 나잖

아요." 하며 그의 커다란 어깨를 톡톡 치곤 했다.

바다의 이 착한 노 영웅은 그의 여행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했다. 마다가스카르에서 는 세 개만 있으면 지붕을 덮어버릴 정도로 커다란 새의 깃털을 보았고, 인도에서는 길이가 9피트나 되는 참소리쟁이의 줄기를 보았으며, 뉴 홀랜드에서는 아가미라고 부르는 새처럼 생긴 양치기 개가 모는 칠면조와 거위 떼를 보았다. 코끼리들의 무덤도 보았다. 아프리카에서는 흡사 반은 사람이요, 반은 호랑이인 키가 7피트나 되는 고릴라를 보았다. 그는 학명이 *마카코 브라보* 라고 하는 난폭한 열대 아시아산 원숭이로부터 *마카코 바르바*도 라고 하는 남아메리카산 짖는 원숭이까지 모든 원숭이의 습성을 알고 있었다. 칠레에서는 사냥꾼들에게 새끼를 보이면서 측은하게 구는 암컷 원숭이를 보았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쓰러진 나무의 몸통이 사람이 말을 타고서 150발자국이나 갈 수 있는 만큼 큰 나무를 보았다. 모로코에서는 남 알제리의 므잡족 회교도와 비스크라 사람들이 곤봉과 쇠막대기로 싸우는 것을 보았다. 비스크라 사람들은 개를 의미하는 *켈브* 라고 불리었다 해서였으며 므잡족 회교도는 다섯 번째 종파를 의미하는 *캄시* 라고 불렸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중국에서는 살인을 한 죄로 해적 찬통콴라콰를 작게 토막 내어 사형시킨 것을 보았다. 투단모트에서는 도시의 시장 한복판에서 사자가 노파를 물고 가는 것을 보았다. 사이공에서는 뱃사람들의 여신, 콴남의 축제를 위하여 캉통에서부터 온 초렌의 탑 속에 든 커다란 뱀을 목격했다. 모이 르 그랑 콴쉬의 집에서는 명상을 하기도 했다.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는 브라질 여자들이 저녁이면 얇은 천으로 만든 자그마한 주머니마다 발광(發光)을 하는 *바갈룸*이라는 아름다운 벌레를 집어넣어 머리 속에 넣고는 별처럼 반짝거리게 장식하는 것을 보았다. 우루과이에서는 개미떼와 싸웠고, 파라과이에서는 마치 어린 아이의 머리처럼 커다랗고 털이 북슬북슬한, 새처

럼 생긴 거미들을 보았다. 다리가 몸을 비호하고 있는 이 거미의 직경은 약 40센티미터 정도나 되었으며 사람에게 공격을 할 때는 털을 쏘는데 그 털은 마치 화살처럼 살에 박혀 그 자리에 농포를 만들고 만다. 디아망티나의 북쪽 처녀림에 있는, 토캉탱으로부터 운집하는 아리노 강에서는 *뮈르시아*고라는 무시무시한 박쥐족을 만난 적도 있다. 흰 머리털과 빨간 눈을 갖고 태어나는 이들은 어두컴컴한 숲에서 살며 낮에 잠을 자고 밤에 일어나, 빛이 전혀 없어야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사냥도 한다. 베이루트 근처에서 그가 속한 탐험대 야영지의 한 천막에서 우량계를 도난당했을 때는 두세 조각의 작은 가죽을 마치 멜빵처럼 걸쳐 입은 마법사가 어찌나 광포하게 뿔로 만든 종을 흔들어 댔는지 하이에나 한 마리가 그 우량계를 가지고 나타나기도 했다. 그 하이에나가 도둑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체험담들은 너무나 낭만적인 이야기거리 같아서 데뤼셰트를 즐겁게 해 주었다.

뒤랑드의 선수상(船首像)은 배와 땅 사이를 이어 주는 끈이었다. 노르망디 군도에서는 조각한 목상(木像)으로 뱃머리를 장식하는 선수상을 *푸페* 즉, 인형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항해하다' 라는 말을 이 지방의 표현으로 하자면 *푸프(고물)*와 *푸페* 사이에 있다 *(고물과 인형 사이에 있다)*가 된다.

뒤랑드의 선수상은 특히 메스 르티에리에게 소중한 것이었다. 그는 목수에게 데뤼셰트를 닮은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었다. 그리고 그것은 도끼로 다듬어져 완성되었다. 그것은 마치 나무토막이 예쁜 소녀가 되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

메스 르티에리는 약간 기형적인 이 나무 조각을 환상을 가득 담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명상을 하듯이 그것을 주시했다. 그는 선수상의 모습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완전히 데뤼셰

트라고 믿었다. 도그마가 진리를 닮고 우상이 신을 닮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나 할까.

메스 르티에리는 한 주에 두 번씩 큰 기쁨을 맞이했다. 그 중 하나는 화요일에, 또 하나는 금요일에 찾아왔다. 첫 번째 기쁨은 뒤랑드가 출항하는 것을 보는 것이요, 두 번째 기쁨은 뒤랑드가 입항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창가에서 팔꿈치를 괴고 그의 작품을 바라보며 행복해 하였다. 마치 창세기의 한 구절인 *그리고 그것이 보기에 좋았더라*[173]와 같은 것이었다.

금요일마다 메스 르티에리가 그의 창가에 서 있는 것은 하나의 신호와도 같았다. 레 브라베의 십자형 유리창에서 그가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볼 때면 사람들은 "아! 증기선이 수평선에 나타났군" 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연기가 또 다른 연기를 알리는 것이었다.

항구에 들어온 뒤랑드는 메스 르티에리의 창문 아래에 있는 레 브라베의 토대에 봉인된 커다란 쇠고리에 밧줄을 맸다. 뒤랑드가 들어온 날 밤이면 르티에리는 한 쪽으로는 잠든 데뤼셰트를 느끼며 또 한 쪽으로는 정박 중인 뒤랑드를 느끼며 그의 해먹 안에서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

뒤랑드의 정박지는 항구의 종 가까이에 있었다. 레 브라베의 입구이기도 한 그곳에서 부두가 끝나고 있었다.

이 부두도, 레 브라베도, 집도, 정원도, 생울타리가 쳐진 작은 길들도, 주변의 다른 대부분의 집들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땅 역시 화강암으로 채굴되어 팔려 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은 바위 채굴업자들의 공사장이 차지하고 있다.

---

173) 창세기 1:31

〈11〉
남편감에 대한 생각

데뤼셰트는 성숙해져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

메스 르티에리는 그녀를 순결한 처녀로 만들려고 했고, 그것이 그녀를 고달프게 만들었다. 이런 유의 교육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배반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자신도 고달프기는 마찬가지였다. 그가 데뤼셰트의 남편감으로 생각하는 남자는 조금은 뒤랑드의 남편감이기도 했다. 그의 두 딸에게 동시에 그것을 주고 싶어 했다. 한 딸의 반려자가 다른 딸의 조종도 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남편이란 무엇인가? 항해에서의 선장이 아닌가. 딸과 배를 한 사람의 보호자에게 맡기지 말란 법도 없지 않은가? 결혼 생활은 바닷물처럼 움직인다. 배를 몰 줄 아는 사람이라면 아내도 다룰 줄 안다. 이들은 달과 바람의 지배를 받는다. 시외르 클뤼뱅은 메스 르티에리와 열다섯 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뒤랑드의 일시적인 선장의 자격밖에는 없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젊은 항해사, 오래도록 함께할 수 있는 선장, 창업자의 진정한 후계자, 발명가, 창조자였다. 뒤랑드의 선장으로 선택되는 항해사라면 메스 르티에리의 사위가 될 것이었다. 두 명의 사위가 한 사람 속에 섞여 있으면 안 될 이유가 있는가? 그는 그러한 생각들을 소중히 품고 있었다. 꿈속에서도 신랑감을 보았다. 햇볕에 그을린 황갈색 피부의 굳건해 보이는 선원, 바다의 장사, 이것이 그의 이상형이었다. 이것은 데뤼셰트의 이상형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보다 장밋빛 꿈을 꾸고 있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삼촌과 조카딸은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치를 본 듯했다. 데뤼셰트가 확실한 상속 녀가 될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구혼자들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열성이 언제나 좋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메스 르티에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금으로 만든 처녀에 구리로 만든 청혼자가 꼬이는군" 이라고 중얼거리며 구혼자들을 돌려보내곤 했다. 그는 기다렸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이상한 점은 그가 귀족계급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메스 르티에리는 영국인답지 않은 영국인이었다.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그는 제르세의 강뒤엘 가문의 청혼과 세르크의 뷔네 니콜랭 가문의 청혼을 거절했다. 어떤 사람들은,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의심해 볼만 하지만, 그가 오리니의 귀족으로부터 들어온 결혼신청을 거절했으며 에두아르 르 콩페쇠르의 자손이 틀림없는 에두 가문 청년의 제안도 사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12〉
르티에리의 성격에서 예외적인 것

메스 르티에리에게는 한 가지 심각한 단점이 있었다.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다른 사람, 즉 성직자를 증오했다. 독서가였던 그가 어느 날 *볼테르*를 읽다가 '성직자들은 고양이다' 라는 말을 읽고는 책을 내려놓고 "그럼 나는 개다" 라고 내뱉었다.

그가 이곳에서 데빌 보트를 만들 때 카톨릭을 비롯하여 루터파와 칼빈파의 성직자들의 격심한 반대와 보이지 않는 박해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선박에 있어서 혁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노르망디 군도에 한 단계의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불편을 감수하고 이 낙후된 작은 게른제 섬에서 새로운 발명품을 시도해

보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무모한 짓이라고 여겼고, 실제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죄인 취급을 하였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지방에서이건 진보에 대해서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갖는 요즘 성직자들과 옛날 성직자들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가능한 방법들이 동원되어 르티에리를 견제했었고, 그는 교회의 설교와 강론 속에서나 있을 법한 수많은 장애물들에 부딪쳤었다. 성직자들이 르티에리를 몹시 싫어했으므로 그도 그들을 몹시 싫어했다. 그들의 증오는 그의 증오를 정상 참작하게 해 주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성직자들에 대한 그의 혐오는 유별난 것이었다. 성직자들을 증오한다고 해서 자신이 증오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었다. 그가 말했듯이 그는 이 고양이들에게 있어서 개였다. 그는 사고방식에 의해서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본능에 의해서 그들에게 맞섰다. 그는 그들의 숨겨진 발톱을 보았으며 그래서 이빨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은 다소 거칠었으며, 언제나 명분이 있는 것은 아니었음을 인정해야한다. 구분을 두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증오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지는 말았어야했다. 르티에리는 사부아의 보좌신부[174]라 해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성직자가 있을 거라는 것을 르티에리는 동의하지 않을 것임에 틀림없다. 철학적이 된 나머지 지혜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다. 관대한 사람이 너그럽지 못할 때가 있는 것처럼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도 격분할 때가 있다. 그러나 메스 르티에리는 선한 천성을 지녔기에 심성 또한 착했다. 그는 적들을 공격 했다기보다 한쪽으로 미뤄 두었다. 그렇게 성직자들과 거리를 두었다. 성직자들은 그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는 그들로부터 호의를 바라지 않는 것으로 만족했다. 그들의 증오와 그의 증오의 미묘한

174) 루소의 『에밀』에 나오는 인물로 관용을 설교하는 신부

차이점은 그들의 것은 적개심인 데 대해 그의 것은 반감이라는 것이다.

게른제는 매우 작은 섬이긴 하지만,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라는 두 가지 종교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교회에서 두 종교를 함께 섬기지는 않는다. 예배는 각자의 교회당에서 이루어졌다. 가령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를 예로 들자면, 그들은 그리 소란을 떨지 않는다. 그들은 예배당을 둘로 나누어 반쪽은 생 피에르(성 베드로), 반쪽은 칼빈파 교회로 삼으며, 둘 사이의 다툼을 막기 위해 칸막이를 두고 있다.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눈다. 카톨릭 쪽에서 3층 제단을 가지고 있으면 위그노 쪽에서도 3층 제단을 갖고 있다. 성무일과도 같기 때문에 한 개의 종이 두 가지 일을 위해 동시에 울린다. 종은 동시에 하느님을 부르고 악마를 부른다. 그것은 분명히 간소화된 것이다.

독일 사람들의 침착성은 이러한 이웃관계를 만족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게른제에서 각 종교는 그 자체만의 공간을 갖고 있다. 정통 카톨릭 소교구가 있으며 이교(異教)의 소교구가 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것. 그것이 바로 메스 르티에리의 선택이었다.

이 뱃사람이자 일꾼, 철학자, 자수성가한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단순해 보였지만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끈덕진 데가 있었다. 성직자에 대해서 그는 완강했다. 그는 몽로지에[175]보다도 더 우세했다.

그는 격에 맞지 않는 농담도 서슴지 않았다. 이상야릇한 말을 했지만 뼈가 있는 것이었다. 고해하러 가는 것을 그는 "양심에 빗질하러 간다"고 말했다. 배 위에서 돌풍이 부는 사이에 여기저기서 주워 모은 듯이 책을

175) 왕정복고 시대에 교권주의에 대항하여 싸운 백작의 이름

읽었기에 그가 배운 것은 거의 없었지만, 그것마저도 철자를 틀리기가 일쑤였다. 읽는 것 또한 서툴렀다. 그러나 언제나 무의식 적으로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루이 18세의 프랑스와 웰링턴의 영국 사이에 워털루 전투가 평화를 가져왔을 때 메스 르티에리는 이렇게 말했다. "부르몽[176]이 두 진영에 트래트르 뒤니옹[177]이 되었군." 언젠가 그는 교황권을 가리키는 파포테를 *파프 오테*[178]로 쓰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의식적으로 어떤 목적을 두고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그의 반 교황주의도 그 자신을 영국국교 신자들과 화해하게 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카톨릭 신부들보다 프로테스탄트 사제들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가장 근엄한 교리의 면전에서도 그의 무종교는 조심성 없이 터져 나왔다. 자크맹 에로드 신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고통, 형벌, 괴로움, 영벌, 혹독한 징벌, 끝없는 화형, 치유할 수 없는 저주, 전능자의 노여움, 변화가 없는 상태 등을 증명하는 성구로 가득 차 있는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그는, 장황한 설교가 끝나자 다른 신자들과 나오면서 나지막한 소리로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하느님이 자비로운 분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라고 말했다.

이 무신론의 시작은 그가 프랑스에 머물 때부터였다.

게른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우 순수한 그곳의 혈통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섬에서 그는 프랑스 인이라고 알려졌다. 바로 그의 버릇없는 기지 때문이었다. 그 자신도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으며, 그

---

176) 워털루 전투 나흘 전 나폴레옹이 위임한 명령을 유기하고 루이 18세의 세력에 합류한 백작

177) 원래는 '트래 뒤니옹' (연결 이라는 뜻) 이라고 해야 하는 것을 르티에리는 '트래'를 '트래트르' 즉 '배반' 으로 바꾸어 말한 것임

178) 교황권을 박탈당한 교황

에게는 반체제적 사상이 가득 배어들어 있었다. 그 증기선, 그 악마의 배를 만들겠다는 악착스러움이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그는 "나는 1789를 먹고 자랐지" 라고 말하곤 했다. 그것은 고급 우유가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양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 작은 사회에서 실수를,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살아가기란 힘든 일이다. 조용한 삶을 위해서라면 프랑스에서는 *외모를 잘 가꾸어야* 하며 영국에서는 *존경을 받아야* 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일요일을 성일(聖日)로 지키는 것에서부터 넥타이를 잘 메는 것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규율의 준수를 함축하는 것이다. '손가락질당하지 말지어다' 이것 역시 끔찍한 율법이다. 손가락질 당한다는 것은 파문당하는 것의 완곡한 표현이다. 쑥덕공론의 늪지대인 작은 도시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을 과장해서 험담하는, 남을 고립시키는 간악함에 일가견이 있다. 심지가 굳은 사람들만이 이러한 욕설을 의심한다. 사람들은 일제사격에 과감히 맞서 싸운다. 폭풍우에도 과감히 맞서 싸운다. 그러나 새침하고 까다로운 여자들의 소문 앞에서는 주춤한다. 메스 르티에리는 논리적이라기보다 끈질겼다. 그러나 이러한 압력 하에서는 그의 끈질긴 성질도 수그러들 수밖에 없었다. 완곡한 표현으로 달리 말하면, 때때로 고백하기 어렵지만, 그는 '그의 포도주에 물을' 타기도 했던 것이다. 그는 성직자들과 멀리 떨어져 살았지만 그들을 향해 문을 단호하게 닫아 버리지는 않았다. 공적인 경우에나 성직자를 방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루터파의 사제이건 카톨릭의 신부이건 간에 적절한 예우를 갖추었다. 어쩌다 한 번씩 데뤼셰트를 데리고 영국 국교의 교구에 가는 일도 있었는데 그녀는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1년 중 네 번의 큰 축일에만 그곳에 가곤 했다.

결국 그가 감당하기 힘들고 그를 성나게 하여 교회의 성직자들 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그를 점점 더 까다롭게 만들었

다. 그는 점점 더 냉소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자신이 본 손해를 보상받으려 했다. 전체적으로는 신랄하지 않은 이 사람이 유독 그 부분에 있어서 만은 신랄함을 보였다.

간단히 말해, 그것이 그의 기질이었으므로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다.

모든 성직자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혁명가와도 같은 무례함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의 형식에 관해서라면 카톨릭에 대해서도 프로테스탄트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 이미 이루어진 크나큰 진보를 인정하려 들지도 않았다. 즉, 그리스도의 현존을 전혀 믿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그의 근시안은 신교의 사제와 카톨릭의 사제의 차이점도 알지 못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는 프로테스탄트의 신학자 교부(敎父)와 프로테스탄트의 신부를 혼동했다. "웨슬리가 로욜라와 마찬가지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목사가 그의 부인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볼 때면 그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결혼한 신부(神父)잖아!" 하며 그 당시 프랑스에서처럼 이 두 단어를 비꼬는 투로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국에 갔을 때 런던의 주교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런 유의 결합, 즉 성직자의 결혼에 대한 그의 적개심은 분노로 치솟았다. "성직자가 어떻게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람과 결혼을 해!" 그는 소리쳤다. 성직자의 지위는 그에게 또 하나의 성(性)과 같은 것이었다. 그는 기꺼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성직자"라고 말했다. 고상한 취향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는 영국국교 성직자에게나 카톨릭 성직자에게 똑같이 얕보는 듯한 별칭을 붙여 이 두 성직자를 하나의 용어로 묶어버렸다. 그리고 성직자에 대해서라면 카톨릭이건 루터파이건 가리지 않고 그 당시에 통용되던 군대식의 은어를 마구 사용했다. 그는 데뤼셰트에게 말했다. "네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거라. 단 성직자만은 안 된다."

〈13〉

무관심 - 또 다른 매력

메스 르티에리는 일단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잊지 않았다. 데뤼셰트는 일단 어떤 말을 하고도 그것을 잊었다. 그것이 삼촌과 조카딸의 차이점이었다.

데뤼셰트는 우리가 보았듯이 그렇게 자랐으므로 점점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갔다. 진지한 태도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교육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아이를 너무 일찍 행복하게 해 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솔한 태도일 것이다.

데뤼셰트는 자신이 만족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자신이 기쁜 것이 삼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와 메스 르티에리는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신앙심은 일년에 네 번 교회에 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크리스마스를 위해 특별하게 차려입은 그녀를 본적이 있지 않은가. 인생에 대해서 그녀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언젠가 열렬한 사랑에 빠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당장은 명랑할 따름이었다.

그녀는 무턱대고 노래했으며 무턱대고 이야기했고 다른 걱정 없이 살았다. 말 한마디 툭 내뱉고는 그냥 흘려보냈으며 어떤 일을 하고도 무심히 지나쳐 버렸지만 그것이 매력이었다. 거기에 영국인들의 자유로운 기질을 덧붙여 보라. 영국에서 아이들은 혼자 마음대로 외출을 하고 소녀들은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며 청년들은 자유다. 이것이 관습이다. 더 나이가 들면 이 자유롭던 소녀들은 아내라는 이름의 노예가 된다. 우리는 여기서 이 두 단어를 좋은 의미로 생각하자. 자유는 성장과, 노예는 의무와 연결하여.

데뤼셰트는 매일 아침 그 전날 자신이 한 행동을 까맣게 잊은 채 잠에서 깨어났다. 하물며 그녀에게 일주일 전에 한 일을 묻는다면 그녀는 엄청나게 당혹스러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뭔지 모를 불안감에 젖는 순간들, 인생의 어두운 일면과 같은 것이 그녀의 즐거움, 기쁨을 엄습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렇듯 파란 하늘에도 거기에 어울리는 구름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구름은 매우 빨리 사라져 버린다. 그녀는 폭발할 듯 웃음으로써 그런 순간에서 빠져나왔지만, 왜 슬펐는지도 왜 침울했는지도 알지 못한 채였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즐거운 놀이감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익살스럽게 놀리기도 했고, 꼬마 녀석들에게 장난을 치기도 했다. 만일 악마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장난을 쳤을 것이다. 그녀는 귀여웠으며 동시에 너무나도 악의가 없었으므로 그 귀여움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어린 고양이가 할퀴듯이 미소를 지었다. 긁힌 사람에게는 참 안 된 일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어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늘의 충만함 속에서 살아갔다.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행복이 있었다. 데뤼셰트에게 있어서 추억이란 태양아래 눈이 녹듯이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에 불과했다.

IV
백파이프

〈1〉
오로라 또는 격정의 첫 붉은 빛

질리아는 단 한 번도 데뤼셰트에게 말을 걸어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새벽 별을 알듯이 그도 먼발치에서 그녀를 보아 알 뿐이었다.

데뤼셰트가 발르의 생 피에르 포르 거리에서 우연히 질리아를 만났을 때, 눈 위에 그의 이름을 써서 그를 놀라게 했던 당시 그녀의 나이는 열여섯이었다. 정확하게 그 바로 전날 메스 르티에리는 그녀에게 "이제 어린애 같은 짓은 좀 그만 하거라. 너도 이제는 다 큰 처녀잖니" 라고 당부했었다.

그 이름, 이 어린애가 쓴 질리아는 알 수 없는 심연의 나락으로 사라져 버렸다.

질리아에게 있어서 여자는 무엇인가? 그 자신도 그것을 말할 수 없었으리라. 어떤 여자를 만나든지 그녀에게 두려움을 주었으며 그 자신도 그녀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에만 여자에게 말을 건넸다. 어떤 여자의 애인이었던 적도 결코 없었다. 아무도 없는 거리를 혼자 걸어가고 있을 때, 여자가 그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보면 농가의 울타리 안으로 뛰어 넘어 들어가거나 덤불 숲 속으로 숨

어 들어가 사라져 버리곤 했다. 할머니를 만나도 마찬가지였다.

이제까지 살면서 그는 단 한 명의 파리 아가씨를 본 적이 있다. 그 먼 옛날의 게른제에서 파리 아가씨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희귀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질리아는 이 파리 아가씨가 자신의 곤란한 처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정말 난처하게 되었어요. 방금 모자에 빗방울을 맞았거든요. 분홍빛이라서 금방 색이 변해 버릴 거예요." 얼마 후 어떤 책에서 옛날에 유행했던 스타일로, 매우 치장을 많이 한 앙탱도로[179]의 어떤 부인의 삽화를 발견했을 때, 그녀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 벽에 붙여 놓기도 했다. 여름날 저녁에 바닷물에서 시골 여자들이 속옷 차림으로 목욕하는 것을 보기 위해 우메 파라디 만의 바위 뒤에 숨어 있기도 했다. 어느 날 생울타리 너머에서 토르트발의 마녀가 양말대님을 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분명히 동정이었을 것이다.

그가 데뤼셰트를 우연히 만났던 날, 그녀가 웃으면서 그의 이름을 썼던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그는 자신이 왜 밖에 나갔는지도 잊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되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많은 생각을 했다. 정원에 검은 무를 심어 빛을 쬐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세르크의 배가 지나가는 것을 못 봤는데 그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흰 꿩 비름 꽃이 핀 것을 보았는데 겨울에는 드문 일이 아닌지. 죽은 늙은 여인이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확실히 자신의 어머니라고 여겼으며 여느 때보다 곱절은 더 애처로운 마음으로 그녀를 생각했다. 그는 가죽가방 속에 있었던 여자의 혼수품을 생각했다. 그는 쟈크맹 에로드 신부가 언젠가는 분명히 주교의 대리인이자 생 피에르 포르의 주임사제로 임명될 것이며 생 상송의 교구사제의 자리는 공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

179) 파리의 패션 거리

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면 음력으로 27일이고, 따라서 만조 시간은 3시 21분일 것이며 반 간조 시간은 7시 15분, 간조 시간은 9시 33분, 반 만조 시간은 12시 39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백파이프를 팔았던 스코틀랜드 고지대 주민이 입는 전통의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 내기도 했다. 스코틀랜드의 국화인 엉겅퀴로 장식된 챙 없는 모자, 옛 스코틀랜드 무사의 긴 칼, 짧고 네모난 천조각들이 달린 옷, 씰트 또는 필라버그라고 하는 스포랑 주머니와 스머싱멀로 장식된 치마, 뿔로 만든 파이프, 스코틀랜드 석으로 만든 핀, 띠와 벨트로 장식된 양쪽 가슴 부분, 작은칼과 큰 칼, 손잡이가 케르고룸으로 장식된 검은 칼, 맨 살이 드러난 군인의 무릎, 양말, 바둑판무늬의 각반, 버클 달린 구두. 그 장비들은 유령이 되어 그를 따라다녔으며 열에 시달리게 하고 선잠이 들게 했다.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깨어났으며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생각한 것은 데뤼셰트였다.

다음날 밤에도 밤새도록 스코틀랜드 병사의 꿈을 꾸었다. 잠을 자면서 계속 혼잣말을 했다. 연로한 쟈크맹 에로드 신부의 꿈도 꾸었다. 잠에서 깨어날 때는 데뤼셰트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에게 심하게 화가 났다. 더는 어려질 수 없다는 것을 애석해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그녀의 유리창에 돌이라도 던지러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만일 어리다면 어머니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자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슈제나 레 맹키에 가서 석 달쯤 지낼까도 생각했지만, 떠나지 않았다.

생 피에르 포르에서 발르에 이르는 거리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 *질리아*가 땅위에 새겨진 채로 남아 있다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2〉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기

그러나 그는 매일같이 레 브라베를 보고 있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었다. 언제나 데뤼셰트의 정원 담벼락을 따라 이어진 오솔길을 지나다니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어느 날 아침, 그 오솔길을 가고 있을 때, 레 브라베 쪽에서 오고 있는 시장거리의 여자가 다른 한 여자에게 이야기했다. "르티에리 아가씨는 바다양배추를 좋아한데." 그는 뷔드라뤼의 자신의 정원에 바다양배추를 심으려고 구덩이를 팠다. 바다양배추는 아스파라거스의 풍미를 가진 배추다.

레 브라베 정원의 담벼락은 매우 낮아서 한걸음에 넘어 들어갈 수 있었다. 그것을 훌쩍 넘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레 브라베의 방이나 정원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로 했다. 그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소리가 들렸다. 한 번은 두 하녀, 두스와 그라스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집안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 싸우는 소리가 그의 귀에는 음악처럼 남아 있었다.

또 한 번은 두 하녀의 목소리와는 다른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데뤼셰트의 목소리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얼른 도망쳤다. 그 목소리를 통해 나온 단어들은 그의 생각 속에 새겨진 채 머물렀다. 그는 매순간 그 단어들을 되뇌었다. 그 단어들이란 이러한 것이었다. "그 비 좀 주시겠어요?"

그는 점점 대담해져 갔다. 이제는 감히 멈춰 서기도 했다. 밖에서 모습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데뤼셰트가 창문을 열어 놓은 채 피아노에 앉아

노래를 부른 적도 있었다. 그녀는 애창곡 *보니 던디*를 부르고 있었다. 그의 안색은 매우 창백해져갔지만, 꿋꿋하게 서서 끝까지 그녀의 노래를 들을 정도의 힘은 있었다.

봄이 찾아왔고, 어느 날 질리아는 어떤 계시를 받았다. 하늘이 열렸다. 질리아는 데뤼셰트가 상추에 물을 주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저 멈추어 서기 보다는 더 깊숙이 들어갔다. 그녀의 버릇들을 관찰했으며 그녀의 일과를 알아차렸고 그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들키지 않도록 항상 조심했다.

서서히, 화단이 나비와 장미꽃으로 가득 찰수록, 그는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담벼락 뒤에 숨어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숨을 죽인 채 데뤼셰트가 정원을 오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 익숙해져갔다. 마약에는 중독이 되기 마련이다.

벤치가 있는 소사나무 관목으로 뒤덮인 정자 밑에서 데뤼셰트와 메스르티에리가 한담을 나누는 것이 질리아가 숨어 있는 곳으로 들려오곤 했다. 이야기는 그에게까지 정확하게 들렸다.

얼마나 많이 그곳을 배회했는지! 이제 그는 데뤼셰트를 엿보고 그녀의 말을 엿듣기 위해 그곳에 찾아갔다. 아아! 노련한 염탐꾼과 같은 인간의 마음이여!

화단 사이의 통로 옆으로 빤히 보이는 무척 가까운 곳에 또 다른 벤치가 하나 더 있었다. 데뤼셰트가 가끔 거기에 앉아 있었다.

데뤼셰트가 향기를 맡기도 하고 꺾기도 하는 꽃을 보고서 그는 향기에 대한 그녀의 취향을 알 수 있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향은 메꽃 향기였으며, 그 다음은 인동덩굴, 그 다음은 자스민이었다. 장미는 다섯 번째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는 백합을 보기는 했지만 그 향기를 맡지는 않았다.

꽃향기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질리아는 상상 속의 그녀를 다시 그렸다. 그는 향기 한 가지마다에 장점을 결부시켰다.

데뤼셰트에게 말을 걸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그는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섰다.

어떤 착한 늙은 행상인이 이따금씩 레 브라베의 울타리를 따라 난 작은 길에 자신이 팔 물건을 가지고 오곤 했는데, 질리아가 그 담벼락에 꼭 붙어 있는 것과 이 아무도 없는 곳에 대한 그의 애착을 이상하게 여기게 되었다. 행상인은 과연 이 담 앞의 남자의 존재와 담 뒤의 한 여자가 있을 가능성을 결부시켰을까? 과연 이 어렴풋한 보이지 않는 끈을 알아챘을까? 늙은 거렁뱅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는 과연 아름다운 시절의 무언가를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젊은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 또 인생의 겨울과 어둠 속에서 아직도 과연 새벽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번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질리아의 곁을 지나갈 때, 행상인은 아직도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양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잇몸을 내보이며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몸이 달아올랐구먼."

그 말을 들은 질리아는 어안이 벙벙해져서 그 말을 중얼거렸다. "몸이 달아올랐구먼? 저 노인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는 온종일 그 말을 기계처럼 반복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뷔드라뤼의 자신의 집 창가에 서 있을 때 대여섯 명 정도의 앙크레스 처녀들이 놀이 삼아 우메의 내포로 멱을 감으러 왔다. 처녀들은 질리아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매우 천진스럽게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는 창문을 거세게 닫아 버렸다. 벗은 여자의 몸이 그를 두렵게 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3〉
가곡 *보니 던디*가 언덕에 메아리치다

레 브라베의 정원 울타리 안쪽에는 호랑가시나무와 송악으로 뒤덮인, 나무처럼 생긴 야생 접시꽃과 화강암을 뚫고 피어나는 커다란 모예화에 더불어 쐐기풀로 가득한 담벼락이 있다. 여름 내내 그가 시간을 보낸 곳은 그 담벼락의 모퉁이 중에서도 가장 구석진 곳에서였다. 그는 그곳에 있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으리 만치 깊은 생각에 잠겨서. 그의 존재에 익숙해진 도마뱀들이 언제나 같은 돌 위에서 햇볕을 쬐곤 했다. 여름은 환하게 빛났으며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질리아의 머리 위로 구름이 오고 갔다. 그는 풀밭 위에 앉아 있었다. 온 세상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 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도대체 왜 그녀가 눈 위에 내 이름을 썼을까? 바다 바람이 큰 한숨을 멀리 실어 보냈다. 때때로 갑작스럽게 바위 뒤에 있는 먼 채석장에서 광부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채석장을 발파할 것이니 멀리 떨어지라고 알려 주는 것이었다. 생 상송 항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무 울타리 위로 돛대의 끝이 보였다. 갈매기들이 어수선하게 날아다니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가끔씩 그런 일이 생긴다고 어머니가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좋아. 이제 알겠어, 데뤼셰트는 나의 사랑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는 깊은 슬픔에 잠겨 혼잣말을 했다. 그렇지만 그녀도, 그녀 쪽에서도 나를 생각한다면 좋을 텐데. 그는 데뤼셰트는 부자이며 자신은 가난하다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증기선이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이 몇 월인지 전혀 기억해 낼 수가 없었다. 엉덩이가 노랗고 날개가 짧은 커다랗고 검은 뒝벌들이 소리를 내며 벽에 난 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는 것을 생각에 잠겨

바라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데뤼셰트가 잠 잘 준비를 하며 창문을 닫기 위해 창가로 다가갔다. 밤이 이슥했다. 갑자기 데뤼셰트가 귀를 기울였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음악소리가 들려 왔다. 분명히 언덕의 사면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면 발르 성의 망루 밑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마도 더 먼 곳에 있는 누군가가 악기로 노래를 연주하고 있었다. 데뤼셰트는 그녀가 좋아하는 멜로디 *보니 던디*가 백파이프로 연주되고 있는 것을 들었지만, 알 수 없었다.

그 이후부터, 그 음악은 가끔씩 같은 시간에, 특히 야심한 시간에 되풀이되었다.

데뤼셰트는 그것이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4〉

삼촌과 후견인, 이 과묵한 호인들에게
세레나데는 밤의 소동에 불과하다오.
(미발표된 코미디의 한 구절)

4년이 흘렀다.

데뤼셰트는 스물한 살의 생일을 맞이할 때가 되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어딘가에 이렇게 썼다. '변하지 않는 생각, 그것은 나사송곳이다. 그것은 해마다 한 바퀴씩 선회하여 들어박힌다. 누군가가 만일 그 변하지 않는 생각을 첫 해에 우리에게서 제거하고 싶다면 우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해에는 우리의 살을 찢어야 할 것

이요, 세 번째 해에는 우리의 뼈를 부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해에는 우리의 머리통을 뽑아 버려야 할 것이다.'

질리아는 그 네 번째 해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는 여전히 데뤼셰트에게 한 마디 말도 건네지 못하고 그저 이 매력적인 처녀를 간절히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우연히 생 상송에 가게 되었을 때 항구의 둑을 향해 열린 레 브라베의 문 앞에서 그는 데뤼셰트가 메스 르티에리와 이야기하는 것을 본적이 있다. 질리아는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까지 다가가는 모험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는 순간에 그녀가 미소를 지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데뤼셰트는 아직도 간간히 백파이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백파이프 소리를 메스 르티에리도 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음악의 열정이 데뤼셰트에게 바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감미로운 음악, 가중정상(加重情狀). 야밤을 이용하는 이러한 부류의 청년은 메스 르티에리의 취향이 아니었다. 그는 데뤼셰트가 원하고 그가 원할 때, 그 날이 오면 연애담도 없이 음악도 없이, 순수하고 솔직하게 그녀가 결혼하기를 원했다. 초조해진 그는 몰래 엿보았고 마침내 질리아라고 짐작하게 되었다. 손가락으로 구레나룻을 만지작거리며 (이것은 그가 화가 났다는 신호이다), 웅얼거렸다. "뭘 불어대는 거야, 저놈이. 데뤼셰트를 사랑하시는군. 분명해. 시간낭비하고 있구먼. 데뤼셰트를 원하면 나한테 와서 말해야지. 그렇게 플룻을 불어댈 것이 아니라 말이지."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왔던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쟈크맹 에로드 신부가 윈체스터 주교의 대리인, 즉 섬의 주임사제이자 생 피에르 포르의 주임사제로 임명되었던 것이다. 그는 후임자가 취임하는 대로 생 상송을 떠나 생 피에르로 갈 것이었다.

후임 교구사제는 서둘러야 했다. 이 사제는 노르망디 출신의 젠틀맨, 무슈 조에 에브느제르 코드레, 영국식으로 발음하면 코드리였다.

사람들은 신임 교구사제에 관해 세세한 것까지 알고 있었으므로 호의와 적의에서 비롯되는 그 인물에 대한 상반되는 해석이 내려지고 있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는 젊고 가난하지만 그의 젊음은 여러 사상을 접하여 온건하게 되었으며 그의 가난은 소망으로 인하여 상쇄되었다는 것이다. 유산과 부(富)를 논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말에 의하면 죽음은 희망이다. 그는 연로하고 부유한 생 타자프 주임사제의 조카이자 상속인이었다. 이 주임사제가 죽으면 그는 부자가 되는 것이다. 무슈 에브느제르 코드레의 부모는 기품 있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는 정직성을 타고 났다. 그의 사상에 관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그는 영국국교 신자였으나 티요송 주교의 표현을 빌자면 대단한 '자유사상가' 였다. 다른 말로 하자면, 매우 절대적이었다. 그는 형식주의를 거부했으며 주교라는 감독직위보다는 장로회(長老會)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는 아담이 이브를 선택할 권리가 있었던, 그리고 이에라폴리스의 주교 프루멘타누스가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해 처녀의 부모에게 "그녀가 원하고 내가 원하니 이제 더 이상 당신이 그녀의 아버지가 아니요 당신도 그녀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나는 이에라폴리스의 천사이며 처녀는 나의 신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처녀를 데려갔던 초대교회를 꿈꾸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무슈 에브느제 코드레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는 구절을 '여자는 남자의 살이다. 여자는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다' 라는 구절 아래 종속시켰으며, 이 구절은 그에 의해 서열이 높아졌다. 게다가 부권을 제한하는 이러한 경향과 결혼관계를 성립시키는 방식을 종교적으로 예우하는 이러한 경향은 프로테스탄티즘의 특성으로서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의 성향이다.

〈5〉

정당한 성공은 언제나 시기를 받는다.

여기에 그 당시 메스 르티에리의 대차대조표였던 것이 있다. 뒤랑드는 보증했던 모든 약속을 이행했다. 그 덕분에 메스 르티에리는 빚을 갚았고 손해를 메웠으며 브레멘의 채권을 이행했고 생 말로의 지불기한도 지킬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 레 브라베의 저당권도 해제시켰으며 이 집에 등록된 모든 소액 지방 채권도 다시 사들였다. 그는 막대한 생산자본인 뒤랑드의 소유주였다. 이 배의 순익은 이제 1천 파운드에 달했으며 계속 늘어가고 있었다. 사실을 말하자면 뒤랑드는 그의 전 재산이자, 이 고장의 재산이기도 했다. 소의 수송은 배에 있어서 가장 큰 이윤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을 운송하기 위한 선적 방식을 개선하고 드나들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트를 매다는 크레인과 두 개의 소형 보트를 철거하는 것이 불가피 했다. 그것은 분명 경솔한 일이었다. 뒤랑드에는 자선(子船)으로 샬루프선 하나만이 남았을 따름이었다. 어쨌든 그 샬루프선은 훌륭했다.

랑탠느가 달아나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와 같은 뒤랑드의 융성 뒤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뒤랑드의 융성이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메스 르티에리의 상황은 예외적인 것이며 행복한 광기를 부렸을 뿐이었다고 여겨졌다. 와이트 섬의 카우즈에서 그를 흉내 냈던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 시도는 주주들을 파산으로 몰고 갔다. 르티에리가 말했다. "배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나 사람들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새로운 것들은 원성을 사게 마련이다. 가장 사소한 실수가 생길지라도 그들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노르망디 군도의 상

업 권위자 중 한 사람인 파리 출신의 조쥬라는 은행가는 증기선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을 때 등을 돌리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권하는 것은 개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요. 돈을 믿는 사람에게 연기를 믿으라는 식이란 말이오." 그러나 범선은 원하기만 한다면 출자자를 찾을 수 있었다. 투자자본은 끝끝내 증기기관에 등을 돌리고 돛을 고집했다. 게른제에서는 뒤랑드가 하나의 사실이기는 했으나 증기선이 정칙은 아니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진보와 대면한 거부의 악착스러움이다. 사람들은 르티에리에 대하여 말하곤 했다. "지금은 좋아, 하지만 그것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걸." 르티에리의 예는 다른 사람들을 고무시키기는커녕 두렵게 만들었다. 아무도 두 번째 뒤랑드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다.

〈6〉
샬루프선을 만난 난파당한 사람들의 행운

망슈의 춘분과 추분은 일찍 다가온다. 망슈는 바람을 방해하기도 하고 자극하기도 하는 좁은 바다이다. 2월부터 서풍이 불기 시작하여 물결이 사방으로 일렁인다. 항해는 불안해지고 해안주민들은 신호 깃대를 주시한다. 사람들은 배가 조난당할까 불안에 떤다. 바다는 마치 매복중인 병사와도 같다. 보이지 않는 나팔수가 아무도 알 수 없는 전쟁을 알린다. 격노한 공기층이 수평선을 뒤흔든다. 끔찍스런 바람이 분다. 검은 망령이 휘파람을 불며 숨을 헐떡거린다. 커다란 구름 속 저 깊은 곳에서 폭풍우의 검은 얼굴이 불룩 뺨을 부풀린다.

바람이 하나의 위험이라면, 안개는 또 다른 위험이다.

안개는 언제나 뱃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한다. 어떤 안개 속에는 어름의 미세한 결정체가 매달려 있다. 마리오트[180]는 이 결정체 때문에 해나 달의 무리, 환일[181], 가월[182]이 생겨난다고 했다. 비바람 속에서의 안개는 여러 개의 층을 이루고 있다. 각기 다른 특정한 무게를 가진 여러 종류의 증기가 안개 속에서 수증기와 결합하고, 안개를 여러 띠로 나누는 어떤 규칙에 따라 층을 형성한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하나의 조직인 안개가 되는 것이다. 요오드가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그 위로 황, 브롬, 인이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전기압과 자기압의 일부를 이루면서, 콜럼버스와 마젤란의 생 텔므의 불, 세네크가 말한 배와 뒤섞여 움직이는 별들, 플뤼타르크가 말한 카스토르와 폴뤽스의 두 불꽃, 세자르로 하여금 그들이 던진 창에 불이 붙었다고 믿게 했던 고대 로마군단, 보초병이 자신의 창끝 날을 만졌을 때 그에게 빛을 반사시켜 주었던 프리울에 있는 뒤노 성의 창, 아마 고대인들이 *사튀른느의 땅의 번갯불*이라고 불렀던 땅으로부터의 번개까지도 아우르는 여러 현상을 설명한다. 적도 부분에 광대하게 퍼져있는 안개는 지구의 둘레에 띠를 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클라우드 링*, 즉 구름의 반지이다. 걸프 스트림이 극지방을 따뜻하게 해 주는 기능을 하듯이 클라우드 링은 적도지방의 열을 식혀 주는 역할을 한다. 클라우드 링 아래쪽의 안개는 부득이한 결과이다. 이곳이 아열대 무풍대인 *홀스 래이티튜드*이다. 지난 18세기의 뱃사람들은 이곳에 이르면 바다에 말을 던졌다. 폭풍우가 심한 날에는 무게를 덜기 위해서였으며 조용한 날에는 말이 먹는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 콜럼버스

180) 온도가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그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보일의 법칙을 실증한 17세기 프랑스의 물리학자

181) (幻日), 태양의 양쪽에 나타나는 태양 모양의 광점

182) (假月), 달무리에 나타나는 광륜

는 말했다. "낮게 깔린 구름은 죽음을 의미한다 (Nube abaxo es muerte)." 칼데아인이 천문학의 편이었듯이 기상학의 편이었던 에트루리아인에게는 교황의 지위에 버금가는 두 개의 지위가 있었으니 천둥과 먹구름이 그것이었다. *퓔귀라퇴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번개를 관찰했으며 *아킬레쥬*라 불리는 사람들은 안개를 관찰했다. 타르키니아의 신부, 예언자 회(會)는 티르[183]인, 페니키아인, 펠라스기인[184] 등 고대 지중해의 첫 바닷사람들에게 자문을 받았다. 폭풍의 발생 양식은 그때부터 예측되었다. 그것은 안개의 발생양식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엄밀히 말해서 같은 현상이다. 대양에는 세 개의, 즉 적도에 한 개, 양극에 두 개의 안개지대가 존재한다. 선원들은 이들 세 지대를 일컬어 포 오 느와르[185]라 한다.

어느 바다나 다 그렇겠지만 특히 망슈에서 춘분과 추분의 안개는 매우 위험하다. 느닷없이 바다에 밤이 찾아온다. 설령 농무는 아닐지라도 안개의 위험 중 하나는 바닷물 색깔의 변화로 해저지형의 변화를 알아낼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안개는 위험천만하게도 암초의 둑이나 여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해 버린다. 우리는 아무런 징조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암초로 다가간다. 흔히 안개는 항해중인 선박에게 돛을 조정하여 배를 세우거나 닻을 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방편도 허락하지 않는다. 안개는 바람에 버금가는 난파요인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안개가 며칠 동안 계속되고 난 뒤 거센 광풍이 몰아닥치고 나서 우편 샬루프선 *캐시미어* 호가 영국으로부터 도착했다. 코르네 성이 아침을 알리는 대포를 태양에 쏜 바로 그 순간에 바다에서 튀어나온 태양의 첫 번째 햇살을 받으며 우편선은 생 피에르 포르에 입항했다. 하

183) 고대 페니키아의 항구
184) 유사이전 그리스 등지에 살던 민족
185) '검은 항아리' 라는 뜻으로 농무지대를 말함

늘은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샬루프선 *캐시미어*에 생 상송의 신임 교구사제가 타고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샬루프선이 도착하자마자 소문이 도시에 쫙 퍼졌다. 간밤에 이 배가 난파선의 선원을 실은 샬루프선과 바다에서 교신을 했다는 것이다.

〈7〉
낚시꾼의 눈에 띈 이방인의 행운

그날 밤 바람이 잠잠해지자 질리아는 팡스를 몰고 낚시를 하러 갔다. 그러나 해안에서 너무 멀리 나가지는 않았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태양이 비치는 오후 두 시경, 밀물 때가 되어 뷔드라뤼의 내포로 돌아오기 위해 코른느 드 라 베트[186] 앞을 지나면서 돌아올 때, 그는 셰즈 질돌르뮈르의 그림자에 바위의 그림자가 아닌 어떤 다른 그림자가 덧붙어 있는 것을 본 듯했다. 팡스를 그쪽으로 몰자 셰즈 질돌르뮈르에 어떤 남자가 앉아 있는 것을 알아챘다. 바다의 수위는 벌써 매우 높아졌고 바위는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어 그 사람이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질리아는 그 남자에게 큰 몸동작으로 신호를 보냈으나 그는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질리아가 다가갔다. 남자는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성직자 같다' 고 질리아는 생각했다. 더 가까이 다가간 그는 청춘기 남자의 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질리아에게는 낯선 얼굴이었다.

다행히 바위가 수직으로 솟아 있었으므로 배가 지날 수 있는 깊이는 충

186) 각주 122) 참조

분했다. 질리아는 몸을 비스듬히 하여 바위벽을 따라 배를 저어 갈 수 있었다. 바닷물이 많이 높아졌으므로 질리아가 뱃전에 서서 발돋움하면 그 남자의 발끝에 닿을 수 있었다. 외피 판에 몸을 곧추 세우고 손을 올려 뻗었다. 만일 그 순간에 그가 떨어져 버린다면 물 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었다.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팡스와 바위가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잠들어 있는 남자의 발을 잡아당겼다.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남자가 깨어났다.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다.

그는 완전히 깨어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이곳에 도착해서 거닐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배에서 밤을 지냈거든요. 경치가 아름답다고 생각했지요.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10분만 더 늦었어도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질리아가 말했다.

"그래요?"

"배로 뛰어내리세요."

질리아는 그의 발치에서 배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고 한 손으로는 바위를 꼭 붙잡고 다른 한 손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에게 내밀었다. 그는 재빨리 배로 뛰어들었다. 매우 잘생긴 청년이었다.

질리아는 노를 잡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배는 뷔드라뤼의 작은 만에 도착했다.

청년은 둥근 모자를 썼으며 흰 넥타이를 매고 있었다. 그의 길고 검은 프록코트는 넥타이 부분까지 단추가 달려 있었다. 왕관 같은 금발머리와 여성스러운 얼굴, 맑은 눈, 엄숙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

배는 육지에 닿았다. 질리아가 정박용 고리에 닻줄을 끼우고 몸을 돌리

자 자신에게 금화 1소브린을 건네는 청년의 지극히 흰 손이 보였다.

질리아는 부드럽게 그 손을 물리쳤다.

짧은 침묵이 감돌았다. 청년이 침묵을 깼다.

"당신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질리아가 대답했다.

닻줄이 묶였다. 그들이 배에서 내렸다.

청년이 다시 말했다.

"무슈, 당신에게 내 생명을 빚졌습니다."

"그래서요?"

질리아의 이 대답은 또 다시 침묵으로 이어졌다.

"이 교구에 사십니까?" 청년이 물었다.

"아니요." 질리아가 대답했다.

"어느 교구에 사십니까?"

질리아는 오른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요."

청년은 인사를 하고 떠났다.

청년은 몇 발자국 가다가 멈춰 서서 주머니를 뒤지더니 책 한 권을 꺼내들고 질리아를 향해 내밀면서 다시 그가 있는 쪽으로 왔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질리아가 그 책을 받았다.

성서였다.

잠시 후, 자신의 뜰 담장에 기대어 있던 질리아는 청년이 생 상송으로 난 오솔길 모퉁이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조금씩, 조금씩 그는 고개를 떨구며 그 새로운 얼굴을 잊어 버렸고, 세즈 질돌르뮈르[187]가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모든 것이 그의 끝없는

몽상 속으로 잠겨버렸다. 질리아에게 있어 그 심연은 바로 데뤼셰트였다.

그를 부르는 어떤 목소리가 심연의 그림자 속에서 그를 끌어당겼다.

"이봐, 질리아!"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눈을 들었다.

"무슨 일이세요. 시외르 랑드와?"

뷔드라뤼에서 백 보쯤 떨어진 길에 자신의 작은 말을 맨 덮개 없는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던 것은 정말로 시외르 랑드와였다. 그는 질리아를 소리쳐 부르기 위해 멈춰 섰지만 분주하고 급해 보였다.

"질리아, 새로운 소식이 있소."

"어디에요?"

"레 브라베라오."

"무슨 일인데요?"

"말하기가 너무 먼 걸."

질리아는 순간 몸서리를 쳤다.

"데뤼셰트 양이 결혼이라도 하나요?"

"아니요, 천만에."

"뭐라고 하셨지요?"

"레 브라베로 가 보시오. 알게 될 테니."

그리고 시외르 랑드와는 말에 채찍질을 했다.

---

187) 각주 121) 참조

V
연발권총

〈1〉
여인숙에서의 대화

시외르 클뤼뱅은 언제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키가 작고 노란 피부를 가진, 황소처럼 힘이 센 사나이였다. 바다는 그를 검게 태우지 못했다. 그의 살갗은 밀랍으로 된 것 같았다. 그는 마치 양초 같은 혈색을 갖고 있었고, 두 눈에는 촛불이 깜박거리듯 조심스러운 빛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기억력은 놀라웠다. 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갖는 것이었다. 마치 장부에 기입하는 것과 같았다. 이 허튼 짓을 하지 않는 시선은 사람을 사로잡았다. 그의 눈동자는 어떤 얼굴에서나 증표를 포착해 내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그 얼굴이 늙어버렸다 해도 시외르 클뤼뱅은 그 증표를 찾을 수 있었다. 끈질기게 따라붙는 그의 기억력을 따돌리기란 불가능했다. 그는 간단 명료하고 절도 있고 냉정한 사람이었으며, 몸짓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의 솔직하고 진실 됨은 모든 사람들을 단번에 자기편으로 끌어들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순진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의 눈가의 주름이 지극히 그렇게 보이게 했다. 이미 말했지만 그보다 나은 뱃사람은 없었다. 돛의 아딧줄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당기는 것, 바람의 위치를 낮추는

것, 바람을 받고 있는 돛을 시트를 써서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에 있어서 그보다 나은 사람은 없었다. 또한 신앙과 청렴함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도 그보다 더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다. 그를 수상쩍게 여기는 사람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정도였다. 그는 생 말로의 생 뱅상 가(街) 무기상 옆에서 환전상을 하고 있는 무슈 레뷔셰와 친분을 나누고 있었는데 무슈 레뷔셰는 "클뤼뱅에게라면 내 가게도 맡길 수 있었을 겁니다."라고 말하곤 했다.

시외르 클뤼뱅은 홀아비였다. 그가 정직한 사람이었듯이 그의 아내 역시 정직한 여자였다. 그녀의 임종시에는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는 덕을 가진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만일 대법관이 그녀에게 치근댔다면 그녀는 그것을 왕에게 고했을 것이며 하느님이 그녀를 사랑했다 해도 그녀는 그것을 신부에게 고했을 것이다. 이 부부, 즉 시외르 클뤼뱅과 그의 부인은 '존경할 만한' 이라는 영국적인 형용사의 이상을 토르트발에 실현시켰다. 클뤼뱅 부인은 백조였으며 시외르 클뤼뱅은 흰 담비였다. 그는 단 하나의 잘못 때문에 죽을 수도 있을 사람이었다. 그는 핀 하나까지도 주인을 찾아 주지 않고는 지나치지 못했을 것이다. 성냥통 주인을 찾기 위해서라면 북이라도 둥둥 울렸을 것이다. 어느 날 그는 생 말로 근처의 작은 마을 생 세르방의 선술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3년 전에 여기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계산을 잘못하셨더군요." 그리고 주인에게 65상팀을 지불했다. 실로 용의주도한 양심의 소유자였다.

그는 언제나 눈으로 좇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구를? 아마도 악당들이었을 것이다.

매주 화요일마다 그는 게른제에서 생 말로까지 뒤랑드를 몰았다. 화요일 저녁이면 생 말로에 닿았고 선적을 위해 이틀 동안 머물렀으며 금요일 아침에 게른제를 향해 다시 출항했다.

부두를 건설하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생 말로에는 항구에 면

한 오베르쥬 쟝이라는 작은 여인숙이 하나 있었다. 그 당시에 바다는 생 뱅상 항구와 디낭 항구를 적셔들어 갔다. 간조 때면 생 말로와 생 세르방 사이에서는 작은 짐수레와 마차가 교통수단이다. 짐수레와 마차는 부표와 닻과 밧줄을 피해가며, 때로는 돛의 활대나 뱃머리의 삼각돛대에 걸려 가죽 포장이 찢기는 위험을 무릅쓰며 돛을 올리지 않은 선박 사이를 오고 간다. 간조와 만조 사이에 마차꾼들은 여섯 시간 후면 바람이 물결을 채찍질하게 될 이 모래 벌에서 말들을 채찍질 하곤 했다. 이 모래사장에서는 1770년에 해군 장교를 잡아먹은 옛날 생 말로의 문지기 개 스물 네 마리가 어슬렁거리기도 했었다. 지나친 열성이 그 개들을 죽였다. 오늘날 사람들은 프티 탈라르와 그랑 탈라르 사이에서 저녁이면 짖어대던 개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시외르 클뤼뱅은 언제나 오베르쥬 쟝에서 묵었다. 그곳이 뒤랑드의 프랑스 사무실이었다.

세관 관리들과 해안 경비병들이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 위해 오베르쥬 쟝에 들르곤 했다. 그곳에는 그들의 전용 테이블이 있었다. 그곳에서 비니크의 세관관리들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생 말로의 세관 관리들을 만났다.

선장들도 그곳에 들렀지만 그들의 테이블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시외르 클뤼뱅은 때로는 세관의 자리에 때로는 선장의 자리에 앉았지만 선장의 자리보다 세관의 자리에 앉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는 어느 자리에서건 환영을 받았다.

이들 테이블에 앉으면 서비스가 좋았다. 타향살이하는 선원들을 위해 이방의 정제된 술이 준비되어 있었다. 빌바오의 멋쟁이 선원은 거기에서 *엘라다*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린위치에서처럼 스타우트를 마셨으며 앙베르[188]에서처럼 괴즈 브륀느를 마셨다.

원양 항해선의 선장들과 선주들은 선장 전용 테이블에 가끔씩 모습을 나타내었고, 그곳에서 많은 뉴스거리들을 교환했다. "설탕은 어때요?" "가공한 것은 조금뿐이오. 하지만 가공하지 않은 것은 봄베이 것이 3천 부대, 사구아 것이 5백 통이나 있지요." "우파가 결국 빌렐[189]을 쓰러뜨릴 테니 두고 보시오." "그럼 인디고는 어떻소?" "구아테말라 산으로 일곱 가마니 밖에는 없어요." "*나닌 쥘리* 호도 정박 중이라오. 브르타뉴의 멋진 3돛 선 말이오." "플라타 강의 두 도시는 아직도 분쟁중이랍니다." "몬테비데오는 점점 비대해지는데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위축되더군요." "칼라오로 가는 화물은 *르지나 쾰리*에서 배를 바꾸어 실어야 했지요." "카카오가 좋아요. 카라카스 산은 234프랑으로 시세가 정해졌고 트리니다드 산은 73프랑으로 정해졌답니다." "샹 드 마르스 지(誌)에서 사람들이 '총리 타도'를 외치더군요." "녹색 살라데로[190]를 황소의 것은 60프랑에, 암소의 것은 48프랑에 판답니다." "발칸반도를 지나 오셨소? 디에비치[191]는 무엇하고 있소?" "샌프란시스코에는 아니스 술이 없어요. 플라니올산 올리브유는 부진하고 말입니다. 통에 든 그뤼예르 산 치즈는 퀸탈[192]당 32프랑이랍니다." "그건 그렇고, 레옹 12세는 죽었소?" 등등.

떠들썩한 목소리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이러쿵저러쿵 주해를 달기도 했다. 세관관리들과 해안경비병의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이들보다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해안과 항만의 경찰 업무라는 것은 대화함에 있어서 되도록 소리를 덜

---

188) 벨기에의 안트워프
189) 1828년에 강제로 사퇴한 프랑스의 총리
190) 소금에 절여 가공한 남미산 소가죽
191) 러시아의 장군, 러시아-투르크 제4차 전쟁(1828~1829) 당시 발칸반도로 진출하기 위해 투르크 군대를 물리침
192) 100kg

내고 더 많이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선장들의 테이블은 원양항해선 선장인 무슈 제르트래 가부로에 의하여 주재되었다. 무슈 제르트래 가부로는 인간이 아니라 기압계였다. 바다에 익숙한 그는 놀라울 정도로 조짐을 간파하여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 내일의 날씨는 어떠할 것이라고 공포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는 바람을 청진했으며 조수의 맥을 짚었다. 그는 구름에게 "혀를 내밀어 봐라" 하고 말했다. 그것은 번개가 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파도와 바람과 질풍을 진찰하는 의사였으며 대양은 그의 환자였다. 의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듯이 건강한 상태와 아픈 상태에 있는 각각의 기후를 진찰하면서 세계일주를 했다. 그는 계절의 병리학을 완전히 통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1796년에 기압계가 폭풍우 아래로 세 눈금 내려간 적이 있었다" 고 꼼꼼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사랑 때문에 뱃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다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우정 때문에 영국을 몹시 싫어했다. 적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 영국의 선박을 꼼꼼히 연구했으며, 1637년의 *소브린* 호가 1670년의 *로얄 윌리암* 호나 1755년의 *빅토리* 호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설명했다. 그는 이 배들의 선수루(船首樓)를 비교할 수도 있었다. 1514년의 *그레이트 해리* 호의 갑판 위에 망루가 없는 것과 과녁 모양의 장루가 없는 것을 아쉬워했다. 아마도 프랑스 포탄의 관점에서는 과녁을 아주 잘 맞혔던 모양이다. 그에게 국가란 해운과 관계된 기구를 만들어 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그가 독자적으로 만든 희한한 동의어였던 것이다. 그는 기꺼이 영국을 *트리니티 하우스*[193]라 부르고 스코틀랜드를 *노던 코미쇼너즈*[194]라고 불렀으며 아일랜드를 *밸러스트 보드*[195]라고 불렀다. 그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에 그 자신이 입문서이자

---

193) 16세기의 선원조합

연감이었으며 수량 기록기이며 요금표였다. 등대의 통행료를, 특히 영국의 통행료를 '이쪽 등대를 지나가는 데는 1톤당 1페니, 저쪽 등대를 지나가는 데는 1톤당 1파딩'[196] 하며 외우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스몰스 락의 등대는 기름을 2백 갤런밖에 쓰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1천 5백 갤런이나 소모한답니다." 어느 날 승무원들이 그가 선상에서 중병에 걸려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의 해먹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임종의 헐떡임도 중단한 채 도편수에게 이렇게 말 하는 것이었다. "철 축의 바퀴가 거기에 맞물리게 해서 밧줄을 집어넣으려면 각 옆의 장붓구멍을 버팀목의 두께에 맞추는 것이 나을 거야." 실로 관록 있는 인물의 모습이었다.

선장의 테이블과 세관 관리의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정확히 2월 초순에 일어났다. 칠레에서 왔으며 그곳으로 돌아갈 쥐엘라 선장의 삼각 돛 배 *타몰리파스*는 양측 테이블의 주목을 끌었다. 선장의 테이블에서는 그의 짐에 대하여 이야기 했으며 세관관리의 테이블에서는 그의 거동에 대하여 이야기 했다.

코피아포 출신의 쥐엘라 선장은 약간은 콜롬비아의 피가 섞인 칠레 사람이었는데, 그는 여러 독립 전쟁에서 독립적으로 싸운 바 있었다. 즉, 그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따라서 때로는 볼리바를 위해 때로는 모릴로를 위해 싸웠던 것이다. 그는 누가 되었건 그들을 위해 일을 하고 부자가 되었다. 그는 부르봉 파(派)도, 보나파르트 파도 아니었으며, 전제주의자도, 자유주의자도 아니요, 무신론자도, 카톨릭도 아니었다. 그는 뤼그라티프[197]

---

194) 영국의 북부 선원들을 위한 대표 단체
195) 배의 바닥짐 밸러스트와 관련하여 일을 하던 사무소
196) 옛 영국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
197) '돈벌이가 되는' 의 뜻

당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 그 거대한 당의 일원이었다. 그는 이따금씩 사업상으로 프랑스에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 풍문에 따르면 도주중인 사람들을 기꺼이 그의 배에 태운다는 것이었다. 파산자이건 정치적 추방자이건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며 돈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배를 태우는 방법은 간단했다. 도망자가 해안의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배가 출항준비를 하는 순간에 쥐엘라가 작은 배를 풀어 데리러 가는 것이었다. 이전 항해에서 그는 브르통[198] 사건의 결석피고를 그런 식으로 도망치게 도왔으며 이번에는 비다소아[199] 소송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을 배에 태울 작정이라고들 했다. 노련한 경찰이 그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 때는 이동과 도망의 시대였다. 왕정복고는 반동이었다. 혁명이 이민을 야기했다면 왕정복고는 추방을 초래했다. 부르봉 왕조가 복귀한 후 처음 칠팔 년 동안은 재정과 공업, 상업 등 모든 분야에서 공황을 겪었다. 땅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으며 파산선고가 끊이지 않았다. 정치적인 궤주가 있었다. 라발레트도, 르페브르도 들롱도 모두들 도망자들을 잡았다. 특별법정이 만연했으며 트레타이용 소송도 있었다. 사람들은 소뮈르 다리, 라 레올 광장, 옵세르바투아르 드 파리의 벽, 토리아 다비농 탑 등, 반동의 낙인이 찍힌 채 역사 속에 음산하게 서 있는 그림자들을 피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 그림자 속에서 피 흘리는 손을 본다. 프랑스의 파리로 분기(分岐)된 영국의 디슬우드 소송도, 벨기에와 스위스, 이탈리아로 분기된 트로고프 소송도 불안과 행방불명의 원인을 증가시켰으며 당시의 사회 계급 중 가장 높은 신분에 속했던 사람들까지 공허하게 만들었던 그 깊고 은밀한 도주를 증가시켰다. 안전한 상태가 되는

---

198) Berton: 프랑스의 장군. 소뮈르에서 반란을 주도한 죄로 1822년에 처형됨
199) Bidassoa: 프랑스와 접한 스페인의 강. 프랑스가 스페인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는 반항이 있었음

것, 그것이 주된 관심사였다. 연루되는 것, 그것은 몰락의 길이었다. 임시 즉결재판소의 정신은 관습 속에서만 살아남아 있었다. 형을 언도하는 것은 친절에 속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텍사스로, 로키산맥으로, 페루로, 멕시코로 달아났다. 지금의 귀족이자 그 당시의 산적인 루아르의 사람들은 성역을 만들었다. 시인 베랑제는 이렇게 노래했다. "야만인들이여, 우리는 프랑스인이다. 우리의 영광을 동정할지어다." 고국을 떠나는 것이 살길이었다. 그러나 도망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짤막한 단어 '도망'은 심연을 지니고 있다. 달아나는 사람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든 장애물이 된다. 도망하는 것은 자신을 숨기는 것이다. 유명한 사람들, 심지어 고관들까지도 범죄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들은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 자유롭게 행동하던 그들의 습관이 탈주의 그물을 지나 슬쩍 빠져 나가는 것을 어렵게 했다. 추방령을 위반하고 있던 야바위꾼이 장군보다 더 정확한 경찰의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짙은 화장을 하도록 강요당한 순진성, 남을 속이기 위해 목소리를 바꾼 덕(德), 가면을 쓴 영광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이러한 행인은 수배 중이던 가짜 신분증을 가진 유명인사였다. 도망치는 사람의 수상쩍은 거동으로 인해 사람들은 영웅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른바 일반적인 역사가 소홀히 다루지만 한 세기의 진정한 화가라면 강조해야 하는 일시적이지만 특징적인 모습들이다. 정직한 사람들의 도망 뒤에는 덜 감시당하고 덜 의심받는 사기꾼들의 도망이 교묘하게 끼어들곤 했다. 슬그머니 사라지도록 되어 있는 이 건달들은 혼란을 이용하여 추방자들 사이에서 머리수를 늘리고,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이 황혼의 시대에 그 재주 덕분으로 정직한 사람보다 더 정직해 보였던 일이 흔히 있었다. 정의의 이름으로 비난받는 정직성만큼 어색한 것은 없다.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실수를 저지른다. 진

실을 왜곡하는 사람은 국민의회 의원보다 쉽게 도망쳤다.

이해하기 힘든 노릇이지만, 자신의 나라를 탈주한다는 것은 특히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는 것이었다. 불한당 한명이 파리나 런던에서 가져간 문명의 양은 원시적이거나 미개한 나라에서는 지참금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를 눈에 띄게 하고 그로 하여금 선도자가 되게 하였다. 이러한 모험은 법을 피해 달아나 다른 곳에서 성직자의 지위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하였다. 사라진다는 것에는 환상효과 같은 것이 있었으며 탈주의 상당 부분이 꿈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종류의 실종은 미지의 세계와 비현실의 세계로 안내했다. 야밤에 이러한 통로로 유럽을 빠져 나온 파산자는 20년 후에 무갈의 총리대신이나 타스마니아 섬의 왕으로 다시 나타났다.

탈주를 돕는 것, 그것은 하나의 사업이었으며 일의 빈도를 볼 때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사업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사업은 다른 일과 함께 진행되었다. 영국으로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밀수업자에게 부탁했으며 아메리카로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쥐엘라와 같이 원양항해를 하는 범법자에게 부탁했다.

〈2〉
클뤼뱅, 누군가를 알아보다

쥐엘라는 가끔 오베르쥬 장에 식사하러 들르곤 했다. 시외르 클뤼뱅은 그와 안면이 있었다.

시외르 클뤼뱅은 아량이 있는 사람이었다. 안면이 있는 건달들을 업신여기지 않았다. 가끔 거리에서 그들을 만나면 길 한복판에서도 악수를 건

네며 인사를 했다. 그는 스머글러[200]에게는 영어로 말했으며 콘트라반디스타[201]에게는 서투르지만 스페인어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 "악을 알아야 선을 행할 수 있다." "밀렵 감시인은 밀렵꾼과 이야기를 해봐야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해적은 암초와 같으므로 선장은 해적을 탐색해야 한다." "의사가 독약의 맛을 보듯이 나는 불한당의 맛을 본다." 이론의 여지가 없었다. 모두가 클뤼뱅 선장이 옳다고 인정했다. 사람들은 어색한 조소가 되지 않도록 그를 칭찬했다. 누가 감히 그를 비방할 수 있었겠는가? 그가 한 모든 것은 분명 '일을 잘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에 대한 모든 것이 간단명료했다. 어떠한 것도 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없었다. 크리스탈은 설령 스스로 더러워지길 원한다 해도 그럴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오랫동안 지켜 온 정직성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으며 바로 그것이 확고부동한 명성의 우수성이다. 클뤼뱅이 무엇을 했거나,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사람들은 덕의 의미를 알기 위한 악의로 이해했다. 완전무결은 이제 그의 것이었다(더구나 그가 신중하다고 사람들은 말했다). 이러저러한 친분으로 알게 된 사람이 의심스러운 사람일지라도 그의 정직성은 재치를 부각시키면서 나타났다. 이러한 재치의 명성은 그의 순진성의 명성과 모순이나 혼란 없이 조화롭게 혼합되었다. 순진한 재치, 그것은 존재한다. 그것은 정직한 사람의 여러 가지 유형 중 하나이며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 중 하나이다. 시외르 클뤼뱅은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다.

티몰리파스 호는 짐을 채워 실었다. 곧 출범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었다.

---

200) 영어로 '밀수업자'
201) 스페인어로 '밀수업자'

어느 화요일 저녁, 아직 대낮같이 밝은 시간에 뒤랑드가 생 말로에 도착했다. 항구에 내릴 준비를 하기 위해 트랩에 서서 뱃줄을 살펴보던 시외르 클뤼뱅은 프티 베 근처 두 암벽 사이의 아주 외진 모래사장에서 두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항해용 망원경으로 그들을 보고 그들 중 한 명을 알아보았다. 쥐엘라 선장이었다. 다른 한 명도 안면이 있는 듯했다.

다른 한 명은 키가 크고 머리털이 희끗희끗한 사람이었다. 그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퀘이커교의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퀘이커 교도임이 분명했다. 그는 공손하게 두 눈을 아래로 향하고 있었다.

오베르쥬 쟝에 도착했을 때 시외르 클뤼뱅은 *타몰리파스*가 열흘 정도 후에 떠날 예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로 사람들은 그가 몇 가지 다른 정보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밤에 그는 생 뱅상 가의 무기상에 들어가서 말했다.

"연발권총이 어떤 것인지 아시오?"

"예, 아메리카 것이지요. 무기상이 대답했다."

"수다스러운 권총이지요."

"정말, 그건 묻고 대답하는 것 같지요."

"말대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무슈 클뤼뱅. 회전식 총이지요."

"대여섯 발 씩 들어가는."

무기상은 입술 한쪽 끝을 살짝 벌리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감탄을 표시하는 소리를 냈다.

"그건 좋은 물건이죠, 무슈 클뤼뱅. 아마 잘 나갈 겁니다."

"여섯 발짜리 연발권총 하나 주시오."

"없는 걸요."

“뭐요?”

“그 물건은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요. 아시다시피 새 물건이니까요. 이제 막 나왔답니다. 프랑스에는 아직 권총밖에 없지요.”

“제기랄!”

“아직 시판되지 않고 있어요.”

“제기랄!”

“아주 좋은 권총은 있답니다.”

“연발권총이 필요해요.”

“그것이 더 좋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잠깐 기다리십시오, 무슈 클뤼뱅.”

“무엇을 말이오?”

“지금 생 말로에 중고품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발권총 말이오?”

“예.”

“팔 물건이요?”

“예.”

“어디요?”

“어디인지 알 것 같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답을 해 줄 수 있겠소?”

“중고지만 좋은 것이지요.”

“언제 다시 오면 되겠소?”

“제가 연발권총을 하나 마련해 드린다면 그건 좋은 물건일 겁니다.”

“언제 회답을 주겠느냐 말이오?”

“다음에 오실 때.”

“내가 구하더라는 말은 하지 마시오.” 클뤼뱅이 말했다.

〈3〉
클뤼뱅은 가져가고 다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시외르 클뤼뱅은 뒤랑드에 짐을 실었으며 수많은 황소와 승객 몇 명을 태우고 평소와 다름없이 금요일 아침 생 말로를 떠나 게른제를 향했다.

같은 금요일, 배가 난바다에 이르러 선장이 갑판의 명령 대를 잠시 비울 수 있을 때 클뤼뱅은 선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틀어박혀, 그가 가지고 있던 여행 가방을 꺼내, 부드러운 칸에는 옷을 넣고, 단단한 칸에는 비스킷, 통조림 몇 통, 초콜릿 바 몇 파운드, 크로노미터, 망원경을 넣어 맹꽁이자물쇠를 채우고, 필요에 따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완비된 왕 밧줄을 손잡이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나서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 케이블이 있는 선창으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그가 꺾쇠가 달린 매듭진 로프 하나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 로프는 바다에서는 배의 널빤지 틈을 메우는 직공에게, 육지에서는 도둑에게 필요한 물건이었다. 그것은 가파른 곳을 쉽게 기어 올라갈 수 있게 해준다.

게른제에 도착한 클뤼뱅은 토르트발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른여섯 시간을 머물렀다. 그 여행용 가방과 매듭 진 로프를 가져갔었지만, 돌아올 때는 그것들을 다시 가져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말하자면 이 책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른제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예전의 게른제이며 전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예전의 게른제이다. 전원에는 아직도 게른제가 살아 있지만 도시에서는 사라지고 없다. 우리가 게른제에 대하여 지금 지적한 것은 제르세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생 텔리에는 디에프에 견줄 만하며 생 피에르 포르는 로리앙에 견줄 만하다. 진보의 덕분에, 이 꿋꿋한 작은 섬 민족의 놀라운 진취적 기질 덕분에, 40년 전부터 망슈 군도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어둠에 가려져 있던 곳이 찬란한 빛의 세계가 되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지나가기로 하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 역사 속의 일부가 된 그 시절에 망슈에서는 밀수업이 매우 성행하고 있었다. 밀수꾼의 배는 특히 게른제의 서쪽 해안에 많이 나타났다. 지나치게 사정에 밝은 사람들은, 그리고 반세기 전에 일어난 일을 방금 일어난 일인 양 무슨 일이었는지 낱낱이 아는 사람들은, 거의가 아스투리아와 기퓌스코앙의 것인 그 배들 중 몇몇의 이름을 들먹일 것이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레 생 만(灣)이 되었건 플랭몽이 되었건 간에 한두 척의 배가 오지 않고서 한 주가 지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거의 정규 업무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 세르크에 있는 바다 동굴은 부티크라 불리었으며 아직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이 동굴로 밀수업자를 찾아 왔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거래에 사용되는 것으로 망슈에서는 일종의 밀수업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말들은 오늘날에는 잊혀졌지만 스페인어에 속하는 것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연안의 많은 지점에서 밀수업은 공개적이고 허가를 받은 적법한 일과 굳은 비밀협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제로 밀수업은 보다 많은 고 자본가의 집의 비밀 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었으며 상업의 순환 망과 공업의 모든 엽맥 조직을 타고 은밀히 번지고 있었다. 앞으로는 도매상인이요 뒤로는 밀수업자, 이것이 막대한 부의 역사였던 것이다. 세갱은 그것을 일컬어 부르갱이라 했으며 부르갱은 그것을 일컬어 세갱이라 했다.[202] 우리는 그들이 언급했던 것에 대해 옳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분명히 그들은 서로를 중상하려 했던 것이다. 밀수업은 법에 쫓기는 신세이긴 했지만 재정적으로는 확실히 매우 좋은 친척을 가진 셈이었다.

---

202) 세갱과 부르갱은 혁명기의 자본가들이다

그것은 '더 나은 세계와' 관계하고 있었다. 예전에 망드랭이 샤롤래 백작과 접촉하곤 했던 이 동굴은 겉보기에 떳떳했으며 사회적으로도 나무랄 데 없는 면모를 갖춘, 목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번창하는 가게였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공모가 비일비재했다. 이러한 비밀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어둠을 원했다. 밀수업자는 많은 것을 알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다. 신성하고도 강직한 충실성이 그의 규범이었다. 밀수업자의 첫 번째 자질은 충성이었다. 비밀의 엄수 없이는 밀수업도 없었다. 고해의 비밀이 있듯이 밀수업의 비밀이 있었던 것이다.

이 비밀은 신성하게 지켜졌다. 밀수업자는 모든 것을 발설하지 않겠노라 맹세했고 그것을 지켰다. 밀수업자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은 없었다. 어느 날 우아르젱의 판사가 포르 세크의 밀수업자를 잡아서 그의 숨은 돈줄을 알아내기 위해 심문을 했다. 밀수업자는 돈줄을 밝히지 않았다. 그 돈줄은 바로 판사였던 것이다. 판사와 밀수업자, 이들 두 공범 중 한 명은 법에 복종하는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다른 한 명에게 고문을 가하라고 명했고 그 다른 한 명은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고문을 참고 견뎠다.

그 시절에 플랭몽을 자주 방문하던 가장 유명한 두 밀수업자는 발라스코와 발라스키토였다. 그들은 같은 이름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같은 천국의 수호성인을 갖는 데서 생긴 스페인 카톨릭의 유연(類緣)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상에서 같은 아버지를 갖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사람들이 밀수업의 은밀한 여정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을 때는 이들과 만나는 것보다 쉬운 일도 또 어려운 일도 없었다. 밤에 대한 아무런 선입견도 갖지 말고 플랭몽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알 수 없는 의문부호에 당당히 맞서는 것으로 충분했으니 말이다.

〈4〉
플랭몽

토르트발 근처의 플랭몽은 게른제의 세 각 중 하나다. 그곳의 갑 말단부에는 바다를 굽어보는 잔디로 덮인 높은 언덕이 하나 있다.

그 꼭대기는 쓸쓸하다.

집 한 채가 있음으로 해서 그곳은 더욱 쓸쓸해지고 만다.

집은 외로움에 공포까지 더해 준다.

집에서는 귀신이 나타난다고 한다.

귀신이야 나오건 안 나오건 실로 기괴하다.

화강암으로 된 이 이층집은 무성한 풀숲 가운데 있다. 어떻게 보아도 폐허가 아니라 완벽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이다. 벽은 두텁고 지붕은 단단하다. 벽에는 돌 하나 빠지지 않았고 지붕에도 기왓장 하나 없어지지 않았다. 벽돌로 만든 굴뚝이 지붕 한 모퉁이의 버팀 벽을 이룬다. 이 집은 바다를 등지고 있다. 대양에 면하고 있는 것은 한쪽 벽뿐이다. 이 표면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벽으로 가려진 창문을 하나 찾을 수 있다. 박공벽에는 세 개의 작은 창들이, 하나는 동쪽으로 둘은 서쪽으로 나 있는데 이 또한 모두 벽으로 가려져있다. 육지를 향하고 있는 측면에는 하나의 출입문과 여러 개의 창문이 있다. 출입문도 벽으로 가려져있다. 1층의 창문 두 개도 가려져 있다. 2층에는,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가장 먼저 놀라는 것으로서 두 개의 열린 창문이 있다. 가려진 창문은 이 열린 창문보다 오히려 무섭지 않다. 열려 있기 때문에 한낮에도 창문은 검게 보인다. 창유리도 없고 창틀도 없다. 그것들은 내부의 어두움을 보여 줄 뿐이다. 마치 눈이 뽑힌 자리에 남은 두 개의 빈 구멍 같은 모습이다. 집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크게 벌어진 십자형 창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부의 황폐를 알수 있다. 대리

석장식도 없고 나무장식도 없이 그저 맨 돌 뿐이다. 밖에서 귀신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는 창문을 통해 사람들은 무덤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바다 쪽으로 면한 기반을 비가 마멸시킨다. 바람에 흔들리는 쐐기풀이 벽 밑 부분을 어루만진다. 지평선에도 인가는 전혀 없다. 이 집은 정적이 감도는 텅 빈 어떤 것이다. 만일 당신이 멈춰 서서 벽에 귀를 갖다 댄다면 가끔은 당신의 출현에 놀라 겁에 질린 날개 짓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가려진 문 위에는 기둥 끝을 장식하는 돌에 'ELM-PBILG' 라는 글씨와 '1780' 이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다.

밤이 되면 음산한 달빛이 그 집안으로 스며든다.

이 집의 주변은 온통 바다뿐이다. 그 장면은 웅대하고 따라서 을씨년스럽다. 그곳의 아름다움은 하나의 수수께끼가 된다. 왜 아무도 이 집에 살지 않는 것일까? 경치도 아름답고 집도 좋다. 어떤 연유로 집을 버린 것일까? 이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질문에 몽상으로부터 생겨나는 질문이 덧붙여진다. 밭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텐데 왜 황량하게 내버려 둔 것일까? 주인도 없다. 문도 막혀 있다. 그렇다면 이곳에 무슨 사연이 있나? 주인은 왜 도망친 것일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아무 일도 없는데 왜 아무도 없는 것일까? 모두가 잠든 시간에 누군가가 이곳에 깨어 있을까? 음험한 돌풍, 바람, 맹금(猛禽), 엉큼한 짐승들, 무명의 존재들이 상상 속에 나타나서 이 집과 뒤섞인다. 어떤 행인을 위한 숙소일까? 사람들은 우박과 비로 뒤범벅된 어둠이 여러 개의 창문으로 몰려드는 것을 상상한다. 폭풍우로 넘쳐흐르는 파도가 집안 벽에 그 흔적을 남겼다. 막혀 있기도 하고 열려 있기도 한 방들은 폭풍우의 방문을 받는다. 거기서 범죄가 저질러졌을까? 밤이면 어둠 속에 버려진 이 집이 도움을 청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느껴진다. 집은 잠잠할까? 거기서 목소리들이 흘러나올까? 이와 같은 고독 속에서 집은 누구와 볼 일이 있는 걸까? 검은 시간의 신비가

이곳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린다. 이 집은 한낮이면 불안하다. 자정에는 어떤가? 집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의 비밀을 본다. 몽상은 그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가능성은 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이 집에서 저녁의 황혼과 새벽의 여명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자문해 본다. 인간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분산된 생명들이 이 쓸쓸한 언덕 위에서 매듭을 지을까? 그 언덕에 멈춰 서서 눈에 보이게 만들고 머물게 만들까? 번개가 이곳을 맴돌까? 미세한 것이 형태를 띠기까지 이곳에서 응결될까? 수수께끼다. 성스러운 공포가 돌에 서려있다. 금지된 방안의 이 어둠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이다. 해가 지고 나면 어부들의 배가 돌아오고, 새들이 잠잠해지고, 바위 뒤의 염소지기가 염소들과 함께 사라지고, 안심한 파충류가 돌의 틈새를 미끄러져 지나가고, 별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둠이 세상을 꽉 채우고, 그 두 창문이 거기에 그렇게 활짝 열린 채로 있을 것이다. 그것은 꿈의 세계를 향해 열린다. 유령으로, 악령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귀신의 모습으로, 섬광 속의 가면으로, 영혼과 그림자의 신비스런 소란으로, 어리석고도 깊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 저택과 밤의 어두운 친밀성을 표현한다.

집은 '귀신들린' 것이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순진한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실증적인 사람들도 역시 그들 나름대로 해석한다. 그들은 이 집보다 더 성스러운 곳은 없다고들 한다. 이곳은 혁명전쟁시대와 제정시대의 그리고 밀수업의 오래된 감시소이다. 집은 그 때문에 거기 지어졌다. 전쟁이 끝나자 감시소는 버려졌다. 집이 다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허물지 않았다. 사람들이 더럽힐까 출입문과 1층의 창문들을 막아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했다. 남풍과 서풍 때문에 바다에 면한 세 벽의 창문들도 모두 막았다. 그뿐이었다.

무지한 사람들과 순진한 사람들은 계속 고집한다. 우선 집은 혁명전쟁 시대에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 집에는 '1780' 이라는 혁명 이전의 연도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집은 감시소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 두 가문의 두 머리글자를 딴 것이며 관례에 따라 신혼부부의 거처로서 지어진 것을 알려 주는 'ELM-PBILG' 라는 글씨가 집에 새겨져 있다. 그러므로 이 집은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 그런데 왜 지금은 살지 않는가? 만일 아무도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막았다면 왜 창문 두 개는 열린 채 두었을까? 다 막아버리던가 다 막지 않던가 했어야 했다. 왜 덧문은 하나도 없을까? 왜 창틀도 없을까? 왜 창유리도 없을까? 한쪽 창문은 막지 않고 왜 다른 쪽 창문은 막았을까? 남쪽으로 비가 들이치는 것은 막으면서 북쪽으로 들이치는 것은 막지 않은 것이다.

아마도 순진한 사람들이 틀렸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실증적인 사람들도 옳지는 않다. 문제는 집요하다.

확실한 것은 이 집이 밀수업자들에게는 해롭다기보다 유용하다고 여겨진다는 것이다.

사람이 공포에 질리면 올바른 분별력을 잃는다. 틀림없이 귀신들린 오두막집의 기괴한 일과 흡사한 저녁시간의 많은 자연현상들은 어둡고 은밀한 존재들에게, 그리고 잠시 이곳에 머물다 곧 배에 다시 탈 사람들에게 때로는 수상쩍은 사업가들의 범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대담함으로 때로는 슬쩍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한 경고로 전해질 것이다.

그 오래된 시절에는 호담한 행동들이 가능했었다. 그 시절엔, 특히 좁은 지역에서는 경찰도 오늘날의 경찰이 아니었다.

우리가 말했듯이 범법자들에게 이 집이 편안한 곳이었다면 그 이유는 어떤 면에서는 그 집의 음침한 풍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을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적발되는 것을 막아 주었다. 유령을 향하여 말을 하는 것은 세무국의 공무원에게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성호를 긋는다. 그것이 경찰관의 조서보다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그들은 보고도, 아니 보았다고 믿고, 달아나고, 입을 다문다. 두려움을 조장한 이들과 두려워하는 이들 사이에는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묵계가 존재한다. 질겁한 사람들은 질겁했던 것이 사실은 잘못 본 것임을 자각한다. 그들은 비밀을 알아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비밀스런 입장을 악화시키지나 않을까 그리고 귀신을 화나게 만들지나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것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을 지키도록 만든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은 차치하더라도 순진한 사람들의 본성은 침묵인 것이다. 극심한 공포에는 침묵이 있다. 공포로 떨고 있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없는 법이다. 마치 공포가 위협이라도 한 것 같다. "쉿!"

이것은 게른제의 농부들이 예수가 태어난 말구유의 신비가 매해 똑같은 날 소와 당나귀에 의해 반복된다고 믿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시절, 크리스마스 날 밤이면 아무도 감히 외양간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거기서 짐승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볼까 두려워서 말이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지방의 전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어야 한다면 옛날 미신은 무언가를 보았다고 믿고, 선물로 용서 받기를 바라고, 흡혈귀와 악령과 유령의 언짢은 기운을 쫓기를 바라는 분별없는 밤의 행인들로 하여금 가끔씩 플랭몽의 이 집 벽에, 여기저기에 아직도 그 흔적이 보이는 못에, 다리 잘린 쥐, 날개 잘린 박쥐, 죽은 짐승의 해골, 성서의 책갈피에서 찌부러져 죽은 두꺼비, 노란 층층이 부채 꽃 새싹 등의 해괴한 봉납 물을 매달게까지 했다. 예로부터 언제나, 때로는 신분이 매우 높은 사람을 포함하기도 하는, 아바카와 마녀의 축제를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있는 법이다. 세자르는 사간[203]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나폴레옹은 마드모아젤 르노르망[204]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그것은 악마의 관용을 구하려고 애쓸 정도의 불안한 의식이었다. '하느님께서 행하시고 사탄은 방해하지 마소서' 이것은 샤를르 5세의 기도 중 하나였다. 더 소심한 다른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우리가 악에 대하여 가혹한 짓을 할 수 있다고까지 믿는다. 악마와 대면했을 때 나무랄 데 없이 되는 것은 그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다. 그리하여 거대하고 음침한 간악함을 이기기 위해 종교적인 의례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달리 말하면 맹목적인 믿음이다. 악마에 대항하는 범죄들은 병적인 공상 속에 존재한다. 밑에서부터 법을 어긴 것이 무지로 인해 생기는 기괴한 결의론자들을 괴롭힌다. 우리는 어두운 곳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낀다. 브로큰[205]이나 아르뮈르[206]의 신비를 공경함으로써 효력을 믿는 것, 지옥에 대항하여 죄를 짓는 상상을 하는 것, 공상적인 범법을 저지르고 공상적인 고해성사에 호소하는 것, 상상의 정령에게 진실을 고백하는 것, 거짓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 반대로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지금 존재하거나 과거에 존재했다. 마녀재판이 기록된 페이지마다 그것을 증명한다. 인간의 꿈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다. 인간은 일단 놀라기 시작하면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사람들은 상상 속의 잘못을 꿈꾸고 상상 속의 정화를 꿈꾸며 마녀들의 빗자루 그늘로 그의 의식을 청소하게 한다.

어쨌든 이 집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그 집의 일일뿐이다. 우연이나 예외적인 때라면 모를까 아무도 그 집에 보러 가지 않는

---

203) 호라티우스의 시에 나온 여자 마법사

204) 천리안을 가진 예언자

205)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마녀들이 축제를 벌이는 장면에 있는 산

206) 셰익스피어의 맥베스가 마녀들과 마주친 황야

다. 집은 홀로 내버려져 있었다. 위태로운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끔찍한 일과 마주치는 것은 어느 누구의 취미도 아니다.

그 집을 지키고 있는 공포 덕분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있는 덕분에 누구라도 기꺼이 증인이 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밤중에 줄사다리나 아니면 그저 인근 농가의 뜰에 있는 울타리를 넘을 수 있는 작은 돌만 이용해도 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이었다. 그곳에 비상식량과 옷가지만 가져다 놓으면 아무도 모르게 배에 탈 수 있는 적절한 때까지 안심하고 기다릴 수 있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십 년쯤 전에, 어떤 이들에 따르면 정치범이고 또 다른 이들에 따르면 파산자인 어느 탈주범은 한동안 플랭몽의 귀신들린 집에 숨어 지내다가 영국으로 가는 어선에 올라타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영국에서는 누구나 쉽게 미국으로 갈 수 있다.

이 집에 있는 물건들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데 이는 누구라도 그것들을 놓아둔 사람들은 다시 온다는 것을 밀수업자 들 뿐만 아니라 루시퍼[207]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전설도 있다.

이 집이 있는 꼭대기에서 남서쪽, 해안으로부터 1마일 떨어진 지점에는 암초 레 아누와가 보인다.

이 암초는 유명하다. 그것은 바위로서 할 수 있을 법한 온갖 못된 짓을 저질렀다. 바다의 무시무시한 암살자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것은 비겁하게도 밤에 다니는 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토르트발과 로켄느의 묘지를 점점 넓히고 있었다.

1862년에 이 암초 위에 등대가 세워졌다.

예전에는 길을 잘못 들게 했던 암초 아누와가 지금은 환히 비춰 배를

---

207) 하늘에서 떨어진 오만한 반역 천사장, (이사야서의 사탄)

안내해 준다. 매복병이 이제는 손에 횃불을 들고 있다. 사람들은 수평선에서 보호자와 안내자로서 이 바위를 찾는다. 한때는 범죄자로 보고 도망치던 이 바위를 말이다. 아누와는 그들이 두려워하던 광막한 밤의 공간을 확실한 곳으로 만든다. 마치 강도가 헌병이 된 셈이다.

아누와 암초는 큰 아누와, 작은 아누와, 모브의 세 암초로 이루어진다. 오늘날의 '빨간 불' 은 작은 아누와에 있다.

이 암초는 물 속에 잠겨 있기도 하고 물 위로 솟아 있기도 한 여러 갑 그룹의 일부이다. 그것은 마치 공사가 진행 중인 요새와도 같다. 난바다 쪽으로는 열세 개의 암초가 띠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두 개의 암초, 오트푸르키, 애기용과 모래 벌인 에루에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세 개의 암초, 캣록, 페르세, 로크에르팽이 있다. 그와 더불어 두 개의 진흙 벌인 사우스부와 부르무에가 있고 플랭몽 앞에는 수면에 보일 듯 말 듯한 암초 타드푸와다발이 있다.

아누와에서 플랭몽까지의 협로를 헤엄쳐 건넌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시외르 클뤼뱅의 영웅적인 일 중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한다. 이 여울을 알고 수영하는 사람에게는, 도중에 쉴 수 있는 로크 롱드와 조금 멀리 왼쪽으로 비껴선 로크 루쥬라는 두 개의 정거장이 있다.

〈5〉
새 둥지를 터는 아이들

시외르 클뤼뱅이 토르트발에서 지낸 그 토요일의 낮에 즈음하여 일어난, 당장은 거의 소문이 나지 않을 그러나 한참 후에는 알려질 이상한 사

건을 덧붙여야겠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많은 것들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공포 자체로 인하여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있기 때문이다.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밤이었다. 날짜를 확실히 하고 그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세 아이가 플랭몽의 절벽을 기어올라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바다에서 오는 길이었다. 이런 아이들을 일컬어 이곳 말로 '데니쿠와조' 라 한다. 데니슈 우와조[208]를 읽어 보라. 바다 위 바위 절벽과 구덩이의 도처에서 새둥지의 알을 훔쳐 내는 아이들은 흔히 있다.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하여 말한 바 있으며, 질리아가 새들 때문에 또 아이들 때문에 근심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 아이들은 새 둥지를 터는 겁 없는 바다의 소년들이었다.

밤은 매우 어두웠다. 겹겹이 쌓인 어둠의 두께가 천정점을 가리고 있었다. 마술사의 모자를 닮은 둥글고 뾰족한 토르트발의 종탑에서 막 새벽 세 시를 알리고 있었다.

무슨 일로 이 아이들은 이 시간까지 돌아다닐까? 그거야 쉽다. 그들은 타 드 푸와 다발로 갈매기 둥지를 약탈하러 갔던 것이다. 계절이 매우 온화했으므로 새들의 사랑은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둥지 근처에서 수컷과 암컷의 거동을 염탐하고 있던 아이들은 이러한 뒤쫓기에 열중한 나머지 시간을 잊은 것이었다. 밀물이 그들을 가두었다. 그들은 타고 온 작은 배를 묶어 둔 작은 내포에 제때에 닿을 수 없었고 바닷물이 빠질 때까지 타드푸와 갑 중 하나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그리하여 늦게 귀가하게 된 것이었다.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어머니들은 불안해하며 그들의 귀가를 초조하게 기다린다. 그러나 아이들이 들어오는 순간 안심한 어머

---

208) 새 둥지에서 알을 꺼내기

니들의 기쁨은 화를 통해 발산되고 굵어진 눈물은 아이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순간 사라진다. 아이들 역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발길을 재촉했다. 그들은 서두르고 있었지만 집에 도착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그들은 뺨을 맞고 난 후의 착잡한 포옹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 중 단 한 명만은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다. 그는 고아였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그 순간에 어머니가 없는 것이 다행스러운 프랑스 소년이었다. 아무도 그 소년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았으므로 때려줄 사람도 없을 것이었다. 다른 둘은 게른제의 소년이었으며 이곳 토르트발 교구에 살고 있었다.

세 명의 새둥지털이들은 가파른 절벽의 높은 언덕, 귀신들린 집이 있는 고원에 이르렀다.

그들은 이런 시간에 이런 곳을 지나는 모든 행인의 의무인, 특히 아주 어린 아이에게는 당연한 것인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 그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하고 싶기도 했고 그 집을 보기 위해 멈춰 서고 싶기도 했다.

그들은 멈춰서 집을 쳐다보았다. 집은 너무나도 어두웠고 무시무시했다. 황량한 고원의 한 가운데 있는 그것은 시커먼 하나의 덩어리요, 좌우가 대칭인 흉측스러운 혹이요, 직각으로 네모진 높다란 더미요, 암흑 속에 서 있는 거대한 제단과 같은 것이었다.

아이들의 머리에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도망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생각은 가까이 가보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토록 야심한 시각에 이렇게 보이는 집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들 중에는 어린 프랑스인이 끼어있었다. 프랑스인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들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위험 속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안심이 되는 것이고 셋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용기를 갖게 하는 일이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사냥꾼이다. 셋 모두가 서른 살의 어른이 아닌 어린 아이들이다. 아이들이란 언제나 탐색중이다. 땅을 파고 숨겨진 것들을 염탐한다. 중도에서 그만두기 위해서일까? 이쪽 굴에 머리를 디밀어 넣은 이상 어떻게 저쪽 굴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사냥 중에 유혹을 당한 사람이. 연쇄된 상황의 고리에 묶여 사냥감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새둥지를 들여다본 것이 귀신의 둥지도 조금쯤 보고 싶게 만들어 몸이 근질거린다. 지옥을 샅샅이 뒤진다. 못할 것도 없지 않은가?

이 사냥감에서 저 사냥감으로 쫓아다니던 중 귀신에게까지 이른다. 참새 다음에는 귀신이다. 우리의 부모가 갖게 해 준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하게 된다. 황당무계한 이야기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빙벽같이 미끄러운 언덕이 기다리고 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마음이 여편네들의 그것만큼이나 충동질한다.

게른제 소년들의 머리 속에서 혼란과 본능의 상태로 뒤죽박죽 된 여러 가지 생각의 결론은 무모함의 선택이었다. 그들은 집을 향해 걸어갔다.

게다가 이 무공의 중심이 되었던 소년은 그만한 자격이 있었다. 그는 과감한 소년, 칼파 견습공이자, 이미 남자가 된 아이들에 속하며, 헛간 짚더미 위의 작업대에서 자고, 밥벌이를 하는 소년이었다. 굵은 목소리를 내고 벽과 나무를 기꺼이 기어오를 줄 알고 군함을 수리하는 소년이었다. 정확한 곳은 모르지만 어쨌든 프랑스에서 태어난 우연의 아들이요, 요행의 아이, 명랑한 고아였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동전 한닢 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매우 고약한 데가 있지만 매우 착한 대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지닌 소년, 붉게 보일 정도의 금발에, 파리사람에게 말을 해 본 적이 있는 소년이었다. 그때는 레 페크리에 있는 배 수리 공장에서 생선장수들 배의 널빤지 틈을 메우는 일을 하고 하루에 1실링을 벌었다. 그리고 원할 때는 시간을 내서 새 둥지에서 알을 훔치러 가곤

했다. 이것이 바로 그 작은 프랑스인 이었다.

그곳의 적막함은 장례식에서 느끼는 것과 흡사한 점이 있었다. 거기에서는 위협적인 신성함이 느껴졌다. 그것은 섬뜩했다. 고요하고 헐벗은 이 고원은 바로 앞에서 경사지고 짐작하기 힘든 굴곡을 심연 속에 감추고 있었다. 그 아래로는 바다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바람 한 점 없었다. 풀의 어린 가지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어린 둥지털이들은 프랑스 소년을 선두로 하여 집을 쳐다보면서 천천히 걸어 나갔다. 잠시 후, 그들 중 한 명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 이 집에 대해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집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라는 말을 했다.

그들은 마치 맹수에게 다가가듯이 숨을 죽이고 다가가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통행하기 불가능한 바위의 협곡과 바다를 연결하는, 집 뒤의 가파른 길을 기어올랐다. 이제 집에 아주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나 완전히 막혀있는 남쪽 면만 보였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두 개의 창문이 있는 다른 쪽 면을 향해 있는 왼쪽으로는 감히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를 냈다. 견습공 칼파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좌현 쪽으로 돌려." 중요한 곳이 있는 데가 바로 그쪽이었다. 두 개의 검은 창문을 보아야 했다.

그들은 '좌현 쪽으로' 돌렸고 그 집의 다른 쪽에 이르렀다.

두 개의 창문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이들은 달아났다.

그들이 멀리 갔을 때 작은 프랑스인이 뒤를 돌아보았다. "저것 봐, 불빛이 없어졌어." 그가 말했다.

정말, 이제 창문에는 빛이 없어져 있었다. 납빛으로 창백한 하늘에 기계로 찍어낸 듯 집의 실루엣이 뚜렷이 드러났다.

두려움이 조금도 가시지 않았지만 호기심이 다시 꿈틀거렸다. 둥지털

이들은 다시 집으로 다가갔다.

갑자기, 두 개의 창문에서 동시에 빛이 다시 새어 나왔다.

토르트발의 두 녀석은 부리나케 도망쳐 달아났다. 프랑스인 작은 사탄은 앞으로 나가지도 뒤로 물러나지도 못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집과 마주하고 그것을 쳐다보며 서있었다.

불이 꺼졌다. 그리고 또 다시 켜졌다. 이보다 더 끔찍할 수는 없었다. 밤의 수증기로 축축한 풀 위에 반사광이 희미한 빛의 물결을 만들고 있었다. 어떤 한순간, 섬광이 집의 내벽 위에 움직이는 검고 커다란 윤곽과 거대한 머리들의 그림자를 그렸다.

게다가 집은 천장도 칸막이도 없고 네면의 벽과 지붕만 있을 뿐이었으므로 나머지 하나의 창문을 검게 놓아 둔 채로 하나의 창문에만 빛을 비출 수는 없었다.

칼파 견습공이 굳은 채 서있는 것을 본 나머지 두 둥지털이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명 한 명, 벌벌 떨며 호기심에 들떠 돌아왔다. 칼파 견습공이 그들에게 아주 작게 말했다. "집 안에 귀신들이 있어. 한 놈의 코를 봤는걸." 토르트발의 두 소년은 프랑스 소년 뒤에 몸을 바싹 붙이고 숨어, 까치발로 서서, 그의 어깨너머로, 그의 보호를 받으며, 그를 방패삼아 붙잡고, 그들과 귀신 사이에 그를 느끼는 것에 안심하며, 역시 지켜보고 있었다.

집 쪽에서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집은 광활하고 적막한 어둠 속에 붉은 두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두 개의 창문이었다. 빛이 사라졌다가 다시 켜지고 또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이 불길한 단절은 귀신이 지옥으로 오가는 것 때문인 듯했다. 열렸다가는 다시 닫힌다. 무덤의 문은 마음대로 불을 가릴 수 있는 칸델라의 효과를 낸다.

갑자기 사람의 형태를 띤 매우 짙은 검은 점이 마치 밖에서 들어오기라도 한 것처럼 창문 중 하나에 우뚝 솟았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박혔

다. 누군가가 막 들어온 것 같았다. 십자형 창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령들의 습성이었다.

한순간 빛이 더 강렬했다. 그리고 나서 꺼지고 다시는 또 나타나지 않았다. 집은 다시 깜깜해졌다. 그 때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했다. 언제나 이렇다. 눈이 무엇을 볼 때 소리는 잘 들리지 않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을 때는 소리가 잘 들리는 법이다.

바다의 밤은 특히 말이 없다. 어둠의 침묵은 다른 곳에서보다 거기서 더욱 깊다. 보통은 독수리가 나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 수선스런 영역에서 바람도 파도도 없을 때면 파리의 날개짓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이 무덤 속 같은 고요함은 집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를 음산하게 부각시켰다.

"한 번 보자." 작은 프랑스인이 말했다. 그리고 집으로 한 발자국 다가갔다. 나머지 둘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그를 따라가기로 했다. 그들은 이제 감히 혼자 도망칠 수도 없었다.

왠지 모르게 그들을 안심시켜 주는 나뭇단 더미를 막 지나쳤을 때 올빼미 한 마리가 관목 숲에서 날아올랐다. 그것이 나뭇가지를 바스락거리게 했다. 올빼미들은 불안한 각도로, 말하자면 사시(斜視)처럼 날아다닌다. 새는 어둠 속에 선명한 둥근 두 눈으로 아이들을 주시하면서 비스듬히 그들 곁을 지나갔다. 어린 프랑스인 뒤의 그룹에는 상당한 동요가 있었다. 그는 불쑥 올빼미에게 말했다.

"이놈아, 너 너무 늦었구나. 시간이 없어. 봐야 한다고." 그리고 그는 앞장섰다.

가시양골담초에 징을 박은 그가 신은 커다란 신의 삐거덕 소리도 집에서 흘러나오는 계속되는 대화와 조용한 악센트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목소리를 가리지는 못했다.

잠시 후 그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귀신이 있다고 믿는 것은 멍청이들

뿐이야."

위험에 처했을 때의 오만함은 낙오자들을 결집시키고 그들을 앞으로 이끈다.

토르트발의 두 소년은 칼파 견습공과 발을 맞추어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귀신들린 집은 엄청나게 크다는 인상을 주었다. 공포로 인한 착시현상에는 현실이 있었다. 그들이 집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므로 그것은 실제로 커지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집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점점 더 분명하게 부각되고 있었다. 아이들은 귀를 기울였다. 귀도 점점 예민해졌다. 그것은 중얼거리는 소리와는 달랐고 속삭이는 소리보다 컸으며 웅성웅성 대는 소리보다는 작았다. 때때로 분명하게 발음된 한두 마디가 귀에 들어왔다. 이해하기 불가능한 이 말들은 기괴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멈춰 서서 귀를 기울이고 다시 걷기 시작하기를 반복했다.

"저게 귀신들의 대화야." 칼파 견습공이 말했다. "그렇지만 난 귀신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 걸."

토르트발의 소년들은 나뭇단 더미 뒤에 몸을 숨기고 싶었다. 그러나 그들은 벌써 거기서 많이 지나왔고 그들의 친구 칼파는 그 집을 향해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칼파와 함께 가는 것이 무서웠지만 그렇다고 그를 떠날 수도 없는 일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그를 따랐다.

칼파 견습공은 그들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겠지? 유령 같은 건 없어."

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다가가고 있었다.

다가갈수록 집안에는 꺼진 불과 같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그것은 마녀들의 축제에 흔히 있는 매우 희미한 섬광, 방금 말했던 칸델라의 효과와도 같은 것이었다.

아주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잠시 쉬었다.

토르트발의 소년 중 하나가 자신이 관찰한 것을 용기 내어 말했다. "귀신이 아니잖아.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야."

"한쪽 창문에 걸려 있는 게 뭐지?" 또 한 소년이 말했다.

"밧줄 같은데."

"뱀이야."

"저건 교수형 밧줄인데. 프랑스인이 확신을 갖고 말했다. 저것을 쓰다니. 믿을 수 없는걸."

그리고 세 발자국이라기보다 세 번 껑충껑충 뛰어서 집의 담벼락 밑으로 갔다. 이러한 대담성에는 흥분이 있었다.

다른 두 명은 벌벌 떨면서 그를 따라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바싹 달라붙었다. 아이들은 귀를 벽에 갖다 댔다. 집안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것이 유령들이 나눈 말이다[209].

"자, 알겠소?"

"알겠소."

"확실하지요?"

"확실해요."

"한 사람이 여기서 기다렸다가 블라스키토와 함께 영국으로 갈 수 있을 거란 말이오?"

---

209) 위고의 원작에 유령들의 대화는 스페인어로 되어 있음

"돈만 내면?"

"돈만 내면."

"블라스키토가 그 사람을 배에 태울 거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지 않고 말이오?"

"그런 것은 관심 없어요."

"이름도 묻지 않고 말이오?"

"이름 같은 것은 묻지 않지요. 우리는 돈주머니를 달아 볼 뿐이랍니다."

"좋소. 이 집에서 기다릴 거요."

"먹을 것이 필요할 텐데."

"여기 있소."

"어디요?"

"내가 가져온 가방 속에."

"좋아요."

"여기에 이 가방 좀 놓아도 되겠지요?"

"밀수업자들은 도둑은 아니올시다."

"그런데 당신들은 언제 떠나시오?"

"내일 아침. 당신이 말한 그 사람도 준비가 다 됐으면 우리와 갈 수 있을 텐데요."

"준비가 덜 됐소."

"그럼 그가 알아서 하겠지요."

"이 집에서 며칠이나 기다려야 하지요?"

"이틀, 사흘, 나흘. 길어질 수도 짧아질 수도 있어요."

"블라스키토가 오는 것은 확실하겠지요?"

"물론."

"이곳, 플랭몽으로 말이요?"

"플랭몽으로."

"언제지요?"

"다음 주요."

"요일은?"

"금요일,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실수할 리 없겠지요?"

"그는 나와 수호신이 같은 사람입니다."

"날씨가 나빠도 온다고 했지요?"

"날씨가 나빠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지요. 나는 블라스코, 그는 블라스키토란 말이오."

"좋소. 게른제에 오는 것을 그가 잊지는 않겠지요?"

"내가 이번 달에 왔으니 다음 달엔 그가 오지요."

"알겠소."

"다음 주 토요일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일주일 후, 블라스키토가 5일 안에 올 것이오."

"하지만 바다가 너무 험하면?"

"날씨가 안 좋으면?"

"조금 늦어지기는 하겠지만 블라스키토는 꼭 올 거요."

"어디에서 오지요?"

"빌바도에서."

"어디로 가지요?"

"포틀랜드까지."

"잘 됐군."

"아니면 토르 베이까지."

"그럼 더 좋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블라스키토가 배신하지는 않겠지요?"

"겁쟁이들이나 배신을 하지. 우리는 용감한 사람이오. 바다는 겨울의 교회라오. 배반은 지옥의 교회이고 말이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아무도 못 들었겠지?"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공포가 이곳을 사막으로 만드니까요."

"알겠소."

"게다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 해도 이해하지는 못 할 거요. 이곳에서는 아무도 쓰지 않는 낯선 말을 쓰고 있으니 말이오. 당신이 아는 것은 우리 편이기 때문이지요."

"나는 당신과 약속을 하러 왔소."

"알아요."

"이제 난 가보겠소."

"좋아요."

"그런데 승객이 원하면 블라스키토가 포틀랜드나 토어 만이 아닌 다른 곳에도 가나요?"

"돈만 있으면."

"블라스키토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겠지요?"

"블라스키토는 돈이 원하는 것을 하지요."

"토르 배이로 가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오?"

"그것은 바람에 달려 있지요."

"여덟 시간?"

"많이 걸릴 수도 덜 걸릴 수도 있어요."

"블라스키토는 승객의 말을 잘 듣나요?"

"바다만 블라스키토의 말을 잘 들어준다면요."

"틀림없이 돈은 낼 거요."

"돈은 돈, 바람은 바람이지요."

"그렇긴 하지."

"돈을 가진 사람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요. 바람을 가진 하느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지요."

"블라스키토와 떠날 사람은 금요일에 여기로 올 것이오."

"좋아요."

"블라스키토는 몇 시에 오지요?"

"자정에요. 자정에 도착해서 자정에 떠날 거요. 우리에게는 '바다' 라는 아내가 있고 '밤' 이라는 누이가 있답니다. 아내는 가끔 거짓말을 하지만 누이는 결코 그러는 법이 없다오."

"약속대로 하겠소. 잘 가시오."

"잘 가시오. 브랜디 한 잔?"

"고맙소."

"시럽보다 이게 낫지요."

"약속은 꼭 지키시오."

" '명예를 걸고' 가 내 이름이랍니다."

"잘 가시오."

"당신은 귀족이고 나는 기사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악마뿐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이번에는 정말로 도망쳤다. 귀신이라고 드디어 확신한 어린 프랑스인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빨리 뛰었다.

이 토요일을 보내고 화요일에 시외르 클뤼뱅은 뒤랑드를 몰고 생 말로

로 돌아갔다.

*티몰리파스*는 아직도 정박 중이었다.

파이프 담배를 피우면서 시외르 클뤼뱅은 오베르쥬 장의 안주인에게 물었다.

"그런데 저 *티몰리파스*는 대체 언제 떠나지요?"

"내일모레 목요일에요." 안주인이 대답했다.

그날 저녁 클뤼뱅은 해안 경비대의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그의 습관과는 달리 저녁식사 후 외출 했다. 그 바람에 뒤랑드의 사무실을 지킬 수 없었으며 대부분의 짐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너무나 정확한 사람이었던 만큼 이 일은 더욱 눈에 띄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친구인 환전상과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다.

그는 노게트[210]가 소등시간을 알리고 난 후 두 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왔다. 브라질의 종은 10시에 울린다. 그러니까 자정에 돌아온 것이었다.

〈6〉
라 쟈크레사르드

40년 전 생 말로에는 쿠탕셰 골목이라는 작은 골목이 하나 있었다. 그 골목은 환경 미화 대상에 속했으므로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거리라고 불렀던 것은 서로를 향해 기울어진 두 열로 늘어선 판자 집 사이로 난 개천이었다. 사람들은 개천의 양쪽으로 두 다리를 크게 벌리고 머리나 팔꿈치를 오른쪽과 왼쪽 집에 부딪치면서 걸어 다니곤

---

210) 생 말로에 있는 종, 뒤개 트루앵 장군이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가져온 것임

했다. 중세 노르망디의 이 낡은 가건물들은 거의 사람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마녀의 얼굴과도 비슷하다. 움푹 내려앉은 층들, 위쪽이 앞으로 돌출한 모습, 휘어진 지붕, 입술, 턱, 코, 눈썹인양 얽혀 있는 고철 덤불. 천창은 애꾸눈이다. 뺨은 주름지고 옴이 오른 벽이다. 마치 음모를 꾸미기라도 하듯 이마를 맞대고들 있다. 쿠프 고르쥬, 쿠프 트로뉴, 쿠프 괼르[211], 이 구조물에는 낡은 문명의 모든 단어들이 연루되어 있다.

쿠탕셰 골목의 집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유명한, 아니 가장 평판이 나쁜 집의 이름은 쟈크레사르드였다. 쟈크레사르드는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숙소였다. 모든 도시에는 특히 바닷가 항구 도시에는 그곳의 주민이 될 수 없는 여분의 존재가 있게 마련이다. 법조차 그들 중 한 명도 쫓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무법자, 떠돌이 도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냥꾼, 사기꾼들. 그들에게는 인간의 지성이 오히려 야만적인 것이다. 그들은 영혼의 허섭쓰레기더미이다. 한구석에 모여 가끔씩 경찰의 검문이라는 비질에 쓸려 간다. 생 말로의 쟈크레사르드는 바로 그런 구석이었다.

이러한 소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중죄나 강도, 살인범 등의 무지와 빈곤의 끔찍한 소산은 아니다. 만일 거기에서 살인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난폭한 술주정뱅이의 소행이다. 도둑질이라 해도 소매치기 정도를 능가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사회의 구토물이라기보다 그 침이라고 할 수 있다. 건달이지 산적은 아니다. 그러나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보헤미안들의 결말은 극악함과 통할 수도 있다. 생 말로의 쟈크레사르드나 파리의 에피시에 같은 곳에 일단 그물을 던지면 경찰은 라스내르[212]를 잡을

---

211) 자객, 강도 따위가 출몰하는 험악한 장소를 일컫는 단어들
212) 19세기의 악명높은 살인자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소굴은 모든 존재를 허락한다. 사회적 기준에서의 몰락은 계급의 타파이다. 때로는 영락(零落)한 정직성이 그곳에서 안식처를 찾기도 한다. 덕과 양심이 모험을 하는 일도 흔했다. 단번에 루브르를 존경할 필요도 감옥을 멸시할 필요도 없다.

전체적인 비난과 마찬가지로 대중적인 존경도 샅샅이 검토되기를 원한다. 거기에는 뜻밖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 창가(娼家)의 천사, 퇴비 속의 진주와 같이 햇빛을 못 받고 있는 의외의 눈부신 발견물이 있을 수도 있다.

쟈크레사르드는 집이라기보다 안뜰이었으며 안뜰이라기보다 우물이었다. 그것은 단층 건물로서 정면은 낮은 문이 뚫려 있는 높은 벽으로 되어있었다. 걸쇠를 들어올리고 문을 열면 안뜰이었다.

이 안뜰의 중앙에 둥근 구덩이가 지면과 같은 높이의 돌 테두리로 둘러쳐 있었다. 그것은 우물이었다. 뜰은 작았고 우물은 컸다. 여기저기 파헤쳐진 포석이 우물둘레의 돌을 에워싸고 있었다.

사각의 뜰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길 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정면에는 문이, 오른쪽과 왼쪽으로는 숙소가 있었다.

땅거미가 내려앉은 후 위험을 각오하고 그곳에 들어가면 엉켜진 숨소리 같은 것을 듣게 되며, 그 어두운 윤곽들에 형태를 부여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달과 별이 떠 있을 때는 바로 그것들을 볼 수 있다.

뜰. 우물. 문을 마주한 뜰의 둘레에는 각 진 말의 편자 모양을 한 헛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열린, 일정치 않은 간격의 돌기둥이 떠받친 천장 들보가 있는 헐어빠진 회랑, 가운데에는 우물, 우물의 둘레에는 짚더미 위에 둥글게 꿰어 놓은 묵주처럼 이어진 신발의 목들, 뒤꿈치가 망그러진 구두의 밑창, 신발에 난 구멍으로 삐져나온 발가락들, 수많은 벗은 발뒤꿈치,

남자의 발, 여자의 발, 아이들의 발. 이 모든 발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

이들 발의 저편에는 헛간의 으슴푸레한 빛 속에 박혀 있는 눈이 몸통, 형체, 졸고 있는 머리, 기력 없는 늘어짐, 두 가지 성(性)의 누더기, 빈곤 속의 잡거 등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인간의 끔찍한 광맥을 분간하고 있었다. 이 침실은 모두의 것이었다. 그들은 한 주당 2수를 지불했다. 발들이 우물에 닿아 있었다. 폭풍우가 치는 밤에는 그들의 발 위로 비가 내리고, 겨울밤에는 그들의 몸뚱이 위로 눈이 내리곤 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이름 없는 이들. 그들은 저녁이 되면 이곳에 와서 아침이 되면 떠났다. 사회질서는 이 보잘것없는 인간들로 인해 복잡해진다. 어떤 이들은 돈도 내지 않고 하룻밤을 위해 슬그머니 들어온다. 대부분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온갖 악, 온갖 비천함, 온갖 오염, 온갖 괴로움, 똑같은 진흙 침대 위를 짓누르는 똑같은 잠. 이 모든 사람들의 꿈은 좋은 옆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다. 장례식을 떠올리는 이 음울한 만남의 장소에서 피로, 쇠잔, 깨어나는 취기, 빵 한 조각도 없이 마땅한 생각도 없이 걷고 또 걷기, 감긴 눈꺼풀의 창백함, 회한, 갈망, 쓰레기가 뒤섞인 머리카락, 죽은 시선의 얼굴, 어둠의 입술로부터의 입맞춤 등이 똑같은 악취 속에서 움직여 뒤섞이고 있었다. 이 큰 술통 속에서 인간의 발효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들은 숙명에 의해서, 여행에 의해서, 전날 배의 도착에 의해서, 출감에 의해서, 우연에 의해서, 밤에 의해서 이 간이숙소에 던져졌다. 운명은 매일 이곳에 그 빗물받이를 비웠다. 원하면 들어갔고 가능하면 잠을 잤으며 감행할 수 있으면 말을 했다. 이곳은 밀담의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둘러 뒤섞였다.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잠을 잠으로써 모든 것을 잊으려고 애썼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죽음을 택했다. 매일 저녁 다시 시작되는 뒤죽박죽된 임종의 고통 속에서 두 눈을 감곤 했다. 그들은 어디에서 남아돌던 사람들일까?

가난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물거품처럼 파도에 밀려 난 것이었다.

이불을 삼을 지푸라기조차도 넉넉지 않았다. 맨 살을 드러낸 육신이 맨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기진맥진해서 잠이 들었고 아침에는 관절이 뻣뻣이 굳은 채로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다. 난간도 덮개도 없이 언제나 큰 입을 벌리고 있는 우물은 깊이가 30피트나 되었다. 비가 그 속으로 떨어져 내리고 오물이 스며들고 뜰에서 나오는 찌꺼기들은 모두 그 속으로 흘러들었다. 물을 긷는 두레박이 옆에 있었다. 목마른 사람은 거기서 물을 마셨다. 삶에 지친 사람은 거기에 빠져 죽었다. 사람들은 퇴비 속의 잠으로부터 우물 속의 잠으로 슬쩍 미끄러져 들어갔던 것이다. 1819년에는 열네 살짜리 아이의 시신을 그 속에서 꺼낸 일도 있었다.

이 집에서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소속' 이 되어야만 했다. 바깥세상의 보통 인간은 이곳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다. 그들은 냄새로 서로를 알아 볼 뿐이었다.

이 숙소의 안주인은 젊고 꽤 예뻤으며 리본 달린 모자를 쓰고 가끔씩 우물물을 떠 씻기도 했으며 한쪽다리는 나무 의족을 하고 있었다.

새벽부터 뜰은 비기 시작했다. 단골손님들은 거기서 사라져 버렸다.

뜰에는 온종일 퇴비를 쪼아대는 한 마리의 수탉과 여러 마리의 암탉이 있었다. 뜰을 가로 질러 수평의 들보가 기둥을 관통하고 있었는데 그 교수대를 닮은 모양은 이곳에서는 전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다. 비가 내린 저녁의 다음 날이면 나무 의족 여인의 진흙으로 더럽혀진 젖은 실크 드레스가 이 들보 위에 널려 있곤 했다.

헛간 위에, 역시 헛간처럼 뜰을 둘러싼 2층 방이 있었으며 2층 위에는 다락방이 있었다. 헛간의 천장을 뚫고 지나가는 썩은 나무 계단은 높은 곳까지 이어져 있었다. 계단의 한단 한단은 비틀거리는 안주인이 애써 오를 때면 요란스럽게 흔들거리곤 했다.

일주 혹은 하루 밤 묵을 사람들은 뜰에서 머물렀으며 고정 손님들은 집 안쪽에서 머물렀다.

유리 없는 창문들, 문 없는 문틀들, 화덕 없는 벽난로, 그것이 집이었다. 사람들은 이방 저방 가리지 않고 한때는 문이었던 기다랗고 네모진 구멍으로 혹은 칸막이 들보의 중앙부에 있는 세모로 뚫린 공간으로 지나다녔다. 회반죽 부스러기가 바닥을 뒤덮고 있었다. 그들은 집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지 못했다. 바람이 집을 휘저었다. 그들은 닳아빠진 계단의 미끄러운 한단 한단을 있는 힘을 다해 올라가곤 했다. 곳곳에 틈이 벌어져 있었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 듯이 겨울이 집으로 스며들었다. 거미가 많다는 이유로 건물이 금세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다. 가구도 전혀 없었다. 구석에서 옆구리를 벌리고 짚보다 재를 더 많이 드러내 보이는 두세 개의 짚 매트. 여기저기에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단지 하나와 냄비 하나. 끈끈하고도 역한 냄새.

창에서 사람들은 뜰을 내다보았다. 그 광경은 진흙투성이 쓰레기수레의 겉모습과 닮아 있었다. 사람 이외에도 거기에서 썩어 가고, 녹이 슬고, 곰팡이가 피고 있었던 사물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여러 종류의 파편이 형제처럼 지내고 있었다. 그곳으로 벽이 떨어졌으며 그곳으로 인간이 떨어졌다. 넝마가 부서진 잔재들을 파종하고 있었다.

뜰에 격리된 떠돌이 손님 이외에 쟈크레사르드에는 석탄상인, 넝마주이, 연금술사의 세 하숙생이 있었다. 석탄상인과 넝마주이는 1층의 매트 중 둘을 차지했다. 연금술사, 즉 약사는 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락방이라고 부르곤 했던 지붕 밑 방에서 머물고 있었다. 사람들은 주인여자가 어느 구석에서 잠을 자는지 알지 못했다. 연금술사는 다소 시인 같은 데가 있었다. 그는 지붕에, 기와 아래,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좁은 천창과 커다란 돌 굴뚝이 있는 방에서 살고 있었다. 천창에는 틀이 없었으므로

그는 폐선(廢船)에서 주워온 얇은 판 조각을 못 박아 놓았다. 이 철판은 햇빛을 막았으므로 매우 추웠다. 석탄상인은 이따금씩 집세를 석탄 자루로 대신 지불했고 넝마주이는 한 주마다 암탉의 모이를 1스티에[213]씩 지불했으나 연금술사는 집세를 내지 않았다. 심지어 집을 태운 일도 있었다. 그는 소목 일로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벌었으며 그의 냄비를 데우기 위해 벽이나 지붕에서 얇은 판자를 뜯어내곤 했다. 넝마주이의 초라한 침대 위 칸막이에는 백묵으로 표시된 두 개의 숫자가 적힌 막대 기둥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넝마주이가 한주 한주 그려놓은 것이었다. 닭의 모이 1스티에가 3리아르[214]인가 5상팀인가에 따라 3의 기둥과 5의 기둥으로 표시한 것이다. 연금술사가 재료들을 섞는 데 사용하는 도구는 그의 덕에 냄비로 승격한 낡고 부서진 폭탄 껍질이었다. 그는 금속을 금으로 변환시키는데 온통 골몰해 있었다. 가끔 그는 뜰에서 부랑자들에게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으며 부랑자들은 그의 이야기를 일소에 붙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어." 그는 화금석을 과학의 유리에 던지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그의 화덕은 많은 장작을 먹어치웠다. 계단의 난간은 그 속으로 사라졌다. 집 전체가 차츰차츰 그 속으로 들어갔다. 여주인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내게 껍질만 남겨 놓겠군요." 그는 그녀에게 시를 지어 주어서 화를 누그러뜨리곤 했다.

이것이 쟈크레사르드였다.

하인이 한명 있었다. 그는 갑상선 증에 걸린 아이었다. 아니면 난쟁이가 틀림없었으며 열두 살에서 예순 살 쯤 되어 보였고, 한 손에 비를 들고

---

213) 밀을 다는 옛날의 용량단위

214) 수의 4분의1

다녔다.

단골손님들은 뜰에 있는 문으로 들어왔으며 일반 사람들은 부티크로 들어왔다.

어떤 부티크 였을까?

거리를 마주 보고 있는 높은 벽에는 정원으로 통하는 출입구의 오른쪽에 문과 창문을 동시에 겸하는 직각으로 뚫린 창구(窓口)가 있었다. 여기에는 덧문과 틀이 있는, 그것도 이 집 전체에서 유일하게 경첩과 빗장이 있는 덧문과 유리가 끼워진 유일한 틀이 달린 창구였다. 거리를 향한 이 전면의 안쪽에는 공동침실로 사용하는 헛간에 칸막이를 쳐 만든 작은 방이 하나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호기심을 해결합니다' 라고 문의 바깥 쪽 벽에 검은 글씨로 새겨진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이 호기심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도 사용되었다). 유리 진열창에 기대놓은 3단 진열장 위에 손잡이 없는 도자기 항아리 몇 점과 여기저기 찢어져 펼치거나 접기가 불가능한 금박 장식을 한 중국양산 하나, 원래의 형태를 알 수 없는 쇠붙이나 도기 조각들, 찌그러진 남자와 여자용 모자들, 서너 개의 전복 껍질, 동물의 뼈와 구리로 만든 옛날 단추 꾸러미 몇 개, 마리 앙투아네트의 초상화가 그려진 코담배 한 갑, 부와베르트랑의 짝을 잃은 *대수학* 한 권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것이 부티크였다. 진열된 여러 가지 물건이 '호기심' 이었다. 부티크는 뒷문을 통해서 우물이 있는 뜰과 연결되어 있었다. 부티크에는 테이블 하나와 나무걸상 하나가 있었으며 부티크를 지키는 여자는 나무 의족을 한 그 여자였다.

밤의 구매자와 알 수 없는 판매자

클뤼뱅은 화요일 저녁 내내 오베르쥬 장에 없었다. 수요일 저녁에도 그랬다.

그 날 저녁 해질 무렵에 두 남자가 쿠탕셰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쟈크레사르드 앞에서 멈추었다. 그 중 한 명이 부티크의 창을 두드렸다. 부티크의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갔다. 나무 의족의 여자가 그들에게 부르주아에게 예약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양초 하나가 놓여있었다.

실제로 이들 두 남자는 부르주아였다.

문을 두드렸던 남자가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부인. 찾는 것이 있어 왔습니다."

나무 의족의 여자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우물이 있는 뜰로 난 뒷문을 열고 나갔다. 잠시 후 뒷문 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방긋이 열린 문틈으로 한 남자가 나타났다. 이 남자는 모자를 쓰고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며 작업복 안에서 어떤 물체가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그 남자는 작업복 안에 작은 짚 뭉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방금 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시선을 하고 있었다.

그가 다가왔다. 그들은 서로를 보고 있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교활해 보였다. 그가 말했다. "당신이 무기상인가요?"

창을 두드린 사람이 대답했다. "그렇소. 당신이 파리 사람인가요?"

"네. 포 루쥬[215]라고 하지요."

---

215) '붉은 피부' 라는 뜻

"봅시다."

"여기요."

남자는 작업복 밑에서 그 시절 유럽에서는 구하기 매우 어려운 무기, 연발 권총을 꺼냈다.

이 연발 권총은 새것이었으며 번쩍번쩍 빛이 났다. 두 부르주아는 그것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이 집을 아는 듯한, 작업복의 남자가 '무기상'이라고 부른 남자가 기계의 구조를 조작해 보았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이 도시 사람인 것 같지 않은, 불빛을 등지고 있는 또 한 남자에게 물건을 건네주었다.

무기상이 말을 이었다.

"얼마요?"

작업복의 남자가 대답했다.

"방금 아메리카에서 가져 왔어요. 원숭이, 앵무새 등, 짐승들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프랑스인들이 마치 원시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난 그걸 가져왔죠. 쓸모 있는 물건이잖아요."

"얼마요?" 무기상이 다시 물었다.

"회전 봉이 돌아가는 권총입죠."

"얼마요?"

"빵! 첫 번째 발사. 빵! 두 번째 발사. 빵!… 빗발치는 총탄이란 말이죠! 굉장한 일을 한답니다."

"얼마요?"

"여섯 발짜리예요."

"그래서, 얼마요?"

"탄환 여섯 발짜리는 6루이[216]예요."

"5루이면 어떻소?"

"안 돼요. 한 발에 1루이씩이니까요. 그게 제 가격이에요."

"타협을 했으면 하는데. 적당한 가격으로 말이오."

"받을 만큼만 불렀어요. 자, 보세요. 무기상 나으리."

"알고 있소."

"회전 봉이 무슈 타이예랑[217]처럼 돌지요. 이 회전 봉을 *지루에트 사전*[218]에 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보물이라구요."

"보았소."

"총신으로 말하자면 스페인의 대장간에서 만든 것입죠."

"알고 있소."

"이건 강선포(腔線砲)랍니다. 제가 그 띠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고철로 된 군인의 구두를 대장간에 버리는데 거기서 많은 고철과 장군의 낡은 구두 징, 찌그러진 말편자 등을 얻지요."

"낡은 낫의 얇은 판도 있지."

"저도 그걸 말하려 했답니다, 무기상 나으리. 이 고물을 전부 용광로 속에 쳐 넣으면 훌륭한 쇠가 되지요."

"그래요. 하지만 균열이나 구멍 등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지요."

"물론입니다요. 하지만 세게 두들겨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막듯이 작은 열장장부로 결함을 고치기도 합니다. 커다란 해머로 재료 쇠들을 압연하고 용광로에 두 번 더 넣습니다. 쇠가 과열되면 뜨거운 열과 가벼운 망치질로 온도를 맞추지요. 그리고 쇠를 잡아 늘여서 잘 굴리면, 그 쇠를 가지고, 세상에나! 여기 이 총신을 만들지요!'

---

216) 루이, 1928년까지 쓰인 20프랑 금화

217) 프랑스 정치가, 대혁명으로부터 루이 필립의 6월 왕정에 이르는 변혁기에 정치적 존속을 위해 변절한 인물

218) 1815, 왕정복고 시대에 유명한 작품, 대혁명 이래로 정치인들의 모든 변절을 기록하고 있음

"그렇다면 당신이 그 일을 직접 했다는 말이오?"

"제가 그 일의 전문가랍니다."

"포신에 옅게 색을 들였군."

"아름답지요, 무기상 나으리. 그 색은 안티몬 버터에서 얻는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5루이에 사겠다는 거요."

"실례지만 제가 6루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는지요."

무기상은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보시오, 파리 청년. 기회를 이용할 줄 알아야지. 물건을 처분하시오. 그런 무기라면 당신에게는 아무 쓸모없지 않소. 사람의 주목을 끌뿐이지 않느냐 말이오."

"그건 그렇지요." 파리 사람이 말했다. "이런 물건은 좀 눈에 띄긴 하지요. 부르주아에게 더 잘 어울리는 물건이랍니다."

"5루이로 하겠소?"

"아니요. 구멍 당 금화 하나예요."

"그럼 좋소, 6나폴레옹이면 어떻소."

"6루이입니다."

"그럼 당신은 보나파르티스트가 아니군? 나폴레옹보다 루이를 더 좋아하니 말이오!"

파리 사람, 포루쥬가 웃으며 말했다.

"나폴레옹도 괜찮지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루이가 최고니까요."

"6나폴레옹."

"6루이. 저로서는 24프랑이나 차이가 나지요."

"그렇다면 거래는 없던 걸로 하겠소."

"그러시죠. 난 장식품으로 보관할 테니."

"그러시오."

"값을 깎다니! 천만에! 나는 대단한 물건을 그렇게 처분할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럼, 잘 계시오."

"이건 인디언 체사피크 족도 노르타이유하라고 부르는, 권총에 있어서는 한 단계 진보란 말이에요."

"현금으로 5루이 정도면 비싼 금액이란 말이오."

"노르타이유하는 짧은 총이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죠."

"그러면 5루이에 추가로 에퀴[219] 하나면 어떻소."

"부르주아 나으리, 저는 6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촛불을 등지고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있던 남자는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총을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었다. 그는 무기상의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물건은 좋은 거요?"

"최상급입죠."

"6루이를 주겠소."

5분 후, 포 루쥬라는 파리 사람이 그의 작업복 겨드랑이 밑 비밀스런 틈 안에서 방금 받은 금화 6루이를 움켜쥐는 동안 무기상과 연발권총을 산 사람은 바지 주머니에 그것을 넣고 쿠탕세 골목을 빠져 나오고 있었다.

---

219) 5프랑 짜리 금화

⟨8⟩

연쇄충돌

다음날 그러니까 목요일, 생 말로에서 약간 떨어진 데콜레 갑 근처, 절벽이 높이 솟아 있고 바다가 깊은 곳에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

창날 모양의 땅 끝바위는 좁은 지협에 의해 육지와 연결된 바닷물에 길게 늘어져 있다가 수직으로 선 커다란 암초에 의해 갑자기 잘려 버린다. 바다의 조형물에서는 흔하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해변을 떠나 수직으로 선 바위의 꼭대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 군데의 경사가 매우 급해지기도 하는 사면을 따라가야 한다.

오후 4시경 큰 제복 망토를 두르고 분명히 무기를 들고 있는 한 남자가 서 있었던 곳은 바로 이런 유의 꼭대기 위였다. 그가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은 그의 망토가 약간 불룩 솟아 있고 각이 잡혀 있는 것으로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남자가 서 있었던 정상은 터무니없이 큰 포석 같이 네모진 커다란 암석들이 좁은 통로를 이루면서 산재해 있는 꽤 넓은 평지였다. 짧고 무성한 어린 풀이 자라는 이 평지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이르는 빈 공간으로 바다를 향하여 끝을 맺고 있었다. 해수면으로부터 60여 피트 정도 높은 이 절벽은 연추(鉛錘)로 재단한 듯했다. 그러나 그 왼쪽 모서리가 부서져 거인의 한 걸음이나 어릿광대의 날렵한 움직임을 연상케 하는 화강암 절벽 특유의 자연 계단을 이루고 있었다. 이 암벽은 바다까지 수직으로 달음질쳐 그 속으로 처박혀 있었다. 이것은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카스쿠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곳, 바로 그 절벽 아래까지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었다.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망토 속에서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괴고 의연하게 버티고 서 있는 남자는 한쪽 눈을 지그시 감고 한쪽 눈은

망원경에 대고 있었다. 신중하게 살펴보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다. 그는 벼랑의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다가가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수평선 쪽으로 침착하게 시선을 고정시킨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만조였다. 그의 아래에서는 파도가 절벽의 밑동을 때리고 있었다.

이 남자가 살펴보고 있었던 대상은 수상쩍게 행동하고 있는 난바다의 배 한 척이었다.

그 배는 거의 한 시간 전에 생 말로 항을 떠나 방크티를 지나 멈춰 있었다. 삼각 돛배였다. 닻을 내리지 않고 단지 돛을 조정하여 배를 세우고 있었다. 배가 선수의 물결을 헤치는 부분 밑에 닻을 묶어 두고 있기 때문인 모양이었다.

제복 망토를 보아 알 수 있듯이 해안 경비병이었던 그 남자는 삼각 돛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기억 속에 새겨 두고 있는 듯했다. 배는 돛을 내리지 않고 때로는 바람을 받거나 때로는 바람을 등지면서 멈춰 있었다. 이것은 장루 돛대의 작은 사각 돛이 바람을 정면으로 받고 있으며 바람이 큰 사각 돛에 남아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뒷돛대를 묶고 후장(後檣)의 셋째 돛대의 돛이 바람을 잘 받도록 바람 부는 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돛이 서로를 방해하게 만들고 뱃머리를 바람 부는 방향으로 돌리지 않음으로써 표류하는 것을 막는 방식이었다. 배는 바람에 많이 노출되는 것을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었다. 용골에 직각이 될 정도만 장루의 작은 사각 돛을 돌렸기 때문이었다. 배의 측면이 바람을 받는 이러한 방식으로라면 한 시간에 약 2킬로미터 정도밖에는 표류하지 않았다.

특히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절벽의 꼭대기에서는 아직도 대낮이었다. 그 아래 쪽 해안의 저지대는 어두워지고 있었다.

해안 경비병은 자신의 임무에 열중하여 먼 바다를 성실히 정탐하느라 그의 바로 곁, 발아래 있는 바위를 살펴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는 절벽

의 꼭대기와 바다를 이어 주는 거의 통행이 불가능한 계단에서 등을 돌렸다. 거기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 계단에, 바위의 굴곡 뒤에, 필경 해안 경비병보다 먼저 와 숨어있는 한 남자가 있었던 것이다. 이따금씩 그림자에 가려진 바위 밑의 머리 하나가 위쪽을 주시하며 감시병을 주시하고 있었다. 커다란 아메리카 모자를 쓴 이 머리는 열흘쯤 전에 프티 만의 바위에서 쥐엘라 선장과 이야기하던 그 퀘이커교도 남자의 것이었다.

갑자기 해안 경비병이 한층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그는 소맷자락으로 망원경의 유리를 재빨리 닦고 다시금 삼각 돛배를 향해 들이댔다.

검은 점이 거기서 방금 떨어져 나갔다.

바다 위에 떠있는 작은 개미 같은 그 검은 점은 소형보트였다.

소형보트는 육지에 닿으려는 듯했다. 선원 몇 명이 배에 타고 있었으며 힘차게 노를 젓고 있었다.

배는 차츰 옆으로 들어가 데콜레 갑 쪽으로 전진하고 있었다.

해안 경비병의 감시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었다. 그 배의 움직임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 절벽의 말단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큰 키의 남자, 퀘이커교도는 계단 위 해안 경비병의 뒤로 불쑥 나타났다. 감시병은 그를 보지 못했다.

그 남자는 두 팔을 늘어뜨리고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목표물을 겨냥하고 있는 사냥꾼의 눈으로 해안 경비병의 등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와 경비병 사이에는 겨우 네 발자국의 간격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그리고 멈췄다. 또 한 걸음 내딛고 멈췄다. 발을 내디딜 뿐 다른 움직임은 전혀 없었으므로 그의 나머지 몸 전체는 하나의 상(像)과 같았다. 발은 아무 소리 없이 풀을 짓누르고 있었다. 세 번째 걸

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멈췄다. 줄곧 꼼짝하지 않고 망원경을 들고 서 있는 해안경비병에게 거의 닿았다. 남자는 주먹 쥔 두 손을 자신의 쇄골 높이까지 천천히 끌어올리고 갑자기 아래팔을 위에서 덮쳐, 탄력에 의해 말하자면 엉성해진 두 주먹으로 경비병의 두 어깨를 내리쳤다. 쇼크는 엄청난 것이었다. 경비병은 비명 한 마디 지를 시간이 없었다. 그는 머리를 처박고 절벽 꼭대기에서 바다로 꼬꾸라졌다. 그가 떨어지는 찰나, 두 개의 신발 바닥이 보였다. 그는 물에 던져진 돌에 불과했다. 물은 다시 닫혀 버렸다.

두세 개의 커다란 원이 음침한 물 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것이라고는 경비병의 손에서 벗어나 풀밭에 내동댕이쳐진 망원경뿐이었다.

퀘이커교도는 낭떠러지 끝에서 몸을 굽히고 물결 속으로 사라지는 파문을 지켜보았다. 몇 분을 기다리고 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몸을 일으켰다.

경찰관 나리는 죽었다네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이라네.

그는 두 번째로 몸을 굽혔다. 아무것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단지 해안 경비병을 삼킨 자리의 물 표면에 생긴 짙은 갈색의 흔적이 파도의 출렁임 속에 번져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것은 십중팔구 해안 경비병이 바다 속 어딘가의 바위에 부딪쳐 두개골이 으스러졌기 때문이었다. 그의 피가 거꾸로 솟아올라 그렇게 물거품 속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퀘이커교도는 불그스레한 얼룩을 주시하면서 계속 콧노래를 불렀다.

그가 죽기 십오 분 전만 해도

그는 아직…

그는 끝을 맺지 못했다.

그의 뒤에서 말을 거는 다정한 목소리를 들었다.

"당신이었군, 랑탠느. 안녕하시오. 방금 한 사람을 보낸 참이로군요."

그는 뒤를 돌아서 몇 발자국 앞, 바위틈에서 손에 연발 권총을 든 키 작은 사내를 보았다.

그는 대답했다.

"당신이 본 대로요. 안녕하시오. 시외르 클뤼뱅."

키 작은 사내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날 알아보시는군?"

"당신도 날 제대로 알아보았지 않소." 랑탠느가 대꾸했다.

그동안 바다에서 노 젓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해안 경비병에 의해 감시되던 그 배가 다가오고 있었다.

시외르 클뤼뱅은 마치 혼잣말을 하듯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빨리도 해치웠군요."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랑탠느가 물었다.

"대단한 것은 아니오. 십 년 만이군요. 재미 많이 보았겠군요. 어떻게 지냈소?"

"잘 지내지요." 랑탠느가 말했다. "당신은?"

"아주 좋소." 시외르 클뤼뱅이 대답했다.

랑탠느가 시외르 클뤼뱅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총을 겨누는 소리가 그의 귀를 스쳤다. 연발권총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은 시외르 클뤼뱅이었다.

"랑탠느, 우리 사이는 열다섯 발자국 정도밖에 되지 않소. 아주 적당한 간격이지. 그대로 서시오."

"자 자, 뭘 원하는 거요?" 랑탠느가 말했다.

"난, 그저 이야기 좀 하려는 것뿐이오."

랑탠느는 더 움직이지 않았다. 시외르 클뤼뱅이 계속 말했다.

"당신은 방금 해안 경비병을 죽였어요."

랑탠느가 모자 끝을 밀어 올리며 대답했다.

"그건 이미 말하지 않았소."

"분명히 말했던 건 아니었지요. 조금 전에는 '한 사람' 이라 했고 지금은 '해안경비병' 이라고 했으니 말이오. 그 해안 경비병은 619번이었지요. 그는 한 가족의 가장이었소. 아내와 다섯 아이들을 남겨 두고 떠났다오."

"그럴 수도 있겠지요." 랑탠느가 말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 해안 경비병들은," 클뤼뱅이 말했다. "거의 모두가 옛날 선원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오."

"보통의 경우," 랑탠느가 말했다. "그들이 아내와 다섯 아이들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나도 알지요."

시외르 클뤼뱅이 말을 이었다.

"이 연발권총을 내가 얼마에 샀을 것 같소?"

"멋진 물건이군요." 랑탠느가 말했다.

"얼마일 것 같소?"

"엄청난 돈이었겠지요."

"144프랑이나 주었소."

"보나마나, 쿠탕셰 거리에 있는 부티크에서 샀겠군." 랑탠느가 말했다.

클뤼뱅이 다시 말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소. 떨어지면서 목소리가 끊겨 버렸지."
"시외르 클뤼뱅, 오늘밤에는 바람이 불거요."
"이 비밀은 나밖에 모르지요."
"아직도 오베르쥬 장에 머무시오?" 랑탠느가 물었다.
"그렇소, 그럭저럭 지낼만한 곳이오."
"거기서 먹은 맛있는 양배추 절임이 기억나는군요."
"정말 건장하군, 랑탠느. 대단한 어깨요! 난 당신이 손가락으로라도 나를 건드리는 걸 원하지 않소.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너무도 허약해 보여서 모두들 내가 잘 자라지 못할 거라고들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니었군요. 다행이네요."
"그렇소, 이 도시에서는 언제나 오베르쥬 장에 있소."
"그런데, 시외르 클뤼뱅, 왜 내가 당신을 알아보았는지 아시오? 그건 당신이 나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오. 나는 생각해 냈지요. '나를 알아볼 수 있다면 클뤼뱅이다' 라고 말이오."
그리고 그는 한 발자국 앞으로 갔다.
"뒤로 물러나시오 랑탠느."
랑탠느는 뒤로 물러나며 중얼거렸다.
"저 물건 앞에서는 어린애가 된단 말씀이야."
시외르 클뤼뱅은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지. 우리 오른쪽, 생 테노가 쪽으로 삼백 보 되는 지점에 618번이 살아있고 왼쪽, 생 뤼내르 쪽으로 두안느의 초소가 하나 있소. 5분이면 이곳으로 출동할 수 있는 7명의 무장한 사내들이 거기 있지. 그러면 바위는 포위될 거요. 이 고개를 감시할 테고 말이요. 달아나는 것은 불가능하지. 낭떠러지 아래에는 시체 한 구가 있고 말이오."
랑탠느는 연발권총을 힐끗 곁눈질했다.

"당신 말대로요, 랑탠느. 멋진 물건이지. 화약만 장전되었을지도 모르지만 말이오. 하지만 아무려면 어떻소? 한 발이면 군대를 동원하기에 충분하지. 그런데 난 여섯 발이나 넣고 있단 말이오."

노 젓는 소리가 매우 또렷해지고 있었다. 소형보트가 이제 꽤나 가까이 있었다.

키가 큰 사내가 작은 사내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응시하고 있었다. 시외르 클뤼뱅은 점점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랑탠느, 저 배에 탄 사람들이 도착하면 당신을 체포하는 걸 도울 테지. 당신은 쥐엘라 선장에게 만 프랑을 내야 하오. 여담이지만 당신이 플랭몽의 밀수업자와 거래를 했다면 더 좋았을 걸 그랬소. 하지만 그들은 영국까지 밖에는 데려다 줄 수 없을 테고 게다가 당신은 감히 게른제에 갈 엄두도 못 낼 테지.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 테니 말이요.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만일 내가 방아쇠를 당기면 당신은 잡힐 거요. 당신은 종적을 감추는 대가로 쥐엘라에게 만 프랑을 내겠지. 이미 선불로 오천 프랑을 냈고, 이제 남은 오천 프랑만 받으면 쥐엘라는 당신을 태우고 떠나버리겠지. 자. 랑탠느, 정말 괴상한 옷을 입고 있군. 그 모자하며 우스운 옷가지와 게트르[220]로 변장을 하셨군 그래. 하지만 안경은 잊으셨군. 구레나룻을 기른 것은 아주 좋았소."

랑탠느는 일그러진 웃음을 지었다.

클뤼뱅이 말을 이었다.

"랑탠느, 당신은 주머니가 두 개 달린 아메리카식 바지를 입고 있군요. 그 중 하나에는 시계가 들어 있을 테지요. 그것은 당신이 가지시오."

"고맙소, 시외르 클뤼뱅."

---

220) 무릎에서 발목까지 묶는 띠

"다른 주머니에는 용수철이 달린 작은 상자가 있지요. 그것은 선원의 옛날 코담배 갑이지요. 그것을 꺼내 내게 던지시오."

"그건 도둑질이오!"

"경비병을 부르는 건 당신 마음이오."

클뤼뱅은 랑탠느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자, 메스 클뤼뱅." 랑탠느가 한 걸음 내디디며 손을 벌린 채 말했다.

메스는 아첨의 표현이었다.

"그대로 서 계시오, 랑탠느."

"메스 클뤼뱅, 우리 협상합시다. 반을 드리리다."

클뤼뱅은 총부리를 겨눈 채로 팔짱을 꼈다.

"랑탠느, 나를 뭘로 보는 거요? 나로 말하면 정직한 사람이올시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후 덧붙였다.

"전부 내놓으시오."

랑탠느는 욕설을 중얼거렸다. "지독한 놈이구먼."

그동안 클뤼뱅의 눈빛이 번득였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날카롭고 예리해졌다. 그가 소리쳤다.

"당신 뭔가 착각하고 있군 그래. 도둑은 바로 당신이고 나는 부정 취득물을 되돌려 주는 사람이지. 랑탠느, 잘 들으시오. 10년 전, 당신은 동업자의 금고에서 당신 돈 5만 프랑과 동업자의 돈이었던 5만 프랑을 모두 가지고 게른제에서 야반도주했소. 당신의 동업자, 선량하고 훌륭한 메스 르티에리에게서 당신이 훔친 5만 프랑에 10년간의 이자를 따지면 8만 666프랑 70상팀이란 말이오. 어제 당신은 환전상에 들어갔소. 그 이름을 대 볼까. 생 뱅상 가의 레뷔세. 당신은 환전상에게 프랑스 지폐로 7만 6천 프랑을 지불하고 1천 파운드짜리 영국 지폐 세 장과 잔돈을 받아 갔지. 그 지폐를 철제 담배 갑에 넣고 그 담배 갑은 당신 바지의 오른쪽 비밀 주머니

에 넣었지. 1천 파운드짜리 지폐 세 장이면 7만 5천 프랑이요. 메스 르티에리의 몫으로 나는 그 돈이면 만족하겠소. 내일 게른제로 가 그에게 그 돈을 줄 생각이요. 랑텐느, 저기에 세우고 있는 삼각 돛배는 *타몰리파스*호지요. 당신은 간밤에 배낭과 승무원 가방에 뒤섞인 트렁크를 배에 실었지요. 당신은 프랑스를 떠나고 싶어 하지요. 당신이 옳아요. 아레키파로 가는군요. 소형 보트가 당신을 찾으러 오고 있소. 여기서 배를 기다리시오. 배가 도착할 거요. 그럼 누가 헤엄치는 소리가 들리겠지. 당신을 떠나게 하느냐 여기 남게 하느냐는 전적으로 내게 달려 있소. 말을 너무 많이 했군. 담배 갑을 내게 던지시오."

랑텐느는 비밀 주머니를 열고 그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어 클뤼뱅에게 던졌다. 철제 담뱃갑이었다. 그것은 클뤼뱅의 발치로 굴러갔다.

클뤼뱅은 머리를 떨구지 않은 채 몸을 굽히고 두 눈과 탄환 여섯 발의 연발권총을 랑텐느에게 들이댄 채 왼손으로 담뱃갑을 주웠다.

그리고 나서 소리쳤다.

"친구, 등을 돌리시오."

랑텐느가 등을 돌렸다.

시외르 클뤼뱅은 연발권총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우고 담뱃갑의 용수철을 퉁겼다. 상자가 열렸다.

상자에는 네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는데 세 장은 1천 파운드짜리, 한 장은 10파운드짜리였다.

그는 1천 파운드짜리 지폐 세 장을 다시 접어 담뱃갑에 다시 넣고 상자를 닫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는 바닥에서 조약돌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 조약돌을 10파운드 지폐로 싸고 말했다.

"뒤로 도시오."

랑탠느는 뒤로 돌았다.

시외르 클뤼뱅은 말을 이었다.

"나는 3천 파운드로 족하다고 했지요. 여기 10파운드는 돌려 드리겠소."

그리고 그는 랑탠느에게 조약돌을 싼 지폐를 던졌다.

랑탠느가 지폐와 조약돌을 발로 차 바다로 던져 버렸다.

"좋으실 대로," 클뤼뱅이 말했다. "자, 꼭 부자가 되시오. 나는 잠자코 있을 테니."

이야기하는 동안 내내 가까워지던 노 젓는 소리가 멈췄다. 그것은 배가 절벽 밑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준다.

"당신 삯마차가 밑에 왔군. 가시오, 랑탠느."

랑탠느는 계단 쪽으로 가서 밑으로 사라졌다.

클뤼뱅은 주의깊게 절벽 끝으로 가서 머리를 내밀고 그가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작은 배가 마지막 바위 계단 옆에, 해안 경비병이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에 멈추고 있었다.

급히 계단을 뛰어 내려가는 랑탠느를 보면서 클뤼뱅은 중얼거렸다.

"619, 좋은 번호지! 그는 혼자라고 생각했지. 랑탠느는 둘뿐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셋이었다는 건 나만 알고 있었지."

그는 자신의 발치에 풀 위로 해안 경비병이 떨어뜨린 망원경을 발견하고 그것을 주웠다.

노 젓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랑탠느가 막 배에 올라탔고 배가 다시 난바다로 가고 있었다.

랑탠느가 배에 타고 첫 번째 노를 젓자 절벽이 그의 뒤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난 랑탠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

먹을 휘두르며 소리 질렀다.

"아! 저 악마 같은 놈이 바로 불한당이군!"

잠시 후, 절벽 꼭대기에서 망원경으로 소형 보트를 주시하던 클뤼뱅은 바다 물결의 소음 속에서 높은 소리로 발음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뚜렷하게 듣고 있었다.

"시외르 클뤼뱅,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니 내가 메스 르티에리에게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여기 이 배에는 *타몰리파스*의 선원 중 하나인 게른제 출신의 선원이 한 명 있소. 이름은 아이에 토스트뱅. 쥐엘라의 다음 항해에 생 말로로 돌아올 거요. 내가 당신에게 메스 르티에리에게 줄 총 3천 파운드의 돈을 맡긴 것의 증인이 되어 줄 거요."

그것은 랑탠느의 목소리였다.

클뤼뱅은 무엇이건 빈틈없이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해안 경비병이 그랬던 것처럼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 한쪽 눈에는 망원경을 대고 한 순간도 배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는 랑탠느가 물결 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았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서 있는 배에 다가가 배를 바싹 붙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타몰리파스*의 갑판 위에서 랑탠느의 큰 키를 알아볼 수 있었다.

배에 다시 올려진 소형보트가 보트걸이에 걸리고 나자 *타몰리파스*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미풍이 육지로부터 불고 배는 돛을 모두 폈다. 클뤼뱅의 망원경은 점점 더 간략한 선으로 변하는 그 실루엣을 향해 붙박여 있었다. 그리고 반시간 후 *타몰리파스*는 수평선에서 황혼녘 침침한 하늘 위로 점점 작아지는 검은 뿔에 지나지 않았다.

〈9〉

기다리는 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해외에서 온 유용한 정보

그 날 저녁 시외르 클뤼뱅은 늦게 돌아왔다.

늦은 귀가의 원인 중 하나는 숙소로 돌아가기 전 선술집이 많은 디낭의 근처까지 갔다는 것이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선술집에서 브랜디 한 병을 사고 그것을 감추고 싶기라도 한 것처럼 작업복의 큰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다음날 출항을 대비하여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랑드를 한 바퀴 둘러보았다.

시외르 클뤼뱅이 오베르쥬 쟝으로 돌아갔을 때 홀에는 원양어선의 늙은 선장 무슈 제르트래 가부로가 혼자 한잔 하면서 파이프를 태우고 있었다.

무슈 제르트래 가부로는 담배를 태우고 술을 마시는 중에 시외르 클뤼뱅에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시오, 클뤼뱅 선장."

"안녕하십니까, 제르트래 선장."

"타몰리파스가 떠났다오."

"아! 그것도 몰랐군요. 클뤼뱅이 말했다."

제르트래 가부로 선장은 침을 뱉고 나서 말했다.

"줄을 풀었다오, 쥐엘라가."

"언제요?"

"오늘 저녁."

"어디로 갔죠?"

"아주 멀리."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 어디죠?"

"아레키파."

"몰랐군요." 클뤼뱅이 말했다.

그는 덧붙였다.

"자야겠습니다."

그는 양초에 불을 붙이고 문께로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아레키파에 가보았나요, 제르트래 선장?"

"그렇소. 몇 년 되었지."

"어디에서 기항하지요?"

"어디서든. 하지만 그 *타몰리파스*는 기항하지 않을 거요."

무슈 제르트래 가부로는 재떨이에 파이프의 재를 떨고 계속 말을 이었다.

"아시다시피 연안 항해용 소범선 *슈발 드 트루와*[221]와 그 아름다운 삼각 돛배 *트랑트무쟁*이 카르디프에 갔지 않았소. 나는 날씨 때문에 출발할 생각이 아니었소. 두 배는 눈뜨고 볼 수 없는 꼴로 돌아왔지. 소 범선은 테레빈유(油)를 싣고 있었는데 물이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펌프를 가동시키면서 물과 함께 테레빈유까지 모두 펌프로 퍼냈지 뭐요. 삼각 돛배로 말할 것 같으면 특히 선루(船樓)에 타격을 입었지. 뱃머리의 물살을 가르는 부분, 뱃머리, 범프킨[222], 좌현에 있는 닻장 같은 것들이 모두 망가졌어요. 뱃머리 큰 삼각돛의 아래 활대는 돛대 묶는 버팀목 높이로 부러졌다오. 뱃머리 삼각돛의 버팀 밧줄들과 수 바르브[223]는, 그건 직접 보았어야 해. 앞 돛대의 돛은 또 어땠게요. 그것도 심한 충격을 받았지요. 보프레[224]

---

221) '트로이의 목마' 라는 뜻

222) 돛자락을 펼치기 위한 막대

223) 돛대의 용두에서 비스듬히 뒤쪽 양 뱃전에 맨 밧줄

224) 선체 앞쪽에 비스듬히 설치된 돛대

의 쇠는 전부 다 없어졌고, 믿을 수 없는 것은 보프레가 망가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드러나 버렸다는 거요. 좌현에 있는 배의 마스크는 지금도 정확히 3피에나 되는 직각 구멍이 나 있지요. 그 모두가 다른 사람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다오."

클뤼뱅은 테이블 위에 양초를 놓고 자신의 작업복 목 부분에 있던 한 줄의 핀을 다시 꽂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제르트래 선장, *타몰리파스*가 기항하지 않을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소. 칠레로 바로 갈 거라오."

"그러면 항해 중에는 소식을 전할 수 없겠군요."

"아니요, 클뤼뱅 선장. 우선 유럽으로 가는 배를 만나면 어떤 배가되었건 그 배에 전보를 보낼 수 있다오."

"그렇군요."

"그리고 바다의 우체통도 있지요."

"바다의 우체통이라고 하셨나요?"

"모르셨소, 클뤼뱅 선장?"

"네."

"마젤란해협을 지날 때."

"지날 때 뭐요?"

"특히 눈이 내리고 날씨가 아주 나쁘고 고약한 못된 바람이 불어 바다가 몹시 위험할 때."

"그때 뭐죠?"

"몽마우스 갑을 돌아 항해할 때."

"그래서요?"

"이지도르 갑을 돌아갈 때."

"그리고요?"

"아나 갑을 돌아갈 때."

"좋아요. 그런데 바다의 우체통이라는 게 뭐죠?"

"아, 알겠소. 오른쪽에도 산, 왼쪽에도 산. 도처에 펭귄과 바다제비들. 무시무시한 장소. 아! 얼마나 끔찍스러운지, 마치 뺨을 후려갈기는 것 같다오! 광풍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필요로 하지. 그래서 선미판의 난간을 살펴봐야 하는 거라오! 그래서 돛을 줄이기도 해야지! 큰 돛을 삼각돛으로 바꿔야 하고 삼각돛을 투르망탱[225]으로 바꿔야 한다오. 바람의 일격 뒤에 또 다른 바람의 일격이지. 때로는 나흘, 닷새, 엿새 동안 돛을 내리고 바람에 맞서야 하지요. 새 돛 한 벌을 붕대조각으로 만드는 때도 한두 번이 아니라오. 그 춤추는 꼴이라니! 질풍이 삼각 돛배를 마치 벼룩처럼 폴짝폴짝 뛰게 만든다오. *트루 블루*라는 작은 범선의 뱃머리 삼각 돛 활대에서 일하던 소년 수부가, 세상에나, 그 활대와 함께 십리 밖으로 실려 간 걸 보기도 했다오. 결국 나비처럼 공중을 떠다니는 거지! 멋진 스쿠너선 *르브뉘*의 부 수부장(水夫長)이 돛대 꼭대기의 가로장에 찢겨 즉사한 것을 본 적도 있다오. 내 배도 뱃전의 난간이 부서지고 측면 세로 재목이 완전히 녹아 난 일도 있다오. 그렇게 돛 전부를 탕진해 버리기도 하지. 50문의 대포를 장비한 프리깃함도 물이 스며들면 바구니처럼 되고 말지. 게다가 못된 마녀 같은 해안까지! 그렇게 성미가 까다로운 것이 없다오. 어린애가 장난친 것 같이 들쑥날쑥한 바위하며. 파인 항으로 다가가 보라지요. 거기는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라오. 내 평생 그렇게 지독한 물결은 처음이었소. 지옥의 혈통이지. 그런데 갑자기 붉은 글씨로 쓰인 두 단어가 보이지요. *포스트 오피스.*"

"무슨 말씀이시죠, 제르트래 선장?"

---

225) 나쁜 날씨에 사용하는 이물의 삼각 돛

"내 말은, 클뤼뱅 선장, 아니 갑을 돌아 나오자마자 100피트쯤이나 되는 바위 위에 커다란 막대기가 눈에 띈다는 말이요. 그것은 목에 큰 통이 있는 말뚝이라오. 그 큰 통이 바로 우체통이요. 영국 사람들은 그 위에 *포스트 오피스*라고 써야만 했지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려 든 것일까요? 그것은 대양의 우체국이지요. 고귀하신 젠틀맨, 영국 왕에게 속한 것이 아니랍니다. 이 우체통은 공공의 것이지요. 그것은 모든 신호에 속한다오. *포스트 오피스*가 이상하다 하셨소! 그것은 갑자기 악마가 당신에게 주는 차 한 잔과 같은 인상을 준다오. 이제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 주겠소. 그곳을 지나는 모든 배는 이 말뚝으로 전보를 실은 작은 배를 보낸다오. 대서양에서 오는 선박은 유럽으로 편지를 보내고 태평양에서 오는 선박은 아메리카로 편지를 보내는 거지. 지휘관이 그 통에 우편물을 넣고 그 속에 있던 우편물은 가지고 간다오. 만일 당신이 그 속에 있던 편지들을 맡으면 당신 다음에 오는 배가 당신의 편지를 맡게 되는 것이라오. 서로 다른 대륙에서 항해해 오기 때문에 당신이 온 대륙은 내가 갈 대륙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내가 당신의 편지를 가져가고 당신이 내 것을 가져가는 거라오. 통은 사슬로 말뚝에 붙들려 있소. 그런데 비가 온다! 눈이 온다! 우박이 온다! 바다는 볼 장 다 본 꼴이지! 지저분한 편지가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니지. *타몰리파스*는 그쪽으로 지나갈 게요. 통에는 경첩이 달린 좋은 뚜껑이 있지만 자물쇠는 없다오.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편지가 갈 테니."

"참 재밌군요." 클뤼뱅이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제르트래 가부로 선장은 술잔으로 몸을 돌렸다.

"그 불량배 쥐엘라가 내게 편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그 불한당이 괴발개발 쓴 글씨를 마젤란에 있는 통까지 가지고 가면 넉 달 후에나 그 악당놈의 읽기 힘든 필적이 내 손에 들어올 텐데."

"아, 클뤼뱅 선장, 당신 내일 떠나시오?"

일종의 최면상태에서 골몰해 있는 클뤼뱅은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다. 제르트래 선장은 질문을 반복했다.

클뤼뱅은 정신을 차렸다.

"예, 내일 아침에 떠나야 합니다."

"나라면 떠나지 않을 텐데. 클뤼뱅 선장, 개에게서 젖은 털 냄새가 나더군요. 바닷새들도 이틀 전부터 등대 불 주위로 몰려든다오. 안 좋은 신호올시다. 영리한 내 스톰 글라스[226]에 의하면 말이요, 우리는 지금 달에서 90도 지점에 있다오. 최대 습도지. 오늘 오후에 오이풀을 보았는데 잎사귀를 닫고 있더라오. 토끼풀 밭의 토끼풀 줄기는 곧게 서 있고 말이오. 지렁이가 나와 있고 파리가 곤두박질치고 벌이 벌집에서 멀리 가지 않고 참새가 서로 지저귀더군. 종소리도 멀리에서 들리는 듯이 느껴지더란 말이오. 저녁에 생 뤼내르의 삼종기도 종소리를 들었지 뭐요. 그리고 태양도 우중충하게 지더군. 내일은 안개가 짙게 깔릴 게요. 떠나지 마시라 충고하는 바요. 나는 폭풍우보다 안개를 더 두려워한다오. 엉큼한 놈이라오, 안개 말이오."

226) 날씨의 변화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도구. 지금은 사용되지 않으나 18, 19세기에 많이 사용되었음.

VI
술 취한 키잡이와 절제하는 선장

〈1〉
암초 두브르

게른제 남쪽, 플랭몽을 마주한 난바다 20킬로미터 지점, 망슈 군도와 생 말로 사이에 두브르 바위라 불리는 일군의 암초가 있다. 이곳은 불길한 곳이다.

두브르, 즉 도버라는 명칭은 암초와 절벽이 많은 것과 관련이 깊다. 특히 코트 뒤 노르 근처에도 두브르 바위가 하나 있는데 지금은 그 위에 등대를 세워 놓았다. 이것도 위험한 암초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두브르 암초와 가장 가까운 프랑스의 지점은 브레앙 갑이다. 두브르에서 프랑스 해안의 거리는 두브르에서 노르망디 군도의 첫 번째 섬에 이르는 거리보다 조금 더 멀다. 이 암초에서 제르세에 이르는 거리는 제르세 섬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가장 긴 거리와 비슷하다. 만일 경첩을 접듯이 코르비에르를 끼고 제르세를 접으면 생 카트린느 갑이 두브르와 거의 만나게 될 것이다. 그 거리도 16킬로미터를 조금 넘는다.

문명의 바다에서는 가장 거친 암초라 해도 사람의 손길을 벗어나기 힘들다. 우리는 아고에서 밀수업자를, 비닉에서 세관관리를, 브레아에서 켈

트족을, 캉칼에서 굴 양식업자를, 세자르의 섬 세장브르에서 토끼 사냥꾼을, 브렉 우에서 게 잡는 사람을, 레 맹키에에서 예망(曳網) 어부를, 에크레우에서 반두 그물 어부를 만난다. 그러나 두브르 암초에는 아무도 없다.

바닷새들이 그곳에 둥지를 틀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두려움을 주는 만남은 없다. *블랑슈 네프*가 좌초되었다고 하는 레 카스케, 칼바도의 암초, 와이트 섬의 레 제귀유, 그토록 위험한 보리외 해안을 이루는 로네스, 메르켈 입구의 숨통을 막고 스무 길 전에서부터 붉은 칠을 한 항로표지를 세우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프레엘의 여울, 음험한 에타블과 플루아의 어귀, 게른제 남쪽 두 개의 화강암 드루이드, 비유 앙데를로와 프티 앙데를로, 코르비에르, 레 아누와, '라[227]를 지나가려면, 죽지 않아야 떨기라도 할 것이다' 라는 속담으로 두려움을 충고한 라 섬, 모르트 팜므, 부와 프루키의 통로, 게른제와 제르세 사이의 데루트, 레 맹키에와 슈제 사이의 아르당, 불래 배와 바른느빌 사이의 모배 슈발 등은 두브르에 비하면 평판이 좋은 편이다. 이들 모든 암초에 하나씩 맞서 싸우는 것이 단번에 두브르와 맞서는 것보다 나을 정도이다.

이 험난한 망슈 바다 (서양의 에개해라 한다) 전체에서 바위산 두브르는 공포에 있어서라면 게른제와 세르크 사이의 파테르 노스테르 암초에 버금가는 존재다.

그렇지만 파테르 노스테르에서는 신호를 보낼 수가 있다. 그곳에서 조난당한 배는 구출될 수 있는 것이다. 북쪽에는 디카르 또는 이카르 갑이 보이고 남쪽에는 그로네가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브르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돌풍, 물, 큰 구름, 광대무변, 무인지경. 길을 잃은 사람 외엔 누구도 바

---

227) Ras: 섬 이름

위산 두브르를 지나치지 않는다. 그곳의 화강암들은 야수 같고도 흉측스러운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 있다. 도처에 급사면이 있다. 심연은 혹독한 냉대를 한다.

그곳은 난바다이다. 그곳의 물은 매우 깊다. 두브르처럼 완전히 고립된 암초는 인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짐승들을 끌어들이고 엄호한다. 이것은 바다 밑에 있는 한없이 넓은 녹석(綠石)의 일종이다. 물에 잠겨있는 미궁이다. 잠수부조차도 어렵게 도달할 정도의 깊은 곳에 이르면 동굴, 지하실, 소굴, 어두운 거리의 교차점들이 있다. 그곳에서 기괴한 종(種)이 번성한다. 그것들은 서로 먹고 먹힌다. 게는 물고기를 먹기도 하지만 그들이 잡아먹히기도 한다. 인간의 눈에 띄지 않도록 고안된 무시무시한 형체들이 그 어둠 속을 살아서 떠돈다. 아가미, 촉각, 촉수, 꼬리, 지느러미의 희미한 윤곽들이, 거기서 떠다니고 거기서 흔들리고 거기서 살이 찌고 거기서 분해 되고 거기서 음산한 투명함 속으로 사라진다. 무시무시한 헤엄치는 무리들이 각자 할 일을 하면서 배회한다. 그곳은 히드라의 밀집장소이다.

거기서는 공포가 이상적인 것이다.

할 수 있다면 해삼이 득실거리는 것을 생각해보자.

바다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미지 세계의 환상을 보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측면에서 그것을 보는 것이다. 깊은 구렁은 밤과 유사하다. 그곳에 역시 잠이, 그러나 허울뿐인 만물의 의식의 잠이 있다. 거기서 책임 없는 범죄들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소름끼치는 평온 속에서 거의 유령에 가까운, 완전히 괴물인, 생명의 밑그림들이 어둠의 흉포한 일에 열중하고 있다.

사십 년 전 희한한 형태를 갖춘 두 바위가 멀리서 대서양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두브르 암초의 존재를 환기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수직으로

선, 뾰족하고 흰, 꼭대기가 서로 맞닿은 두 개의 갑이었다. 바다에 의해 삼켜지는 코끼리의 두 엄니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다. 단지 그것은 산처럼 거대한 코끼리의 망루처럼 높다란 엄니일 뿐이었다. 괴물의 어두운 도시에 자연발생적인 그 두 개의 망루는 그 사이에 파도가 돌진하는 좁은 통로만을 허락하고 있었다. 길이를 따라 비뚤어진 여러 번의 굴곡이 있는 그 통로는 두 벽 사이에 있는 골목길의 한 구역과 닮아있었다. 사람들은 이 쌍둥이 바위를 두 개의 두브르라고 부르곤 했다. 큰 두브르와 작은 두브르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는 60피트였으며 또 하나는 40피트였다. 마침내 파도의 왕복운동은 이 망루들의 밑동에 톱으로 켠 자리를 남기고 말았으며 1859년 10월 26일 춘분의 거센 일격이 그 중 하나를 쓰러뜨렸다. 남아있는 작은 것은 일부가 잘리고 마모된 상태이다.

두브르 그룹에서 가장 희한한 바위산 중 하나는 '남자' 라는 뜻의 옴므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지난 세기에 이들 암초로 길을 잘못 든 어부들이 그 바위산 꼭대기에서 시체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 시체 옆에는 속이 빈 조개껍질이 수북이 쌓여있었다. 어떤 남자가 그 바위에서 조난을 당했으며 거기로 피신해서 한동안 조개를 먹으며 살다가 죽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 이름이 옴므이다.

물의 정적은 음산하다. 그것은 동요이자 침묵이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인류와 관계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것이 바위산 두브르의 고립이다. 사방에는 까마득히 물결의 고뇌가 있을 뿐이다.

〈2〉

뜻밖의 코냑

*티몰리파스*가 떠난 다음 날인 금요일 아침, 뒤랑드는 게른제를 향해 출발했다.

뒤랑드가 생 말로를 떠난 시간은 아홉시이다.

날씨는 안개도 끼지 않았고 맑았다. 늙은 제르트래 가부로 선장이 허튼 소리를 한 듯 했다.

시외르 클뤼뱅의 다른 일거리들은 결정적으로 그의 선적에 영향을 미쳤다. 실어야 할 것들을 거의 잊은 것이다. 생 피에르 포르의 팬시 부티크들을 위한 파리의 독특한 제품 꾸러미 몇 개, 게른제의 병원을 위한 노란 비누 한 상자, 막대 양초 한 상자, 프랑스의 신발 창 가죽과 코르도바의 최고급 가죽 한 상자, 이렇게 세 상자 밖에 싣지 않았다. 그는 싣고 왔던 짐, 프랑스의 세관이 허락하려 하지 않았던 설탕 항아리 한 상자와 콩주 차 세 상자를 다시 실었다. 황소만 몇 마리 아무렇게나 화물창에 실었을 뿐 가축은 거의 싣지 않았다.

배에는 여섯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게른제 사람 한 명, 생 말로의 가축상인 두 명, 그 시절에 벌써 개인의 말을 갖고 있던 '관광객' 한 명, 상업상의 관광객인 듯한 반(半) 부르주아 파리사람 한 명, 성서를 배포하러 가는 미국인 여행자 한 명이었다.

뒤랑드에는 선장인 클뤼뱅을 제외하고 키잡이, 석탄 선원, 목수 선원, 필요에 따라서 선원이 되기도 하는 요리사, 두 명의 기관사, 소년수부 이렇게 일곱 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두 명의 기관 기술자 중 한 명은 수리남의 설탕 공장에서 탈주한 매우 용감하고 똑똑한 네덜란드 흑인으로서 이름이 임브란캄이었다. 흑인 임브란캄은 기계를 이해하고 조작하는 솜씨가 놀라

울 정도로 훌륭했다. 뒤랑드가 처음 운항하던 시절에 기관실에서 일하던 시커먼 그의 모습은 데빌 보트의 악마적인 분위기를 더해 주었다.

제르세에서 태어난 코탕탱 출신 키잡이의 이름은 탕그루이였다. 탕그루이는 높은 귀족의 신분이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진실이었다. 영국처럼 망슈 군도는 계급제도의 땅이다. 거기에는 아직도 엄격한 계급제도가 존재한다. 계급은 각기 그들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이상이 계급을 보호한다. 계급의 이상은 독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어디에서나 같은 것이다. 귀족의 신분은 칼로 쟁취되고 일로 사라진다. 그것은 무위에 의해 보존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귀족답게 사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영광스러운 것이다. 직업은 지위를 실추시킨다. 옛날 프랑스에서는 유리 제조인의 경우만은 예외였다. 병을 기울여 술을 마시는 것은 다소 귀족의 자랑이 되었으므로 병을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전혀 모욕을 주지 않았다. 영국에서처럼 망슈 군도에서도 귀족으로 남고자 하는 사람은 부유해야만 한다. 일하는 사람은 귀족이 될 수 없다. 과거에 귀족이었다 해도 더 이상은 아니다. 그런 선원은 휘하에 부하를 거느리고 출전(出戰)할 수 있는 배너렛 기사의 후손이지만 이제는 그저 선원일뿐이다. 삼십 년 전 오리니에서는 필립 오귀스트에 의해 빼앗긴 영주의 권리를 가질 수도 있었을 진정한 조르쥬 가문의 한 사람이 바다에서 맨발로 해초를 채취하러 다니기도 했다. 카르트레 가문의 후손은 세르크에서 마차꾼 일을 한다. 제르세에는 나사 제조인이, 게른제에는 구두수선공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그뤼시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루시이며 워털루 전투의 프랑스 사령관 친척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쿠탕스 주교 저택의 예로부터 전해오는 교회 영토와 재산 대장에는 지금은 몽모랑시인 센느강 하류 탕카르빌과 명백한 관련이 있는 탕그로빌의 영주권에 대해 기재하고 있다. 15세기에 사수(射

手)이며 탕그로빌 제후의 신분이었던 조앙 드 에루드빌은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지니고 있었다. 1371년 5월, 퐁토르송에서, 베르트랑 뒤 게스클랭에 따르면 "탕그루빌의 무슈가 배츌러 기사[228]로서 그의 의무를 했다." 노르망디 군도에서는 가난이 엄습하면 그 사람은 금세 귀족의 신분에서 제명되었다. 철자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충분했다. 탕그로빌이 탕그루이[229]가 되고 모든 것은 끝났다.

이것이 뒤랑드의 키잡이에게 생긴 일이었다.

생 피에르 포르의 보르다쥬에는 필경 엥그로빌가의 후손인 엥그루이라는 이름의 고물상이 있다. 루이 르 그로의 통치 하에서 엥그로빌가는 발로뉴의 선거에서 소교구 셋을 파지했다. 트리강이라는 한 신부는 *노르망디 교회의 역사*를 썼다. 이 연대기 작가 트리강은 디고빌 영지의 주임신부였다. 디고빌의 제후는 만일 서민계급으로 떨어졌다면 디구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과거에는 탕그루빌이었고 몽모랑시가 될 수도 있었던 귀족 탕그루이는 키잡이로서는 중대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술을 많이 마셨던 것이다.

시외르 클뤼뱅은 끝끝내 그를 붙잡아 두려 했다. 탕그루이를 위해 메스르티에리에게 보증을 하기도 했다.

키잡이 탕그루이는 한시도 배를 떠나지 않았으며 잠도 배에서 잤다.

출항 전날 저녁이 되기 훨씬 전에 시외르 클뤼뱅이 배를 한 번 둘러보기 위해 갔을 때 탕그루이는 해먹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탕그루이는 밤에 깨어났다. 그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술꾼들은 자신만의 숨는 곳이 있게 마련이다. 탕그루이도 자기만

228) 다른 기사 (배너렛 기사)의 휘하에 드는 최하급의 젊은 기사

229) Tangroville 이 Tangrouille 로.

의 공간이 있었고 그곳을 자신의 벽장이라고 불렀다. 탕그루이의 벽장은 화물창 속에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눈치 채지 못하도록 거기에 그것을 마련했다. 그 숨는 곳을 자신만 알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클뤼뱅 선장은 술을 절제했으므로 술 마시는 일에 관해 엄격했다. 선장의 면밀한 감시 속에서 키잡이가 감출 수 있었던 얼마 안 되는 럼과 진을, 그는 화물창의 아무도 모르는 한 구석, 수심 측량기 통의 밑바닥에 따로 보관해 놓고 거의 매일 밤 이 장롱과 애틋한 만남을 갖곤 했다. 감시는 혹독하고 주신제(酒神祭)는 궁색하여 보통 탕그루이의 저녁 과음은 남몰래 꿀꺽 삼켜지는 두 세 모금이 전부였다.

때때로 벽장 속에 정말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런 특별한 밤에 탕그루이는 뜻밖에도 거기서 브랜디 한 병을 발견했다. 기쁨은 말할 것도 없었고, 놀라움은 더욱 어마어마했다. 이 병이 어느 하늘에서 그에게로 떨어졌던 것일까? 그것을 언제, 어떻게 배로 가지고 들어왔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그것을 마셨다. 그리고 신중하게도 브랜디 병이 들통 나 꼬리를 잡히지나 않을까 두려워 바다에 던져버렸다. 다음날 그가 키를 잡았을 때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배를 몰았다.

한편 클뤼뱅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베르쥬 쟝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클뤼뱅은 슈미즈 속에 언제나 비상금 20기니 정도를 넣은 여행용 가죽 돈주머니를 지니고 있었으며 밤이 되어야만 그것을 풀어놓았다. 그 가죽 주머니 안쪽에는 지워지지 않는 석판인쇄용 잉크로 직접 새긴 이름 시외르 클뤼뱅이 적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떠나기 전, 그는 지폐 칠만 오천 프랑이 들어 있는 쇠 상자를 돈 주머니 속에 넣고 여느 때처럼 몸에 찼다.

〈3〉
두서없는 이야기

출발은 경쾌하게 시작되었다. 승객들은 손가방과 여행용 옷 가방을 나무 의자의 위아래에 놓기가 무섭게 배를 시찰했다. 그것은 너무나 관례적으로 행해져서 마치 의무와도 같았다. 승객 중 두 명, 관광객과 파리사람은 증기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므로 바퀴가 돌기 시작하자 물거품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 다음으로는 연기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폭풍우로 인해 녹으로 장식된,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아 마치 일종의 거대한 보석 같기도 한 선박용 장치의 고리며 꺾쇠, 훅, 볼트를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거의 하나 하나씩 탐색하며 갑판과 중갑판을 돌아다녔다. 그들은 관광객이 지적했듯이 '문지기 개처럼 사슬로 갑판에 매어 놓은', 파리사람이 덧붙였듯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방수포 작업복을 입고 있는' 작은 경보용 대포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승객들은 육지에서 멀어질수록 관례적인 관찰을 마치고 생 말로를 조망하기 시작했다. 어떤 승객은 바다의 어귀가 사람의 눈을 속인다는 공리를 내세우며 해안에서 1리외 정도 떨어진 곳에서 보면 덩케르크나 오스탕드나 모두 두알의 콩으로 비슷해보인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덩케르크에 관한 그들의 관찰에서 빠진 것, 즉 빨갛게 칠한 두 척의 감시선의 이름이 하나는 *디뤼탱*이며 다른 하나는 *마르딕*이라는 것을 보충했다.

생 말로는 멀리에서 야위어 가더니 마침내 사라지고 말았다.

바다의 형세는 거대한 고요였다. 배가 지나간 흔적은 뒤편 바닷물 속에 거의 비틀림도 없이 까마득히 멀어지는, 가장자리를 물거품으로 장식한 기나긴 물길을 만들고 있었다.

게른제는 프랑스의 생 말로에서 영국의 엑스테르까지 줄을 긋는다면

생길 수 있는 직선의 한 가운데 위치한다. 바다에 있어서 직선이라는 것은 논리상의 직선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증기선은 범선에게 거부당한 직선을 따라 어느 정도까지 항해하는 능력이 있다.

바람으로 까다로워지는 바다는 여러 가지 힘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합성물이며, 배는 여러 가지 기계장치로 만들어진 하나의 합성물이다. 여러 가지 힘은 무한한 기계장치와 같지만 여러 가지 기계장치는 제한된 힘에 불과하다. 우리가 항해라고 부르는 이 전투는 무궁무진한 것의 한쪽 진영과 지적(知的)인 것의 다른 쪽 진영, 이 두 유기체 사이에서 시작된다.

하나의 구조 속에서의 의지는 무한과 균형을 이룬다. 무한, 그것 역시 하나의 구조를 지닌다. 요소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 분별없는 힘이란 전혀 없다. 인간은 여러 가지 힘을 염탐하여 그 행적을 발견하려 애쓴다.

법칙이 발견될 때까지 싸움은 계속되는데 그 싸움에서 볼 때 증기선의 항해는 바다의 어느 지점에서나 어떤 때에나 인간의 천재적 재능이 쟁취한 일종의 영원한 승리인 것이다. 증기선의 항해는 배를 길들이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증기선의 항해는 바람의 지배를 약화시키고 인간의 지배를 강화시킨다.

바로 그 날보다 뒤랑드가 바다에서 일을 더 잘 했던 적은 없었다. 뒤랑드는 놀라우리 만치 훌륭하게 움직였다.

열 한 시경, 북북서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미풍에 의해 뒤랑드는 증기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우현 아딧줄을 이용하여 바람에 더 가까이 서쪽으로 항해하면서 레 맹키에의 난바다에 있게 되었다. 날씨는 여전히 맑고 화창했다. 그러나 트롤망 어선은 돌아가고 있었다.

조금씩, 모두가 항구로 되돌아갈 생각이기라도 한 듯, 바다는 돌아가는 배에 의해 깨끗해지고 있었다.

뒤랑드가 여느 때와 똑같은 항로로 항해하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었다. 승무원들은 선장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었으므로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명 키잡이의 실수에 의해 다소 항로를 벗어나고 있었다. 뒤랑드는 게른제 쪽이라기보다 오히려 제르세 쪽으로 가고 있는 듯했다. 열한시가 조금 넘어서자 선장은 방향을 바로잡아 뱃머리를 정확히 게른제 쪽으로 돌렸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낮이 짧은 시기에 시간을 지체한다는 것은 불리한 형편일 수밖에 없었다. 2월의 아름다운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탕그루이는 발을 굳건히 디디고 설 수도, 팔을 단단히 잡고 있을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그리하여 용감한 키잡이는 자주 침로를 벗어났고 그것이 운항을 지연시키고 있었다.

바람이 거의 사그라들었다.

손에 망원경을 들고 있던 게른제 승객은 서쪽 수평선 끝에서 바람에 의해 천천히 운반되는, 먼지가 될 솜뭉치를 닮은 작고 폭신한 잿빛 안개뭉치에 이따금씩 그것을 고정시키곤 했다.

클뤼뱅 선장은 평소의 청교도 같은 준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갑절이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듯했다.

모든 것이 평온했고 뒤랑드라는 배에 웃음을 보내는 것 같았으며 승객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항해 중에 눈을 감으면 대화하는 소리로 바다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자유롭게 오고가는 승객들의 재치 있는 이야기는 바다의 물결이 매우 잔잔함을 의미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대화는 매우 조용한 바다 이외의 장소에서는 오고갈 수 없다.

"무슈, 이 파랗고 빨간 귀여운 벌레 좀 보세요."

"바다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배에서 쉬는군요."

"벌레는 거의 피곤한 줄 모르는걸요."

"요컨대 너무 가볍다는 말이지요. 바람이 그것을 실어 나르지요."

"무슈, 벌레 1온스를 달아서 그것이 몇 마리인지 세어보았더니 육천 이백 육십 여덟 마리나 되었다네요."

망원경을 든 게른제 사람은 생 말로의 황소 상인들에게 말을 걸려고 다가갔고 그들의 객설은 이러한 종류의 것들이었다.

"오브락의 황소는 몸통이 둥글고 똥똥한데다 다리는 짧고 털은 엷은 황갈색을 띠지요. 다리가 짧기 때문에 일이 더디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브락 산(産)보다는 살레르 산이 낫지요."

"무슈, 나는 평생 두 마리의 훌륭한 황소를 보았답니다. 첫 번째 황소는 짧은 다리와 튼튼한 앞 몸통, 꽉 찬 넓적다리, 큼지막한 엉덩이를 가지고 있었지요. 목에서 엉덩이까지의 길이가 적당하고 어깨뼈 사이의 융기도 알맞은 데다, 가죽은 기름기가 풍부하고 뜯어내기 쉬웠었답니다. 두 번째 황소는 살집이 적당한 소가 갖는 징표를 모두 보여주고 있었지요. 땅딸막한 몸통에 튼튼한 목, 가벼운 다리와 희고 붉은 털, 늘어진 넓적다리."

"그건 코탕탱 종이군요."

"예, 하지만 앵거스의 황소나 서포크의 황소와도 관계가 있답니다."

"무슈, 믿기 힘드시겠지만, 남불에는 당나귀 경연대회가 있답니다."

"당나귀요?"

"예, 당나귀요. 정말입니다. 그것들은 못생길수록 잘 생긴 것이랍니다."

"그렇다면 노새 낳는 암말이나 마찬가지로군요. 그 녀석들도 못생길수록 좋은 것이니까요."

"옳아요. 푸아투의 노새 낳는 암말 말입니다. 뚱뚱한 배에 굵은 다리지요."

"가장 유명한 노새 낳는 암말은 네 기둥 위에 큰 통이랍니다."

"짐승의 미의 기준은 인간의 것과는 사뭇 다르지요."

"특히 여자들과는요."

"맞아요."

"나는 말입니다,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나는, 예쁘게 차린 여자가 좋습니다."

"그렇지요, 깔끔하고, 단정하고, 장신구를 달고, 화장을 한."

"아주 순진한 표정. 처녀는 언제나 보석상에서 나와야 하죠."

"제가 말한 두 마리 황소 말입니다. 투아르 시장에서 팔려고 내 놓았더라구요."

"투아르 시장이라면 나도 압니다. 로셀의 보노와 바뷔는 마랑의 밀 상인들이지요. 그들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분명히 그 시장에 왔을 겁니다."

관광객과 파리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가는 미국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대화 역시 계속되는 좋은 날씨에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무슈," 관광객이 말했다. "문명세계의 선박 톤수는 이렇습니다. 프랑스, 칠십 일만 육천 톤, 독일, 백만, 미국, 오백 만, 영국, 오백 오십 만입니다. 여기에 작은 나라들의 몫을 더합시다. 지구상의 바다에 분산된 십 사만 오천 척의 선박에 총 천 이백 사십만 사천 톤입니다."

미국인이 이야기를 가로막았다.

"무슈, 오백 오십만은 미국입니다만."

"그렇군요." 관광객이 말했다. "미국인이신가요?"

"예, 무슈."

"아, 그렇군요."

이야기가 중단되고 미국인 선교사는 이 상황이 성경을 주어야 하는 경

우일까 생각했다.

"무슈," 관광객이 말을 이었다. "미국에서는 나라의 모든 유명인사를 우스개 거리로 만들 정도로 별명 붙이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또 그 유명한 미주리의 은행가 토마스 벤튼을 '늙은 지금(地金)' 이라 불렀다는 말은요?"

"우리들이 늙은 '임시변통' 이라 부르는 재커리 테일러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해리슨 장군은 '늙은 티프' 가 맞나요? 잭슨 장군은 '늙은 히커리' 이고요?"

"잭슨은 히커리 나무처럼 다부지기 때문이고 해리슨은 티프 카누를 타고 북미 원주민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고리타분하군요."

"우리의 스타일이지요. 우리는 반 뷰런을 '작은 마법사', 소액 지폐를 만들게 한 스워드를 작은 빌리, 키가 사 피트나 되는 대단한 능변가인 일리노이 민주당 상원의원 더글라스를 '작은 거인' 이라 부른답니다. 텍사스에서 매인까지 가보세요, '미시간' 출신의 큰 사람이라거나 '칼자국 난 방앗간의 소년' 이라고 부르지 카스나 클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못할 겁니다. 클래이는 방앗간 주인의 아들이지요."

"나는 클래이나 카스 쪽이 좋은걸요," 파리 사람이 평했다. "더 짧으니까요."

"많은 사람의 관례라는 것을 잊으셨군요. 우리는 재무부의 비서인 코윈을 '짐수레 끄는 소년' 이라고 부른답니다. 대니엘 웹스터는 '검은 댄' 이지요. 윈필드 스캇의 경우는 치프웨이에서 영국과 싸워 이긴 후 그가 테이블에 앉아 처음 요청했던 것이 한 접시의 수프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를 '수프 장군' 이라고 부른답니다."

멀리 보이던 안개 뭉치가 커지고 있었다. 이제 그것은 수평선 위, 약 십오도 지점을 차지하고 있었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생기는 물 위에 떠 있는 구름 같았다. 바람은 더 이상 불지 않고 있었다. 바다는 단조로웠다. 아직 정오도 안 된 시각이었음에도 태양 빛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밝기는 했지만 따뜻하지는 않았다.

"내 생각에는," 관광객이 말했다. "날씨가 변할 것 같군요."

"비가 오겠군요." 파리 사람이 말했다.

"아니면 안개가 끼거나 말이죠." 미국인이 덧붙였다.

"무슈," 관광객이 대꾸했다. "이태리에서 비가 가장 조금 오는 곳은 몰페타이고 가장 많이 오는 곳은 톨매초랍니다."

군도의 풍습에 따라 정오에 점심식사를 알리는 종을 울렸다. 원하는 사람은 식사를 했다. 몇몇 승객은 간단한 음식을 가져와 갑판에서 즐겁게 먹었다. 클뤼뱅은 전혀 먹지 않았다.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가 차츰 변하고 있었다.

성경을 본 게른제 사람은 미국인에게 다가갔다. 미국인이 그에게 말했다.

"이 바다를 잘 아십니까?"

"알고말고요. 이곳 사람인걸요."

"나도 그렇답니다." 생 말로 사람들 중 한 명이 말했다.

게른제 사람은 인사를 하고 나서 말을 이었다.

"지금 우리는 난바다에 있지만 레 맹키에 쪽에 가 있을 때는 안개가 끼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인이 생 말로 사람에게 말했다.

"섬사람들은 연안 사람들이라기보다 바다 사람이지요."

"옳아요, 우리들 해안 사람은 허리까지만 물에 잠그고 살지요."

"레 맹키에가 무엇이지요?" 미국인이 계속했다.
생 말로 사람이 대답했다.
"아주 고약한 바위랍니다."
"레 그를레라는 곳도 있지요." 게른제 사람이 말했다.
"아무렴!" 생 말로 사람이 응수했다.
"그리고 레 슈아도." 게른제 사람이 덧붙였다.
생 말로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면," 그가 말했다. "레 소바쥬도 있지요."
"그리고 레 무완느." 게른제 사람이 지적했다.
"그리고 르 카나르." 생 말로 사람이 소리쳤다.
"무슈," 게른제 사람이 정중하게 대꾸했다. "무엇에고 척척 대답하는 분이군요."
"말루앵, 말랭[230] 이지요."
이렇게 대답하고 생 말로 사람은 윙크를 했다.
관광객은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우리가 그 자갈땅을 모두 건너가야 합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그것을 남남동쪽에 남겨두고 왔는걸요. 우리 뒤에 있답니다."
그리고 게른제 사람이 계속했다.
"크고 작은 바위산을 모두 합하면 레 그를레에는 오십 칠 개의 갑이 있답니다."
"레 맹키에에는 사십 팔 개가 있고요." 생 말로 사람이 말했다.
여기서 대화는 생 말로 사람과 게른제 사람 사이에 집중되었다.

---

230) 간교한 생 말로 사람이라는 뜻. (말루앵: 생 말로 사람, 말랭: 간교하고 영악한 사람)

"생 말로의 무슈, 제 생각으로는 말입니다, 암초 세 개를 세지 않으셨군요."

"다 세었는데요."

"데레부터 매트르 섬까지요?"

"그럼요."

"그리고 레 매종도요?"

"물론이오, 레 맹키에 가운데 있는 일곱 개의 바위산이지 않습니까?"

"바위덩어리들도 아실 텐데요."

"바위덩어리들을 모른다면 생 말로 사람이 아닐 테지요."

"프랑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즐거운 일이군요."

이번에는 생 말로 사람이 인사를 하고 말했다.

"레 소바쥬는 세 개의 바위산이지요."

"그리고 레 무완느는 둘이고요."

"그리고 르 카나르는 하나이지요."

"르[231] 카나르는 단수이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라 쉬아르드는 네 개의 바위산이니까요."

"라 쉬아르드라고 하셨습니까?" 게른제 사람이 물었다.

"그쪽에서 레 슈아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라 쉬아르드라고 부른답니다."

"레 슈아와 르 카나르 사이를 지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랍니다."

"그것은 새들에게만 가능할 테지요."

"그리고 물고기들에게도요."

---

231) 불어의 '르', '라' 는 단수 명사 앞에 붙이는 정관사임

"물고기들에게도 그리 쉽지 않아요. 악천후에는 물고기들도 바위에 부딪친답니다."

"레 맹키에에는 모래사장이 있지요."

"레 매종 주위에 있지요."

"제르세에서 보면 그것은 여덟 개의 바위산이랍니다."

"아제트의 모래사장에서 보면, 확실합니다. 여덟이 아니라 일곱이지요."

"간조 때에는 레 맹키에에서 산책을 할 수도 있답니다."

"물론, 그것은 탐험입니다."

"그러면 레 디루이는요?"

"레 디루이는 레 맹키에와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위험하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그랑빌 쪽이지요."

"우리처럼 그쪽 생 말로 사람들도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예," 생 말로 사람이 대답했다. "다른 점이라면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다고 말하고 그쪽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당신은 훌륭한 바닷사람이군요."

"나는 황소 상인인걸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도대체 누가 생 말로 출신이었지요?"

"쉬르쿠프요."[232]

"다른 사람은?"

---

232) (1773-1827) 프랑스의 선원. 인도양에서 영국 선박을 약탈하였으며, 후에 부유한 선주가 됨.

"뒤개 트루앵이요."

여기서 상업상 여행 중인 파리 사람이 끼어들었다.

"뒤개 트루앵이라고요? 영국인에게 잡히지 않았나요. 용감할 뿐만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영국 처녀가 그를 좋아했지요. 그의 쇠사슬을 부순 것이 바로 그녀였답니다."

그 순간 우레 같은 목소리가 호통을 쳤다.

"너 취했어!"

〈4〉

클뤼뱅 선장의 진가가 발휘되는 곳

모두 돌아보았다.

키잡이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선장이었다.

시외르 클뤼뱅은 누구에게도 반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키잡이에게 반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매우 화가 났거나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었다.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사람들은 화를 폭발시킴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있다.

두 개의 외륜 박스 사이에 있는 지휘 갑판 위에 선 채로 선장은 키잡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술주정꾼 같으니!"라고 거듭 중얼거렸다. 정직한 탕그루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안개가 수평선의 거의 중간쯤까지 밀려들고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사방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안개 속에는 기름방울과 같은 무언가가 있다. 안개는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서서히 확대되고 있었다. 바람은 서두르지도

않고 소리도 없이 그것을 밀어 퍼뜨리고 있었다. 안개가 조금씩 대양을 손아귀에 넣고 있었다. 그것은 북서쪽에서 오고 있었으며 배는 그 앞쪽에서 마주하고 있었다. 마치 움직이며 시선에 잡히지 않는 거대한 절벽과도 같았다. 그것은 바다 위에서 벽처럼 잘려있었다. 거기에는 광막한 바닷물이 안개 밑으로 들어가 모습을 감추는 정확한 지점이 있었다.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지점은 아직도 대략 2킬로미터 지점 앞에 있었다. 바람이 바뀌어만 준다면 안개 속으로 잠기는 것을 피할 수 있으련만. 그러나 즉시 바뀌어야 했다. 2킬로미터라는 간격은 점점 메워지고 있었으며 혁혁히 좁아지고 있었다. 뒤랑드는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으며 안개 역시 그랬다. 그것은 배로 다가오고 있었으며 배도 그것에게로 다가가고 있었다.

클뤼뱅은 증기를 더 많이 이용할 것과 키를 동쪽으로 돌릴 것을 명령했다.

그들은 그렇게 한동안 안개와 나란히 항해했으나 여전히 전진하고 있었다. 아직도 배는 태양 빛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렇게 배를 조종하는 것은 시간만 낭비할 뿐 성공하기는 힘든 것이었다. 2월에는 금세 밤이 찾아온다.

게른제 사람은 이 안개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생 말로 사람에게 말했다.

"얼마나 짙은 안개인지 모르겠군요."

"진정으로 야비한 놈이지요." 생 말로 사람들 중 한 명이 지적했다.

다른 한 명이 덧붙였다.

"항해를 망치는 것이랍니다."

게른제 사람이 클뤼뱅에게 다가갔다.

"클뤼뱅 선장, 안개에 갇히지나 않을까 겁이 나는군요."

클뤼뱅이 대답했다.

"나는 생 말로에 남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내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대체 누가 그랬소?"

"나이든 선장들이요."

"결국," 게른제 사람이 다시 말했다. "떠난 게 잘 한 거지요. 내일 폭풍우가 닥치지 말란 법도 없잖소. 이런 계절에는 기다리다가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오."

몇 분 후, 뒤랑드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기이한 순간이었다. 일순간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었다. 축축한 잿빛 칸막이가 배를 둘로 나누었다.

그리고 나서 배 전체가 안개 속으로 잠겨들었다. 태양은 이제 커다란 달덩이에 지나지 않았다. 갑자기, 모두들 공포에 떨었다. 승객들은 외투를 입었고 선원들은 방수복을 입었다. 바다는 거의 굴곡 하나 없이 무언의 차가운 위협을 가해오고 있었다. 이 과도한 고요 속에는 어떤 암시가 있는 듯 보였다. 모든 것이 창백하고 파리했다. 검은 굴뚝과 검은 연기는 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납빛에 항거하고 있었다.

이제 동쪽으로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선장은 선수를 게른제 쪽으로 돌리고 증기를 증가시켰다.

게른제의 승객은 기관실 주위를 배회하다가 흑인 임브란캄이 그의 동료 기관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승객은 주의깊게 들었다. 흑인이 말했다.

"아침에 햇빛이 비칠 때는 천천히 가더니 이런 안개 속에서는 빨리 가는군."

게른제 사람은 다시 시외르 클뤼뱅에게 돌아갔다.

"클뤼뱅 선장, 제대로 신경을 쓰는 겁니까? 증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무슨 말씀이시오, 무슈? 이 술꾼 키잡이의 실수로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클뤼뱅 선장."

그리고 클뤼뱅은 덧붙였다.

"서둘러 가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오."

게른제 사람은 생 말로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

"훌륭한 선장을 만났어요."

가볍고 부드러운 양모 담요 같은 안개자락이 이따금씩 뒤랑드를 휘감고, 태양이 갑자기 무겁게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나타날 때는 더욱 흐려져 마치 환자 같았다. 하늘에서 잠시 보이는 태양의 일부는 극장의 더럽고 기름때 묻은 낡은 등받이 천을 닮아 있었다.

뒤랑드는 조심스럽게 미리 닻을 풀고 있는 외돛 쾌속선 근처를 지나갔다. 게른제의 *세티엘*이었다. 외돛쾌속선의 선장은 뒤랑드의 속력에 주목했다. 그 배 역시 항로를 벗어난 것 같았다. 너무 서쪽으로 간 듯했다. 안개 속에서 전속력으로 항해하는 배는 외돛 쾌속선을 놀라게 했다.

두 시경, 안개가 너무나 짙었으므로 선장은 선교(船橋)를 떠나 키잡이의 곁으로 갔다. 태양은 자취를 감추었고 안개만 자욱했다. 뒤랑드 위에는 하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희미함 속을 항해하고 있었다. 하늘도 바다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도 불지 않았다.

외륜 박스의 선교 밑 고리에 걸린 테레빈유를 넣은 양철통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승객들은 잠잠해졌다.

그러나 파리사람은 베랑제의 노래 '하느님이 눈을 뜨는 어느 날' 을 콧노래로 부르고 있었다.

생 말로 사람들 중 한 명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파리에서 오시는 무슈신가요?"

"예, 무슈. *그가 창문으로 머리를 내밀었네.*"

"파리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그들의 *행성은 분명히 사라졌을 거라네.* 무슈, 파리에서는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땅에서나 바다에서나 마찬가지이군요."

"정말 거기에는 지독한 안개가 껴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상사를 일으킬 수도 있겠군요."

파리 사람이 소리쳤다.

"그런데 왜 불상사죠! 무슨 까닭으로 불상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불상사가 무슨 소용 있죠! 그것은 오데옹[233]의 화재 같은 거예요. 빈곤 속에는 가족들이 남아 있어요. 그게 옳은가요? 이보세요, 무슈,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기분이 좋지 않군요."

"나도 마찬가지요." 생 말로 사람이 말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파리사람이 다시 말을 이었다. "무언가 탈이 난 것 같이 보이지요. 이 세상에는 하느님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 말로 사람은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정수리를 긁적거렸다. 파리 사람은 계속했다.

"하느님은 없어요. 하느님에게 억지로라도 있으라고 명령을 내려야

---

233) 파리의 극장, 두 차례나 화재가 났음

할 겁니다. 하느님은 지금 시골 별장에 가서 우리들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답니다. 역시 만사가 신통치 않지요. 분명한 것은 말이죠, 친애하는 무슈, 하느님은 더 이상 통치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휴가를 떠났다는 것이고, 지금 일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신학생 천사나 참새 날개를 가진 멍청한 대리인 녀석이라는 겁니다."

*참새*는 파리 하층민 건달들의 발음으로 표현되었다.

클뤼뱅 선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파리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쉬!" 그가 말했다. "무슈, 말조심하시오. 우린 바다에 있소."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오분 후 모든 것을 듣고 있던 게른제 사람이 생 말로 사람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선장은 경건하기도 하군요!"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몸이 젖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지나온 거리는 점점 커지는 불안의 크기로만 추정될 뿐이었다.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안개는 바다 위에 고요함을 만든다. 파도를 잠재우고 바람을 진압한다. 그 고요함 속에서 뒤랑드의 헐떡거림은 알 수 없는 불안과 슬픔을 띠고 있었다.

이제는 다른 배와 마주치는 일도 없었다. 만일 저 멀리 게른제 쪽이나 생 말로 쪽, 안개 저편 바다에 어떤 배가 있다해도 그들에게 안개에 휩싸인 뒤랑드는 보일 리 없었으며 아무 것과도 연결되지 않은 그 긴 연기도 그들에게는 그저 하얀 하늘에 검은 혜성 같이 보일 것이 분명했다.

갑자기 클뤼뱅이 소리쳤다.

"제기랄! 우릴 다 죽일 셈이야? 방금 방향을 잘못 잡았잖아. 철창에 집어넣어야 정신을 차리겠어? 썩 꺼져버려, 술꾼 같으니!" 그리고 자신이 키

를 잡았다.

모욕을 당한 키잡이는 앞쪽의 일꾼들 속으로 몸을 숨겼다.

게른제 사람이 말했다.

"우린 이제 살았군요."

빠른 항해는 계속되었다.

세 시경, 안개의 아래 부분이 들려 올라가기 시작했고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좋지 않은데." 게른제 사람이 말했다.

사실 안개는 태양과 바람에 의해서만 걷힐 수 있다. 태양에 의해서라면 그것은 좋다. 그러나 바람에 의해서라면 좋지 않다. 2월의 세 시에는 태양이 힘을 잃는다. 낮이 고비를 넘긴 이 시점에서 바람이 다시 분다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흔히 폭풍우의 예고가 된다.

게다가 미풍이 분다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

나침반 상자를 보며 키를 잡고 조종하는 클뤼뱅은 이런 말들을 중얼거렸고 그것이 승객들에게까지 들렸다.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저 술꾼이 우리 발을 묶어놨어."

그의 얼굴은 완전히 무표정 그 자체였다.

안개 밑의 바다는 덜 잠잠했다. 어렴풋이 파도가 보이기도 했다. 냉담한 빛이 기운 없이 물 위를 표류하고 있었다. 파도 위 섬광의 얇은 판이 선원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안개의 위쪽에서 부는 바람이 안개의 천장에 틈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안개가 걷혔다가 더욱 농밀하게 내려왔다. 가끔씩 완전히 어두워지기도 했다. 배는 안개의 빙원(氷原) 속에 붙잡혀 있었다. 이 위험한 원이 간격을 두고 노루발처럼 반쯤 열려 수평선을 조금 보여 주었다가 다시 닫혔다.

망원경을 든 게른제 사람은 감시병처럼 선수 쪽에 서 있었다.

잠시 빛이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졌다.

게른제 사람이 질겁하여 뒤돌아섰다.

"클뤼뱅 선장!"

"무슨 일이오?"

"레 아누와 쪽으로 돌진하고 있어요."

"잘 못 보았소." 클뤼뱅이 차갑게 말했다.

게른제 사람이 역설했다.

"틀림없어요."

"그럴 리가 없소."

"방금 수평선 쪽에서 암초를 보았어요."

"어디서요?"

"저기."

"그건 바다요. 그럴 리가 없소."

그리고 나서 클뤼뱅은 계속하여 승객이 가리킨 쪽으로 뱃머리를 향하고 있었다.

게른제 사람은 다시 망원경을 쥐었다.

잠시 후 그는 선미 쪽으로 뛰어 갔다.

"선장!"

"뭐요?"

"뱃머리를 돌려요."

"왜 그러시오?"

"아주 높은 바위가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똑똑히 봤어요. 큰 아누와라고요."

"더 두터워진 안개를 본 거요."

"큰 아누와예요. 뱃머리를 돌려요, 제발!"

클뤼뱅이 방향을 바꾸었다.

〈5〉
클뤼뱅, 최고의 찬사를 받다

삐거덕 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다 한 가운데에서 갑자기 움푹 꺼진 곳을 만나 배의 측면이 갈라지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암울한 소리들 중 하나이다. 뒤랑드가 갑자기 멈춰 섰다.

그 충격으로 승객 몇 명이 넘어져 갑판 위를 굴렀다.

게른제 사람은 두 손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레 아누와잖아요. 내가 뭐라고 합디까!"

배에서 긴 외침이 울려 퍼졌다.

"끝장났어."

클뤼뱅의 마르고 짧은 목소리가 외침 소리를 제어했다.

"누가 끝장났다는 거요! 조용히들 하시오!"

웃옷을 벗은 브란캄의 검은 상반신이 기관실에서 나왔다.

흑인은 침착하게 말했다.

"선장님, 물이 들어옵니다. 엔진이 꺼질 거예요."

끔찍한 순간이었다.

충격은 자살을 방불케 했다. 뒤랑드는 마치 바위를 공격하기라도 하듯이 달려들었다. 바위의 갑이 못처럼 배 안으로 뚫고 들어왔다. 2평방미터가 넘는 배의 널판장이 갈라지고 선수재(先手材)가 꺾이고 이물과 고물의 경사면은 부서졌으며 선수는 구멍이 나고 벌어진 선미는 무시무시한 거품을 일으키며 바닷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있었다. 배가 침몰하게 될

상처였다. 반동이 너무 강했으므로 비틀려서 격하게 움직이던 선미의 키 밧줄이 끊겼다. 배는 암초에 의해 부서지고 배 주위에는 두텁고 빽빽한 안개 밖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이제 거의 암흑상태였다. 밤이 되었다.

뒤랑드는 선수부터 물에 잠겼다. 그것은 몸 깊숙이 황소의 뿔 공격을 받은 한 마리 말이었다. 뒤랑드는 죽어가고 있었다.

반(半) 만조(滿潮)의 시간이 바다 위에서 느껴지고 있었다.

탕그루이는 술이 깼다. 난파선 속에서는 아무도 취하지 않는다. 그는 중갑판으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서 말했다.

"선장님, 화물창에 물이 차고 있어요. 십 분 후면 물이 갑판 배수구 높이까지 찰 거예요."

승객들은 미친 듯이 갑판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두려움에 팔을 뒤틀고 뱃전 위에 서서 몸을 구부리며 기관실을 쳐다보기도 하고 공포에 젖어 쓸모없는 온갖 몸짓을 하고 있었다. 관광객은 정신을 잃고 말았다.

클뤼뱅이 손짓을 하자 사람들은 조용해졌다. 그는 임브란캄에게 물었다.

"엔진이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나?"

"오륙 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게른제의 승객에게 물었다.

"나는 키를 잡고 있었소. 당신이 바위산을 보셨지요. 여기가 레 아누와 중 어느 바위 위지요?"

"라 모브요. 방금 빛이 났을 때 분명히 라 모브라는 것을 알았죠."

"라 모브 위라면," 클뤼뱅이 다시 말했다. "좌현에 큰 아누와가, 우현에 작은 아누와가 있소. 우리는 육지에서 일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오."

선원과 승객들은 시선을 선장에게 고정시킨 채 두려움에 떨며 그리고

열정적으로 귀를 기울였다.

짐을 덜어 배를 가볍게 하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했다. 화물을 바다에 버리기 위해서 선측(船側)의 현창(舷窓)을 연다면 물을 더 많이 유입시키게 된다. 닻을 내릴 필요도 없었다. 꼼짝달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깊이에서는 닻을 내린다면 닻줄이 닻채에 감기고 말 것이 분명했다. 엔진은 망가지지 않았고 불이 꺼지지 않는 한은 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므로, 다시 말해서 아직도 몇 분 동안은 바퀴를 움직이고 증기를 만들어 후진하여 암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배는 곧 침몰할 것이었다. 바위는 어느 정도까지 손상된 부분을 막아주었고 물이 들어오는 것도 막아주었다. 그것은 바닷물의 편에서 볼 때는 장애물이었다. 이 장애물을 제거한다면 물길을 틀어막는 것도 펌프로 물을 퍼내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었다. 심장에 꽂힌 비수를 빼내는 사람은 부상자를 즉시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바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곧 침몰하는 것이었다.

화물창에서 물의 공격을 받은 황소들은 울기 시작했다.

클뤼뱅이 명령했다.

"샬루프를 풀어라."

임브란캄과 탕그루이는 서둘러 밧줄을 풀었다. 경직된 나머지 선원들은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다.

"모두 밧줄로." 클뤼뱅이 소리쳤다.

이번에는 모두 명령에 따랐다.

무표정한 클뤼뱅은 오늘날의 선원들은 알아들을 수 없을 옛날 선원의 말로 계속 명령을 내렸다.

샬루프선이 바다에 떴다.

같은 순간 뒤랑드의 바퀴들이 멈추었고 연기가 그치고 기관실이 물에

잠겼다. 사다리를 따라 미끄러져 내리거나 동삭(動索)에 매달린 승객들은 샬루프선으로 내려갔다기보다 그 안으로 떨어지도록 몸을 내맡겼다. 임브란캄은 정신을 잃은 관광객을 안아 올려 샬루프선에 내려놓고 배로 다시 올라갔다.

선원들이 승객들의 뒤를 따라 달려들었다. 어린 수부가 발에 치여 굴러다녔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밟고 지나갔다.

임브란캄이 길을 가로막았다.

"소년 수부가 먼저요." 그가 말했다.

그는 검은 두 팔로 선원들을 물리치고 소년 수부를 잡아 게른제 승객에게 내밀었고 샬루프선에 서 있던 그는 소년을 받았다.

소년 수부가 구출되자 임브란캄이 옆으로 비켜서며 다른 선원들에게 말했다.

"가시오."

그동안 클뤼뱅은 그의 선실에 가서 선박서류 뭉치를 꾸리고, 나침반을 꺼냈다. 서류 뭉치와 항해기기들을 임브란캄에게, 나침반은 탕그루이에게 건네주고 그들에게 "샬루프로 내려가시오"라고 말했다.

그들은 내려갔다. 승무원들은 그들보다 먼저 내려갔다. 샬루프선이 꽉 찼다. 물살이 뱃전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자 이제는," 클뤼뱅이 소리쳤다. "떠나시오."

샬루프선에서 외침 소리가 들렸다.

"당신은요, 선장?"

"나는 남겠소."

난파당한 사람들은 협의할 시간이 없으며 기다릴 시간은 더더욱 없다. 그러나 샬루프선에 있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태인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어떤 감정을 느꼈다. 모두 한 목소리로 동시에 간청했다.

"우리와 함께 갑시다, 선장."

"나는 남겠소."

요컨대 바다 출신이었던 게른제 사람이 항변했다.

"이보시오, 선장. 당신은 레 아누와에서 좌초 됐소. 헤엄쳐서 일 마일만 가면 플랭몽에 닿을 수 있소. 그러나 배를 타면 로캔느까지 갈 수밖에 없고 거기는 이 마일 거리요. 암초에 안개까지 꼈소. 이 샬루프선으로라면 로캔느까지 족히 두 시간은 걸릴 거요. 칠흑 같은 밤이 되겠지요. 물은 차오르고 바람은 차가와 진다오. 돌풍이 가까이에 있소. 우리가 당신을 데리러 올 수 있다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지만 폭풍이 휘몰아친다면 그럴 수도 없을 거요. 여기 남는다면 끝장나고 말거요. 함께 갑시다."

파리 사람이 나섰다.

"샬루프선은 만원이고 더 이상 발 디딜 틈도 없는 게 사실이고 한 사람만 더 타도 숫자가 초과될 겁니다. 하지만 우린 열 세 명이에요. 그건 배에 있어서 불길한 숫자지요. 그러니 한 사람을 초과해서 태워서라도 숫자를 하나 늘리는 것이 훨씬 나아요. 타세요, 선장."

탕그루이가 덧붙였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지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남는 것은 옳지 않아요."

"남겠소." 클뤼뱅이 말했다. "오늘밤 폭풍우로 배가 산산조각 날 것이요. 배를 떠나지 않겠소. 배가 좌초되면 선장도 함께 죽는 것이요. 끝까지 의무를 다했다고 나에 대해 사람들이 말할 것이오. 탕그루이, 당신을 용서하겠소."

그리고 팔짱을 끼며 그가 말했다.

"명령을 들으시오. 닻을 올려라. 출발."

샬루프선이 움직였다. 임브란캄이 키를 잡았다. 노를 젓지 않는 모든

손들은 선장을 향했다. 모든 입들은 외쳤다. "클뤼뱅 선장을 위해 만세!"

"훌륭한 분이군요." 미국인이 말했다.

"무슈," 게른제 사람이 말했다. "모든 바다에서 가장 성실한 사람입니다."

탕그루이는 울고 있었다.

"내가 용기가 있다면,"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와 함께 남았을 텐데."

샬루프선이 안개 속으로 들어가 사라졌다.

이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노 젓는 소리가 점점 들리지 않게 되었다.

클뤼뱅은 혼자 남았다.

〈6〉
심연 속으로 던져진 빛

살아있는 존재와의 모든 접촉에서, 인간의 모든 소음에서 떨어져, 이 암영(暗影) 밑에, 이 바다 한 가운데 홀로이 죽도록 남겨진 이 남자는 바위 위에서 격렬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성공했다.

그는 꿈을 실현시켰다. 운명 앞으로 발행된 장기 어음이 그에게 지불되었다.

그에게는 버림받는 것이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육지에서 일 마일 떨어진 레 아누와에 있었으며 칠만 오천 프랑을 가지고 있었다. 이보다 더 교묘하게 난파가 일어난 일은 없었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클뤼뱅은 젊은 시절부터 한결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인생이라는 룰렛게임에 내기 돈으로 성실성을 걸고,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거기서 출발하여, 결정적인 순간을 참고 기다리면서, 질 때마다 내기 돈을 갑절로 걸어, 붓도록 놓아두고, 비법을 찾고, 적시를 간파하여, 망설이지 말고, 움켜쥔다. 한 건하고, 단 한 건만 하고, 마침내 판을 휩쓸고야 말아, 멍청이들을 남겨두고 떠난다. 그는 멍청한 사기꾼들이 스무 번에도 다 못한 것을 단 한 번에 성공하길 원했고 그들이 교수대로 가는 동안 자신은 부호가 되길 원했다. 우연히 랑탠느를 보자 번뜩이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즉시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랑탠느로 하여금 돈을 게워내게 한다. 그가 폭로할지도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라짐으로써 증거를 없애버린다. 그것을 위하여 뒤랑드를 버린다. 이 난파는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더구나 명망을 남기고 떠나는 것은 그의 전 생애를 바쳐 걸작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난파사건에서 클뤼뱅을 본 사람이라면 행복한 악마를 보았다고 믿을 만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그는 전 생애를 살아왔다.

그의 모든 인격이 "드디어!"라고 말했다. 무서운 침착성이 이 모색 중인 이마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흐릿한 눈과 그 눈 속에서는 점점 격해지고 끔찍해지는 어떤 벽이 보이는 듯했다. 그 벽을 통해 그가 꾀하고 있는 것이 반사되어 나타났다.

양심은 겉으로 보이는 인격처럼 전압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생각은 하나의 떠돌이 별이다. 성공의 순간에, 미리 꾸며놓았던 계획들이 슬며시 문을 열면 거기서부터 불꽃이 튀긴다. 마음속에 악의 쇠창살을 놓아두고 그 안에 있는 먹이를 느끼는 것은 겉으로까지 빛이 발산되는 행복이다. 의기양양한 못된 생각이 얼굴을 조명한다. 성공한 여러 책략들, 정확히 공격을 당한 여러 표적들, 광폭한 여러 가지 기쁨 등이 인간의 두 눈 속에

음산한 빛의 개화를 보이게도 사라지게도 한다. 그것은 즐거운 폭풍우이며 불길한 여명이다. 그것은 음영과 먹구름이 되어버린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 눈동자 속에서 빛났다.

그 빛은 우리가 하늘이나 땅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클뤼뱅의 내면에 억압된 악당이 분출되어 나왔다.

클뤼뱅은 거대한 어둠을 보았으며 나지막하고 으스스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걷잡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자유였다! 결국 그는 부자였다!

그의 계산이 실현되고 있었다. 자신의 문제를 푼 것이다.

클뤼뱅에게는 시간이 충분했다. 바닷물이 오르고 있었고 따라서 뒤랑드를 받쳐주고 있었으며 뒤랑드는 마침내 들어올려지기까지 할 것이었다. 배는 암초에 굳게 들러붙어 있었으므로 침몰할 우려는 전혀 없었다. 게다가 샬루프선이 멀어질 시간, 어쩌면 안보이게 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했고 클뤼뱅은 그것을 바랬다.

난파된 뒤랑드에 서서 팔짱을 끼고 어둠 속에 이렇게 내버려진 것을 음미하고 있었다.

위선자의 삼십 년 세월이 이 남자를 짓눌러왔다. 그는 악한 사람이었으나 정직과 짝을 이루고 있었다. 원하지 않는 상대와 결혼한 남자의 증오처럼 그는 덕을 증오했다. 그는 언제나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다. 성인이 되면서부터 허울뿐인 준엄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속으로는 악마였다. 강도의 마음으로 선량한 인간의 가죽을 쓰고 살았다. 온순한 척하는 해적이었다. 정직함의 포로였다. 순진함이라는 미라의 관속에 갇혀 있었다. 망나니에게 알맞은 찌그러진 천사의 날개를 등에 달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과중하게 받았다.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도 힘든 일이

다.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선한 말을 하며 언제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가! 그는 죄악의 유령이자 공명정대함의 유령이었다. 이 모순이 그의 운명이었다. 그는 태연해야만 했으며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해야만 했고 속에서 생기는 거품을 걷어내야 했고 이를 갈면서 미소 지어야 했다. 그에게 있어서 덕은 숨통을 죄는 것이었다. 그는 입으로 그 손을 깨물고 싶어하는 인생을 지냈다.

하지만 깨물기를 원하면서도 입맞춤을 해야만 했다.

클뤼뱅은 솔직히 그가 억압당해 왔다고 생각했다. 왜 부자로 태어나지 않았던 것일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십만 파운드의 유산을 받았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을 것이다. 왜 그는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던 것일까? 그것은 그의 잘못은 아니었다. 왜, 인생의 온갖 즐거움을 주지 않아 그가 노역을, 즉 속이고 배신하고 파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한 것일까? 왜 사람들은 그를, 이런 식으로, 잘 보이려 꾸미는, 굽실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사랑 받고 존경받으려고 애쓰는, 밤낮 자신의 얼굴과는 다른 얼굴을 해야 하는 고문 형에 처한 것일까? 감추는 것은 인정 할 수밖에 없는 폭력이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하는 사람을 증오하는 법이다. 마침내 때가 왔다. 클뤼뱅은 복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에게?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것에게.

르티에리도 그에게 언제나 선을 베푼 것은 아니었다. 그것도 불만의 씨였다. 그는 르티에리에게도 복수하고 있었다.

자신이 참아야 했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있었다. 그는 원수를 갚고 있었다. 그를 선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적이었다. 그는 그런 사람들의 포로로 지내왔던 것이다.

클뤼뱅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탈출에 성공했다. 그는 인간 세상 밖에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죽었다고 여기는 것이 그의 삶이었다. 그는 이제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진짜 클뤼뱅이 허울을 벗었다. 그가 단숨에 완전히 용해되었다. 랑텐느는 공중으로, 르티에리는 파멸로, 인간의 정의는 밤의 세계로, 세론(世論)은 오류로, 전 인류는 클뤼뱅, 그의 밖으로 차 날려 버렸다. 그는 방금 세상을 제거해 버린 참이었다.

하느님이라는 세 음절의 단어는 거의 그를 지배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왔다. 그래서 그것이 뭐 어쨌다는 것인가?

위선 속에는 은신처들이 있게 마련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위선 자체가 하나의 은신처가 된다.

클뤼뱅이 혼자 있을 때, 그의 동굴 문이 열렸다. 그는 일순간의 지극한 기쁨을 맛보았다. 그의 영혼은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그는 온 폐부에 죄를 들이마셨다.

악의 본성이 그의 얼굴에 드러나게 되었다. 클뤼뱅이 다시 피어났다. 그 순간, 그의 시선에 비하면 랑텐느의 것은 갓난아이의 시선과 같았을 것이다.

가면을 벗는다니, 이보다 더 큰 해방이 어디 있으랴! 그의 의식은 흉측하게 벗은 자신을 보는 것과 자유롭게 악 속으로 비열한 침잠을 하는 것을 즐겼다. 길고 긴 체면치레의 속박은 마침내 파렴치를 향한 미치광이 같은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만다. 우리는 결국 악랄한 행위 속에서 어떤 음탕한 것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거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이 무시무시한 도덕의 심연 속에는 죄악의 외설이라는 잔학하고도 매력적인 뭔지 모를 전시품이 존재한다. 거짓명성의 싱거움은 부끄러움이라는 식욕을 자극한다. 우리는 멸시 당하기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경멸한다. 존경을 받는다는 것에는 권태가 있다. 타락의 자유로운 행동에 탄복한다. 치욕 속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비열함을 음탕한 눈으로 쳐다본다. 강제로

떨군 우리의 두 눈은 종종 곁눈질을 한다. 수녀, 마리 알코크가 멧살리나[234]와 크게 다르지 않다. 카디에르와 루비에 수녀[235]를 보라. 클뤼뱅, 그 역시 베일 속에서 살아왔다. 뻔뻔스러움은 언제나 그의 열망이었다. 그는 매춘부와 치욕을 인정하는 뻔뻔스러움을 부러워했다. 자신을 매춘부보다 더 매춘부라고 느꼈으며 처녀로 인정받는 것에 반발했다. 그는 냉소주의적인 탄탈로스였다. 마침내 이 암초 위에서, 이 고독 속에서 솔직해질 수 있었다. 그는 진정한 그 자신이었다. 충심으로 스스로를 가증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얼마만한 쾌락인지! 지옥에나 있을 법한 모든 황홀경을, 클뤼뱅이 그 순간에 맛보았던 것이다. 은폐의 연체이자가 그에게 지불되었다. 위선은 그가 투자한 자금이며 사탄은 이자를 지불한 것이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늘밖에 없게 되자 클뤼뱅은 뻔뻔스럽게 되었다는 것에 도취되었다. 그는 "나는 망나니다!" 라고 자칭했고 그것이 만족스러웠다.

인간의 양심에 있어서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난 일은 결코 없었다.

위선자의 분화(噴火), 어떤 분화구도 그것에 견줄 수 없다.

거기에 아무도 없어서 매우 기뻤지만 설령 누군가가 있었다고 해도 유감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목격자의 앞에서 소름끼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즐겼을 것이다.

인간이라는 족속의 면전에 대고 "멍청한 것!" 이라 말하는 것을 행복해했을 것이다.

아무도 없다는 사실은 그의 승리를 공고히 했지만 그 가치를 떨어뜨렸다.

---

234) 마리 알코크: 견신(見神)하여 성심(聖心)회에 헌신한 17세기의 수녀,
멧살리나: 로마 황제 클로드의 음탕한 황후

235) 고해 신부에게 유혹 당하고 마녀로 고발당함.

그가 거둔 승리의 영광을 목격하는 관중은 오로지 그 자신뿐이었다.

굴레에 얽매여 있는 것은 매혹적인 일이다. 비열한 자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보기 때문이다.

군중으로 하여금 자신을 꼼꼼히 뜯어보도록 강요하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목에는 쇠고랑을 차고 네거리의 단(壇) 위에 선 노예는 그를 향해 몸을 돌리도록 강요하는 모든 구경꾼들을 지배하는 폭군이다. 그가 서있는 단상은 대좌(臺座)와도 같은 것이다. 모든 사람의 주의가 쏠리는 중심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승리인가? 구경꾼의 눈동자가 시선을 주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것은 최고 권력의 여러 형태 중 하나다. 악을 이상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오명은 영광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내려다본다. 그들은 무엇인가의 위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온 세상에 공개된 형틀은 대좌와 유사한 점이 없지 않다.

전시된다는 것은 주목받는다는 것이다.

악한 세계에는 분명히 죄인 공시대(公示臺)의 쾌락이 있다. 로마에 불을 지른 네로 황제, 비겁하게 팔라스티나를 점령한 루이 14세, 나폴레옹을 서서히 죽인 섭정 죠르쥬, 문명세계의 면전에서 폴란드를 무참하게 살해한 니콜라스도 분명히 클뤼뱅이 꿈꾸었던 쾌락과 같은 것을 맛보았을 것이다. 엄청나게 빗발치는 경멸은 그것을 당하는 자에게 위대함이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준다.

누군가에 의해 가면이 벗겨지는 것은 실패지만 스스로 가면을 벗는 것은 승리다. 승리는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모욕하기 위해 계산된 도취, 오만하고 경솔한 자기만족, 미쳐 날뛰는 벌거숭이 상태이다. 지극히 행복한 순간이다.

위선자의 생각들은 하나의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비열함은 일관된 논리를 지닌다.

꿀이 담즙이다. 에스코바르가 냉소주의자 사드 후작과 나란히 있다. 그 증거는 레오타드이다.[236] 철저히 악한 위선자는 그의 내면에 사악의 양극을 가지고 있다. 사제의 한 극이요 아첨꾼의 다른 한 극이다. 그는 악마와 마찬가지로 양성(兩性)이다. 위선자는 무시무시한 악의 신 헤르마프로디토스다. 그것은 혼자서 수태한다. 스스로 생겨나고 스스로 모습을 바꾼다. 아름다운 면을 보고 싶으면 그대로 보고 무시무시한 면을 보고 싶으면 돌려놓고 보면 된다.

클뤼뱅은 그의 내면에 혼란한 생각들의 이러한 모든 그림자를 갖고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거의 분간하지는 못했으나 무척 즐기고 있었다.

밤에나 볼 수 있을 지옥 불꽃의 움직임이 그의 마음속 사고의 연속이었다.

클뤼뱅은 그렇게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뱀이 벗어놓은 제 허물을 보듯 자신의 성실했던 허울을 보고 있었다.

누구나 그 성실성을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심지어 자신도 어느 정도는 그랬다.

그는 잠시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믿을 테지만 그는 부자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가 길을 잃었다고 믿을 테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하여 기막히게 골탕 먹인 꼴이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의 어리석음에는 랑텐느도 있다. 클뤼뱅은 한없이 멸시하며 랑텐느를 생각했다. 호랑이를 향한 족제비의 멸시였다. 랑텐느는 종적을 감추는 데 실패했지만 그 자신, 클뤼뱅은 성공했다. 랑텐느는 허둥

---

236) 에스코바르: 18세기의 결의론자, 스페인의 예수회 수사. 레오타드: 프랑스 사제, 1848년에 살인, 소녀를 겁탈하려 한 죄를 범함.

지둥 가버렸지만 클뤼뱅은 의기양양하게 사라졌다. 랑탠느의 범죄를 이용하여 그 대신 행운을 차지하였다.

미래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가 확고부동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의 돈주머니 속에 감춰진 쇠 상자에는 세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다. 그는 이름을 바꿀 것이었다. 육만 프랑이 육십만 프랑의 가치를 갖는 나라들이 있다. 랑탠느라는 도둑에게서 빼앗은 돈을 가지고 그런 나라 중 하나로 가서 성실하게 사는 것도 나쁜 방안은 아닐 것이었다. 투기를 하고 도매업에 손을 대고 자본을 늘리고 대부호가 되는 것 역시 전혀 해롭지 않을 것이었다.

가령, 코스타리카에서는 커피 도매업이 초기 단계에 있었으므로 벌어들일 막대한 돈이 있었다. 생각해 볼 일이었다.

아무래도 좋았다.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다. 당장은 어려운 일이 끝났다. 가장 큰 일이었던 랑탠느의 주머니를 털어 뒤랑드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끝난 것이다. 나머지는 간단했다. 이제부터는 장애물이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었다. 돌발 사태란 전혀 없었다. 헤엄을 쳐서 해안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야심을 틈타 플랭몽으로 갈 것이고 절벽을 기어오를 것이고 귀신들린 집에 곧장 갈 것이며, 바위에 난 구덩이 속에 미리 숨겨둔 매듭 밧줄로 간단히 집안에 들어갈 것이고, 그 귀신들린 집에서 부숭부숭한 옷과 비상식량이 든 그의 가방을 찾을 것이며, 거기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스페인 밀수업자 블라스키토가 플랭몽에 이르는 데는 일주일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을 틀림없이 들었다. 추격을 따돌리고 사냥개를 속이기 위해 그가 블라스코에게 말한 토르배이가 아니라 파자쥬나 빌바오까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갈 수 있을 것이었다. 거기서 베라 크루즈나 뉴올리언스로 갈 수 있을 것이었다. 게다가 이제 바다로 뛰어들 시간이 왔다. 샬루프선은 멀어졌고 클뤼뱅으로서

는 한 시간정도 헤엄치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고작 육지까지는 일 마일이었다. 레 아누와에 있었기 때문이다. 클뤼뱅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안개의 한 자락이 찢겨 나갔다. 그 때 어마어마한 바위산 두브르가 나타났다.

〈7〉

예기치 못한 운명에 부딪치다

공포로 일그러진 클뤼뱅이 쳐다보았다. 그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외딴 암초였다.

이 불구의 실루엣을 달리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두 개의 쌍둥이 두브르가 그것들 사이에 마치 함정처럼 협로를 드러내 보이며 흉측스럽게 서 있었다. 자객이 출몰하는 바다의 험악한 통로라 일컬을 만했다.

그것들은 매우 가까이 있었다. 안개가 마치 공범처럼 그것들을 숨기고 있었다.

클뤼뱅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잘못 들었던 것이다. 그렇게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척의 대형 선박, 블랑 갑을 발견했던 곤잘레즈와 베르 갑을 발견했던 페르낭데즈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에게도 일어났던 것이다. 안개가 그를 빗나가게 했다. 안개는 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이용하기에 썩 좋아 보였지만 위험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클뤼뱅은 서쪽으로 빗나갔고 실수를 범했다. 게른제 승객이 레 아누와를 보았다고 한 것이 마지막 키를 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클뤼뱅은 레 아누와로 달려들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암초의 물밑 부분에 부딪혀 균열이 생긴 뒤랑드는 두 개의 두브르에서

몇 백 미터정도 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백 길 정도 멀리에 육중한 화강암 입방체가 눈에 띄었다. 그 암석의 깎아지른 듯한 표면에는 침식으로 패인 홈과 울퉁불퉁한 기복이 보였다. 직각으로 난 거친 벽의 곧은 모서리를 보고 정상에 있는 고원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것이 옴므였다. 옴므 바위는 두 개의 두브르 바위보다 더 높이 솟아 있었다. 가장자리가 무너진 이 고원에는 갓돌이 있었으며 딱히 표현 할 수는 없지만 조각품의 균형미와도 같은 것을 지니고 있었다. 이보다 더 슬프고 비통해 보이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바다와 밤의 수많은 유령을 위한 제단(祭壇)같은 이 거대한 검은 토막의 각진 면으로 먼바다의 파도는 차분한 제단보의 주름을 잡으러 밀려들곤 했다.

이곳의 일체는 괴어 있었다. 공중에는 바람이 불까 말까, 파도에는 잔물결이 일까 말까한 정도였다. 바닷물의 말없는 표면 아래 심연 속으로 잠겨드는 거대한 삶을 분간할 수 있었다.

클뤼뱅은 항해 중에 멀리에서 두브르 암초를 지나치곤 했다. 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급작스럽고도 끔찍한 돌발사태였다. 레 아누와가 아니라 두브르였다. 일 마일이 아니라 바닷길 이십 킬로미터였다. 바닷길 이십 킬로미터라니! 불가능했다. 두브르 바위는, 고립된 조난자로서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의 현실이었다. 상륙 금지.

클뤼뱅은 몸서리쳤다. 어둠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기를 자초한 셈이었다. 옴므 바위 외에 다른 도피처라고는 없었다.

밤에는 폭풍우가 들이닥칠 것이 뻔했고 인원이 초과된 뒤랑드의 샬루프선도 뒤집어질 것이 뻔했다. 조난 소식이 육지에 전해질 리 만무했다. 클뤼뱅이 두브르 암초에 남아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할 것이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한 죽음 외에는 아무런 예측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칠만 오천 프랑은 그에게 빵 한 입도 줄 수 없을 종잇장에 불과했다. 모든 용의주도한 계략이 재앙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자신의 참사를 위해 애쓴 꼴이 되어버렸다. 아무런 대책도, 구세주도 없었다.

승리는 궁지로 변하고 말았다. 해방은커녕 포로 신세였다. 순탄한 긴 앞날은커녕 임종을 눈앞에 둔 고통뿐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갯불이 한 번 지나는 사이에, 그가 만들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이 악마가 꿈꾸던 낙원은 그 진정한 모습, 무덤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동안 바람이 일고 있었다. 흔들리고 구멍 나고 찢어진 안개는 형태 없는 여러 개의 커다란 덩어리로 뒤죽박죽되어 수평선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바다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황소들은 점점 더 밀려드는 물로 인해 화물 창 속에서 고함치듯 계속 울어댔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칠 것이 분명했다.

바닷물이 올라옴에 따라 조금씩 다시 떠오른 뒤랑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흔들거리더니 축을 돌듯이 암초의 둘레를 돌기 시작했다.

파도가 그것을 앗아가 물결을 따라 끌고 갈 순간을 예견할 수 있었다.

난파당하던 순간보다 날은 덜 어두웠다. 시간이 계속 흐르긴 했지만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안개가 사라지면서 어둠의 일부를 실어갔다. 서쪽은 커다란 먹구름에서 벗어나 있었다. 황혼녘의 하늘은 거대하고 하얬다. 그 거대한 미광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뒤랑드는 선미에서 선수까지 사면에 좌초되어 있었다. 클뤼뱅은 거의 물 밖에 있는 배의 선미 쪽으로 올라가 수평선에 시선을 박고 있었다.

위선의 속성은 끝까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위선자는 기다리는 사람이

기 때문이다. 위선은 추악한 희망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거짓의 끝은 악덕이 되는 덕으로 이루어진다.

이상하게도 위선에는 신념이 있다. 위선자는 악을 행해도 상관없다는 덤덤함에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클뤼뱅은 거리를 가늠해보았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이 음흉한 인간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 긴 안개가 걷히고 나면 안개 속에 멈춰있었거나 닻을 내리고 있었던 배들이 항해를 재개할 것이고 분명히 그중 하나가 수평선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말 돛 하나가 나타났다. 그것은 동쪽으로부터 와서 서쪽으로 가고 있었다. 배가 가까워질수록 배의 복잡한 형태가 뚜렷해졌다. 그것은 외돛배였으며 스쿠너 선에 선구를 갖추고 있었다. 선체 앞쪽에 비스듬히 설치되어야 하는 보프레는 거의 수평에 가까웠다. 그것은 외돛 쾌속선 쿠트르였다.

반시간이 되기 전에 배는 두브르 암초를 매우 가까이 지나갈 것이었다. 클뤼뱅은 "살았다"고 중얼거렸다.

그가 처해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무엇보다 목숨을 생각한다.

그 쿠트르 선은 외국배 같았다. 플랭몽으로 가는 밀수업자들의 배 중 하나일지 누가 아는가? 그것이 바로 블라스키토일지 또 누가 아는가? 그렇다면 목숨뿐만 아니라 돈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두브르 암초와 만난 것은, 결말을 앞당기면서, 귀신들린 집에서의 기다림도 생략하면서, 망망대해로의 모험을 열면서, 행복한 사건이 될 수 있을 것이었다.

성공에 대한 모든 확신이 자꾸만 그의 어두운 정신에 떠올랐다. 악당들이 순진하게 성공을 확신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바위들 틈에 끼어 있는 뒤랑드는 바

위들의 실루엣에 그것의 실루엣이 뒤섞여 있었으며 바위들의 톱니 모양과 혼동되어 있었다. 그 가운데 뒤랑드는 하나의 윤곽에 지나지 않았으며 구별되지도,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저녁의 박명 속에서 지나가는 배의 주의를 끈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황혼녘의 흰 빛에 검게 두드러진, 옴므 바위의 고원에 서서 조난신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형태는 의심의 여지없이 눈에 띌 것이었다. 누군가가 조난자를 구하기 위해 작은 배를 보낼 것이었다.

옴므 바위까지는 약 이삼백 미터의 거리 밖에 되지 않았다. 헤엄쳐 가는 것은 간단한 일이었으며 바위를 기어오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뒤랑드의 선수 쪽은 바위에 끼어 있었으므로 선미 쪽의 가장 높은 곳이자 클뤼뱅이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물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그는 수심 측량기를 물 속에 투하해보고 선미 쪽의 아래로 수심이 매우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심 측량기의 수지(獸脂)에 묻어난 유공충류(有孔蟲類)와 폴리시스티네아의 미세한 껍질들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물밑으로 매우 깊이 패인 바위의 혈(穴)이 있으며 수면이 제 아무리 요동을 칠지라도 물 속은 언제나 고요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옷을 벗어 갑판 위에 놓았다. 이 옷을 쿠트르 선에 올라 다시 찾아 입을 셈이었다. 그는 가죽 주머니만을 몸에 찼다.

옷을 벗고 나서, 주머니를 다시 단단히 채우고, 그 안의 쇠 상자를 손으로 만져보고, 옴므 바위에 닿기 위해 암초의 둑과 파도를 지나 그가 가야 할 방향을 재빨리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머리를 아래로 하고 물에 뛰어들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으므로 깊이 잠겨 들어갔다. 물 속 깊숙이 들어가

바닥까지 이르렀고 바닥을 만져 잠시 물밑의 암초를 따라간 후 수면으로 다시 오르기 위해 반동을 주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발을 움켜잡는 것을 느꼈다.

VII
경솔한 질문

〈1〉
구렁 속의 진주

시외르 랑드와와 짧은 대화를 나눈 몇 분 후, 질리아는 생 상송에 있었다.

질리아는 안절부절 못 할 정도로 불안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생 상송은 겁에 질린 벌집 같은 분위기였다. 모두가 문 앞에 나와 있었다. 여자들은 탄성을 지르고 있었다.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쉴 새 없이 요란한 몸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들을 에워싸 그룹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 불상사가!" 하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 어떤 얼굴들은 조소하고 있었다.

질리아는 어느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다. 그는 질문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더구나 너무 흥분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 수도 없었다. 그는 전해 듣는 이야기는 경계했다. 단번에 모든 것을 아는 편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곧장 레 브라베로 향했다.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 그는 불안했다. 게다가 부두로 난 낮은 거실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문간은 남자와 여자들로

북적거리고 있었다. 모두들 들어갔고 그도 들어갔다.

들어가면서, 문틀에 기대고 서 있는 시외르 랑드와를 만났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질리아에게 말했다.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시겠소?"

"아니요."

"길에서 떠들며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불행을 노래하는 새 같이 보이니까요."

"무슨 일인데요?"

"뒤랑드가 사라졌답니다."

거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다.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며 환자의 병실에서처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웃들, 지나가는 행인들, 구경꾼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일종의 걱정스런 모습으로 문가에 빽빽이 몰려 있었으며, 앉아서 울고 있는 데뤼셰트와 그 옆에 서 있는 메스 르티에리가 보이는 거실 안쪽은 비어있었다.

메스 르티에리는 안쪽 칸막이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다. 선원 모가 눈썹까지 푹 눌러 씌어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털이 뺨에 늘어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팔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으며 입은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다. 벽에 매달린 물건 같이 보였다.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삶이 방금 와르르 무너져 내린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았다. 뒤랑드가 없었으므로 르티에리도 있을 이유가 없어졌다. 그가 바다에 가지고 있던 영혼 하나가 방금 침몰해버린 것이었다. 그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매일 아침 일어나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고. 이제는 뒤랑드를 기다릴 수도, 떠나는 것을 볼 수도,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도 없게 되었다. 목표가 없는 존재의 나머지는 무엇인가? 마시고

먹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사람은 걸작품으로 그의 모든 일을 완성했으며 진보로 모든 헌신을 완성했다. 진보는 사라졌고 걸작품도 죽어 없어졌다. 공허하게 몇 년을 더 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나이에 시작을 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그는 망했다. 가여운 늙은 사람!

그의 곁 의자에 앉아 울고 있는 데뤼셰트는 두 손으로 메스 르티에리의 주먹 쥔 한쪽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손은 모아져 있었으며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두 절망의 미묘한 차이점이 그러했다. 모아진 두 손에는 아직도 무언가 희망이 있지만 꽉 쥐어진 주먹에는 아무것도 없다.

메스 르티에리는 그의 팔을 그녀에게 맡기고 있었으며 그녀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었다. 그는 수동적이었다.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고 난 뒤에 가질 수 있는 양의 삶밖에 남은 것이 없었다.

심연의 바닥에는 산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을 잡아당기는 몇몇 지점들이 있다. 당신의 방을 오가는 사람들은 헛갈리고 구별하기 어렵다. 그들은 당신에게까지 도달하지 않은 채 당신을 만난다. 그들에게 있어서 당신은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며 당신에게 있어서 그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행복과 절망은 똑같이 견딜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절망한 사람은 매우 멀리에서 타인들의 삶을 본다. 그는 타인의 존재를 거의 무시하고, 그 자신이 존재한다는 감각을 상실한다. 살과 뼈가 있다해도 아무 소용없다. 더 이상 스스로를 현실로 여기지 않는다. 그 자신에게 그는 하나의 꿈일 뿐이다.

메스 르티에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시선을 지니고 있었다.

무리를 지은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들은 서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교환했다. 이야기들은 이런 것이었다.

어제 해가 지기 약 한 시간 전쯤 안개로 인해 두브르 바위에서 뒤랑드

가 좌초되었다. 배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선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샬루프선을 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안개에 뒤를 이어 일기 시작한 남서쪽의 광풍이 자칫 그들을 다시 조난당하게 할 뻔하여 그들은 게른제 앞의 난바다로 떠 밀려나갔다. 밤에 그들은 *캐시미어*를 만나는 요행을 얻어 생 피에르 포르로 갈 수 있었다. 모든 것이 키잡이 탕그루이의 잘못이었으며 그는 감옥에 갇혔다. 클뤼뱅은 고결한 사람이었다.

무리를 지은 사람들 중에 많았던 조종사들은 두브르 암초라는 그 말을 특별하게 발음하고 있었다. "몹쓸 여인숙 같으니!" 그들 중 하나가 말했다.

테이블 위에는 나침반과 장부와 수첩 더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틀림없이 샬루프선이 출발하는 순간에 클뤼뱅이 임브란캄과 탕그루이에게 맡긴 뒤랑드의 나침반과 선박서류들이었다. 자신이 죽는 순간에 서류뭉치까지 구한 그 사람의 거룩한 희생이요, 위대함으로 가득한 작은 일화이자 숭고한 무사(無私)의 경지였다.

사람들은 클뤼뱅을 찬미하는데 한결같았으며 나아가 결국에는 그가 구출될 것이라고 믿는데 있어서도 한결같았다. 쿠트르 선 *셸티엘*은 *캐시미어*보다 몇 시간 후에 도착했었다. 마지막 소식을 싣고 온 것이 바로 이 쿠트르 선이었다. 그것은 뒤랑드와 같은 바다에서 스물 네 시간을 보냈었다. 안개가 꼈을 동안 바다에서 기다렸다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동안 지그재그로 항해했다. *셸티엘*의 선장도 군중 속에 끼어 있었다.

질리아가 들어왔을 때 그 선주는 메스 르티에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참이었다. 그 이야기는 실제적인 보고서였다. 아침 무렵, 광풍이 그치고 바람이 순해졌을 때 *셸티엘*의 선장은 바다 한 가운데서 소 울음소리를 들었다. 바다의 한 복판에서 들리는 초원의 소리는 그를 놀라게 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배를 몰았고, 두브르 바위틈에 있는 뒤랑드를 보았다. 접근하기에 충분한 소강상태였다. 난파선을 향해 소리쳐 불렀다. 화

물 창 속에서 물에 잠겨 있었던 소의 울음소리만이 유일한 대답이었다.

*셀티엘*의 선장은 뒤랑드에는 아무도 없다고 확신했다. 난파선은 완전히 그 속에서 지낼만했다. 그러므로 광풍이 매우 심했다 하더라도 클뤼뱅은 거기서 밤을 보낼 수 있을 것이었다.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구조되었을 것이었다. 안개에서 벗어난 그랑빌과 생 말로의 샬루프선과 루그르[237] 선 몇 척은 어제 저녁, 의심할 여지도 없이 두브르 암초 가까이 해안을 따라 항해했을 것이었다. 그 배들 중 하나가 틀림없이 클뤼뱅 선장을 구했을 것이 분명했다. 뒤랑드를 떠날 때 샬루프는 꽉 찼었다는 것과 수많은 위험을 무릅쓰며 갔다는 것, 한 사람만 더 타도 정원이 초과되어 침몰할 우려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특히 그것이 클뤼뱅을 난파선에 남을 수밖에 없도록 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이상, 구조선이 나타나면 클뤼뱅은 분명히 그것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장애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영웅이지 어리석은 자는 아니다. 클뤼뱅이 비난받을 일이 아닌 만큼 자살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다. 죄인은 탕그루이지 클뤼뱅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했다. *셀티엘*의 선장은 분명 옳았고 모두들 이제나저제나 클뤼뱅이 다시 나타나기만을 고대했다. 그들은 그를 헹가래 칠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있었다.

선장의 이야기로부터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클뤼뱅은 구조되고 뒤랑느는 가망이 없다.

뒤랑드로 말하면 재앙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음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셀티엘*의 선장은 난파의 마지막 상황을 목격했다. 말하자면 뒤랑드가 못 박혀 있던 매우 뾰족한 바위는 밤새도록 꿋꿋하게 버텼으며 마치 바위

---

237) 노르망디 지방의 연안 항해용 범선

가 자신을 위해 난파선을 지켜주기를 원하기라도 한 듯 폭풍우의 공격을 견뎌냈다. 그러나 아침이 되어, *셸티엘*이 구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뒤랑드로부터 멀어지던 순간, 폭풍우의 화난 마지막 공격처럼 갑자기 큰 파도가 일었다. 파도는 뒤랑드를 미친 듯이 들어올렸으며 암초의 둑에서 떼어내서, 화살을 쏘듯이 전속력으로 곧장, 두 개의 두브르 바위 사이에 내동댕이쳤다.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이 들렸다고 선장은 말했다. 파도에 어느 정도 높이까지 실려 올라간 뒤랑드는 두 바위 사이에 중앙 늑재 부분까지 좌초되고 말았다. 배는 다시 못 박힌 듯 그러나 바다 밑 암초의 둑 위에서보다 더 단단히 고정되었다. 통탄스럽게도 모진 바람과 망망한 바다에 내맡겨진 채 거기서 그렇게 매달려 있게 될 것이었다.

*셸티엘*의 선원들의 말에 따르면 뒤랑드는 벌써 서너 군데나 부서졌다. 만일 암초가 붙들고 받쳐주지 않았다면 분명히 밤사이에 침몰했을 것이었다. *셸티엘*의 선장은 망원경으로 난파선을 살펴보았다. 그는 바닷사람답게 정확히 재난의 세부 사항을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었다. 우현의 후반부는 구멍이 났고, 잘려나간 돛대들, 가장자리에 누빈 줄을 따라 찢어진 돛, 거의 완전히 잘린 슈라우드의 사슬들, 떨어진 돛의 활대에 맞아 찌그러진 방수 덮개의 구멍 창, 매인 마스트의 측면부터 후미의 난간에 이르기까지 뱃전의 높이로 부서진 늑재의 말단, 무너진 식당의 돔, 곤두박질친 샤루프 받침대, 분해 된 갑판 위의 선실, 꺾인 키의 축, 풀린 키의 사슬, 완전히 잘린 현장(舷牆)들, 완전히 날아간 갑판의 계주(繫柱)들, 파괴된 돛대의 횡목, 없어진 뱃전의 난간들, 금이 간 선미재(船尾材). 이것이 폭풍우가 미쳐 날뛴 파괴의 전모였다. 선수 쪽 돛대에 고정된 선적용 기중기로 말하자면, 거기에는 아무 것도, 아무 흔적도 없이, 깨끗이 씻겨 나갔으며, 갱드레스[238]도 도르래 장치들도, 쇠 도르래도, 사슬도, 모든 것이 사라진 부분이었다. 뒤랑드는 분해되었다. 이제 바닷물이 배를 분해하기 시작

할 것이었다. 며칠 후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놀라운 물건이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던 엔진은 그 참해 중에서도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셀티엘*의 선장은 크랭크는 심각한 손상을 조금도 입지 않았다고 확언할 수 있었다. 배의 돛대들은 휘었지만 엔진의 굴뚝은 그대로였다. 함교(艦橋)의 쇠 칸막이만 뒤틀렸을 뿐이었다. 실린더는 타격을 입었고 케이스는 손상되었으나 바퀴들은 날개 하나도 다치지 않은 듯 했다. 엔진은 그대로였다. 이것이 *셀티엘*의 선장의 신념이었다. 무리 중에 섞여 있던 화부 임브란캄은 이러한 신념을 같이 했다. 여느 백인보다 똑똑한 이 흑인은 엔진 숭배자였다. 그는 검은 손의 열 손가락을 벌리며 팔을 들어올려 아무 말 없는 르티에리에게 "선주님, 엔진은 살아 있답니다."라고 말했다.

클뤼뱅의 구조는 확실하다고 생각했고, 뒤랑드의 선체는 희생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대화는 엔진으로 옮아갔다. 사람들은 마치 사람에게 관심을 갖듯이 엔진에 관심을 보였다. 그들은 엔진의 상태에 감탄하고 있었다. "정말 대단한 물건이군요." 어떤 프랑스 선원이 말했다. "그러면 뭘 한담!" 한 게른제 어부가 소리쳤다. "두세 개의 찰과상 정도로 그치고 거기서 나오려면 마술이라도 부려야 할 거요." *셀티엘*의 선장이 다시 말했다.

조금씩 이 엔진이 유일한 관심거리가 되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뜨겁게 했다. 그것에게는 아군과 적군이 있었다. 오래된 좋은 쾌속 범선을 갖고서 뒤랑드로부터 고객을 되찾아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둘이 아니었으며 그들은 두브르 암초가 신 발명품을 정당하게 벌하는 것을 슬퍼하지는 않았다. 수군대는 소리는 웅성거리는 소리로 변해갔고, 거의 소란스러워졌다. 그러나 여전히 약간 조심성 있는 웅성거림이었고 르티에리의 음

---

238) 마스트 세우는 굵은 밧줄

울한 침묵의 압력 아래, 돌연 목소리가 낮아지기도 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의 대화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다. 엔진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배는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엔진은 그럴 수 없었다. 그 엔진은 유일한 것이었다. 그것과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한 돈도 없고 기술자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 엔진을 만든 기술자가 죽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것은 사만 프랑이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그만한 돈을 들여 그러한 우연에 모험을 걸지 않았다. 여느 배와 마찬가지로 증기선도 사고를 당한다는 것이 판명된 이상 더더욱 그러했다. 뒤랑드가 당한 사고는 과거의 성공을 송두리째 몰락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기계장치가 지금은 완전하고도 좋은 상태이지만 대엿새가 못되어 선체처럼 조각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통탄할 일이었다. 엔진이 존재하는 한은, 말하자면, 난파를 당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엔진에 손상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엔진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재난을 만회하는 길이었다.

엔진을 구한다고 말하기는 쉬웠다. 그러나 누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일까? 생각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며 꿈을 생각하기란 쉽지만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런데 일찍이 실현불가능하고도 무모한 꿈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두브르에 좌초된 엔진을 구하는 것이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배와 선원을 보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생각하고 말고 할 문제도 아니었다. 바다가 험한 계절이라 광풍이 한 번만 몰아쳐도 닻의 사슬이 바다 밑에서 둑을 이루고 있는 암초의 능선에 톱으로 켠 듯 잘릴 것이며 배는 암초에 부딪쳐 부서지고 말 것이었다. 그것은 첫 번째 난파선을 구하러 간 두 번째 난파선이 될 것이었다. 굶어 죽은 전설 속의 조난자가 피난해 있었던 바위 꼭대기 고원의 구멍은 겨우 한 사람이 들어갈까 말까

할 크기였다. 그렇다면 엔진을 구하기 위해서는 단 한 사람만이 두브르로 가야 하는 것이었다. 망망대해에 홀로, 황량한 암초에 홀로, 이곳 해안에서 이십 킬로 밖에 홀로, 심한 공포 속에 홀로, 일주일 내내 홀로, 예상했던 일과 예상 밖의 일 앞에 홀로, 궁핍의 괴로움 속에서 아무런 지원도 없는, 곤궁의 재난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없는, 이와 같은 비참함으로 숨을 거둔 옛 조난자의 흔적 외에는 인간의 아무런 흔적도 없는, 자신의 죽음 외에는 아무런 동료도 없는, 그곳에 홀로 가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엔진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엔진을 구할 사람은 선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장장이이기도 해야 할 것이었다. 게다가 그가 이겨야 할 어마어마한 시련이라니!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영웅 이상일 것이었다. 그것은 어쩌면 미친 사람일는지도 몰랐다. 초인이 필요할 것 같은 상궤를 벗어난 어떤 계획에 있어서, 용기는 그 위에 광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결국, 고철덩어리를 위해 몸을 바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아무도 두브르 바위섬에는 가지 않을 것이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엔진도 포기해야 했다. 그것을 구해올 만한 사람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는단 말인가?

이것은 조금씩 다르게 언급되었으나 그곳에 모인 군중이 수군거린 모든 주제의 골자였다.

한때는 조종사이기도 했던 *셸티엘*의 선장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 모두의 생각을 일축했다.

"어림없는 소리! 이제 끝났소. 거기까지 가서 엔진을 가져올 사람이 어디 있겠소."

"나도 거기에 가 보았지만," 임브란캄이 덧붙였다.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셀티엘*의 선장이 왼 손을 흔들어 불가능한 일이라는 신념을 표시하는 거친 행동을 하고 다시 말을 이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데뤼셰트가 고개를 돌렸다.

"내가 그와 결혼하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갑자기 조용해졌다.

여러 무리 가운데서 매우 창백한 얼굴의 남자 하나가 나와 말했다.

"당신이 그와 결혼하겠다고요, 미스 데뤼셰트?"

질리아였다.

그동안 모든 눈이 들어올려졌다. 메스 르티에리도 몸을 곧추 세웠다. 눈썹 아래로 심상치 않은 빛이 빛났다.

그는 주먹으로 선원모를 쥐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은 채 자신의 앞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데뤼셰트가 그와 결혼할 것이오. 하느님께 맹세하오."

〈2〉
서쪽 해안의 놀라운 소식

그 날 밤 열시에 달이 떠오를 것이었다. 그러나 밤과 바람과 바다의 아름다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게른제의 크고 작은 어떤 항구에서도, 우그 라 페르, 부르도, 우메 브네, 플라퉁, 포르 그라, 바종 만, 페렐 배, 프즈리, 티엘, 레 생 만, 프티 보에서도 고기를 잡으려는 어부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했다. 수탉이 정오에 울었던 것이다.

수탉이 평소와 다른 시간에 울면 고기잡이를 하지 않는다.

그 날 저녁, 어둠이 내리자, 옹톨로 돌아온 한 어부는 눈앞의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메 파라디 쪽에, 브래와 그륀의 앞으로, 오른쪽에는 뒤집힌 깔때기를 연상시키는 플라트 푸제르의 항로표지가, 왼쪽에는 사람의 형상을 연상시키는 생 상송의 항로표지가 있었는데 그 어부는 세 번째 항로표지를 본 것 같았다. 이 항로표지는 무엇일까? 언제 그것을 거기에 세워 둔 것일까? 어떤 여울을 표시하는 것일까? 항로표지는 즉시 해답을 주었다. 그것은 움직이고 있었다. 돛대였던 것이다. 어부의 놀람은 수그러들 줄을 몰랐다. 항로표지라 해도 놀라웠지만 돛대는 더더욱 놀라웠다.

아무도 낚시질을 하지 않는 날이었다. 모두들 돌아갈 시간에 누군가가 나왔다. 누구일까? 왜일까?

십분 후 돛대는 천천히 나아가더니 옹톨의 어부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 그 배를 알아볼 수 없었다. 노 젓는 소리를 들었다. 한 쌍의 노만을 사용하는 소리였다. 믿을 수 없지만 단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바람은 북쪽에 있었으며 그 사람은 확실히 퐁트넬 갑의 앞쪽으로 바람을 받으러 가기 위해 노를 젓는 것이었다. 아마도 거기에 이르면 그는 돛을 올릴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는 앙크레스와 몽 크르벨을 돌아 항해할 셈이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돛대는 지나갔고 어부는 돌아갔다.

같은 날 밤, 게른제의 서쪽 해안에서는, 다양한 시간에 여러 장소에서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된 분산되고 고립된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했다.

옹톨의 어부가 그의 배를 정박시켰을 무렵, 반마일 정도 더 먼 곳에서는, 갈조류를 운반하는 마차꾼이, 크롬렉과 이웃한, 6번과 7번 해안방비 원형 포탑 근처, 클로튀르의 황량한 거리에서 말에게 채찍질을 하다가,

꽤 멀리 수평선쪽, 그곳에 매우 정통한 사람만이 갈 수 있으므로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바다에서, 누군가가 올리고 있는 돛을 보았다. 그런데 그는 짐수레에 신경을 쓰느라 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

마차꾼이 그 돛을 보고 나서 삼십분이 지나고, 도시에 있는 작업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미장이가 플레 늪을 피해 돌아갈 때, 매우 대담하게 크농의 두 암초, 루스 드 메르와 그리프 드 루스 사이로 끼어 들어가는 배의 거의 정면에 우연히 있게 되었다. 밤이 이슥했지만 자주 생기는 현상으로, 바다는 환했기 때문에 먼 바다에서 오고 가는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었다. 바다에는 그 배뿐이었다.

좀 더 낮은 곳에서, 좀 더 늦은 시각에, 포르 앙페르와 포르 수와프를 가르는 모래톱의 부티크를 정리하던 한 대하(大蝦) 줍는 사람은 부 코르네이유와 물레트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배 한 척을 보았을 때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는 것으로 보아 유능한 조종사이거나 매우 급히 어딘가를 가야만 하는 것이 분명했다.

카텔에서 여덟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을 때, 코보 만의 선술집 주인은 쉬잔과 레 그륀 드 뢰스트에서 매우 가까운 부 뒤 자르뎅과 레 그뤼네트의 앞에서 돛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코보 베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종 만 우메의 외딴 갑에서는, 두 연인이 헤어지려다 말고 다시 끌어안고 있는 참이었다. 처녀가 청년에게 "함께 있기 싫어서 가려는 게 아니고 할 일이 있어서야"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들은 그들의 곁을 매우 가까이 지나서 메셀레트 쪽으로 가는 꽤 큰 배 때문에 작별의 키스를 할 수 없었다.

코티용 피페에 사는 무슈 르 페르 데 노르지오는 밤 아홉시 경 그의 농가인 라 젠느로트0000000ㅓ209

의 생울타리에 도둑들이 뚫어 놓은 구멍을 살펴보느라 여념이 없었다. 손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는 이런 밤 시간에 경솔하게 크로크 푸엥을 돌아 나가는 배에 정신이 팔리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느 폭풍우가 친 다음 날부터 바다에 아직도 남아 있는 동요 때문에 그 배가 가고 있는 여정은 안전하다고 볼 수 없었다. 그 항로를 훤히 꿰뚫고 있지 않는 한 선택은 경솔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아홉시 반에, 에크리에에서, 트롤망 그물을 거두던 한 어부는 콜롱벨과 수플르레스 사이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느라 한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있었는데 그것은 배임에 틀림없었다. 그 배는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었다. 그곳에는 매우 위험한 돌풍이 빈번히 몰아쳤다. 수플르레스[239]는 지나가는 배에 갑자기 입김을 불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달이 떠오르려는 참에, 조수가 완전히 들어와 바다가 리 우의 해협에서 정지되어 있었을 때 그 섬을 지키던 외로운 경비병은 질겁했다. 달과 그의 사이로 기다란 검은 형체가 지나가는 것을 본 것이었다. 길고 가는 이 검은 형체는 서서 걸어가는 수의(壽衣)와 비슷했다. 그것은 암초가 이루고 있는 여러 종류의 벽 위를 천천히 미끄러져 지나가고 있었다. 리 우의 경비병은 담므 누와르를 보았다고 생각했다.

담므 블랑슈는 토 드 페 다몽에 살고, 담므 그리즈는 토 드 페 다발에 살고, 담므 루쥬는 시외즈 오 노르 뒤 방크 마르키에에 살고, 담므 누와르는 리 우메의 서쪽, 그랑 에타크레에 산다. 달 밝은 밤이면 이 부인들은 외출을 하는데 가끔 서로 만나기도 한다.

자세히 보면 그 검은 형체는 돛이었다. 그 형체가 걷는 것처럼 보이게

---

239) '수플레' 는 불어로 '입김을 불다' 라는 뜻임

하는 암초의 긴 둑은 실제로는 그 뒤를 지나가는 배의 선체를 가렸으며 그래서 돛만 보이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비병은 이 시간에 감히 어떤 배가 리 우와 페슈레스와 앙귀예르와 레레 푸엥 사이를 얼씬거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대체 무슨 이유란 말인가? 그것이 담므 누와르였다는 것이 차라리 더 설득력 있어 보였던 것이다.

달이 생 피에르 부와의 종탑을 막 지났을 때, 로캔느 성의 세르장은 성문 도개교(跳開橋)의 사다리를 반쯤 들어올리면서, 오트 카네보다는 조금 멀고 상빌보다는 조금 가까운 만의 어귀에서 북에서 남으로 가는 듯한 돛단 배 한 척을 보았다.

게른제의 남쪽 해안에는, 플랭몽의 뒤쪽으로, 바닷물에 수직으로 잘린, 온통 낭떠러지와 암벽뿐인 작은 만 안으로, 특이한 항구가 하나 있다. 1855년부터 이 섬에 살게 된 한 프랑스인은 (아마도 그 자신이 그 이름을 새겨놓았을 법 한) 이 항구에 지금까지 통용되는 '오층 항구' 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 당시에는 무와라는 이름의 이 항구는 반은 자연적이고 반은 인공적인 바위 고원으로서 해발 약 사십 피트 높이이며 사면에 평행으로 놓은 두텁고 튼튼한 두 개의 널판에 의해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 여러 개의 사슬과 도르래가 달린 기구의 힘으로 들어 올려져 바다로부터 올라온 배들은 마치 레일 같은 이 널판을 따라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 사람들을 위한 계단도 있다. 그 당시 이 항구는 밀수업자들이 자주 이용하던 곳이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으므로 그들에게는 편했던 것이다.

11시 경, 아마도 클뤼뱅을 도와 주기로 되어 있었던 자들로 보이는 범법자들이 짐을 들고 이 무와 고원의 정상에 있었다. 범법자들은 숨어서 기회를 보는 법이다. 그들도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플랭몽 갑의 검은 실루엣의 앞으로 느닷없이 튀어나온 돛을 보고 질겁했다. 주위는 달빛으로 환했다. 이 밀수업자들은 그랑 아누와 뒤를 기습 순찰하러 온

해안 경비병이 아닐까 불안해하며 그 돛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돛은 레이누와를 지나 부 블롱델을 북서쪽에 남겨두고 수평선 가까이 안개의 창백한 찰필화(擦筆畵) 속에서 난바다로 빠져 들어갔다.

"악마가 저 배를 어디로 인도할까?" 밀수업자들이 말했다.

같은 날 저녁, 해가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가 뷔드라뤼의 누옥 문을 두드렸다. 갈색 옷에 노란 양말을 신은 소년이었는데 그 옷차림은 그가 소교구의 어린 서기라는 것을 의미했다. 뷔드라뤼는 문이나 덧창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닫혀 있었다. 손에 등불을 들고 바닷가를 돌아다니던 늙은 해산물 채취자가 소리쳐 소년을 불렀고 뷔드라뤼 앞에서 해산물 채취자와 소년 서기 사이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갔다.

"무슨 일이오, 젊은이?"

"여기 사는 사람 말이에요."

"거긴 아무도 없다오."

"그럼 어디 있죠?"

"모른다오."

"내일은 오나요?"

"모른다오."

"어디 갔나요?"

"모른다오."

"부인도 새로 오신 사제를 아시죠? 그 에브느제르 코드래 신부님께서 여기 사는 사람을 만나신대요."

"모른다오."

"내일 아침 뷔드라뤼의 주인이 집에 있을지 물어보라고 신부님께서 저를 보내셨어요."

"모른다오."

〈3〉

성서를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날, 이십 사 시간을 메스 르티에리는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데뤼셰트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그때까지 아무 소식도 없는 클뤼뱅에 대해 묻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탕그루이를 풀어주게 했다.

그 다음날 내내 그는 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나지막하게 대답하며 뒤랑드의 사무실 테이블에 반쯤 기대고 머물러 있었다. 사람들의 호기심은 이미 만족되었으므로 레 브라베에는 고독이 감돌고 있었다. 동정하는 호의 속에는 사태를 알아보겠다는 욕구가 다분하다. 문은 다시 닫혔다. 르티에리와 데뤼셰트, 둘뿐이었다. 르티에리의 두 눈에 지나갔던 빛이 사그라졌다.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의 침통하던 시선이 다시 나타났다.

불안해하던 데뤼셰트는 그라스와 두스의 조언에 따라, 아무 말 없이, 끔찍한 소식이 찾아왔을 때 그가 뜨고 있던 양말 한 켤레를 그의 곁에 놓아두었다.

그는 비통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멍청이라고 생각하지."

십 오분 정도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덧붙였다.

"이것도 기분 좋을 때나 하는 일이구나."

데뤼셰트는 양말 한 켤레를 치우고 메스 르티에리가 뚫어져라 보고 있던 나침반과 선박서류도 치웠다.

오후에, 차 마시는 시간이 조금 못되어, 문이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했으며 한 명은 젊은이였다.

젊은이는 이미 우리의 이야기 중에 출현했던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 모두 위엄 있는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종류가 다른 위엄이었다. 나이든 사람은 지위에서 나오는 위엄이라 부를만한 것을 지니고 있었으며 젊은이는 본성에서 우러나는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의복이 전자를 만들어낸다면 사상은 후자를 만들어낸다.

옷차림이 그것을 말해 주듯이 그 둘은 모두 영국 국교회에 속한 성직자들이었다.

대면하는 사람의 인상에 우선적으로 남을만한, 젊은이에게서 풍기는 위엄은 그 시선의 그윽함 속에 있었으며 확실히 정신세계로부터 기인하는 것이지 용모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위엄은 정열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것을 정화하면서 드높인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무엇보다 미남이었다. 신부이므로 적어도 스물다섯 살은 되었을 테지만 열여덟 살 정도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를 보면서 조화는 물론 대조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정신은 정열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육체는 사랑을 위하여 만들어진 듯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금발에 발그레한 피부였으며, 생기 넘치고 호리호리하고, 검소한 옷차림이 매우 잘 어울렸고 소녀의 뺨과 섬세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비록 절제된 것이기는 했으나 발랄하고 자연스러운 거동을 했다. 그의 모든 것은 매력적이고 우아하고 거의 관능적이었다. 그 시선의 아름다움은 지나친 우아함을 완화시켰다. 어린아이처럼 치아를 드러내고 웃는 그 본심에서 우러나는 미소는 사색적이고도 경건했다. 그것은 시동의 친절함이요 주교의 존엄이었다.

너무나 금빛이 강해서 유혹하는 것 같은 숱이 많은 금발의 머리털 속으로 순진하고 반듯한 두개골이 솟아 있었다. 두 눈썹 사이에 두 번의 굴곡

이 있는 가벼운 주름은 날개를 펴고 그 이마를 날아다니는 사색의 새와 같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불러 일으켰다.

속된 인간과는 반대의 의미로 발전하는 친절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그를 보면서, 사람들은 꿈은 현인을 만들고 경험은 정열가를 만든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투명한 젊음은 내적인 성숙을 보이게 했다. 그와 함께 온 머리가 희끗희끗한 성직자와 비교해보면 아들과 아버지 같았다.

후자는 다름 아닌 쟈크맹 에로드 박사였다. 쟈크맹 에로드 박사는, 교황은 없지만 교황주의와 가까운 고(高) 교회파[240]에 속해 있었다. 영국 국교회는 그 시대부터 퓨지주의임을 자인하고 퓨지주의로 요약될 수 있는 경향의 영향을 받았다. 쟈크맹 에로드 박사는 이런 점에서 로마 교회의 일종인 영국 국교회에 속했다. 그는 키가 크고 예의 바르며 엄격하고 당당한 사람이었다. 그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빛은 겉으로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재치 있게 문자를 쓸 줄 알았다. 뿐만 아니라 거만했다. 그의 태도는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신부라기보다 교황청의 고위 성직자 같은 표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프록코트는 성직자의 수단처럼 재단되었다. 그가 진정으로 속한 사회는 로마였을 것이다. 그는 고위 성직자의 방에서 태어났다. 자줏빛 법의를 입고 교황의 법정과 함께 교황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황의 평교자(平轎子) 뒤에서 걸어가기 위해서 일부러 창조된 것 같았다. 영국인으로 태어난 우연과 신약보다는 구약에 더 치우친 신학 교육이 그로 하여금 이 큰 운명에는 이르지 못하게 했다. 그의 영광은 이렇게 요약되었다. 생 피에르 포르 소교구의 사제이자 게른제 섬의 주임사제요 윈체스터 주교의 대리인이었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

---

240) 영국 교회내의 일파, 교회의 권위, 의식(儀式), 성찬 등을 중시

없이 영예에 속했다.

이러한 영예는 결국 무슈 쟈크맹 에로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다.

신학자로서 그는 전문가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영국의 소르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슈 법정에서는 거의 권위자였다.

그는 현학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유능해 보이고 과장된 눈의 깜빡거림, 털이 덮인 콧구멍, 겉으로 잘 보이는 치아, 얄팍한 윗입술, 도톰한 아랫입술, 여러 개의 학위, 두둑한 성직록(祿), 높은 신분의 우인들, 주교의 신임, 언제나 주머니 속에는 성서.

메스 르티에리는 너무나도 완전히 골몰해 있었으므로 두 사제가 들어왔을 때 그가 한 모든 것이라고는 고작 눈썹을 약간 찌푸리는 일이었다.

무슈 쟈크맹 에로드는 다가가 인사하고 이번에 자신이 영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간결하게 품위 있는 몇 마디 말로 환기시키고, 관례에 따라 명사들에게 (특별히 메스 르티에리에게) 자신의 소교구를 맡을 후임자인 새로 부임한 생 상송 교구사제, 이제부터 메스 르티에리의 종교적 지도자가 될 조에 에브느제르 코드레 신부를 소개하러 왔노라고 했다.

데뤼셰트가 일어섰다.

젊은 사제, 에브느제르 신부가 몸을 굽혔다.

메스 르티에리는 무슈 에브느제르 코드레를 쳐다보고 "좋은 선원은 못 되겠군"이라고 중얼거렸다.

그라스가 의자를 내놓았다. 두 신부는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에로드 박사는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뒤랑드가 난파를 당했다는 불행한 사건을 전해 들었다. 종교적 지도자로서 위로의 말과 조언을 가지고 왔다. 이 난파는 불행이지만 행복이기도 하다. 우리의 내부를 살펴보자. 경제적인 융성으로 부풀어 있지 않은가? 큰 행복의 물은 위험하다. 불행

을 곧이곧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이 예비한 길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메스 르티에리는 도산했다. 그것이 뭐 어떻다는 것인가? 부유하다는 것은 위험에 처해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가짜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가난은 그들을 떠나가게 해 준다. 혼자 남게 해 준다. 솔루스 에리스.[241]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뒤랑드는 일년에 천 파운드를 벌어들였다. 현자에게는 너무 많은 돈이다. 유혹을 피하자, 금전을 비웃어주자. 파산과 버림을 감사하며 받아들이자. 고립은 열매로 가득 차있다. 우리는 고립됨으로써 하느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아야가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들을 몰고 가다가 온천을 발견한 것은 고독 속에서였다.[242]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뜻에 저항하지 말자. 성스러운 사람 욥은 곤궁의 다음에는 부가 있을 것이라 믿었다. 비록 덧없는 것일지라도 뒤랑드를 잃은 것을 보상받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쟈크맹 에로드 박사 그 자신도 셰필드에서 실행중인 매우 유망한 일에 투자했다. 만약 메스 르티에리가 남은 자본으로 그 일을 시작하기 원한다면 그것으로 재산을 늘릴 수 있다. 폴란드 혁명을 진압중인 짜르에게 무기를 보급하는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삼백 퍼센트의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짜르라는 말이 르티에리의 정신을 들게 한 듯했다. 그는 에로드 박사의 이야기 도중에 끼어들었다.

"짜르가 무슨 상관이죠?"

에로드 신부가 대답했다.

"메스 르티에리, 하느님은 왕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은 말씀하셨지요. '세자르의 것은 세자르에게 주어라' 라고 말입니다. 짜르는 세자르

---

241) solus eris, 오비드의 시에 나오는 암시, '홀로 있게 되리라' 의 뜻

242) 창세기 36; 24, 그러나 신부의 말과는 달리 온천을 발견한 것은 시브온의 다른 아들 아나이다

입니다."

자신의 공상 속으로 반쯤 되돌아간 르티에리가 중얼거렸다.

"세자르가 도대체 누구지? 난 모르겠는데."

쟈크맹 에로드 신부는 짤막한 설교를 계속했다. 그는 셰필드에 관한 말을 계속하지 않았다. 세자르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공화주의자이다. 신부는 공화주의자를 이해했다. 그렇다면 메스 르티에리는 공화국에서 사는 것이 낫다. 메스 르티에리는 영국에서보다 미국에서 그의 재산을 만회할 수 있다. 그에게 남은 재산을 크게 증대시키고 싶다면, 이만 명이 넘는 흑인을 고용하고 있는 텍사스의 농장을 경영하는 큰 회사에 합류하기만 하면 된다.

"노예제는 싫습니다." 르티에리가 말했다.

"노예제는," 에로드 신부가 반격했다. "성스러운 제도랍니다. 성서에도 '주인이 그의 노예를 때린다해도 그는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노예는 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라고 씌어 있지요."

그라스와 두스는 문간에서 넋을 잃고 교구사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신부는 계속했다. 메스 르티에리와는 신분과 인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어쨌든 좋은 사람이었다. 그는 진심으로 영적인 도움과 또 쟈크맹 에로드 박사로서 그가 줄 수 있는 세속적인 도움까지 가지고 왔던 것이다.

만일 메스 르티에리가 적은 자금을 변통할 수 없을 정도까지 파산했다면 러시아인이건 미국인이건 경영하는 일이나 봉급을 받는 일이나 무엇을 마다하겠는가? 그것은 모두 높은 자리이고 신부는 메스 르티에리를 그 자리에 추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제르세에는 정확히 자작 보좌관의 사무실이 비어 있다. 메스 르티에리는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으므로 게른제의

주임사제이자 주교의 대리인인 에로드 신부는 메스 르티에리를 위하여 제르세 자작 보좌관의 직책을 얻어줄 수 있다고 자부했다. 자작 보좌관은 상당한 공무원이며, 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주요 재판의 개정에, 군중의 토론에, 사형집행에 입회한다.

르티에리는 에로드 박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교수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때까지 같은 어조로 이야기하던 에로드 박사는 엄격함이 폭발한 듯한 다른 억양으로 말했다.

"메스 르티에리, 사형제도는 신성하게 명령된 것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검을 맡기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셨어요."

에브느제르 신부는 쟈크맹 신부의 의자 쪽으로 조금씩 다가가서 그에게만 들리도록 말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강요당한 것입니다."

"누구요? 무엇이 말이오?" 쟈크맹 에로드 신부는 같은 톤으로 물었다.

에브느제르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양심이지요."

에로드 신부는 주머니 속에서 잠금쇠가 달린 두꺼운 18절형 장정 본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놓고 큰 소리로 읽었다.

"이것이 당신의 양심입니다."

그 책은 성서였다.

이제 에로드 박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그가 바라는 것은 자신이 매우 존경하는 메스 르티에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는 영적 보호자로서 조언을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러나 메스 르티에리는 자유의 몸이다.

다시금 자신의 생각에 열중하며 의기소침해진 메스 르티에리는 아무

것도 듣지 않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아 골몰해 있는 데뤼세트도 눈을 내리깔고, 활기 없는 이 대화에 말없이 있는 사람이 주는 거북함까지 보태고 있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증인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무게 같은 것이다. 게다가 에로드 박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르티에리가 더 이상 대답이 없었기에 에로드 박사는 마음껏 이야기를 했다. 조언은 인간에게서 오고 영감은 하느님에게서 온다. 사제의 조언 속에는 영감이 있다. 조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롭지 그것을 물리치면 위험하다. 소코트는 나타나엘의 권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열 한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티부리아누스은 사도 안드레를 그의 집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사도행전의 바예수는 그가 마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웃었기 때문에 장님이 되었다. 초대교회의 이교도 엘케사이와 그의 누이 마리타와 마르티나는 키가 삼십 팔리외나 되는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가 악마라는 것을 그들에게 대낮처럼 확실하게 밝혀준 발렌시아누스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 있다. 유딧이라고도 부르는 오홀리바마는 조언에 복종했다. 야곱의 장남 르우벤은 하늘의 충고에 따랐으며 브니엘 역시 그랬다. 그들의 이름만 봐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뤼벤은 *계시를 받은 아들*을 의미하고 브니엘은 *하느님의 얼굴*을 의미한다.

메스 르티에리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암!" 그는 소리쳤다. "내 잘못이고말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슈 쟈크맹 에로드가 물었다.

"내 잘못이라고 했소."

"잘못이라니, 무엇이 말입니까?"

"내가 뒤랑드를 금요일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무슈 쟈크맹 에로드는 무슈 에브느제르 코드래의 귀에 대고 "이 사람

은 미신을 믿는군요." 라고 속삭였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가르치는 듯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메스 르티에리, 금요일의 미신을 믿는 것은 어린애 같은 일입니다. 전설에 믿음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금요일도 그저 다른 날과 같은 날입니다. 금요일에 행복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멜랑데즈는 생토귀스탱 시(市)를 금요일에 만들었습니다. 앙리 7세가 존 카보트에게 명령을 내린 것도 금요일입니다. *메이플라워*의 순례자들도 금요일에 프로빈스 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은 1732년 2월 22일 금요일에 태어났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 10월 12일 금요일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일어섰다.

그와 함께 온 에브느제르도 일어섰다.

그라스와 두스는 신부들이 인사하려는 것을 보고, 문을 활짝 열었다.

메스 르티에리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않고 있었다.

쟈크맹 에로드는 은밀하게 무슈 에브느제르 코드래에게 말했다. "인사조차 하지 않는군요. 저것은 슬픔이 아니에요. 완전히 지력을 잃은 상태지요. 정신이 나갔다고 봐야 겠군요."

그동안 그는 테이블 위의 성서를 집어서 마치 새를 들고 날아 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호리호리한 두 손 사이에 들었다. 이러한 행동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를 하게 했다. 그라스와 두스가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목소리는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메스 르티에리, 성서 한 장도 읽지 않고서 헤어지지는 맙시다. 인생을 살면서 처하게 되는 여러 상황은 책에 의해 분명해집니다. 불경한 사람들은 비르길리우스와 같은 운명을 갖습니다. 신자들은 성서의 충고를 받아

들입니다. 손에 잡힌 책의 어디를 펴도 조언이 있습니다. 성서는 어디를 펴도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애통하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확실히 성서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들의 고통을 덜어줍니다. 애통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어느 부분이건 성서를 뒤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주치는 행을 순수하게 읽어야 합니다. 인간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하느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느님의 손가락이 우리가 우연히 읽는 구절에 있습니다. 어떤 페이지가 되었건 간에 반드시 그 속에서 빛이 나옵니다. 다른 것은 찾지 맙시다. 그리고 그 정도로 해둡시다. 그것은 하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확신과 경건한 마음으로 상기된 텍스트 속에서 신비롭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따르십시오. 메스 르티에리, 당신은 고통 속에 있고 이것은 위로의 책입니다. 당신은 병중에 있고 이것은 건강한 책입니다."

쟈크맹 에로드 신부는 잠금쇠를 풀어, 되는 대로 책 속으로 손가락을 미끄러뜨려 집어넣고, 펼쳐진 책 위에 잠시 손을 올려놓았다. 잠시 묵상하고 난 그는 위엄 있게 두 눈을 내리 깔고서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그가 읽은 구절이 여기 있다.

'이삭은 우물로 이르는 길에서 거닐고 있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산 자와 보는 자의 우물이었다.

이삭을 본 리브가가 말했다. "나를 마중하러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그때 이삭이 리브가를 그의 천막으로 데리고 가서 아내로 맞이했다. 그리고 그녀를 사랑했다.' [243)]

에브느제르와 데뤼셰트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

243) 창세기 24:62-67